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00.txt

제목: 가수 유채영 사망ㆍ김현주 임종 지켜봐  
날짜: 20140724  
기자: 이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24100000017  
본문: 가수 유채영(본명 김수진)이 24일 오전 8시 세상을 떠났다. 향년 41세. 유채영 소속사 150엔터테인먼트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중이던 유채영이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발표했다.<br/> 유채영은 혼성그룹 쿨에서 활동하며 가요계에 등장했고, 영화 색즉시공) 등에 출연하면서 배우로 변신했다. 유채영은 지난해 90년대 활동했던 가수들과 합동 공연(리바이벌 1990’s 나이트 콘서트)을 준비했다. 그러나 속이 메슥거려 병원을 방문했는데 검진 결과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유채영은 곧바로 수술을 받았으나 암이 위 밖으로 퍼진 상태였다. <br/> 항암치료를 받던 유채영은 올해까지 MBC 라디오 좋은주말 김경식,유채영입니다를 진행했다. 그러나 항암 치료로 기력이 쇠한 탓에 지난달부터 라디오 진행을 중단했고 결국 병상에 누울 수밖에 없었다. 사경을 헤맨 유채영은 유언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배우 김현주와 방송인 박미선 송은이는 병실에서 유채영의 마지막을 지켜봤다. <br/> 유채영 측근은 “유채영씨가 눈을 한 번씩 뜨고서 가족, 김현주씨와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면서 “가족의 애끓는 심정에도 항암 치료로 체력이 너무 약해져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위암 투병 끝에 생을 마감한 그녀의 밝았던 모습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r/> 위암은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암으로 꼽힌다. 세브란스 병원이 1987~2007년 환자 1만명을 분석한 결과 위암 환자 5년 생존율은 73%였다. 1기 환자 생존율은 95.3%였으나 4기 환자 생존율은 12.4%에 불과했다. 위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시경을 통한 건강검진이다. 이런 까닭에 의사협회는 40세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한다. <br/> 이상준기자 jun@hksp.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01.txt

제목: 내시경 못 가는 곳, 캡슐내시경으로  
날짜: 20140723  
기자: 김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23100000065  
본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캡슐 내시경, 심근생검 등을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4대 중증질환 관련 5개 항목 급여 적용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검사비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된 캡슐 내시경이 관심 대상이다. <br/>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시경은 한 개의 긴 관 형태로 몸 속의 장기를 직접 볼 수 있게 맨 앞 부분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 의사는 내시경을 환자 몸 속으로 넣어 카메라가 보내 주는 화면을 통해 내부 장기를 관찰한다.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위, 대장 내시경은 암이 의심되는 용종을 바로 떼어낼 수 있다. 최근엔 비교적 초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을 통해 시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의 길이와 움직임이 한정되어 있어 소장과 같이 길고 복잡한 구조의 장기 검사에는 한계가 있다.<br/> 반면, 캡슐 내시경은 관 형태의 일반 내시경이 들어가기 힘든 소장 등을 관찰할 수 있어 원인 모를 복통, 설사, 출혈 및 빈혈의 원인을 찾는데 쓰이고 있으며 크론병, 소장종양 진단에도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장에서 나타날 질환의 경우 65~70% 이상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일반적인 위나 대장 검사에는 적합하지 않다. <br/> 캡슐 내시경은 비타민 알약처럼 작은 크기의 진단 장치로 환자가 캡슐 내시경을 삼키면 장치가 몸 속 소화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된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환자가 허리에 차고 있는 기록 장치로 전송되어 저장되고 의사는 저장된 영상을 바탕으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게 된다. <br/> 정혜경 이대목동병원 위ㆍ대장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일반 내시경은 환자의 장기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처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암이나 대장암,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진단에 용이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캡슐 내시경은 일반 내시경으로 관찰이 힘든 소장의 출혈 등을 관찰하는 데 용이하나 일반적인 위나 대장 검사에는 큰 효과가 없다</span>”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br/> 캡슐 내시경 검사도 일반 내시경 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 10시간 전부터는 금식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장내시경과 마찬가지로 장 청결액을 복용하기도 한다. 심박동기, 제세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장 폐색, 장 협착이 의심스러운 경우 그리고 임산부는 캡슐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없다. <br/> 환자가 캡슐을 삼킨 후 검사가 진행되는 8시간 동안 걷기나 눕는 등 일상적인 행동은 가능하나, 격렬한 운동이나 힘든 일은 삼가야 한다. 또한 4시간이 경과되면 가벼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캡슐은 일회용으로 장운동에 의해 이동하기 때문에 항문으로 배출되는 동안 고통이나 불편감은 크게 없다. <br/> 김성환기자 spam001@hksp.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02.txt

제목: 셀프케어 돕는 사용자 친화적 항암 다이어리  
날짜: 2014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21100000039  
본문: ^라이프시맨틱스(대표이사 권희)가 개발한 암 생존자용 항암다이어리 ‘우리함께’가 한국일보가 주관하는 ‘제9회 디지털이노베이션 대상’에서 생물ㆍ바이오기술 분야 대상에 선정됐다.<br/> ^‘우리함께’는 암생존자들이 자신의 진료기록과 항암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과 각종 증상을 쉽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또 암생존자가 자신의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제공해준다. <br/> ^‘우리함께’ 서비스는 암생존자의 항암일지 작성이 치료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행위 자체로도 환자의 셀프케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또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도입했다. 암생존자들이 투병기간 중에 겪는 외로움과 의료진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암환자가 병원과 의료진을 선택해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br/> ^이 서비스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평가와 중소기업청의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것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모델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03.txt

제목: 갑상선암 증상 없을 땐 검진 일상적 권고 안 한다  
날짜: 20140721  
기자: 송옥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21100000185  
본문: 복지부 국립암센터 토론회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br/>"검진 권고 반대할 근거 불충분" 일부선 "증상 나타나면 너무 늦어"<br/><br/> 국립암센터가 최근 과잉진료 논란이 일었던 갑상선암에 대해 증상이 없으면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는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제정위원회는 갑상선암 검진을 원할 경우 검진을 받았을 때의 효과와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검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 초안을 1~2주 내에 관련 전문가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br/>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21일 공동 주최한 ‘갑상선암 검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제정위원회 실무위원인 김수영 한림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검진을 통해 갑상선암의 사망률이 낮아지는 지를 밝힌 연구는 아직 없고, 검진의 위해성을 제대로 밝혀낸 논문도 부족해 갑상선암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갑상선암 검사를 권고하거나 반대할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span>”이라고 말했다. <br/> 정부가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진행하는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처럼 특정 연령이 되면 반드시 검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검진을 원하면 부작용 등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전제 하에 검진을 할 수 있다는 요지다.<br/> 김열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과 부장은 “<span class='quot2'>최종안은 아니지만 현재 준비 중인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은 수검자가 갑상선암 검진을 원한다면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방향</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성인에게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 검사는 일상적으로 권고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담길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갑상선암 발생 현황 및 검진관련 예후’에 따르면 갑상선암 환자 5,801명 중 관련 증상으로 진료를 받다가 갑상선암을 발견한 경우는 1999년 78.6%에서 2008년 28.1%로 급감했다. 반면 갑상선암 검진 도중 발견한 경우는 1999년 13%에서 2008년 56.7%로 급증했다. 이들은 갑상선암에서도 예후가 좋은 암인 유두암이 97.2%였고 종양도 크기가 1㎝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갑상선암 환자의 대부분이 검진도, 수술도 필요 없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한다.<br/> 반면 갑상선암 중 일부는 빨리 자라거나 예후가 좋지 않아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치료하기에 시기가 너무 늦다고 반박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호철 전남대 의대 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3'>크기가 작은 갑상선암도 이후 공격적인 양상을 보일 것인지, 진행을 하지 않고 잠재적 암으로 머무를 것인지 구분할 적절한 방법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3'>미국과 일본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갑상선 미세 유두암이라도 진단 당시 전이된 경우도 많다</span>”고 지적했다.<br/> 송옥진기자 click@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04.txt

제목: 유전체 분석 통한 미래형 맞춤의학 추구  
날짜: 2014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21100000026  
본문: ^㈜이원다이애그노믹스게놈센터(대표 이철옥, 이민섭ㆍwww.eonediagnomics.com)는 이원의료재단 이원생명과학연구원과 유전체 맞춤의학 전문기업인 미국 다이애그노믹스사가 함께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한 한미합작회사이다.<br/> ^이원다이애그노믹스게놈센터는 차세대 염기서열(NGSㆍNext Generation Sequencing)과 바이오인포매틱스를 바탕으로 한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NIPT(비침습산전진단), 병원내 감염균, 항생제 내성균 검출 등 다양한 차세대 진단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br/> ^이 회사는 디지털 유전체 지문기술을 이용한 비침습 태아 진단을 시작으로 장기이식 면역 거부반응 예측 및 암환자의 예후, 미생물의 감염까지도 정밀한 유전체 분석을 통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또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한 다양한 미래형 맞춤의학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br/> ^이 회사는 세계 최고의 유전체 회사인 미국 일루미나사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기업들과 업무 협력을 맺어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슈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를 NGS로 예방ㆍ감시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 준비 중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05.txt

제목: [기고]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니다  
날짜: 2014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21100000193  
본문: 세월호 여객선 참사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교훈을 던져 주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안전 불감증에 대한 폐단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br/>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하인리히 법칙’이 주목받고 있다.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이다. 큰 사고(1)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29)와 징후(300)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br/>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우려도 하인리히 법칙의 예외는 아닐 듯싶다. 의약품은 ‘양날의 칼’로 비유되듯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효능과 함께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br/> 일반 공산품은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리콜이 가능하지만 이미 복용해버린 의약품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약화사고는 한 번의 복용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긴 시간 인체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렇듯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약화사고와 안전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br/> 문제는 국민건강 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까지 ‘규제’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다. 규제는 도려내어야 할 ‘암덩어리’라는 대통령 발언이후 정부 부처별로 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하고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br/> 규제개혁 과제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와 품목 확대까지 포함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리니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에 대한 구분 없이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다. <br/>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휴일에 약사의 복약상담보다 환자의 구매 시급성이 더 필요하다는 고려하에 예외적, 한정적으로 24시간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것으로서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 등 13품목이 지정되어 있다.<br/>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따른 편의성 향상이라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br/>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전후 의약품 사용 및 인식변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국민 설문조사 결과 제도 정착을 위해 보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39.9%)를 우선으로 꼽고 있다.<br/> 정부가 규제 완화차원에서 검토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확대와 품목수 확대는 하위권인 4위(11.4%)와 5위(7.7%)에 그치고 있다.<br/> 또한 2013년 7월 서울시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현황조사 결과 주성분 과다 함유로 4월 23일자로 판매 중지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이 즉각 회수되지 못한 편의점이 2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br/>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오히려 안전상비의약품 안전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상황인 것이다.<br/>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앞서 규제의 옥석(玉石)을 가리고, 양면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사회 안전망처럼 ‘좋은 규제’는 규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비정상적인 적폐(積弊)처럼 ‘나쁜 규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br/>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 안전에 관한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사회를 지키는 안전벨트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와 품목 확대 검토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규제 완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br/><br/>이영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06.txt

제목: 집은 날리고 남은 건 빚 뿐인 아파트  
날짜: 20140720  
기자: 서화숙선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20100000101  
본문: 452채의 아파트가 작년 가을에 완공됐다. 분양도 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아파트 전체가어둑어둑하다. 불이 들어오는 창이 별로 없다. 175세대만 입주를 했기 때문이다.<br/> 서울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 지난 주 기사(7월 14일자 28면 보도)에서 파산 위기에 있다고 난 바로 그 아파트 단지이다.<br/> 이 아파트 단지도 고만고만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주택조합으로 건설됐다. 그런데 조합원 238 가구 가운데 입주한 집은 65가구 뿐이다. 그나마 처음부터 조합에 참여했던 이들 가운데 들어간 집은 45가구. 122가구는 조합이 마구 팔아 넘긴 ‘물딱지’(자격 없는 이들에게 발행한 분양권)여서 정리가 됐고 20가구는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자격을 얻은 이들이다. 조합원으로 시작했으면서도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자식들의 집에 얹혀 살거나 주변에서 방을 얻어 살고 있다.<br/> “33평 땅만 내놓으면 33평형 아파트 한 채를 준다기에 시작했어요. 우리 집이 35평짜리 단독주택이니까 남는 2평은 땅값을 쳐준대요. 2008년인가? 남편 통장으로 1,000만원이 입금됐어요. 평당 500만원이예요. 당시 땅값이 평당 1,200만원인가 그랬다는데 우리가 뭐 아나요? 그래도 새 아파트가 그걸로 생긴다니까 믿었지요. 그런데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고 2009년에 분담금을 5,500만원씩 더 내래요. 이상하다 했는데 남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에 분담금을 2억8,700만원을 내라는 거예요. 기가 막혔지요. 그래서 조합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했냐고 주민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황당한 일 투성이예요. 그래서 조합 집행부도 바꿨어요. 그러면 뭐해요. 전에 조합이 잘못한 책임을 우리가 똑같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돈을 낼 수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84년에 이곳에 이사왔다는 최연옥(57)씨 부부는 이렇게 해서 아들 넷을 키운 집을 잃었다.<br/> 1968년인가, 69년인가 이사온 해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최세완(74)씨는 40평 남짓한 단독주택에 대추나무 감나무를 심고 삼남매를 키웠다. 길 가 집이고 상점도 있어서 최연옥씨보다는 가격을 높이 받았다. “6평 조금 넘는 땅값으로 평당 1.000만원씩 받고 상가권리금 3,000만원은 따로 받았어요. 그럼 뭐해요. 아파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반지하 전세에서 살고 있어요. 아파트만 안 했으면 지금쯤 상점 세(임대료) 받으면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전 조합장이 그랬어요. 나만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주면 다 해준다고, 도장 좀 찍어달라고. 그 말을 믿었던 게 더 화가 나요.” 최씨는 꼭 이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암이 발병해 수술만 세 차례를 받았다고 했다.<br/> 이수 리가 아파트의 과거와 현재에는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의 모든 부조리가 녹아있다.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주택조합 설립에 도장을 찍어준 게 시작이다. 아파트가 건설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한 이기심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책임만 추궁하기에는 그들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이 너무 가혹하다. 조합의 부패, ‘컨설팅사’로 불리는 아파트 건설 사전정지 업체의 부패, 그들의 자금줄이 되어주는 대형건설사의 무책임, 금융업계의 부도덕이 어우러져서 시민들의 주거지를 약탈하는데도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는커녕 업자들의 편의대로 움직였다. 주민들은 자기 땅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컨설팅사와 조합의 감언이설이 아닌 진짜 전문가들의 자문은 단 한 군데서도 받을 수 없었다.<br/> 6,600여평인 이곳을 아파트 단지로 만들려는 시도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2000년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지금은 퇴진한 전 조합장(김인창)이 형까지 선고 받은 이전 주택조합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 주택조합이 결성되었다. 7개 건설사가 시행사로 나섰다가 포기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7년 7월에 현재의 시공사인 LIG건영으로 확정이 됐다. 2008년 11월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인가가 났다.<br/>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조합과 달리 서울에 거주하면서 집은 없는 이들에게 조합 자격을준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제공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집이 있으면서도 이곳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을 하게 된 배경은 집들이 너무 깨끗해서 재건축 지역으로는 선정될 수 없었기 때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땅을 마련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강제할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는 대신 용적률이 좀 낮았다. 조합원들이 집이 없는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집을 모두 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을 택했다.<br/> 지역주택조합의 용적률이 재건축조합보다는 낮다고는 해도 200% 가까이 됐고 착공에 들어갔을 때에는 224%로 올랐다.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땅값은 시세의 절반 이하였다. 더구나 33평형 아파트의 실평수는 25.7평이니까 주민들로부터 33평의 땅을 받아서 269%의 용적률로 아파트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거꾸로 계산하면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평당 땅값은 그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다는 말. 가령 평당 1,200만원에 땅값을 쳐줬다면 실제로 아파트 건설에 들어간 땅값은 평당 446만원이다. 평당 건설비는 310만원이라 주장했으니 평당 756만원이 아파트를 짓는 데 진짜로 들어간 돈이다. 땅을 시세대로 사들였다고 해도 33평형 아파트를 지은 원가는 2억 4,948만원이다. 그런데도 땅을 무상으로 내준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만 2억8,700만원을 더 내라는 것이 시공사의 주장이다.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용면에서 땅값이 건설비용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더구나 용적률을 감안하면 주민들은 89평의 땅을 제공한 셈이었다.<br/> 그러나 시공사측은 조합이 732억원을 시공사에 빌렸고 시공사 보증으로 빌린 프로젝트파이넌싱(PF) 대출금 900억원까지 받기 전에는 아파트를 내줄 수는 없다고 했다. 조합원들이 아파트로 들어갈 길이 막힌 것은 이 때문이다.<br/> 이에 대해 조합측은 PF 대출을 한 금융업체와 시공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냈으나 올 5월 1심 판결 결과 일부 패소했다. 시공사의 채무는 694억원으로 줄었으나 나머지는 인정하라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다. 결국 694억원과 PF 대출금 900억원, 미지급 공사비에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2,780억원을 갚아야 아파트를 내주겠다는 것이 시공사 입장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해서 갚는다고 해도 1,377억원의 채무는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근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에 아파트가 다 분양된다는 보장도 없다. <br/> 반면 조합은 조합이 정식 인가가 나기도 전인 2008년 4월에 컨설팅회사에게 PF 대출을 900억원이나 해줬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연대보증인인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br/> 주택조합은 외형적으로는 조합원들이 비용을 모아 땅을 사고 건설사를 지정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합은 허수아비거나 이권에 관심많은 개인일 뿐이라 속칭 ‘컨설팅 회사’로 불리는 부동산 기획회사들이 주민들을 접촉하고 설득하고 땅을 사들여서 건설을 주도한다. 이때 진짜 비용을 대는 것은 아파트 단지 건설로 이득을 보는 시공사이다. 2008년 4월에 컨설팅 회사인 피엔씨에이원이 대구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으로부터 900억원을 대출할 수 있었던 것도 LIG건설이 보증을 해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돈이 시공사로 들어갔다가 모회사로 옮겨간 후 그 중 694억원이 다시 대출 형식으로 건설비로 투입되었다고 조합원들은 보고 있다. 그런데도 2009년 4월 시공사와 PF 대출이 별개로 되어있는 컨설팅회사의 부채를 조합이 그대로 떠안는 것으로 정관이 바뀌었다.<br/> 앞서 말했듯이 이 지역에 현재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데 드는 순비용은 1,128억원 정도이다. 여기서 주민들이 땅을 전부 제공했다고 하면 순수건설비는 462억원이 고작이다. 그런데 땅을 내놓고도 1,377억원의 채무를 나눠 갚아야 자기 아파트 한 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현재 조합원들의 처지이다. 조합인가부터 완공까지 5년, 착공부터 완공까지 3년간의 관리비용을 감안해도 과도한 비용추궁이다. 문제를 일으킨 이전 조합은 땅을 팔지 않겠다는 ‘알박기’ 주민들로부터 땅을 사들이는데 들어간 돈이 많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는 없는 상황. 걔중에는 38평을 61억원에 사들였다는 컨설팅 회사의 자료가 있으나 이 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br/> 설사 이처럼 알박기 비용을 무리하게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같은 자금은 땅이나 조합원 외에는 실제로는 아무 것도 갖지 못한 조합에서 나온 돈도 아니고 컨설팅 회사가 자체 조달한 돈도 아니다. 시공사와 대출해준 금융기관에서 나온 돈이다. 그렇다면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조합에만, 주민들에게만 지우는 것이 올바를까.<br/> <br/> 서화숙선임기자 hssuh@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07.txt

제목: 암치료 돕는 게임 등장  
날짜: 20140716  
기자: 김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16100000056  
본문: 암 환자 치료를 돕는 게임이 개발됐다. <br/> 중앙대학교병원 장정순 혈액종양내과 교수와 한덕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 과제를 통해 (주)씨엘 게임즈와 공동으로 암 환자의 항암치료 향상을 위한 기능성 소셜 네트워크 게임 ‘알라부(I Love Breast)’를 개발했다. <br/> 알라부는 암 환자가 자신의 의학적 상태와 같은 온라인 게임 속의 아바타를 설정해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으로, 의사가 준 퀘스트를 잘 수행하면 아바타의 모습이 호전된다. <br/> 암 환자에게 있어 의사가 아무리 최적의 치료방법을 정했더라도 환자가 그 계획에 따라오지 않거나 따라올 수 없으면 최적의 치료가 어렵다. 게임을 통해 치료의 필요성을 환자가 인식하고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안을 습득하게 되면 암 치료의 순응도와 생존률이 높아질 수 있다. <br/> 장정순ㆍ한덕현 교수팀은 알라부 게임을 실제 유방암 항암치료 중인 환자에게 적용해 사전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환자 대부분이 게임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를 느꼈으며 게임을 통해 항암치료제 약 복용에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또 환자들은 암 치료 과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받아 암 치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게임을 다른 환자에게도 권유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br/> 알라부 게임은 항암 치료에 관련된 콘텐츠나 아이템에 설명을 도입했다. 게임 내 구현된 각각의 콘텐츠가 항암 치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해 실 치료 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게임 내 항암 치료 간 자신(캐릭터)의 현재 상태 알리미 콘텐츠를 배치해 이용자가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처방약을 제 시간에 복용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페널티가 건강 수치에 적용돼 환자에게 경각심을 준다. 항암 치료 치료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어 실제 항암 치료의 시뮬레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친구 기능’은 암 환자 친구들에게 메시지나 선물을 보내는 등의 소셜 기능이 가능하다.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끼리 정보교환과 유대감 증진으로 정신적인 안정에 도움을 준다.<br/> 김범규 중앙대병원 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알라부 게임은 암 환자인 유저에게 실제 처방된 항암제, 구토 정도, 건강 수치를 게임 아바타 캐릭터에게 설정이 가능하게 한 점이 특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는 수술 전후에 있을 항암 치료간의 주요 지표들을 백분율로 보기 쉽게 표시하여 의사와 환자가 쉽게 현재 자신의 캐릭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실제 다양한 암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br/> 김성환기자 spam001@hksp.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08.txt

제목: 운동 많이 할수록 자궁내막암 발생 위험 감소  
날짜: 20140716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16100000026  
본문: 이대여성암병원 주웅 교수 연구논문 발표<br/> <br/> 운동량이 많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자궁내막암이 적게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주웅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교수와 에드워드 조바누치 하버드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운동량과 자궁내막암 위험도에 대한 용량-반응 관계 메타 분석'이란 제목의 연구 논문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br/>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그동안 국제 학술지에 개별적으로 발표된 20편의 역학 논문(10편의 환자-대조군 연구 및 10편의 코호트 연구)을 메타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했다.<br/> 그동안 운동이나 가사일 등 신체 활동이 많은 여성들은 자궁내막암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돼 왔지만 운동 강도나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br/> 연구팀은 운동량과 암발생 위험도 감소 사이의 비례 관계를 탐색하고 그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br/> 메타 분석 결과 주당 1시간의 운동 당 자궁내막암 위험도가 5%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 강도를 고려한 MET(시간 분석에서는 주당 3MET)시간의 운동 당 자궁내막암 위험도가 2% 씩 줄어들었다.<br/> 아울러 용량-반응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주당 15시간 운동까지, 50MET-시간 운동까지는 비례 관계가 지속돼 운동을 많이 할수록 암발생 위험도가 더 줄었다.<br/> 주웅 교수는 “<span class='quot0'>신체 활동 증가와 자궁내막암 예방의 관계가 체중 감소를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효과인지, 신체 활동 자체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견해 차이가 있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체중 감소에 의한 예방 효과를 보정한 후 순수한 운동 효과만을 계산한 것이므로 체중 감소에서 오는 추가적인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운동에 따른 자궁내막암 위험 감소 정도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span>”고 덧붙였다.<br/>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암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 2014년 8월호에 실렸다.<br/> 권대익기자 dkwon@hk.co.kr<br/> <br/> ◆MET란?<br/> 운동 강도를 표시하는 단위. 신체 활동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1MET부터 가장 격렬한 10 MET까지 정의돼 있다. 같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 강도를 더 세게 한 사람은 MET-시간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두 사람이 각 2시간 운동했을 때, 천천히 걷기(2.3 MET)를 한 사람은 2.3METx2시간=4.6 MET-시간, 조깅(7.0MET)한 사람은 7.0METx2시간=14.0 MET-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09.txt

제목: UNIST, 과학기술로 노화 속도 제어  
날짜: 20140715  
기자: 목상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15100000095  
본문: 서판길 교수 연구팀 과제 선정<br/> 5년간 정부 연구비 75억 확보 <br/> <br/> UNIST(총장 조무제)는 서판길(62ㆍ사진ㆍ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정부의 ‘노화제어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에 선정돼 5년간 총 7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기로 하고 이달부터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br/> 연구 과제는 ‘세포 내 소기관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진단 및 치료기술’. 인간이 노화 되면 세포 내 소기관이 망가져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서 교수는 세포 내 소기관의 신호 기작을 밝혀 노화에 의해 망가진 세포 내 소기관을 정상화하고, 그 기능을 복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뇨, 암과 같은 만성 대사성 질환과 항노화의 근본적 해결책 제시에도 나선다.<br/> 서판길 교수는 “<span class='quot0'>생체 대사와 노화 관련 질환에 대한 분자적 원인 기작을 밝혀낼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관련 질환의 진단과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라고 말했다.<br/> 이번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해 선정했으며, 서 교수 연구팀에는 김하일 KAIST 교수, 박래길 원광대 교수, 이규선 생명공학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한다.<br/> 서 교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체신호전달 연구분야 석학. 지난 25년간 생체신호전달 연구에 전념해온 그는 그간 세계적 권위의 셀, 사이언스, 네이처 등 상위 10% 이내 국제 학술지에 총 26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중 23편은 100회 이상 인용되는 등 현재까지 논문 피인용 횟수가 총 1만회를 넘는다. 지난 3월엔 국내 의학계 최고 권위의 ‘아산의학상’을 수상해 주목 받았다. <br/><br/>목상균기자 sgmok@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10.txt

제목: 소록도 仁術 20년 외길... 다음 목표는 해외  
날짜: 20140714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14100000170  
본문: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br/>한센인 1600명 치료한 공로 인정, JW중외제약 '성천상'수상자로<br/>"내 의술 필요한 곳이라 생각해 시작, 우리나라 한센병 완치국으로 분류<br/>더 열악한 지역에서 진료하고 싶어"<br/> <br/> “열 살 난 큰 딸이 학원에도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도 타고 싶다는 거에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1년만 더 있다가 소록도를 떠나자고 두 딸과 약속했어요.”<br/> 부녀 간 약속을 한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오동찬(46)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 가족은 여전히 소록도에 산다. 딸들이 “우리가 떠나면 편찮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냐”며 마음을 바꾼 것이다.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를 오 부장은 그렇게 20여 년째 지키고 있다.<br/> JW중외제약은 14일 “<span class='quot0'>치과의사로서의 안정된 삶을 뒤로 하고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해 오 부장을 제2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span>”고 밝혔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의 창업자인 고 성천 이기석 사장을 기려 음지에서 봉사하는 참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br/> 오 부장이 소록도와 인연을 맺은 건 공중보건의 때다. 1994년 조선대 치대를 졸업하고 구순구개열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찾다 국립소록도병원 공중보건의를 자임했다. 동료들은 “미쳤다”고 했다. 말기 암 수술을 받은 어머니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된다”며 극구 만류했다. 하지만 “의료인마저 한센인 진료를 기피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내 의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란 생각이 들었다”는 그는 한센인들 곁에 남기로 결심했다. <br/> 소록도에서 접한 한센인들의 실상은 참담했다. 나균에 감염돼 신경과 피부가 손상되는 한센병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신체 일부가 변형되는 심한 후유증이 남는다. 가령 손이 변형되면 양치질을 제대로 못한다. 얼굴이 뒤틀리고 입술이 처지는 기형이 남으면 계속 침이 나오거나 음식이 흘러내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많은 한센인들이 심한 치주질환에 치아 상실, 심지어 구강암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입 속 고름이 머리까지 올라가 사망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br/> 오 부장은 이렇게 고통에 시달리는 한센인 1,600여명을 치료했다. 특히 한센병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아랫입술 처짐은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 오 부장이 홀로 연구해 수술법을 직접 개발했다. 이 수술로 원래의 입술을 되찾은 한센인만 400여 명이다. <br/> 지금은 공중보건의를 포함해 소록도에 상주하는 의사가 10명이 넘는다. 하지만 불과 7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가 없어 치과뿐 아니라 내과, 외과 등 모든 진료를 오 부장이 도맡아 했다. 오 부장 곁을 늘 지키는 아내도 소록도에서 의사와 간호사로 처음 만났다. 그리고 소록도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두 딸을 키웠다.<br/> 이제 오 부장은 제2의 삶을 준비한다. “<span class='quot1'>소록도에서 할 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span>”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우리나라를 한센병 완치국으로 분류했다. 현재 전국에 약 1만2,000명의 환자가 남아 있으나, “재발되거나 새로 발생하는 환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br/> 편견은 여전하지만 “한센인들 스스로 몸과 마음이 많이 치유됐으니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 부장은 새 희망을 이야기한다. 1년에 두세 번씩 외국의 한센인 마을을 찾는 것이다. “<span class='quot1'>소록도 한센인들의 여생을 지켜드린 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해외 한센인들을 진료하고 싶습니다.</span>” <br/><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11.txt

제목: 일본인 평생 남성 9년, 여성은 13년 앓아  
날짜: 20140714  
기자: 김범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14100000031  
본문: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정리한 2014년 ‘후생노동백서’에서 건강문제로 일상생활이 제약 받지 않는 ‘건강수명’은 남성이 70.42세, 여성이 73.6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br/> 이 추산은 2010년 기준으로 일본 남성의 경우 수명을 마칠 때까지 약 9년간, 여성은 약 13년간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1년 추산과 비교할 때 남녀 모두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0.4년 늘었다.<br/> 구체적으로 일본 남성의 2010년 평균수명은 79.55세였고 건강 수명은 아파서 생활에 지장이 있는 9.13년을 뺀 70.42년이었다. 여성은 평균수명이 86.3세였고 건강하지 못한 기간인 12.68년을 빼면 73.62년 동안 정상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수치로 볼 때 건강수명은 평균수명 증가분만큼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암이나 당뇨병 등 중병으로 고생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br/> 백서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에서 일본인은 ‘몇 살까지 살고 싶느냐”는 질문에 남성이 평균 80.9세, 여성이 78.36세로 나타났다. 남성은 실제 평균수명과 비슷한 나이였지만 여성은 평균수명보다 짧은 것이 눈길을 끈다. 또 ‘임종을 어디서 맞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자택’이라고 답한 사람이 49.5%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 숨을 거두는 장소는 ‘병원ㆍ의원’이 80.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br/> 김범수기자 bskim@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12.txt

제목: "세계 사회보장기관의 선도모델 되겠다"  
날짜: 20140713  
기자: 목상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13100000116  
본문: [초대석]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br/><br/><br/><br/>“국민의 필요를 위한 혁신, 공정성 강화에 노력<br/>요양ㆍ보상체계 선진화"<br/> <br/> 우리나라 산재ㆍ고용보험과 산재의료, 근로자지원 서비스를 담당해온 준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이 울산시대를 연지 3개월이 지났다. 울산본사 직원만 450여명으로, 재정규모 등에 비춰 울산혁신도시의 맏형 격인 근로복지공단은 울산이전 공공기관 최초로 지역사회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는 등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갑(56ㆍ사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만나 울산시대의 각오와 비전을 들어봤다. <br/><br/> -‘울산시대’의 장단점은, 불편한 게 있다면<br/>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특화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우리공단도 성장의 기회로 생각한다. 울산이 우리나라 산업수도인 동시에 문화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울산이 갖고 있는 성장과 혁신, 창의성 DNA가 산재보험 50주년, 창립 19년을 맞은 우리공단에 변화와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업무 추진 시 이동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과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은 단점이다. 최근 KTX 울산역과 혁신도시 간 직통버스가 신설되는 등 여건이 나아지고 있으나 기반시설 부족 등 여전히 불편을 느낀다.”<br/><br/>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열심인데<br/> “공단이 지역과 함께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선 울산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첫걸음으로 이전공공기관 최초로 울산시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 교육청과 MOU체결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특성화 고교에서 노동관련 특강도 실시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매결연 마을의 일손을 돕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지역 밀착형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br/><br/>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고 들었다<br/>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고객과 국민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며, 그 요체가 국민의 신뢰다. 특히 취약 계층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공단에선 ‘혁신’이란 ‘공정성’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의 방향은 ‘공단의 필요를 위한 혁신’이 아닌 ‘국민의 필요를 위한 혁신’인 만큼 불합리한 시스템을 찾아내고 고쳐나가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br/><br/> -울산 이전을 맞아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선포했는데<br/> “올해 산재보험 50주년과 공단본부 울산 이전을 맞아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각오를 다졌다. 새로운 비전은 ‘일하는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서비스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믿고 찾는 사회보장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 세계적 선도모델이 되자는 것이다.”<br/><br/> -울산에 추진중인 산재모(母)병원의 의미는<br/> “산재사고의 특성상 응급 외상성 질환이 대부분이나, 공단직영 10개 병원의 경우 급성기 중증 외상 진료기능이 취약하다. 특히 현재 시스템에서는 수술치료와 같은 급성기 진료와 전문 재활치료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성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생명공학을 기초로 첨단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UNIST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500병상 규모의 산재모병원을 건립키로 한 것이다. 울산뿐만 아니라 ‘동남권 광역 산재의료 안전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br/><br/> -최근 산재병원 명칭에서 ‘산재’를 없앴는데 <br/> “현재 전국 10개 공단직영 병원은 산재환자를 위한 병원 기능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2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에겐 산재환자만 진료하는 특수병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병원 명칭을 ‘근로복지공단 ㅇㅇ병원’으로 통일한 것은 지역사회 접근성을 높이고 인지도를 개선, 지역 주민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지가 담겼다.”<br/><br/> -올해 ‘산재보험 50주년’의 의미는<br/> “산재보험 체계가 요양과 보상 중심에서 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산재보험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새로운 직업병의 출현,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보험 적용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산재 인정기준 개선과 산재 판정ㆍ심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요양ㆍ보상체계의 선진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br/><br/> -정부의 3.0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데<br/> “정부3.0은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업의 가치로 서비스를 혁신하는 정책이다. 공단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68개의 보유 DB 중 56개를 2016년까지 순차 개방할 계획이며, 협업과제 추진 부문은 지난 3월 ‘취업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산재근로자 재취업 지원 강화’로 2013년도 정부ㆍ공공기관 협업과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최근 발족한 미래경영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br/> 목상균기자 sgmok@hk.co.kr<br/><br/> ▦이재갑 이사장은 누구<br/> 서울 출신인 그는 인창고와 고려대를 거쳐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땄다. 1982년 행시(26회)에 합격, 노동부 사무관으로 시작해 2013년 차관직을 마감할 때까지 30년 공직생활을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지낸 고용ㆍ노동 부문 정통 관료다. 일자리나누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등 굵직한 정부정책이 그의 손을 거쳤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13.txt

제목: 건강에 좋다는 식물성 기름이 건강을 해치는 주범?  
날짜: 20140711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11100000136  
본문: 선진국서 식물성 기름 소비 늘지만 비만ㆍ암ㆍ당뇨병 질환 오히려 늘어<br/>"포화지방이 주범 아닐 수도" 일반 상식 깬 목소리 높아져<br/>고령인의 경우 지방 섭취 꼭 필요<br/>골고루 균형 있게 먹는 게 건강 도움<br/> <br/><br/><br/><br/><br/> 식물성 기름(vegetable oil)은 올리브유처럼 과육에서 짜내기도 하지만, 대개 씨앗으로 만든다.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콩기름, 포도씨유, 미강유 등이 대표적이다. <br/> “<span class='quot0'>식물성 기름은 몸에 좋고, 동물성 기름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span>”는 말은 상식으로 여겨진다. 1980년 미국 보건부와 농무부가 발표한 국민 식생활 지침 6개 중 세 번째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지나친 섭취를 피하라’고 한 것이 발단이다.<br/> 이유는 단순 명료하다. 동물성 기름에 많이 포함된 포화지방(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지방으로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과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합친 개념. 혈중 콜레스테롤이 200㎎/dL 이하면 바람직한 수준이고, 240㎎/dL 이상이면 고지혈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심장마비 발병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식물성 기름에 많이 포함된 불포화지방은 포화지방에 비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빈도가 낮아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지방으로 알려져 있고, 주로 상온에서 액체 형태다.<br/> 그래서 요즘 ‘라이트’ ‘저지방’ ‘99% 무지방’ 식품이 인기다. 슈퍼마켓에서는 지방 함량이 많은 고기보다 지방 함량이 적은 고기가 두 배나 더 비싸게 팔린다.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건강식’ 마가린은 일반 버터보다 서너 배나 비싼데도 사람들은 버터를 더 이상 사지 않는다. <br/> <br/> 식물성 기름, 동맥경화ㆍ당뇨병ㆍ알레르기 유발?<br/> 그런데 ‘건강에 좋은’ 식물성 기름이 오히려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음식 끊기’ ‘달콤한 독’ ‘지방을 둘러싼 거대한 거짓말’ 등을 펴내 세계적인 건강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호주의 데이브드 길레스피는 ‘식물성 기름, 뜻밖에 살인자’(북로그컴퍼니 발행)를 국내 출간했다. 길레스피는 “<span class='quot1'>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건강에 좋다는 식물성 기름 소비가 늘고 있지만 비만, 암,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자는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다</span>”고 했다.<br/> 그는 동물성 기름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식물성 기름이 우리 몸을 해치는 진짜 범인이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식물성 기름을 먹게 된 것은 건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가축을 키워 도축하는 것보다 식물 씨앗에서 화학적으로 추출한 기름으로 식품을 만든 편이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br/> 그는 일반인이 진실처럼 알고 있던 건강 상식과 통념을 깨는 최신 증거를 제시한다. 동맥경화를 보자. 사람들은 흔히 끈적끈적한 ‘동물성 기름’이 동맥벽에 쌓여 혈관을 막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긴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혈관을 청소하는 ‘식물성 기름’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br/>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는 “동맥경화는 식물성 기름에 포함된 다가 불포화지방산(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음식으로만 섭취해야만 하는 필수지방산.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산화돼 동맥벽을 손상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건강을 위하려고 식물성 기름을 먹었는데, 실은 동맥경화가 일어나도록 부채질한 격이다. 이밖에 알레르기, 실명, 당뇨병 등 우리를 위협하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식물성 기름이라는 증거와 연구결과가 점점 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br/>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장병, 제2형 당뇨병, 암 발병률이 매우 높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가 불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단 즉, ‘완벽한’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과학 저널들은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패러독스’라고 부른다. <br/> 이는 ‘프랑스 패러독스’와 정반대 상황이다. 프랑스 사람들의 식단은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질환에 걸리는 비율이 매우 낮다. <br/> 반면 다가 불포화지방산 섭취가 많지 않은 비(非)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 당뇨병 발병률은 유대교 인구에 비해 1.5배 낮고, 심장병 사망률은 2.3배, 암 사망률은 3.4배 낮았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도 심혈관계 질환이 줄어들지 않아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이 아닐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br/> 이처럼 식물성 기름도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몸에 좋은 단일 불포화지방산(오메가-9계 지방산)의 대표적인 식물인 올리브유도 한 번에 40~50㎖ 정도 먹으면 항산화 성분의 함유량과 상관없이 혈중 지질에 이상이 올 수 있다</span>”고 했다. 다만,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사람이라면 움직여도 다 써 버리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br/> <br/> 동물성 지방, 약 되는 사람도 있어<br/> 몸에 나쁘다고 알려진 포화지방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다.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에너지 소모가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많이 움직이는 만큼 체내 지방 축적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속이 더부룩한 사람은 규칙적으로 조금씩 동물성 지방을 섭취해야 한다. <br/> 박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65세 이상 고령인의 경우 몸에서 빠져나가는 근육을 붙잡으려면 지방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span>”고 했다. 우리 몸에는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든다. 이런 현상은 35세를 넘으면 더욱 두드러져 여성은 10년마다 1㎏, 남성은 1.5㎏ 정도의 근육이 소실된다. <br/> 그런데 규칙적으로 살코기를 조금씩 먹으면 근육과 근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골절이나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도 줄어든다. 특히 살코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다만, 살코기에 골고루 박힌 하얀 줄무늬의 지방(마블링)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를 제한하는 게 좋다.<br/> 그러면 건강에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 지방이 왜 문제가 될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섭취하는 오메가-6 지방산(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들어 몸 안에 충혈이 있을 때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한다)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카놀라, 목화씨, 대두, 해바라기씨, 홍화씨, 쌀겨, 포도씨로 만든 ‘식물성 기름’에 다량 함유돼 있다. 가령, KFC에서 감자튀김을 한 봉지만 먹어도 하루 기준치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은 오메가-6을 얻는다. 오메가-3의 경우, 감자튀김에서 하루 기준치의 3분의 1(0.54g)을 얻는다. <br/> 이 때문에 비만이 되기도 하고 각종 생활습관병이 생긴다. 박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자고로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3'>음식물도 다른 영양소와 균형은 물론 지방끼리의 균형을 맞춰서 먹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span>”고 했다.<b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14.txt

제목: [채널선택] 그것이 알고 싶다(SBS 밤 11.15) 외  
날짜: 201407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11100000163  
본문: 작사자 미상 애국가, 진실은?<br/><br/> 1945년 해방될 때 임시정부가 발행한 애국가 악보에는 '실명(失名) 작사'로 표기됐고,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는 작사자를 밝히고자 위원회까지 결성했으나 '작사자 미상'이라 결론냈다. 애국가 작사가로는 윤치호설과 안창호설이 맞선다. 윤치호라는 설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1908년 발행된 '찬미가', 1910년 미주 지역의 신한민보에 실린 '국민가', 1931년 '세계명작 가곡집-무궁화' 등 다수인 반면 안창호라는 설에 대해서는 구두로 전해들은 몇몇 사람들의 증언과 정황 정도만 남아 있다. 애국가 작사가의 미스터리를 짚어본다.<br/> <br/>아르헨티나의 어머니 에비타<br/><br/>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불렀던 후안 페론의 부인 에바 두아르테 데 페론의 실화를 다룬 영화. 농부의 사생아로 태어난 에바(마돈나)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한다. 모델 겸 배우로 활동하던 에바는 한 자선 파티에서 후안 페론(안토니오 반데라스)을 만난다. 에바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며 페론을 홍보하는 데 애쓰고, 결국 페론은 노동자 계급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영부인이 된 에바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주력하지만,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15.txt

제목: [채널선택] 그것이 알고 싶다(SBS 밤 11.15) 외  
날짜: 201407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11100000023  
본문: 작사자 미상 애국가, 진실은?<br/><br/> 1945년 해방될 때 임시정부가 발행한 애국가 악보에는 '실명(失名) 작사'로 표기됐고,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는 작사자를 밝히고자 위원회까지 결성했으나 '작사자 미상'이라 결론냈다. 애국가 작사가로는 윤치호설과 안창호설이 맞선다. 윤치호라는 설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1908년 발행된 '찬미가', 1910년 미주 지역의 신한민보에 실린 '국민가', 1931년 '세계명작 가곡집-무궁화' 등 다수인 반면 안창호라는 설에 대해서는 구두로 전해들은 몇몇 사람들의 증언과 정황 정도만 남아 있다. 애국가 작사가의 미스터리를 짚어본다.<br/> <br/>아르헨티나의 어머니 에비타<br/><br/>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불렀던 후안 페론의 부인 에바 두아르테 데 페론의 실화를 다룬 영화. 농부의 사생아로 태어난 에바(마돈나)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한다. 모델 겸 배우로 활동하던 에바는 한 자선 파티에서 후안 페론(안토니오 반데라스)을 만난다. 에바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며 페론을 홍보하는 데 애쓰고, 결국 페론은 노동자 계급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영부인이 된 에바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주력하지만,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16.txt

제목: [클린리더스] 벽지 아동센터 100곳에 차량 선물  
날짜: 20140711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11100000128  
본문: ●한국수력원자력<br/> 32곳엔 도서관 설치… 원전 주변 마을 의료서비스<br/><br/><br/> <br/> 지난 5월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11인승 승합차 60대가 모여들어 일렬로 늘어섰다. 잠시 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달려와 삼삼오오 차량 옆에 붙어 재잘거리며 구경하기 시작했다. 60대의 차량(18억원 상당)은 이날 모두 이 아이들의 품에 안겼다. 앞으로 전국 곳곳으로 아이들을 싣고 다니며 꿈을 키워주고 캄캄한 밤길에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br/> 차량들은 모두 한국수력원자력이 전국 60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전해준 선물이다. 3년 전부터 한수원은 학습 환경이 불편한 도서벽지 등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40대를 지원했고 5월로 꼭 100대를 채웠다. <br/> 한수원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행복더함 희망나래’라는 이름의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이 사업에는 도서관 설치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총 32개 지역아동센터에 희망나래 도서관이 만들어졌다. 하반기 중 40곳에 추가로 짓고, 각 도서관마다 책 600권과 운영 프로그램을 선물하겠다는 게 한수원의 계획이다. 또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36곳을 골라 자매결연을 맺었다. 임직원들이 직접 어린이들을 데리고 문화체험 여행, 스키 같은 스포츠 활동, 영어 수학 등의 학습 지도에 나서기 위해서다. <br/> 한수원은 원자력과 수력, 양수발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국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삼아 착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같은 사회공헌 사업과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br/> 재원은 임직원의 후원금과 회사의 지원금을 합한 이른바 ‘러브 펀드’다. 임직원들의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만큼을 회사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수원의 한 직원은 “<span class='quot0'>후원 금액을 각자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0'>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해 쉽지 않았는데, 이 후원으로 대신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보람을 느낀다</span>”고 말했다. <br/> 교통이 불편한 지역아동센터뿐 아니라 한수원이 나눔 활동으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이다. 원전이 주로 외딴 곳에 위치해 주변 지역은 의료진이 부족하고 병원도 멀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수원이 산하 방사선보건연구원의 의료진과 함께 발전소 주변 마을을 꾸준히 방문하는 이유다. 마을 구성원 상당수가 노년층 농어민이라 류마티스관절염 같은 노인성 질환이 많다. 한수원과 연구원 팀은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와 함께 각종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수준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매년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한수원은 집계하고 있다. <br/> 원전 주변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 이런 곳에는 대학생 ‘선생님’을 파견한다. 매년 우수한 대학생 40여명을 선발해 원전 주변 마을의 초ㆍ중ㆍ고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진로상담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학생은 멘토, 마을 학생은 멘티가 되는 이 활동은 ‘아인슈타인 클래스’라고 불린다. 멘토 대학생은 자원봉사 기회를 얻고 장학금을 받으며, 멘티 학생은 공부 방법을 배우고 진로 계획을 세운다. 2010년 처음 도입된 아인슈타인 클래스에는 지금까지 원전 주변 지역 청소년 총 1,553명이 참여했다. 엔지니어를 비롯한 사내 직원들이 일일교사로 참여해 재능을 기부하는 ‘주니어 공학교실’ 활동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원전 주변 학교로 직접 찾아가 과학 꿈나무들을 육성하며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한다. <br/> 이 밖에 전국 곳곳의 사업소에서도 소규모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을 벌인다. 주로 결식 아동이나 혼자 사는 노인, 결혼 이민자,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해주려는 목적이다. 특히 2005년부터는 홀몸 노인이 사는 오래된 집을 수리해주거나 아예 이동식 가옥을 제공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br/> 한수원은 최근 나눔 활동을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확대했다. 서울대와 함께 글로벌 사회공헌단을 구성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트남 낙후 지역을 방문했다. 특히 올해는 식수가 부족한 베트남 내 오지에 빗물을 이용해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했고, 따로 보건위생 교육도 실시했다. <br/> 이 같은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수원은 10년째 사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회봉사단 산하의 3개 국내 봉사대(사회봉사대, 의료봉사대, 지역봉사대)와 별도로 글로벌 봉사대를 신설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span class='quot1'>원전 안전 운영은 물론이고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책임 경영을 위해서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span>”고 약속했다. <br/>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17.txt

제목: [2014 상반기 히트상품] 엽록소 함유 케일 원료, 인체해독 톡톡  
날짜: 201407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10100000185  
본문: ●리커버리 김수경엽록소<br/><br/><br/><br/><br/>중년층을 중심으로 엽록소 함유 식품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채소 가운데 엽록소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케일’을 주원료로 한 식품의 인기가 높다.<br/> ‘의사들의 의사’라 불리는 미국의 저명한 가정의학자 조엘 펄먼 박사는 그의 저서 ‘기적의 밥상’에서 수퍼푸드 30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콩의 10배, 적포도의 4배, 브로콜리의 2배 등의 영양을 갖춘 채소가 케일이다. 케일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칼슘, 비타민A, 비타민B군 등 각종 무기질은 물론 효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종합영양제와 같은 채소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고의 채소,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 극찬했다.<br/> 지난 30년간 엽록소를 연구한 국내최초 생식개발자인 김수경 박사에 따르면 엽록소는 조혈(造血)작용을 통해 피를 맑게 해줘 인체해독에 큰 도움을 준다. 케일에 포함된 항산화물질은 몸 속 유해산소인 활성산소를 없애줌으로써 암과 심장병, 중풍 등의 각종 성인병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br/> 케일 엽록소 제품(사진)은 과립이나 분말형태로 출시되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가격은 케일 분말제품(300g), 케일 과립제품(5g 60포) 각각 6만8,000원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18.txt

제목: [2014 상반기 히트상품] 원적외선 뿜는 황금견운모 팔찌  
날짜: 201407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10100000188  
본문: ●힐링스톤 황금견운모 팔찌·목걸이<br/><br/><br/>암석의 일종인 견운모(絹雲母)가 현대적 감각의 건강제품으로 재탄생한 제품이 힐링스톤(사진)이다. 김승범 힐링스톤 대표는 견운모가 매장된 산에서 나오는 약수의 효능에 매료돼 연구를 거듭한 끝에 현대인이 손쉽게 자연적 치유경험을 할 수 있는 세라믹 목걸이와 팔찌 형태의 건강제품을 만들어냈다.<br/> 힐링스톤에 사용되는 견운모는 매우 희귀한 노란색 ‘황금견운모’다. 황금견운모는 원적외선을 뿜어내고 독소까지 흡착하는 정화기능이 있어 항균ㆍ탈취 능력도 우수하다.<br/> 동의보감이나 향약집성방에 황금견운모가 노폐물을 배출시킬 뿐 아니라 항산화 작용으로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해주는 약돌로 기록돼 있다. 중국 동진시대에 쓰여진 도교서적 포박자(抱朴子)는 비아그라에 비견되는 강장정력제로도 기록하고 있다. <br/> 이런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힐링스톤 반신욕기와 찜질제품 등은 2010년부터 제주신라호텔 피트니스와 스파 등에 독점 공급되고 있다. 다양한 제품 중 사각형 세라믹들이 시계줄처럼 엮인 건강팔찌는 베스트셀러로 손목에 착용했을 때 밀착감이 좋고 근육을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하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스튜어디스에게 인기가 많아 일명 ‘스튜어디스 팔찌’로도 유명하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19.txt

제목: 정부도 직업 피해 인정했건만… 산재 혜택 못 받는 석면 피해자들  
날짜: 20140710  
기자: 변태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10100000009  
본문: 1344명 중 64%가 직업적 노출<br/>폐암 투병 등 고통 받지만<br/>폐업 탓 서류 없어 인정 못 받아 <br/> <br/> 전남 여수에서 사는 정모(61)씨는 2006년 석면 흡입으로 폐에 발병하는 암인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20대이던 1978~84년 석면원료로 석유난로 심지를 만드는 회사와 1986년 석면건축자재를 취급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게 원인이었다. 석면 질환의 잠복기는 10~40년이다.<br/> 항암치료만 21차례 받으며 투병하던 그는 2012년에야 석면피해구제 인정을 받았다. 직업으로 인한 노출 피해가 분명했지만 아직까지 산업재해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씨는 “<span class='quot0'>근무한 회사가 문을 닫아 직업피해를 증빙할 서류를 마련할 수 없다</span>”고 했다. 그가 정부로부터 받은 환경구제금은 산업재해보험금의 10~30% 수준에 불과하다.<br/> 정씨처럼 정부가 직업노출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한 석면 피해자 중 64%는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이들을 구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br/> 9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받은 ‘석면피해구제법 인정자의 환경ㆍ직업 노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011년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344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다. 이들 중 직업으로 인한 노출 피해(493명)와 환경 및 직업 노출로 인한 피해(370명)로 구분된 사람은 863명(64.2%)에 달한다.<br/>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장은 “<span class='quot1'>정부도 이들의 피해가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대다수가 별도의 계약 없이 일용직으로 일했거나 과거 근무한 광산ㆍ석면기업의 폐업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워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석면질환의 잠복기와 2009년 신규 석면 사용 전면금지로 자취를 감춘 석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들에게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br/> 아울러 석면피해 인정률이 해마다 낮아져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면피해 인정률은 2011년 65.5%에서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50%로 15.5%포인트 하락했다. 대표적인 석면 질환인 악성중피종의 피해 인정률은 평균 71%에 머물렀고, 올해 상반기의 경우 폐암 인정률은 17.5%에 그쳤다. <br/> 최예용 센터장은 “<span class='quot2'>피해 인정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로, 피해 인정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생각해봐야 한다</span>”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제도 시행 초기 석면질환을 앓던 분들은 이미 피해 인정을 거의 다 받았기 때문에 갈수록 인정률이 하락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인정을 받은 석면 피해자는 총 1,426명(생존 902명ㆍ사망 524명)이다. <br/> <br/>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20.txt

제목: 바둑판 새긴 선국암에선 신선들의 수담 꽃피고…  
날짜: 20140709  
기자: 최흥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09100000029  
본문: 산(山)으로 끝나는 지명은 수두룩하지만 충북 괴산(槐山)만큼 이름값 하는 지명이 또 있을까?<br/> 경북 문경과 경계를 이루는 조령산을 포함해 괴산군청에서 등산코스로 소개하는 산과 봉우리만 35개다. 아무 산이나 끌어 붙인 게 아니다. 대부분 600m~1,000m를 넘나드는 고봉이다. 산이 많은 만큼 이름난 계곡도 많다. 구곡(九曲)이라고 이름 붙은 곳이 전국에 60여개인데 이중 7곳이 괴산에 있다. 제주 올레길 이후 지자체마다 우후죽순으로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뜨는 곳 중 하나가 괴산의 ‘산막이옛길’이다. 산막이옛길이 궁벽한 산촌사람들의 가난과 땀이 밴 길이라면 인근 갈은구곡은 양반의 멋과 여유가 넘치는 계곡이다. 같은 곳 다른 느낌, 괴산 칠성면의 산막이옛길과 갈은구곡을 다녀왔다.<br/> <br/> 아기자기한 이야기로 덧칠한 산막이옛길<br/> 산막이옛길은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사오랑마을과 사은리 산막이마을을 연결하는 4km 길이의 오솔길이었다. 1957년 최초로 순수 우리기술로 만들어진 괴산댐이 완공된 이후 흔적만 남았던 길을 정비해 2011년 개장했다. “옛날 움막에서 사기그릇을 구웠다고 해서 산막이라고도 했다는데 그건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지. 산으로 콱 막혀 있어서 산막이여”아랫마을 외사리에 사는 노진규(79) 어른의 설명이다. <br/> 아닌게아니라 이 마을은 삼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괴산호 유람선 매표소 직원 양우석(74)씨가 기억하는 산막이마을은 20여 호나 살던 제법 큰 마을이었다. “고욤과 대추를 줍거나 나무하러 다니던 곳이었죠. 절구에 고욤을 찧어 큰 항아리에 담아 놨다가 한겨울에 먹는 맛이 참 좋았지요” 댐이 생긴 후 나룻배로 외부와 겨우 연결되던 산막이마을은 3가구까지 줄었다가 옛길이 정비되고 관광객이 늘면서 지금은 11가구까지 늘었다. 귀촌한 이들 대부분은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한다. <br/> 산막이옛길이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오솔길 곳곳에 심어놓은 이야기와 상상력 덕분이다. 이를테면 허리 높이에서 살짝 구부러져 사람의 손길을 많이 탄 나무는 ‘미녀 엉덩이 참나무’가 되고, 백설기 모양의 두꺼운 바위가 차곡차곡 쌓인 단층은 ‘스핑크스 바위’가 되는 식이다. 한 사람이 겨우 비를 피할 만한 바위 아래 공간은‘여우비 바위굴’이 되고, 그것보다 조금 깊은 동굴은 ‘호랑이 굴’이 되었다. 무거운 지게를 잠시 내리고 목을 축인 옹달샘은 ‘노루샘’, 쌀 한 말 건지기도 힘든 천수답 논배미에는 연을 심어 ‘연화담’으로 이름 붙였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발랄하게 상상력만 불어 넣은 것이다. <br/> 놀이공원의 요소를 더한 것도 재미를 더한다. 에두르는 작은 골짜기엔 ‘소나무 출렁다리’로 지름길을 내고, 전망대는 호수 가장자리 바로 위까지 빼내 시원하게 괴산호를 조망할 수 있게 했다.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위험스럽게 이어진 구간에는 대부분 안전 난간을 갖춘 데크를 깔아 걷기에 부담이 없다. ‘마흔 고개’라고 이름 붙인 40개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 가장 난코스(?)다. 산막이 마을까지 갔던 길을 되짚어도 되지만 대부분은 유람선을 타고 되돌아 나온다. 여성과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br/> 요즘은 산꼭대기에서 보이는 맞은편 지형이 한반도를 닮았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것도 조금 억지스러운데 동해 위치가 되는 습지에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다며 인공섬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자연에 녹아드는 산막이길에서 눈에 띄게 거슬린다. 과유불급은 딱 이럴 때 쓰는 말이겠다. 힘들이지 않고 쪽빛 호수를 끼고 숲 트레킹을 즐기면서 아기자기한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산막이 옛길의 매력이다. <br/> <br/> 아껴 두고 싶은, 풍류가 깃든 갈은구곡<br/> 조금이라도 사람의 손길이 덜 탄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근처의 갈은구곡이 좋겠다.(3곡까지는 갈론계곡으로 부르기도 한다)<br/> 구곡(九曲)이라면 중국 송나라의 주자가 기거한 무이산을 연상하고 당연히 빼어난 산과 계곡을 떠올리겠지만, 아홉 굽이를 꿰어 맞추다 보면 과장이 있게 마련이다. 갈은구곡은 웅장함 보다는 오히려 소박함이 돋보이는 계곡이다. 물길에 닳아 자리하나 깔 수 있는 반질반질한 바위와 병풍으로 삼을 크지 않은 바위가 둘러쳐진 그 지점이 바로 한 굽이(曲)이다. 그 굽이마다 장암석실(場巖石室)·갈천정(葛天亭)·강선대(降僊臺)·옥류벽(玉溜霹)·금병(錦屛)·구암(龜巖)·고송유수재(古松流水齋)·칠학동천(七鶴洞天)·선국암(仙局巖) 등 멋들어진 이름을 붙이고 시를 새겼다. <br/> ‘…이 세상에 신선을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참 이상도하지 여기에 찾아온 사람은, 가슴속 깨끗해져 절로 속된 마음 사라진다네’신선이 내려온 곳이라는 3곡 강선암에 새긴 시는 이곳에 오면 누구나 마음까지 맑아져 신선이 된다는 뜻이겠다. <br/> 9곡 선국암은 신선놀음의 절정이다. ‘옥류봉 산마루에 해가 기울어 바둑을 끝내지 못하고…다음날 다시 와보니 알알이 (바둑)돌 위에 꽃이 피었네’아래로는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위로는 늘어진 가지가 그늘을 만든 널찍한 바위에 앉아 바둑을 두는 모습이 절로 그려진다. 여기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된다는 여유까지 곁들여지면 그 누군들 신선이 되지 못할까? 실제 선국암 바위에는 어렴풋이 바둑판이 새겨져 있다. 혹시라도 스러질까 작은 나뭇가지로 선국암 큰 바위를 괸 어느 등산객의 장난에 슬며시 미소를 머금는다. <br/> 빼어난 경치에 붙는 팔경(八景)과 달리 그저 맑은 물 한 굽이 돌아가는 소소한 풍경 속에서 시 한 수로 세상 이치를 관통하는 선비정신이 묻어나는 곳 그곳이 갈은구곡이다. 지금이야 어림도 없는 행위지만 바위에 새긴 글자 하나하나까지 물소리 바람소리와 어우러져 자연이 되어버린 곳, 인위적인 것이라곤 좁은 등산로 밖에 없어 괴산 사람들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아껴 두고 싶은 곳, 갈은구곡은 그런 곳이다.<br/> 갈은구곡은 괴산호를 사이에 두고 산막이 마을 맞은편 갈론마을에서 시작하는 옥류봉 등산로에 있다. 3곡까지는 시멘트 포장이 된 평탄한 길이다. 계곡도 제법 넓어 물과 길이 만나는 굽이마다 여남은 사람은 않아 쉴 수 있을 만큼 널찍한 바위가 자리잡고 있다. 3곡부터 9곡까지는 본격적인 등산로다.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약 20분이면 충분하다. 크게 가파르지도 않아 노약자가 아니라면 힘들이지 않고 다녀올 수 있다. 등산로는 때로는 왼편으로 때로는 오른편으로 계곡을 끼고 이어져 지루하지 않다. 계곡에 발을 담그는 것까지는 괜찮겠지만 속리산국립공원 지역으로 야영은 금지다. 갈은구곡에 대한 안내판은 갈론마을 끝자락 계곡 입구에만 있다. 바위에 새긴 풍류의 흔적을 차례로 찾아보는 것이 갈은구곡의 재미다. 눈 여겨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다. <br/><br/> 괴산=최흥수기자 choissoo@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21.txt

제목: 고령환자 수술 결정 쉬워진다  
날짜: 20140708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08100000019  
본문: 고령환자 수술 결정 쉬워진다<br/>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 연구팀, 고령환자 수술 후 예후 예측 도구 개발<br/> <br/> 암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치료법이 수술이다. 그러나 고령환자라면 수술을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다.<br/> 그런데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 연구팀은 이런 고령환자의 수술 후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다. 고령환자의 수술 후 예후는 일상생활의 독립성, 혈액검사(알부민) 수치,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법이 수술 후 사망 및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br/>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김선욱 전공의ㆍ김광일 교수팀과 외과 한호성 교수팀은 2011년 10월~2012년 7월 외과에서 수술받은 65세 이상 노인 275명을 대상으로 노인포괄평가를 시행하고, 수술 후 예후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자마 서저리’ 최근호에 실렸고, 7월호 ‘이달의 논문’을 선정됐다.<br/> 김광일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수술을 앞두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포괄평가라는 다면적 도구로 분석해 점수를 매긴 결과, 이 점수가 높을수록 수술 후 사망 및 합병증 발병 확률이 늘어났다</span>”고 밝혔다.<br/> 연구팀은 수술이 예정된 노인의 건강상태를 다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술 전 노인포괄평가’를 시행했다. 수술 전 노인포괄평가는 동반 질환 평가, 일상 생활 능력 평가, 정신 기능 평가, 영양 상태 평가 등 모두 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평가 항목에 따라 ‘고위험군(5점 이상)’으로 분류된 노인은 ‘저위험군(0~4점)’에 속한 노인에 비해 수술 후 1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9배 이상 높았다<br/> 또, 고위험군은 집이 아닌 요양 병원으로 다시 입원할 가능성도 44배 늘었으며, 수술 후 감염이나 섬망(혼돈과 비슷하지만, 안절부절 못하고, 잠을 안자고, 소리를 지르고, 주사기를 빼는 행위 등 심한 과다행동을 하는 것)이 발생하거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빈도가 17배 높았다. 총 입원기간과 수술 후 입원기관도 고위험군은 14/9일로 저위험군 9/6일보다 1.5배나 더 길었다.<br/> 김광일 교수는 “<span class='quot1'>수술 전 노인포괄평가 도구의 개발로 인해 수술 전후 면밀한 감시가 필요한 노인을 객관적으로 선별할 수 있게 됐다</span>”고 했다.<br/>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전체 수술 관련 진료비의 40% 정도는 노인에게 쓰이고 있다.<b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22.txt

제목: "같은 암이라도 치료율 높은 암은 100% 보험 보장 못 받아"  
날짜: 20140707  
기자: 김치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07100000017  
본문: 1인당 치료비 간암 6622만원, 갑상선암은 1126만원 가장 낮아<br/>보험사들 유방암ㆍ상피내암 등 예후 좋은 암 진단금 축소 움직임<br/>소비자도 경제력ㆍ가족력 고려해 자신에 맞는 보험 선택 지혜 필요<br/><br/> 최근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암검진 받은 후 갑상선암 초기 판정을 받은 이영숙(61)씨는 예후가 좋은 갑상선암이라 큰 수술을 하지 않고 완치됐다. 하지만 보험사가 지급한 암보험 보장금은 기대보다 적어서 실망했다. 암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설계사가 100% 보장이 되지 않는 암이 있다고 설명한 것 같은데 갑상선암이 해당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br/>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로, 남성은 5명 중 2명이, 여성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 보건당국이 전국단위로 암 발생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암에 걸렸던 사람은 모두 109만7,253만명(여성 60만5,748명, 남성 49만1,505명)이나 됐다. 인구 45명당 1명꼴로 암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치료 후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br/> 건강검진이 대중화되고 진단기술이 발달하면서 암 진단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이제 암은 특정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 아니라 누구나 걸리는 질환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암에 대한 전반적인 보장을 해주는 암보험 상품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암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br/> <br/> 암 치료비 최대 6,000여만원… 암보험 가입 증가 <br/>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암은 간암으로 환자 1인당 6,622만원이다. 췌장암은 6,371만원, 폐암은 4,657만원이다. 치료비가 가장 적게 드는 암은 갑상선암으로 1,126만원이다. 고명정 ING생명보험 FC는 “의료기술이 발달해 암 환자의 생존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고가의 치료비, 입원비 마련이 만만치 않아 암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이 많다”고 했다.<br/> 그러면 암보험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암보험은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진단금형과 종합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진단금형은 가입 시 정해진 암 진단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만 수술비, 입원비는 주지 않는다. 종합형은 진단금과 함께 수술비, 입원비를 별도로 준다. 보험사들은 “고객이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를 보장하는 종합형을 선호한다”며 “최근에는 2차암을 보장하는 상품과 함께 고령층을 위한 암보험이 늘고 있는데 특히 종신이나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9만4,700원을 암 보험료로 내고 있다면 암에 걸렸을 경우 2,000만원을 진단금으로 받을 수 있고 수술비는 600만원, 입원비는 20만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 소액암, 진단금 20% 보장… 췌장암은 최대 1억원 <br/> 진단금을 100% 받을 수 없는 암이 있다. 보험사들은 비교적 완치율이 높고, 경제적 비용이 낮은 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암에 걸렸을 경우 가입 시 정해진 진단금의 20%를 지급한다. 보험사들은 유방암, 상피내암, 전립선암 등 예후가 좋아지고 있는 암도 진단금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br/> 그러면 보장이 가장 큰 암은 어떤 암일까. 췌장암은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유방암과 남녀생식기암은 최대 1,500만원, 갑상선암은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들 암 외에 일반암으로 분류된 암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br/> 정옥연 푸르덴셜생명보험 FC는 “갑상선암 등 치료비가 적은 암에 걸렸다면 목돈을 받는 것보다 간암, 췌장암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에 걸렸을 때 진단금을 많이 받는 것이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 여건, 가족력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암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암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나이에 따라 보험료나 보장금액이 다를 수 있고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br/> 박종성 ING생명 여의도점 부지점장은 “최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등 중대질병과 함께 전신피부의 20% 이상 3도화상,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개심술 등 중대수술 등을 보장해주는 ‘CI(Critical Illness)’보험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2차암, 중대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의 경제력에 맞춰 보험상품을 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br/>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23.txt

제목: [건강단신] 삼성서울병원, 통합 케어 암 치유센터 개설 외  
날짜: 2014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07100000019  
본문: 삼성서울병원, 통합 케어 암 치유센터 개설<br/><br/>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은 암 예방부터 재활까지 포괄적 암치료를 제공하는 ‘암 치유 센터’를 개설했다. 암병원 1층에 있는 센터는 ‘첫 방문 상담실’과 ‘암 치유센터’로 나눠지며 암환자 치료 흐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암 치료를 제공한다. 심영목 암 병원장은 “<span class='quot0'>단순한 암 치료를 넘어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 불안, 두려움을 없애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전인적인 암 통합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를 개설했다</span>”고 했다.<br/> <br/> 밸런스브레인 수원센터 오픈 기념 강연<br/> 뇌 균형 운동치료센터 '밸런스브레인'이 14일 오후 2시 수원센터에서 ‘아이의 올바른 뇌 발달’을 주제로 무료 강연회를 연다. 강연회는 수원센터 개설 기념으로 열린다. 변기원 밸런스브레인 대표원장이 강사로 나서 어린이의 학교생활 부적응ㆍ집중력 저하 문제의 원인과 개선법을 뇌기능신경학의 관점에서 설명한다.<br/> <br/> 광선각화증 치료제 피카토 겔 출시<br/><br/> 피부질환 전문 덴마크계 제약사 레오파마는 광선각화증 국소 치료제 피카토 겔(성분명 인게놀메뷰테이트ㆍ사진)을 출시했다. 광선각화증은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 생기는 각화성 병변으로, 가장 흔한 피부암 전 단계 질환이다. 피카토 겔은 환부에 환자가 직접 바르는 겔 형태의 국소 치료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변과 주변의 잠재적 병변까지 치료한다.<br/> <br/> 뿌리는 코감기약 ‘화이투벤 나잘스프레이’ 나와<br/><br/> 한국다케다제약(대표 이춘엽)은 2분 이내 빠르게 코막힘을 완화하고, 효과가 10~12시간 지속되는 뿌리는 코감기약 '화이투벤 나잘스프레이'(사진)를 출시했다. 코감기, 알레르기성 비염ㆍ부비동염에 의한 코막힘, 콧물, 재채기, 머리 무거움을 완화하는 비충혈제거제다. 1일 1~3회(8~10시간마다) 코 안에 직접 뿌려 사용한다.<br/> <br/> 고려은단, 영국산 비타민C 원료 독점 공급 연장<br/><br/> 고려은단은 세계적인 비타민 생산업체인 스위스 DMS사와 영국산 비타민C 원료 독점 공급을 2016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맺었다(사진). 고려은단은 2009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DSM사와 첫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DMS사는 건강식품 및 영양제 성분의 세계적인 생산업체로 1934년 세계 최초로 비타민C 원료를 만든 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판매하고 있다.<br/> <br/> 서울시 한의사회, 한약 안전성 검사<br/>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와 함께 ‘한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 한약(탕약)이 100%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의사회는 “2013년 10월~2014년 2월 서울 소재 한의원에서 처방 탕전된 쌍화탕, 십전대보탕, 팔물탕 등 탕약 155건을 표본 수집해 조사한 결과,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br/> <br/> 체중 감량 침치료 임상 모집<br/>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비만체형클리닉은 ‘폐경 전 비만 여성의 체중 감량 침 치료’ 임상연구 참가 지원자 120명을 선착순을 모집한다. 19~55세 폐경 전 여성 중, 체질량지수(BMI)가 25kg/㎡이상인 비만 여성이 대상이다. 체중 감량을 위해 다른 치료를 받고 있거나 당뇨약, 갑상선 치료제 등 체내 대사물질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02)440-7575~6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24.txt

제목: 췌장암 생존율 높이는 표준 수술법, 국내 연구진이 발표  
날짜: 20140707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07100000020  
본문: 서울대병원 김선회 교수팀, 외과 권위지에 기고 <br/><br/> 김선회ㆍ장진영ㆍ강미주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연구를 통해 췌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표준 수술법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연구는 외과계 최고 권위 학술지(Annals of Surgery) 최근호에 실렸다.<br/> 연구팀은 2006~2010년 국내 7개 병원에서 췌십이지장절제술이 예정된 췌장암 환자 169명을 표준 림프절ㆍ신경 절제술 그룹(비교군 83명)과 확대 림프절ㆍ신경 절제술 그룹(대조군 86명)으로 전향적으로 나눈 후, 수술 후 생존율을 비교했다.<br/> 췌십이지장절제술은 복부 수술 중에서 가장 큰 수술로 췌장, 십이지장, 담도를 동시에 잘라내는 수술이다. 표준 림프절 절제술은 췌장 주위의 림프절 중 암 전이 가능성이 높은 특정 림프절만 제거한다. 확대 림프절 절제술은 표준 림프절 절제술 보다 림프절 절제 범위가 넓고, 주변 신경 조직까지 제거한다.<br/> 분석 결과, 췌장암 수술 후 2년 생존율이 비교군은 44.5%인 반면, 대조군은 35.7%로 나타났다. 무(無)진행 2년 생존율도 비교군은 25.2%, 대조군은 19%였다. 즉, 확대 림프절 절제술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킨다는 근거는 없었다. 반면, 확대 절제 시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이 약간 증가했다.<br/> 연구팀은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가 생존율을 높인다고 보고했다. 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의 생존 기간 중앙값은 20.8개월인 반면, 그렇지 않은 환자는 14개월이었다.<br/> 특히 비교군 중 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의 2년 생존율은 50.7%인 반면 그렇지 않은 환자는 25%였다.<br/> 췌장암은 한국인 암 발생 9위, 암 사망 5위, 5년 생존율 7.8%에 불과할 정도로 예후가 매우 나쁘다.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적 절제가 필수다. 하지만 수술의 방법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란이 많았다. <br/> 췌장암세포는 췌장 주변의 림프절과 신경을 통해 퍼진다. 이에 일부 의사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췌장 주위 림프절과 신경을 넓게 잘라냈으나, 난치성 설사, 영양실조 등 환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었다. 췌장암은 수술 절제 범위에 대한 표준화가 없어, 병원 또는 의사에 따라 수술의 치료 성적이나 합병증에 큰 차이가 있었다. <br/> 연구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표준 림프절 절제만으로도 확대 림프절 절제와 같은 수준의 췌장암 치료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난치성 설사, 영양실조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확대 림프절 절제술을 막을 수 있게 됐다</span>” 고 했다. 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수술 후 적극적인 항암 방사선 치료가 생존율을 높인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췌장암 치료법은 표준 림프절 절제술 후 적극적인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b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25.txt

제목: 마약성 진통제, 만성 통증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데…  
날짜: 20140707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07100000001  
본문: 중독 위험 신입견 탓에 환자들 꺼려<br/>모르핀 처방, 세계 평균 절반도 안돼<br/> <br/> 유명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씨가 4년 전 마약류 일종인 암페타민 성분이 든 약품을 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오다 적발된 것이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암페타민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일종의 각성제다. 미국에서는 의사 재량에 따라 처방되지만 국내에선 사용 금지돼 있다. <br/> 많은 이들이 마약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이런 종류의 약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사실 마약(痲藥)은 마취(痲醉) 작용이 있는 약(藥)이라는 한자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악마의 약’이라는 마약(魔藥)으로 오인되고 있다. 결국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고, 결국 중독이 되는 '악마의 약'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환자가 약 사용을 꺼리고 있다.<br/> 말기 암 환자나 국내 성인 인구의 10%인 25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만성 통증 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극심한 통증이다. 이때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이다. 쾌락 자극보다 통증 감소 효과가 커 모르핀에 중독될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르핀을 세계 평균의 절반도 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아낀다. 비(非)마약성 진통제로는 통증 개선에 한계가 있어 통증 신호 자체를 차단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하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용주 서울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 “<span class='quot0'>알코올 중독 등의 약물 남용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안심하고 써도 될 정도로 중독 가능성은 낮다</span>”고 했다.<br/> 그런데도 만성 통증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진통제 선택의 어려움이 주 원인이다.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가 주로 처방되는데 만성 통증은 이미 중추신경에 변화가 생긴 질환이라 말초신경에만 작용하는 NSAIDs로는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한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많고, 장기 복용 시 심장질환이나 순환기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늘면서 장기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br/> 반면 마약성 진통제는 NSAIDs보다 통증 조절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나 ‘혹시 중독 되지 않을까’ ‘평생 끊지 못하면 어떡하나’ 등 불안감 때문에 처방을 주저한다. 중독은 쾌락을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행동장애다. 그러나 만성 통증 환자의 경우 뇌의 마약수용체가 현저히 줄어 있고, 쾌락을 느끼는 신경반응체계 일부가 차단돼 있어 마약성 진통제로 쾌락을 느끼고 중독될 위험이 매우 적다.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서방형(徐放形ㆍslow-release)이나 며칠씩 효과가 지속되는 패치제 형태의 마약성 진통제가 사용되면서 중독 가능성이 더 줄었다.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스리니바사 라자 교수는 2008년 미국통증학회에서 “<span class='quot1'>3% 미만의 환자에게서만 약물 의존성이나 중독이 나타난다</span>”고 밝힌 바 있다. <br/>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척추질환에 따른 만성 통증 환자 1,037명을 대상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펜타닐 성분의 서방형 패치제)의 임상시험을 한 결과, NSAIDs 등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도 평균 49%가 통증 감소 효과를 보였다. 효과를 얻지 못한 환자는 3.3%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92.6%가 마약성 진통제가 기존 치료보다 좋다고 답했고, 84.4%가 임상이 끝난 뒤에도 듀로제식 디트랜스를 투여받았다. 효과를 느낀 대부분의 환자(92.6%)가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사용하길 원했다는 것은 만성 통증에서 마약성 진통제가 매우 효과적 치료법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임상 결과 통증으로 인해 악화했던 일상생활 능력이 통증치료를 통해 회복됐다.<b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26.txt

제목: 간암 성장 억제하는 분자치료법 개발  
날짜: 20140707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07100000084  
본문: 연세암병원 이윤한 교수팀 연구<br/> <br/> 세브란스병원 연구진이 특정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유전자제어기술을 활용해 간암 성장을 막는 새로운 분자치료법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미국 국립암연구소 등과 공동 진행했으며, 연구결과는 국제 암연구학회지인 ‘캔서 리서치’ 최신호에 실렸다.<br/> 이윤한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팀은 간암 발생의 주 원인유전자인 HDAC2(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 2)의 생성을 억제하면 간암 세포 증식을 촉진하던 지질대사 기능이 급격히 줄면서 간암 전체의 성장이 억제됐다고 7일 밝혔다.<br/> 이 교수팀은 간암에 걸린 쥐에 정맥주사를 통해 HDAC2를 차단하는 약물을 투여한 결과, 간암조직의 성장이 멈추고 90% 이상 암세포가 죽었다. 이 교수는 “기존 화학 항암 약물치료제의 경우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줘 부작용이 컸지만 선택된 유전자만 공격하는 유전자제어기술(RNAi)을 이용한 분자 항암치료법을 적용하면 부작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했다.<b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27.txt

제목: 산전·산후 관리까지 지원… 여기가 보건소 맞아요?  
날짜: 20140706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06100000005  
본문: 비만ㆍ치매ㆍ우울증 등 서비스 확대 "어려운 사람만 찾는 곳" 옛말 돼<br/>12만~15만원 하는 폐렴구균 접종, 고령인ㆍ영유아 무료로 제공<br/>아늑한 환경 위해 시설 리모델링, 야간 진료ㆍ토요 프로그램 운영도<br/><br/> 서울 구로구에 사는 주민은 이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신건강을 진단할 수 있다. 구로구 보건소가 지난 1일부터 구내 곳곳에 최근 정신건강 무인검진기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택근 구로구 보건소장은 “<span class='quot0'>주민이라면 누구나 우울, 스트레스, 자살위험 관련 검사기능이 탑재된 무인검사기를 통해 마음의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span>”고 했다. <br/> 보건소의 변신은 눈부시다. 비만, 치매, 우울증, 치아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야간 진료나 주5일제 수업에 맞춰 어린이를 위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호텔 못지 않게 깔끔하고 아늑한 환경을 갖춘 곳도 있다. 보건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이 가는 곳이라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 됐다.<br/>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무료 예방접종 혜택도 늘었다. 다음 달부터 전국 254곳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인 고령인에게 무료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지난 5월부터 생후 2개월~5세 미만 어린이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무료로 해주고 있다. 일반 병원에서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12만~15만원을 내야 한다.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span class='quot1'>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보건소가 예방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span>”고 했다.<br/> <br/> 임산부 이용하기<br/>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의 산전ㆍ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안정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전혈액검사와 철분제(임신 16주 이상), 엽산제(임신 12주 이하), 산후우울증 관리, 표준모자수첩제공, 임산부 배려 엠블럼(가방고리) 등을 제공한다. <br/> 출산 예정일 40일 전이나 출산 후 30일 이내의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2주일 이내로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감염 예방ㆍ관리 등을 해주고 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저소득 난임 부부에게는 체외수정시술(6회까지) 및 인공수정시술(3회까지 회당 50만원 이내) 등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br/> <br/> 영ㆍ유아 이용하기<br/>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무료로 12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 접종비 전액을 돌려받는다. 대상 전염병으로는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ㆍ폴리오(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홍역ㆍ유행성 이하선염ㆍ풍진, 수두, 일본뇌염 등이다.<br/> 당해 연도에 출생한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하면 1인당 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검사항목으로는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당풍 당뇨병,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6종이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서 해도 된다. 만일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로 진단되면 17세까지 특수 조제분유와 특수 조제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br/> 저소득 가정(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이 신생아에게는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를 지원한다. 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되면 난청 확진 검사비도 주고 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미숙아와 선천상이상아의 의료비와 영ㆍ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도 지원하고 있다. <br/> <br/> 아동ㆍ청소년ㆍ성인 이용하기<br/> 저소득층 어린이에게는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비와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어린이 암환자에게 암 진단 소요 의료비와 암 진단일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ㆍ재발암 치료비, 약값 등을 제공한다. 백혈병은 3,000만원까지 다른 암은 2,000만원(이식 시 1,000만원 추가)까지 지원해주고 있다.<br/> 만 40세, 66세 생애전환기 국민에게 성별ㆍ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 40세 국민에게는 일반건강검진 항목에다 간염(혈액검사), 구강검진(세균검사), 우울증(CES-D) 검사를 해주고 있다. 만 66세인 사람에게는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간염(혈액검사), 구강검진(세균검사), 골다공증(여성, X선 또는 초음파), 노인신체기능(낙상검사), 우울증(GDS)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br/> 비만 및 고혈압ㆍ고지혈증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는 영양상담과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다발성경화증, 뮤코다당증, 길렝-바레증후군 등 134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도 일부 제공하고 있다.<br/> 또한, 청소년을 포함한 흡연자들의 금연지원에도 나서고 있는데 6개월 9차 이상 금연상담을 해주고, 니코틴보조제(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와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행동강화 물품(껌, 구강청결제, 은단) 등도 제공한다. 6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선사한다. 이밖에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관리 위기상담전화(전국 공통 1577-0199)를 운영하고 있다. <br/> <br/> 어르신 이용하기<br/> 치매 예방을 위해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하고 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이거나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도구를 사용한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선별검사 결과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치매로 진단을 받을 경우 치매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br/> 60세 이상인 저소득층의 사람은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등 망막질환과 녹내장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b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28.txt

제목: "입원 암환자 숙면 방해하는 한밤 맥박ㆍ체온 검사 없앴죠"  
날짜: 20140704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04100000044  
본문: [노성훈 초대 연세암병원장]<br/><br/>510병상 규모로 지난 4월 개원, 예방ㆍ진단ㆍ치료ㆍ교육 통합 시스템<br/>환자는 물론 환자 가족까지 배려, 아시아 최초 로보틱 IMRT도 갖춰<br/>"미국의 MD앤더슨 암센터 같은 세계적 암병원으로 키워나갈 것"<br/><br/> ‘차세대 암병원’을 지향하는 연세암병원이 지난 4월 14일 개원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있는 메디컬 복합단지 내에 연면적 10만5,000㎡에 지상 15층(지하 7층), 510병상 규모다. 위암과 간암 등 15개 암전문센터를 비롯해 암예방센터, 암지식정보센터, 완화의료센터 같은 특성화 기관도 갖췄다. 암 예방부터 진단, 치료, 교육까지 하나로 묶는 통합 진료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단일 암병원으로는 삼성서울병원(655병상)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이로써 서울대ㆍ서울아산ㆍ삼성서울ㆍ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big) 5 병원’이 모두 대규모 암병원ㆍ암센터를 갖췄다. <br/> 초대 연세암병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노성훈(62) 병원장을 만나 우리나라 암 치료역사를 어떻게 새로 써나갈지 대해 들어봤다. 한 해 600여회의 위암 수술을 집도하는 ‘세계적인 위암 수술 권위자’인 노 병원장은 “<span class='quot1'>기독교ㆍ개척ㆍ협동이라는 ‘세브란스의 정신’을 바탕으로 연세암병원을 세계 10위권 안에 들도록 하겠다</span>”고 했다. 노 병원장은 특히 “<span class='quot1'>노력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MD앤더슨 암센터나 메이요클리닉 같은 세계적인 병원이 나올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br/> 노 병원장은 “<span class='quot1'>우리 병원에서는 암 치료는 기본이고, 환자에게 감동까지 안겨 주겠다</span>”고 했다. 암병원 개원 때에 ‘3저(低) 3고(高) 병원’을 지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통증, 대기시간, 불안은 낮추고, 전문가 확보, 정확한 설명, 새로운 환자경험은 높이자는 뜻이다. <br/> 노 병원장은 “<span class='quot1'>현재 유명 대학 병원 입원 환자의 40% 정도가 암 환자이고, 2012년 한 해 새로 암 진단을 받고 있는 환자가 24만여명이나 되지만 병원에서는 그동안 치료에만 집중하느라 암 환자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게 사실</span>”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span class='quot1'>치료는 기본이고 불안이나 우울 등 감정적 변화까지 고려해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겠다</span>”고 힘주어 말했다. 그래서 연세암병원 슬로건도 ‘Family Friendly Cancer Center’로 정해 환자는 물론 환자 가족까지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반영하듯 병원의 암지식정보센터에서는 암환자들을 위한 네일케어와 손마사지, 발마시지, 두피마사지, 음악치료 등 ‘돈이 되지 않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br/> 노 병원장은 “<span class='quot1'>중한 환자가 아니면 입원한 암 환자가 오후 10시~오전 6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밤새 맥박, 체온, X선 등의 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외래환자도 예약 진료 검사 중에 혹시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면 다양한 볼거리와 쾌적한 휴게공간을 만들어 지루하지 않게 했다</span>”고 했다.<br/> 그는 이어 “<span class='quot1'>소아암 환자의 경우 과거에는 암센터와 어린이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이젠 그럴 필요없이 암병원에서 원스톱 진료를 받으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1'>일괄적이었던 회진시간도 환자를 배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했다</span>”고 설명했다.<br/> 암 때문에 심적 고통을 받는 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span class='quot0'>환자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가족들을 위해 의사 49명, 코디네이터 17명 등 모두 66명으로 구성된 굿닥터팀이 암 진료, 교육, 정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span>” 이들 굿닥터팀은 환자와 가족에게 24시간 전화, 이메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이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암 환자나 해당 의료진이 암 치료와 관련한 조언을 구하면, 암병원 전문 의료진이 실비로 답해주는 ‘암 치료 2차 의견(second opinion)’ 제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차 의견 제공은 선진국 암센터에서는 일반화된 프로그램이다.<br/> 노 병원장은 어느 병원에 절대 뒤지지 않을 최신 치료장비도 대폭 확충했다고 자랑했다. “로보틱 IMRT(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기)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최고의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조만간 꿈의 암치료 기기라고 불리는 양성자치료기도 도입할 예정이지요.” IMRT는 광자선 에너지를 6개의 관절로 구성된 로봇에 장착해 치료율을 높이는 장치로 종양의 움직임을 추적해 방사선을 쬔다. LINAC 방사선 치료기도 3대로 추가 도입해 6대를 가동 중이다. 토모테리피 3대도 세브란스병원 본원에서 이전 가동하고 있으며, 암 수술에 특화된 다빈치 로봇수술기도 1대 새로 도입해 3대를 운영하고 있다. <br/>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연세암병원은 ‘다학제 진료’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를 책임질 전체 의료진을 한자리에서 보며 분야별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노 병원장은 “<span class='quot1'>최근 암 치료는 수술, 항암 약물치료, 방사선 치료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 다양한 복합치료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여러 진료과의 참여가 필수적</span>”이라고 했다.<br/> 129년 전 세브란스병원이 현대의학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의학을 선보였듯이 연세암병원을 통해 암 치료의 새 역사를 만들려는 노 병원장의 열정이 인터뷰 내내 짙게 묻어 나왔다.<b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29.txt

제목: 손 편지, 느리고 더디지만 큰 감동 전하죠  
날짜: 20140703  
기자: 강주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03100000159  
본문: 손편지 쓰기 운동 전도사 이근호씨<br/>격려 서신 받은 암 투병 지인이 삶의 의욕 찾는 모습 보고 시작<br/>"영혼을 울리며 전염되는 것 같아"<br/><br/><br/> <br/> “18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감사하단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네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남편 드림.” <br/> “우리 ○○이, ○○이,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오늘만큼은 자전거 타면서 스트레스 왕창 날려버렸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엄마가.”<br/> 2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북한강 철교쉼터 2층의 ‘손편지 이야기관’에는 비틀스의 ‘아이 윌(I will)’ 이 잔잔하게 흘렀다. 벽면과 천장은 감성적인 노래에 걸맞게 손으로 꾹꾹 눌러쓴 정겨운 손편지들이 빼곡히 들어 차 있다. 환자와 함께 산책을 하다 이곳을 찾았다는 간호사의 사연이 노란색 색종이에 곱게 적혀 있고, 동생과 다툰 뒤 화해의 음료수를 나눠 마시고 빈 깡통을 걸어 놓은 초등학생의 사연도 눈에 띄었다. 편지지에는 쓰는 이의 개성이 한껏 묻어났다. 형형색색의 색종이와 엽서는 기본이고, 종이접시, 상자, 심지어 버려진 플라스틱과 나무조각들도 손편지 이야기관에서는 훌륭한 편지지로 변신했다. <br/> 이근호(56) 소장은 “<span class='quot1'>다른 이의 편지를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방문객들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손편지에는 여전히 감성과 사람 사는 냄새가 있다</span>”고 말했다. 이 소장이 ‘손편지 쓰기 운동’을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다. 생업에서 은퇴한 뒤 유방암으로 투병중인 교우에게 작은 희망을 전하는 격려의 손편지를 보냈는데, 그가 눈물까지 흘리며 감동하더니 삶의 의욕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손편지의 위력을 실감한 이 소장은 그때부터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손편지를 써 보내기 시작했다. 구속된 모 대기업 CEO에게, 예술의 전당 관계자에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구두 수선사와 야쿠르트 아주머니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답장이 없기도 했지만 대부분 감동을 담뿍 담은 편지가 돌아왔다. “<span class='quot0'>느리고 더딘 한 장의 손편지가 마치 영혼을 울리며 전염되는 것 같아요.</span>”<br/> 수도권 곳곳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행사장도 찾았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18일과 19일에는 경기 안산시 임시분향소에 편지를 매달 수 있도록 새끼줄을 매달아 놨더니 금세 ‘색종이 편지’가 빼곡히 들어찼다. 슬픔과 위로의 메시지들은 고스란히 손편지 이야기관으로 옮겨졌다.<br/> 이 소장의 목표는 1,000원씩 기부한 국민 성금으로 ‘편지 박물관’을 세우는 것이다. 한 달에 하루를 ‘손편지의 날’로 정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손편지 감성 교육도 계획 중이다. 지역 문화ㆍ예술ㆍ지식인들의 짧은 강연이 곁들여진 교육이 다양한 삶의 지혜를 얻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br/> 그는 최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부대에 위문편지를 보낼 생각이다. 15일에는 경원선 최북단 종착역인 ‘백마고지 역’의 명예역장으로 취임한다. 이 곳에 우체통을 설치해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 안보교육을 받는 학생 등 방문객들이 손편지를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r/> 인터넷에 이를 홍보하면 금방 네티즌에게 퍼져나갈 법 한데 이 소장은 손편지 쓰기 운동에 관한 한 철저히 발품과 입소문, 인쇄매체 등 ‘오프라인 홍보’만 고집한다. “속도와 경쟁만을 강조하다 보니 SNS, 이메일이 사람 위에 군림하잖아요. 민들레가 홀씨를 퍼트리듯, 더디지만 꾸준히 감성을 전하고 싶습니다.” <br/><br/>글ㆍ사진=강주형기자 cubi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30.txt

제목: [채널선택] 제주마(馬) 장가가는 날(EBS 밤 8:50)  
날짜: 2014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03100000035  
본문: 암말 향한 수말의 눈물겨운 구애<br/><br/> 제주마(馬) 장가가는 날(EBS 밤 8:50)<br/> 축구장 120개를 합쳐놓은 규모인 133만㎡의 제주축산진흥원 말목장에는 천연기념물인 제주마 150여 마리가 살고 있다. 번식기인 6월, 일부다처제인 제주마 무리에 새로운 씨수말이 등장한다. 암말들은 어린 씨수말을 뒷발로 차며 텃세를 부린다. 힘겨운 제주마의 장가가는 날, 수말의 눈물겨운 구애가 시작된다. 숲에서 홀로 출산하는 암말의 모습과 새 제주마의 탄생 순간을 공개한다. 제주마와 경주마 더러브렛의 교배로 만들어진 한라마, 한라마와 유럽 명마 루시타노를 교배해 만든 홍시타노 등 새로운 국내산 말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멸종 위기의 제주마와 이를 보존해야 하는 당위성도 친절하게 설명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31.txt

제목: 암세포 억제 유전자 ‘DKK3’ 발견  
날짜: 20140702  
기자: 김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02100000019  
본문: 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 산부인과 이은주 교수팀이 우리 몸의 세포를 이루는 유전자 중의 하나인 DKK3 유전자가 암세포 억제유전자인 것을 밝혀내, 해당 유전자를 이용한 암 치료제를 연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br/> 이 교수팀은 DKK3 단백질이 여러 암세포에서 발현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유전자를 다시 발현을 시켰을 때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베타 카테닌(beta-catenin)’의 발현을 억제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을 세포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입증했다.<br/> 이 교수팀은 자궁경부암, 난소암, 위암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궁경부암 환자의 65%(88명 중 57명), 난소암 환자의 61%(69명중 42명), 위암 환자의 41%(158명 중 64명)가 DKK3 단백질의 발현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자궁경부암 및 위암 환자의 병기가 높을수록 DKK3 단백질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DKK3 단백질 발현이 감소된 환자일수록 자궁경부암 및 위암의 재발이 더 빨리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br/> 이와 같은 결과는 해당 암 뿐 아니라 비교적 다양한 암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DKK3 유전자가 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br/>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DKK3 유전자가 자궁경부암 환자의 무병 생존율과 난소암 환자의 항암치료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span>”며 “<span class='quot0'>위암 환자의 수술 전 병기를 결정할 때 CT검사와 함께 병용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김성환기자 spam001@hksp.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32.txt

제목: 60만원 받고 7개월 친딸 판 아버지  
날짜: 20140702  
기자: 한덕동ddhan@hk.co.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02100000097  
본문: 60만원 받고 7개월 친딸 판 아버지 <br/> <br/>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60만원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판 대학생 A(20)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r/>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전문대에 다니는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입양 블로그에 ‘아이를 좋은 가정에 입양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B(30·여)씨로부터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혐의다. <br/> A씨는 동거하던 여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여관 등에서 몰래 키우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r/> A씨는 처음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다가 “동거녀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B씨로부터 60만원을 받아냈다.<br/> 아동보호 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br/> 경찰은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4명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우연히 블로그 글을 보고 입양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br/> 현재 A씨의 딸은 청주의 한 아동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A씨는 다시 딸을 데려다 키우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br/> 청주=한덕동기자ddha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33.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오픈 外  
날짜: 2014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28100000008  
본문: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오픈<br/> 삼성서울병원은 병원 비전 '환자행복을 위한 의료혁신'을 바탕으로 새 홈페이지 '해피포털(www.samsunghospital.comㆍ사진)'을 최근 열었다. 이 홈페이지는 병원의 3대 키워드 행복ㆍ박애ㆍ스마트를 담아 기존 병원 홈페이지와 완전히 차별화했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원장은 “<span class='quot0'>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이 병원의 주 임무였지만 앞으로 예방하는 토털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업의 개념이 바뀔 것</span>”이라고 했다. 병원은 새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해 환자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18일까지 진행한다.<br/> <br/>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명칭 변경 <br/> 근로복지공단이 1일부터 공단 산하 10개 산재병원 이름을 ‘근로복지공단 OO병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산재병원’이란 명칭 때문에 산재환자만 진료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span class='quot1'>공단 네트워크 병원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 날 것</span>”이라고 했다.<br/> <br/><br/> 저용량 아스피린 장기 복용하면 췌장암 예방<br/> 저용량 아스피린(사진)을 장기 복용하면 췌장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미국 예일대학 연구팀에서 나왔다. 예일대 보건대학원 하비 리쉬 박사팀은 미국 암연구학회 학술지 ‘암 역학ㆍ생물표지ㆍ예방’ 온라인판에 소개됐다. 연구팀은 2005~2009년 미국 코네티컷주의 30개 종합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 362명과 췌장암이 없는 대조군 690명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br/> <br/><br/> 건일제약, 불면증 치료제 서카딘 시판 허가<br/> 건일제약은 최근 불면증 치료제 서카딘(성분명 멜라토닌ㆍ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카딘은 내인성 멜라토닌과 비슷하게 방출되는 최초의 서방형(徐放形) 멜라토닌으로, 수면 및 일주기성 리듬을 조절해 수면구조를 보존함으로써 수면 질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서카딘은 중추 신경계(CNS) 중심의 노인성 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인 이스라엘 뉴림에서 만들어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한 43개국에서 시판되고 있다.<br/> <br/> 이화의료원, JCI 재인증<br/> 이화여대의료원은 지난달 16~20일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로부터 방문평가를 받은 결과 ‘JCI 재인증’에 성공했다. 이번 방문 평가에서 JCI 현장 평가 위원들은 한층 강화된 JCI 기준집 제5판의 인증 기준에 맞춰 16개 평가 부문, 316개의 평가 기준과 1,218개에 이르는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34.txt

제목: 엑스터시의 대부, 그가 추구한 건 쾌락 아닌 마음의 심연  
날짜: 20140628  
기자: 최윤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28100000004  
본문: 환각물질 연구에 매진한 생화학자<br/>살충제 '젝트란' 개발해 명성<br/>자신ㆍ아내를 실험 대상 삼으며 200종 넘는 마약 만들어 효능 알려<br/> <br/><br/><br/> 새로운 마약이 시장에 등장하면 당국은 샘플의 약성(藥性)을 검토한 뒤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들이 주로 채택하는 네거티브 규제, 즉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불법 대상만 특정해서 단속하는 방식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존 불법 마약과 효능 면에서 별 차이 없는, 때로는 더 강력한 신종 마약도 금지약물로 지정될 때까지 길게는 1년 넘게 합법적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유럽연합 마약중독감시센터(EMCDDA)에 따르면 2009년 한 해에만 24종의 신종 마약이 등장했다. 그게 10년에는 41종, 11년 49종, 12년 73종으로 늘었고, 지난 해도 10월까지 56종의 새로운 합성 마약이 시장에 나왔다. <br/> 유엔 ‘2013년 세계마약리포트’는 “국제적인 마약 규제시스템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새로운 유해약물들은 꾸준히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속도나 창의성 면에서 규제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그 해 10월 31일자 기사에서 “화학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인터넷에 널린 정보들만 활용하면) 몇 주면 새로운 합성 마약을 만들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썼다. 가디언은 “<span class='quot0'>이제 당국은 약물의 합법 불법을 따질 게 아니라 어떤 약물이 얼마나 해로운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할 것</span>”이라고 주장했다. <br/> <br/> ‘엑스터시의 대부’ 알렉산더 슐긴(Alexander Shulgin) 박사가 6월 2일 자신의 미국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숨졌다. 향년 88세. <br/> 생화학자인 그는 온 생애 동안 사실상 환각물질 연구에만 매진, 200여 종이 넘는 ‘마약’을 합성했고, 그 효능을 세상에 알렸다. 그 중에는 그에게 영광과 오명을 동시에 안긴 ‘엑스터시’도 있었다. 그는 마약 합법화의 선구적 주창자였다. 마약을 합법화하면 관련 범죄도 줄고 단속 비용도 절감되며 ‘불법의 은밀한 매력’이 사라져 상용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듯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못하게 막고, 마약 복용을 강제하거나 아동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일만 단속하고 중독으로 고통 받는 이가 있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에게 마약은 순수한 ‘개인적 선택의 문제’였다. <br/> 슐긴 박사의 마약 합법화 논리가 그런 현실적 판단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궁극적 연구 목적은 인간의 심적 기제(mechanism of mind)를 탐구하는 데 있었다. 그는 의지로 열어젖힐 수 없는 마음의 심연을 드러나게 하는 촉매로서 환각물질의 가능성을 긍정했다. 그에게 마리화나나 아편 같은 환각물질은 담배나 술, 커피처럼 신이 인류에게 준 선물이며, 환각상태 역시 태초이래 인간이 누려온 고유한 본성의 한 측면일 뿐이었다.<br/>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물로 돈을 구하지 않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만들어 거래하고, 낯선 쾌락만을 위해 약물을 남용하는 세태를 개탄했다. 그는 자신의 책 피칼에 “(마약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탐욕의 인간이 마약을 타락시켰다(MDMA had been ‘sidetracked into the Yahoo generation’)고 썼다. 짧은 약력만으로 흔히 연상하는 타락한 과학자의 이미지와 달리 그는 아주 순수했거나 순진했고, 말년에는 쪼들리며 살았다. <br/> <br/> 슐긴은 1925년 6월 17일 러시아 이민자 아버지와 미국 일리노이주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각각 공립학교에서 역사와 문학을 가르쳤지만 슐긴은 어려서부터 과학에 심취, 초등학생 때부터 캘리포니아의 집 지하실에다 실험실을 갖춰두고 비커를 갖고 놀곤 했다고 한다. 16살에 하버드대에 전액장학생으로 입학, 본격적인 화학 공부를 시작하지만 2차대전이 나면서 미 해군으로 입대, 만기 전역한다. 제대 후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 전입, 생화학 박사학위(1955)를 딴 뒤 ‘바이오-래드(Bio-Rad)’라는 연구소에 잠시 근무하다 미국의 다국적 화학회사인 ‘다우 케미칼(Dow Chemical)’에 취직해 64년까지 다닌다. 그는 세계 최초의 생분해성 살충제 ‘젝트란(Zectran)’을 개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겼고 그 보상으로 어떤 연구와 실험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그의 본격적인 환각 물질 연구는 그 즈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 특별한 재능을 지닌 과학자나 예술가가 자신의 영역에서 천국의 열쇠 혹은 존재와 세계의 비밀을 찾으려고 하는 건 그리 이상할 것도, 드문 일도 아니다. 슐긴의 성배(聖杯)는 환각물질이었다. 그가 환각물질에 꽂힌 계기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는 군 시절 일화 한 토막을 ‘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그는 군대에서 엄지손가락이 감염돼 간단한 수술을 받은 일이 있는데, 간호사가 건네 준 오렌지주스를 마신 뒤 유리잔 바닥에 남은 하얀 결정들을 보고 그게 진정제나 마취제라 여겼고, 주스를 마신 뒤 거짓말처럼 잠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결정은 덜 녹은 설탕이었다. 슐긴은 ‘나를 무의식 상태에 들게 한 그 미량의 설탕’의 위력에 놀랐고, 위약 효과를 포함해 자신의 육체와 세계를 지배하는 마음의 작동 기제에 호기심을 지니게 됐다고 말했다. <br/> <br/> 1950, 60년대의 미국은 반(反)문화의 전성기였고 그 역시 환각물질을 체험했다. 50년대 말 ‘메스칼린(페요테선인장에서 추출한 천연환각물질)’을 한 뒤의 경험을 그는 ‘폭발적(I first exploded…)’이었다고 표현했다. “나는 온 우주가 마음과 정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에 접근할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다. 그것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안에 있고, 거기에 닿을 수 있는 능력을 촉발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화학물질이다”(NYT, 2005.1.30) <br/> 다우 케미칼이 부여한 직업적 자유 안에서 그는 환각물질 실험에 매달렸고, 연구 결과를 ‘네이처’나 ‘유기화학저널’ 등에 발표하기도 했다. 그의 활동이 당시 사회의 보편적 윤리의식과 조화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그의 ‘순수한’ 의도와 성과가 엉뚱하게 이해되고 활용될 소지도 있었을 것이다. 기업 이미지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 회사측은 그에게 논문 발표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고, 한계를 느낀 그는 66년 말 직장을 그만둔다. 그는 약 2년여 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신경학과 약학 등을 공부하며 연구 자문과 강연 활동으로 시간을 보낸 뒤 자신(그리고 부모의)의 캘리포니아 라파예트의 집에 연구실을 연다. 유년의 지하실이 아닌 창고 하나를 통째로 개조한 그 환각물질 전문 연구실을 그는 ‘농장(The Farm)’이라 불렀다. <br/> <br/> 그가 미 마약단속국(DEA)과 인연을 맺은 것도 그 즈음이었다. 그의 친구로 훗날 미 서부지역 DEA 연구실 총괄 책임자가 되는 밥 세이거의 주선으로 그는 DEA와 다양한 합성 마약 정보를 교류하고, 샘플 성능 실험 등을 돕는다. 또 마약 사건 관련 법정에 출석, 특정 마약의 효능 등을 증언하기도 했고, 현재 미국 마약단속 규정의 근거가 된 ‘금지약물 가이드북’(1988)을 집필하기도 했다. 1994년 DEA와 사이가 틀어져, 단속 요원들이 그의 ‘농장’을 압수수색하기까지 약 15년간 그는 DEA가 발행한 ‘1급 규제약물(Schedule 1)’ 관리자격증 보유자였다. <br/> 그가 ‘엑스터시의 대부’라 불리곤 있지만, 엑스터시를 최초로 합성한 것은 1914년 독일의 종합 화학ㆍ제약회사인 머크(Merck)사였다. 머크사는 혈액응고제를 개발하던 중 우연히 환각성 물질 ‘MDMA(3,4-매틸렌디옥시-메탈암페타민)’를 발견했으나 사장시켰다고 한다. 슐긴은 그의 강의를 듣던 한 대학원생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 새롭고 간단한 방법으로 MDMA를 재합성하는 데 성공한다. 효능에 놀란 그는 친구인 레오 제프라는 한 정신과 의사에게 MDMA를 소개했고, 제프 박사는 거의 미국 전역을 돌며 동료 의사와 환자들에게 그 약의 처방을 권했다. 그게 1976년 무렵이다. 하지만 그 약은 슐긴의 의도와 달리 어쩌면 운명적으로, 각종 클럽과 술집으로 번져 나갔고, ‘엑스터시’ 혹은 ‘레이브 드럭(Rave Drug)’이라는 유혹적인 이름을 달고 마리화나와 함께 마약 대중화의 선봉에 섰다. 80년대 중반 규제약물로 지정될 때까지 근 10년 동안 엑스터시는 정신과 진료, 특히 대화요법과 참전 군인들의 심리불안 극복 요법에 합법적으로 처방됐다. 80년대 낸시 레이건이 주도한 마약반대캠페인 ‘Just Say No!’ 시절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던 그는 “나는 불법적인 일을 일체 하지 않는다. 새로운 화학물질을 합성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만들어진 물질을 복용해보기 전에는 환각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조차 알 수 없다. 내가 그것들을 맛보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br/> <br/> LSD를 최초로 합성한 호프만 박사나 폴리오 벡신을 개발한 솔크가 그랬듯이, 슐킨은 합성약물의 효능과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언제나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기존 약물의 분자구조를 변형하거나, 천연 환각물질에서 추출한 성분들로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양에서부터 점차 양을 늘려가며 복용하면서 적정 용량과 효능을 확인했다.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면 81년 결혼한 아내 앤(83)에게 투여했고, 또 60년대부터 어울린 그의 오랜 친구들에게 효능을 재확인했다. <br/> 슐긴은 다섯 권의 책을 펴냈고, 자비 출판한 피칼(Pihkal: A Chemical Love Story(1992)과 티칼(Tihkal: A Continuation(1994)은 유기화학분야의 고전으로 꼽힌다. ‘내가 알고 사랑했던 페니실아민(Phenethylamines I Have Known And Loved)’과 ‘트립타민(Tryptamines)’의 머릿글자를 딴 피칼과 티칼은, 각각 슐킨 자신이 두 물질을 기반으로 합성한 모든 환각물질의 주관적 효능과 객관적 정보를 기록한 방대한 책이다. 그 책들은 다소 난해하지만, 슐킨 자신의 생애를 기록한 자서전이자, 환각물질 일반에 대한 형이상학적 가이드북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조제용 ‘요리책’이기도 하다고 ‘The Whole Earth’라는 잡지의 한 편집자는 서평에 적었다. <br/> 공교롭게도 피칼이 출간되고 2년 뒤인 1994년 DEA는 슐긴의 연구실을 급습, 당국이 부여한 권한을 벗어난 몇 가지 사실들을 밝혀낸다. 그는 DEA자격증을 박탈당하고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 전까지 두 차례의 정례적인 감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사안이었지만, 마약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책까지 낸 슐긴과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 DEA 샌프란시스코지부 대변인은 한 인터뷰에서 “그의 책들은 불법 약물 조제법 안내서와 다름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고, 실제로 우리 요원들이 불법 실험실들을 수색하다 보면 그의 책 사본들이 발견되곤 했다”고 말했다. <br/> 그는 소수의 히피 등 반문화 신봉자나 극단적 자유주의자 사이에서 신적인 영웅으로 꼽히지만, 다수의 일반인에게는 영화 ‘백투더퓨처’의 브라운 박사처럼 호기심과 장난기 넘치는 천재, 아니면 메리 샐리의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같은 기괴한 이미지로 남아있다. 반면 2005년 FDA는 말기암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엑스터시를 처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하버드대의 계획을 승인하는 등 환각물질에 대한 다양한 약리 실험들이 수많은 대학과 전문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1966년 모든 실험조차 금지된 LSD조차 올 초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슐긴의 저서와 연구기록은 그 실험들의 중요한 안내서로서도 기여하고 있다. <br/> <br/> 슐긴은 2008년 동맥판막치환술을 받았고, 2010년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최근에는 경미한 노인성 치매증상을 앓았다. 사인은 간암이었다. 그는 소액의 주식투자 수익금과 사회보장보조금, 자신의 땅에 중계기를 설치한 전화회사 두 곳이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에 의존해 ‘검소하게’ 살았고(nyt),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산 일부를 처분했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알렉산더슐긴연구소 자료)<br/> 그는 2005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까지 4,000회가 넘는 환각 체험을 했다고 밝혔다. 그 체험들을 합치면 그는 생애 중 약 12년을 ‘하이(high)’상태로 지낸 셈이라고 가디언 기자는 추정했다. 아내 앤은 그 세월의 대부분을 함께 했다. 슐긴의 두 번째 아내(첫 부인은 사별)였고, 앤의 네 번째 남편이었던 두 사람은 함께 실험하고 체험하고 집필하며 해로했다.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앤은 그 세월을 회고하며 언제나 스릴 넘치는 일상이었다고 말했다.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문을 연다고 상상해보세요. 심지어 거기 문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을 수도 있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진진했어요.”<br/> 최윤필기자 proos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35.txt

제목: 피 한방울로 6대암 진단 한다지만…  
날짜: 20140627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27100000042  
본문: 암표지자검사, AFPㆍPSA만 의학적으로 의미 있어<br/> <br/>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다.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통계청 2013년 사망원인 통계). 폐암, 간암, 위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고, 대장암, 췌장암, 백혈병 사망률은 전년보다 늘어났다.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평균수명(81세)까지 생존할 때 한국인이 암에 걸릴 확률은 34%나 된다.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암에 걸리게 되는 셈이다. <br/>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1만879명 가운데 1.4%(149명)이 암 진단을 받았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암 진단율이 높아져 남성은 40대는 0.5%, 50대 1.8%, 60대 3.0%, 70대 이상은 5.4%였다. 여성은 40대 1.1%, 50대 1.4%, 60대 2.3%, 70대 이상 3.1%에서 암이 발견됐다. 암 종류로는 갑상선암 24.2%(36명), 폐암 14.1%(21명), 전립선암 12.1%(18명), 위암 10.7%(16명), 대장암 10.1%(15명), 유방암 6%(9명) 순이었다.<br/> 황진혁 분당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장(소화기내과 교수)은 “<span class='quot0'>초기 암의 완치율은 90% 이상이지만 2기에는 생존율이 60~70%, 3기에는 30~50%로 떨어지고, 4기가 되면 20%를 넘지 못한다</span>”고 했다. 황 센터장은 따라서 “<span class='quot0'>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고 해서 건강에 과신해서는 안 된다</span>”고 덧붙였다.<br/> <br/> “<span class='quot1'>값비싼 검진이라고 꼭 좋은 것 아냐</span>”<br/> 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 생존율과 완치율이 높아지지만 대부분 악화한 뒤 알아채 사망률이 여전히 높다. 김재준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장(소화기내과 교수)은 “<span class='quot2'>40, 50대 중년층부터 나이가 들수록 흔히 발견되는 정밀 암 건강검진은 필수</span>”라고 했다.<br/> 최근 높아진 암 건강검진율 덕분에 우리나라의 암 완치율도 크게 호전됐다. 자궁경부암과 위암의 경우 완치율이 90%를 넘고 있다. 암 검진을 통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암을 발견하게 된 덕분이다. 이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의 내시경 검사가 보편화하지 못했던 20년 전만 해도 자궁경부암과 위암을 뒤늦게 발견해 진단자 2명 중 1명은 사망했다. 황 건강증진센터장은 “<span class='quot0'>과거에 암 진단은 곧 사망선고였지만 지금은 암 진단자의 33%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한다</span>”며 “<span class='quot0'>33%는 암 증상 완화와 함께 생명을 몇 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span>”고 했다. <br/> 하지만 모든 암이 암 건강검진을 하기에 적합한 암은 아니라는 게 의학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암마다 적당한 암 건강검진 방법과 검진비용이 있으므로 검진을 하는 의사와 상의해 검진항목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모든 건강검진이 그렇듯이 암 건강검진 역시 값비싼 검사가 반드시 더 나은 검사는 아니다.<br/> 몸의 모든 암을 찾아내려고 양전자방출 단층촬영기(PET-CT) 검사를 하려고 사람이 적지 않다. 손기영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PET-CT는 분명히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검사이지만 일반적으로 암 건강검진을 위해 권장하는 검사는 아니고 방사선 피폭량도 높은 편</span>”이라고 했다.<br/> 또한, 최신 기술이 가장 좋은 암 검진법도 아니다. 예를 들어 최근 컴퓨터단층촬영(CT)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내시경을 대체하는 것에 관심이 높은데, CT 대장내시경은 병변(病變)의 발견능력이나 향후 치료계획을 하는데 대장내시경보다 우월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br/> <br/> 암표지자 검사 중 AFPㆍPSA는 의미 있어<br/> 혈액 한 방울로 암세포에서 나타나는 특정 단백질을 검출ㆍ검사해 암을 진단하는 암표지자 검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암표지자 검사는 간암을 비롯해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6대 암을 진단한다. 적지 않은 사람이 암표지자 검사를 받은 뒤 수치가 높게 나와 ‘암 공포’에 빠지기도 한다.<br/> 암표지자 검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손 교수는 “<span class='quot3'>현존하는 암표지자 검사로는 알파태아단백(AFP), 전립선 특이항원(PSA), CA 19-9, CA 125 등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이 가운데 암 검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검사는 AFP, PSA 등 두 가지 정도</span>”라고 했다. 손 교수는 “<span class='quot3'>AFP의 경우 B형이나 C형 간염 보균자에서 간암에 대한 검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아직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PSA도 남성의 전립선암 검진에 이용될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 AFP와 PSA 등 두 가지 검사를 제외한 다른 암표지자 검사는 의학적으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의학계의 정설이다. <br/> 하지만 송 교수는 “<span class='quot4'>다른 암표지자 검사는 검진의 차원보다 치료 후 재발을 발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span>”고 설명했다. 예컨대 췌장암의 표지자로 많이 검사되고 있는 CA 19-9의 경우 양성예측률이 2% 미만인데, 이는 검사 이상이 나온 사람 가운데 실제 췌장암이 있는 경우가 2%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br/>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36.txt

제목: 척추 뼈에도 암이!  
날짜: 20140626  
기자: 강동경희대병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26100000019  
본문: [조대진 교수의 뼈대 있는 이야기]<br/><br/>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사망자수는 25만7,396명이다. 사망원인의 1위는 역시 악성 신생물인 암이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암 생존율을 아직까지 높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암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주위에서도 환자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암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전이가 잘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암환자가 허리에 통증을 느낀다면 단순한 관절염이나 허리디스크가 아닐 수 있다. 암이 뼈로 전이된 것일 수도 있다.<br/> 척추는 뇌의 운동 및 감각신경을 전달하는 중추 신경계를 보호하고, 인간의 몸을 지탱해주는 몸의 기둥이 되는 뼈의 구조다. 이러한 척추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이 이 척추뼈암은 말기 암환자의 약 70%에서 발견되는 흔한 암이다. 이는 국내 연간 암 사망자수 6만명이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4만명 정도에게 발병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br/> 뼈는 폐와 간 다음으로 암 전이가 잘 되는 부위로, 뼈의 내부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구성돼 있고,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살기 좋다. 뼈로 전이된 암세포는 정상적인 뼈 구조를 파괴해 통증을 가져오고 골절까지 일으킨다.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신장암, 갑상선암 등이 전이성 뼈암을 잘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암에 걸린 분들의 경우 암 치료를 다 한 뒤에라도 전이성 뼈암에 대해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반면에 소화기 암이나 난소암, 자궁암 등은 뼈 전이 빈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br/> 전이는 척추, 늑골, 골반뼈, 허벅지뼈, 어깨뼈 등에 잘 생기나, 무릎 아래쪽이나 팔꿈치 관절의 아래 부의는 전이가 매우 드물다. 고령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과 전이성 뼈암을 구분하기 쉽지가 않다. 이로 인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요통 외에 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전이성 뼈암의 통증은 초기엔 경미하고 뻐근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편이며, 쉬어도 완화되지 않는다. 특히 야간의 동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br/> 척추에 전이되면 허리나 등 통증과 함께 팔이나 가슴,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동반될 수 있다. 뼈나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 뼈로 전이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뼈로 전이가 잘 되는 암을 가진 환자는 관절염이 흔히 발생하는 부위가 아닌 곳에 통증이 생겼거나, 일반적인 관절염 치료를 했는데 낫지 않으면 암의 뼈 전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br/> 암이 뼈로 전이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비교적 좋은 예후를 나타낸다. 전이성 뼈암으로 진단되면 방사선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척추암 진단 후에도 신경손상 가능성 및 회복의 어려움, 말기 암 환자의 기대여명 등을 이유로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기법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척추암을 제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줄이고 신경마비와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다.<br/>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37.txt

제목: 석면질환연구회, “국내 석면 질환자 계속 늘어날 것”  
날짜: 20140626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26100000040  
본문: 석면질환연구회, “국내 석면 질환자 계속 늘어날 것”<br/> <br/> 2009년 사용 금지된 석면 관련 질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잠복기가 최소 20년이라 앞으로 40~50년은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br/> 대한영상의학회 산하 석면질환연구회는 최근 석면 노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소리 없는 죽음의 섬유’로 불리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섬유는 아주 작은 섬유로 흡입하게 되면 기관에서 기관지로 폐의 가장 깊은 폐포까지 들어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 <br/> 김정숙 동국대일산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0'>일반인은 물론 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사조차 우리나라 석면 유무 및 그로 인한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span>”고 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석면 광산 및 인근 주민, 다양한 직종에서 광범위하게 직업ㆍ환경적으로 노출된 경우가 많아 환자수가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된다</span>”고 덧붙였다.<br/> 실제로 박혜자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012년 10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석면 현황’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 1만9,945개 학교 중에서 72.7%인 1만4,492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검출되지 않은 학교는 27.3%인 5,453개교에 불과했다.<br/> 학교 석면관리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9년 85.7%(총 1만9,815개 학교 중 1만6,982개교검출)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2045년까지 석면 관련 질환은 꾸준히 증가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일상적인 판독과정에서 석면 관련 질환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어 석면질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적절한 진단과 판독이 이뤄질 수 있다</span>”고 했다.<br/> 진폐 및 석면폐증의 진단과 판정에는 영상의학적 진단이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성상 직업과 무관하게 환경적 노출만으로도 석면 관련 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 영상의학과는 물론이고, 다른 임상과 의사들도 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b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38.txt

제목: 우주인 1호 이소연씨 "항우연 퇴사 고려" 찬반 논란  
날짜: 20140626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26100000098  
본문: "260억 들인 우주인 사업 1회성으로… 먹튀"<br/>"의무기간 이미 종료… 개인 선택 존중해야" <br/><br/><br/> <br/>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가 우주인 사업을 주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퇴사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되돌아갈 것을 고려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씨가 실제로 항우연을 퇴사하기로 최종 결정한다고 해도 한국 첫 우주인이 사라지거나 이 타이틀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br/> 일부 누리꾼은 이씨가 2008년 4월 우주에 다녀온 뒤 4년여가 지난 2012년 8월 항우연을 휴직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을 밟다 지난해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했을 때도 ‘먹튀’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어 이씨가 항우연까지 퇴사하면 약 260억원을 들인 우주인 배출 사업은 결국 1회용에 그치게 됐다는 것이다. 거액을 투자한 우주인 배출에 대해 국민적 기대가 컸던 만큼 누리꾼들의 지적처럼 이씨의 행보에 아쉬운 점도 분명 있다. 그러나 항우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이씨가 우주관련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면 더욱 좋겠지만, 우주인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줄 필요도 있다</span>”고 밝혔다.<br/> 이씨는 한국 최초 우주인으로서 2007년 2월 항우연에 입사했고, 우주비행 후 2년간의 의무 복무기간은 2010년 4월 완료했다. ‘한국 우주인 관리지침’ 제2조에 따르면 의무활동기간은 최종 후보자의 선발로부터 우주인이 우주로부터 귀환한 날 또는 우주인 귀환 예정일 중 후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의무활동기간 이후에도 2012년까지 이씨는 관련 학술대회 발표나 논문 게재, 강연이나 행사 참여 등의 홍보 활동을 계속했다. 이씨가 2008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수행해온 실험결과들은 현재 기록으로 남아 다른 연구자들이 후속 연구자료로 이용하고 있다.<br/> 우주인이 되면 평생 우주인으로 살며 유관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다. 외국 우주인 중에도 우주와 무관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1995년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왕복선 비행사가 된 뒤 1999년 첫 여성 선장까지 지낸 에일린 콜린스는 2006년까지 활동하고 개인적 관심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 금융회사에 들어갔다. 미국의 의사 출신 우주인 로버트 새처는 2004~2011년 우주 관련 활동을 하다 의사로 복직해 휴스턴의 한 암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영국 최초 우주인 헬렌 셔먼도 1991년 우주비행 후 방송 출연 등의 활동을 하다 1990년대 말 통신회사에 취업하면서 우주인 활동을 종료했다.<br/> 이씨의 항우연 퇴사가 곧바로 우주인으로서의 활동 종료로 이어질 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다만 거액을 투자한 만큼 항우연과 정부는 우주인의 경험과 우주에서의 연구 내용이 우리 과학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br/>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39.txt

제목: 제주지사배 대상경주, 상반기 국내산 최강자 가린다  
날짜: 20140626  
기자: 안민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26100000087  
본문: 29일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장관배(GIII) 대상경주는 국산 더러브렛 경주마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제주도가 후원하는 경주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경주는 서울과 부경의 오픈경주로 치러지며, 국내산마 최강을 가리는 5개의 경주 중 유일하게 상반기에 치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하반기 국내산마 최고의 빅레이스인 대통령배(GI)의 전초전이라 해도 될 만큼 수준 높은 경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br/> 당초 부경의 ‘인디밴드’가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으나 갑자기 출주를 취소해 같은 부경의 ‘마이워너’와 ‘매직댄서’가 우승후보로거론되고 있다. 반면 서울은 ‘천년동안’ 정도가 주요 복병마 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경주에서도 부경의 강세가 예상된다. <br/> <br/> ▲[부경] 마이위너(거, 5세, 30조 울즐리 조교사) <br/> 주로 선두권 후미에 따르는 것을 선호하는 선입형 마필이다. 부경에서는 국내산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마필로, 기본기가 탄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복이 심한 경주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지목되나 직전 경주에서 59kg의 부담중량을 짊어지고도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력 상승세에 있어 기대할 만하다. 1800m에 대한 거리부담은 없는 편이고, 강력한 선행마가 없어 선행전개까지도 가능하다는 부분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br/> <br/> ▲[부경] 매직댄서(수, 4세, 19조 김영관 조교사) <br/> 통산전적은 14전 9승, 2위 3회로 승률 64.3%, 복승률 85.7%를 기록 중인 마필로, 안정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전성기인 4세마로 경주를 치를수록 힘이 차고 있어 향상되고 잇는 능력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꾸준히 성장 중인 마필이다. 특히 직전경주에선 무려 60kg의 높은 부담중량을 짊어지고도 2위마를 7마신차로 제치는 괴력을 보이기도 했다. 우승후보로 거론되는 ‘인디밴드’와 같은 소속조라는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이다.<br/> <br/> ▲[서울] 천년동안(암, 4세, 41조 신삼영 조교사)<br/> 홈그라운드에서 열리지만 부경에서 원정오는 마필들의 전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서울 마필들이 밀리는 형국이다. 그래도 서울 마필 중 가장 기대를 걸어볼 만한 마필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상 도전권이나 복병세력 정도 분류되고 있다. 종반 탄력 발휘에 강점이 있지만 종반 추입싸움으로 갈 경우 국내 최강마인 ‘인디밴드’와의 정면대결을 피하기 어렵겠다. 암말감량 혜택에 따라 부담중량은 56kg이다. <br/> 안민구기자 amg@hksp.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40.txt

제목: "혈압 140/90㎜Hg 미만으로 관리하면 문제 없어"  
날짜: 20140625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25100000142  
본문: 세계 고혈압학회서 기준 단순화 80세 이상은 150/90이 가이드라인 <br/>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은 국민병, 30세 이상 성인 31.5%가 환자<br/>술·담배 끊기 등 9대 수칙 지키면 약 1개와 맞먹는 혈압 강하 효과<br/><br/><br/><br/> <br/> 고혈압은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치명적이다.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뇌졸중, 뇌경색, 안구 내 출혈, 시력손상, 발기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 ‘소리 없는 저승사자’로 불린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31.5%(2012년 국민영양조사)가 고혈압 환자일 정도로 대표적인 국민병이다. 2010년(28.99%), 2011년(30.8%)보다 더 높아졌다. 진료비도 주요 만성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2조2,811억원이다.<br/> 그런데 본인이 고혈압 환자인데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44%이고, 환자의 60.7%만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2012년 국민영양조사). 김종진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 내과 교수)은 “<span class='quot0'>고혈압은 완치 개념이 없고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 질환인데도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관리하는 환자가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span>”고 했다.<br/> <br/><br/><br/> 140/90㎜Hg 이하로 관리하면 문제없어<br/> 고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며 피를 뿜을 때 혈압(수축기 혈압ㆍ최고 혈압)이 140㎜Hg 이상이거나 심장이 원래 상태로 돌아왔을 때 혈압(확장기 혈압ㆍ최저 혈압)이 90㎜Hg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 수축기 혈압 150㎜Hg / 확장기 혈압 90㎜Hg 이내로 유지하면 괜찮다는 것으로 우리와 미국, 유럽 고혈압학회에서는 인정했다.<br/> 대한고혈압학회(2013년)뿐만 아니라 미국합동조사위원회(JNCㆍ2014년)와 유럽고혈압학회(ESHㆍ2013년) 등은 고혈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자 고혈압의 정의를 이처럼 단순화했다. 지난 13~16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유럽고혈압학회(ESH)와 세계고혈압학회(ISH) 공동학술대회 ‘하이퍼텐션(고혈압) 2014’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고혈압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고혈압의 안정적인 치료와 합병증 조절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br/> 그런데 일본의 일부 학회는 최근 고혈압 기준을 완화했다. 일본건강검진학회ㆍ건강보험조합연합회 등은 2011년 건강검진을 받은 150만명 가운데 아무런 질병이 없는 건강한 남녀 1만여명의 검사치로 새 정상 기준치를 만들었다. 암 등의 병력이 없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는 등의 기준을 충족한 ‘초(超)건강인’ 1만~1만5,000명의 검사치를 성ㆍ연령별로 분석해 만든 것이다. 고혈압 기준을 ‘수축기 혈압 130㎜Hg 미만~확장기 혈압 85㎜Hg 미만’에서 ‘147㎜Hg 미만~94㎜Hg 미만’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일본고혈압학회는 최고 혈압 140㎜Hg 이상, 최저 혈압 90㎜Hg 이상을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br/> 김종진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은 “<span class='quot0'>고혈압 치료 목표 기준을 단순화한 것이 세계적인 추세</span>”라며 “<span class='quot0'>80세 이상 초고령 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140/90㎜Hg 미만으로 혈압을 관리하면 된다</span>”고 말했다.<br/> <br/> 단독 요법을 우선하되 심하면 병행 요법으로<br/> 당뇨병의 정의가 단순화됐을 뿐만 아니라 치료법도 간단해졌다. 대한고혈압학회가 지난해 11월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베타차단제와 ACE억제제(혹은 안지오텐신 차단체), 칼슘 차단제, 이뇨제 등 4가지 종류를 모두 허용했다. 학회는 2006년 영국국립보건연구원(NICE)이 뇌졸중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새로운 당뇨병 유발 가능성 때문에 고혈압치료제에서 배제했던 베타차단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김문재 인하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베타차단제는 세계 가이드라인에서도 제시됐듯이 환자마다 질환 특성이 다르므로 쓰일 수 있다</span>”고 했다.<br/> 고혈압 치료제로는 우선 1차 치료제를 단독으로 쓰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약제를 함께 쓰는 병용요법이 권장된다. 대한고혈압학회 가이드라인은 혈압 160/100㎜Hg 이상이거나 20/10㎜Hg 이상의 혈압을 낮출 필요가 있을 때 병용 요법이 가능하다. 김종진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어떤 형태로든지 메커니즘이 다른 두 가지 고혈압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단일 약 용량을 늘리는 것보다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모든 종료의 1차 치료제를 쓸 수 있다</span>”고 했다.<br/> 대체로 병용요법은 ACE억제제와 칼슘차단제, 이뇨제를 쓸 수 있다. 고혈압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베타차단제도 병용할 수 있다. 다만 베타차단제와 이뇨제의 병용은 당뇨병 및 대사적 장애 등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안지오텐신차단제와 ACE억제제의 병용 치료처럼 두 가지 비슷한 메커니즘의 약을 배합하면 단백뇨 감소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말기 콩팥부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 발생이 늘어날 수 있어 피해야 한다.<br/> 좋은 생활습관은 고혈압 약 1개 정도의 혈압 강하 효과가 있다. 약물치료와 생활요법을 병행함으로써 복용 약의 용량과 개수를 줄이고, 약 효과를 최대화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8개 관련 학회와 함께 고혈압 환자 등을 줄이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까지 마련했다. 담배 끊기, 음주 자제(하루 한 두잔), 싱겁게 먹기,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기, 적정 체중ㆍ허리둘레 유지, 긍정적인 마음가짐, 정기적으로 혈압측정,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응급증상(뇌졸중ㆍ심근경색) 숙지 등이다.<br/>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41.txt

제목: 제주대병원 소아암센터 10월 개원  
날짜: 20140625  
기자: 정재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25100000188  
본문: 제주에 소아암 병동이 설치돼 환자 및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br/> 제주도는 25일 제주대병원과‘소아암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2억원 등 5년간 운영비를 지원한다.<br/> 제주대병원은 8억6,000여만원을 들여 본관 건물 2층의 격리된 공간 240㎡에 12병상(1인실 2개, 5인실 2개) 규모의 소아암센터를 짓고 있다. 또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등 11명의 운영인력을 채용해 교육 훈련하는 등 소아암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br/> 지금까지 제주에서 소아암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시·도 병원진료가 불가피 했다. 이번 소아암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환자와 가족들이 부담했던 치료비 및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부대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등 백혈병과 소아암 환자들에게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br/> 제주에는 이달 현재 18세 이하에서 급성백혈병, 악성림프종, 뇌종양 등을 앓는 소아암 환자가 138명 등록돼 있다.<br/> 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제주 소아암센터 운영과 함께 서울 등 대도시 병원으로 치료를 다니는 소아 환자에게 항공료를 지원하는 등 도내 소아암 환자 및 가족을 위해 유관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br/> <br/>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42.txt

제목: 파일폴더에 탈부착 기능 첨가한 앨범 선보여  
날짜: 2014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24100000076  
본문: [2014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케이앨범<br/> <br/> ^졸업앨범 전문 제조업체 ㈜케이앨범에서 ‘파일폴더에 탈부착 기능을 구비한 앨범’을 개발했다.<br/> ^케이앨범이 최초 개발한 투명 파일폴더는 앨범표지의 내측에 부착하는 것으로, 기존 파일폴더가 앨범에서 쉽게 이탈되고 분실이 잦은 결점을 보완했다. 기호에 따라 여러 개의 수납 부를 둬 여러 장의 문서 또는 CD, 사진 등을 보관할 수 있다. <br/> ^또 앨범 내측 한 변에 수 벨크로테이프를 고정하고 폴더의 한 변에는 암 벨크로 테이프를 고정시켜 폴더와 앨범표지의 암ㆍ수 벨크로 테이프를 개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암ㆍ수 벨크로 테이프는 앨범표지와 폴더에 고정이 쉬어 사용이 간편하다.<br/> ^2007년 5월 설립된 케이앨범은 연간 30만부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종업계에서는 드믈게 iso9001, iso14001인증과 각종 특허를 취득했다. 한편 모바일 앨범(e-book)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43.txt

제목: 인삼서 진세노사이드 추출 독보적  
날짜: 2014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24100000110  
본문: [2014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녹십자HS<br/> <br/> ^녹십자HS(대표 유영효)는 고부가가치 인삼 제품화 기술(BST)을 이용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R&D 중심 생명공학 기업이다.<br/> ^인삼 뿌리에는 200가지 이상의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 중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일정하게 추출해내는 기술은 인삼성분이 든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과정이다. 녹십자HS는 다년간의 연구 끝에 ‘미량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증가된 가공인삼 또는 가공인삼추출물의 제조방법’(BST 기술)에 대한 기술 특허를 보유했다. <br/> ^BST 기술이 적용된 ‘어삼’ 브랜드는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드링크, 정제, 캡슐 등 다양한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br/> ^녹십자HS는 BST 특허 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암 환자들의 전신무력증을 개선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독일에서 의약품 임상 승인 절차에 따라 임상 1상을 완료했으며 임상 2상 준비 중에 있다. 의약품 개발의 성공으로 상용화가 될 경우 전세계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판매,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44.txt

제목: 의료분야 로봇 활용 글로벌 리더는 한국  
날짜: 20140619  
기자: 조철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19100000068  
본문: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세대 로봇혁명을 다룬 특집 기사에서 한국을 의료분야에서 로봇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꼽았다. 이 분야에서 독보적 1위인 미국을 제외하면, 잘 정비된 정보기술(IT)분야 인프라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한국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span class='quot0'>한국에서는 수술용 로봇을 통해 연간 6,000건의 암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span>”고 전했다.<br/> FT는 한국의 벤처기업 큐렉소를 이 분야 대표기업으로 소개했다. 한국 증시에도 상장된 큐렉소는 정형외과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자동화된 수술로봇(로보독ㆍRobodoc)을 개발한 회사다. 이 로봇의 대당 가격은 약 100만달러(10억원)인데, 세계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현존하는 3개 의료로봇 모델 중 하나다. <br/> FT에 따르면 로보독은 지금까지 3만건의 인공관절 교환수술을 진행했으며, 수술 집도 의사들은 이 로봇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 CT촬영으로 얻은 자료를 3차원 영상으로 전환해 무릎이나 엉덩이뼈 수술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 부산 미래병원 강남욱 원장은 “<span class='quot1'>로봇을 이용하면 정확한 부위에 최소한의 수술이 가능해져, 수술에 따른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복속도도 훨씬 빠르다</span>”고 말했다.<br/> 물론 고가의 장비를 쓰는 만큼 로봇을 이용한 외과수술 비용은 일반 수술보다 30% 가량 비싸다. 큐렉소 이재준 대표는 그러나 “<span class='quot2'>세계에서 가장 일찍 상용화에 성공한 로보독이 앞으로도 더욱 시장을 확장할 것</span>”이라고 예상했다.<br/> 한편 FT는 류렉소와 같은 벤처기업 이외에도 과거 1세대 로봇에 주력했던 현대중공업 등 한국의 대기업도 2세대 로봇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b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45.txt

제목: [건강] 유방암 환자의 상실감… ‘유방 재건술’이 도움  
날짜: 20140618  
기자: 정용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18100000065  
본문: 유방암 환자는 여성성 상실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다. 2007년 유방암 환자 3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3.2%가 유방암 치료를 위해 유방을 절제한 후 자신의 매력이 떨어졌다고 느꼈으며 88.8%는 유방절제가 ‘장애’라고까지 표현했다.<br/><br/><br/> 유방 절제술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유방을 잃은 환자들에게 유방을 다시 만들어 주는 유방 재건술이 있다. <br/> 유방 재건술은 수술 하는 시기에 따라, 유방 조직 제거와 동시에 재건을 하는 ‘즉시 유방 재건술’과 유방 제거 후 수년 후에 재건을 실시하는 ‘지연 재건술’로 나뉜다.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환자 본인의 살을 이용하는 자가 조직 이식술과 실리콘을 이용하는 보형물 재건술이 있다.<br/> 지연재건의 경우 유방 없는 기간 동안 환자가 유방이 없다는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하며 두 번의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재건술을 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br/> 이대목동병원 성형외과 서현석 교수는 “동시 재건을 하게 되면 한 번의 전신마취수술로 암 세포 제거와 유방 재건을 시행해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적으며, 입원기간이 짧아지고 수술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유방 재건 후에 유방에 남는 흉터 길이도 짧고 재건 후 모양도 지연재건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다. 무엇보다 유방 절제 후 올 수 있는 상실감이 없어 암 치료 후 빠른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br/><br/><br/> 동시 재건술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도 있다. 서현석 교수는 “수술 전에 실시한 검사에서 유방 절제술 후에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심된다면, 지연 재건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는 방사선 치료로 재건한 유방의 모양이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재건한 조직으로 인해 방사선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r/> 유방재건술은 유두와 유방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를 남기기 때문에 그곳에서 재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한 메타 분석에서도 유방재건수술 후에도 재발률이나 생존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후에 실시할 수 있는 CT나 초음파 검사 등도 모두 받을 수 있다.<br/> 또한 유방재건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2일째부터는 걸을 수 있고 일주일이 지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또 10일 정도가 지나면 샤워까지 할 수 있으며, 2~3개월이면 수영이나 헬스 등 모든 운동이 가능하다. <br/>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46.txt

제목: [건강] “여성암 발병률 1위 유방암, 정기검진 필수”  
날짜: 20140618  
기자: 정용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18100000040  
본문: 우리나라에서 여성암 발병률 1위는 유방암이다. 여자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암으로 40~5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한다. 최근에는 20~30대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통계인 한국 중앙 암 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약 1만5,942명의 한국인 여성에게서 유방암이 발견됐다. 2011년에 발생된 한국인 전체 암의 14.8%로,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ㆍ갑상선암센터 임우성 교수를 만나 조기 발견하면 95%이상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방암에 대해 알아본다.<br/><br/> <br/> ●유방암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은?<br/> =유방암은 유방조직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유방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중에서 유관이나 젖샘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서 기원한다. 유방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 유방암 환자의 35%이상이 아무런 증상없이 검진을 통해 발견된다. 조기검진이 중요한 이유다. 아프지 않은데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가장 흔한 증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유두함몰, 유두분비물, 피부변화, 드물게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br/> ●유방통증도 유방암 증상과 관련 있나?<br/> =종괴가 만져지지 않는 경우 통증만을 주증상으로 유방암이 진단되는 경우는 전체 유방암환자중 5% 미만으로 드물다. <br/> ●유방암 자가진단하는 방법은?<br/> =폐경 이전의 여성이 유방을 촉진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생리 종료 1주일 후다. 매달 샤워할 때 유방의 비대칭이나 모양 변화 등을 관찰하고 비누칠 후 유방과 겨드랑이 부위를 꼼꼼히 만져서 이전에 만져지지 않던 종괴가 발견되는 지 살펴본다. 자연적으로 나오는 유두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두를 짜보는 경우에는 유관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부드럽게 압박해야 한다. 폐경 이후 여성은 생리주기와 관계없으므로 매달 일정한 날짜를 정해 위의 방법으로 자가진단하면 된다.<br/> ●가슴확대수술을 하면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기 어렵나?<br/> =보형물을 이용한 확대수술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검진으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유방조직내에 파라핀이나 이물질을 주입한 경우에는 조직반응으로 인해 유방촬영이나 초음파, 촉진으로 유방암을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br/> ●유방암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br/> =유방암의 위험인자로는 호르몬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인데,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는 경우다. 여성호르몬제를 5년 이상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도 위험도가 20%이상 높아진다. 그 외에도 출산이 늦거나 모유수유를 안한 경우에도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비만과 알코올도 유방암의 위험인자다.<br/> ●유방암도 유전되나?<br/> =일반여성의 유방암 발병확률은 4%정도이지만, 가족력이 있다면 2~4배 정도 발병위험이 높아진다. 유전성 유방암은 일반적으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없이 가족 중 유방암환자가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 유방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BRCA 1/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85% 이상 유방암이 발병한다. 우리나라 유방암환자 중 이러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4~6% 정도로 서구에 비해 낮은 편이다.<br/>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br/> =크게 병의 발생을 막는 1차 예방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2차 예방으로 나눌 수 있다. 1차 예방법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고지방식과 술을 적게 먹는 것이다. 2차 예방법으로는 30세 이상은 매달 자가검진, 35세 이상은 매년 의사의 진찰, 40세 이상은 유방촬영 및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한다. 35세 이전에 발병한 유방암 환자들은 35세 이후 발병한 환자보다 예후가 좋지 않다. 조기검진이 중요한 이유다. <br/> ●유방암 검진과 치료는?<br/> =유방암의 검진은 크게 유방촬영, 초음파, 의사의 진찰로 이뤄진다. 유방암으로 진단되면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항호르몬요법, 표적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방법 중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방법을 선택해 치료한다.<br/> ●유방암 진단을 후, 유방절제수술을 무조건 해야 하나?<br/> =과거에는 유방암으로 진단되면 유방절제술이 원칙이었으나 유방암의 크기가 작고 유두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진단 당시 크기가 크더라도 선행항암화학요법으로 크기를 줄여 유방의 일부분만 제거하는 유방보존술을 시행할 수 있다.<br/> ●유방암의 진행정도에 따른 치료(수술)의 차이는?<br/> =유방내에 있는 유방암의 크기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유방보존술이 가능하고, 크기가 크거나 위치상 유방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유두하방)에는 유방절제술을 시행한다. 크기가 작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항암화학요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유방보존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진행정도와 관계없이 남은 유방에 방사선치료를 해야한다.<br/> ●유방암 병기에 따른 각각의 완치율과 재발률은?<br/> =10년 생존율은 0기 97%, 1기 92%, 2기 80%, 3기 58%다. 암 중에서 예후가 가장 좋은 것은 갑상선암이고, 유방암이 두 번째다. 10년 재발률은 0기 7%, 1기 12%, 2기 25%, 3기 50% 정도다.<br/> ●유방암 절제수술을 받고 항암제 치료 후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기간에는 임신할 수 없나?<br/> =항호르몬제 복용 중에는 임신확률이 낮고, 임신이 되더라도 기형의 위험이 있다. 항호르몬제 복용 중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항호르몬제를 최소 2개월 이상 중단 후에 임신을 하면 된다. 유방암 환자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예후가 더 나쁘다는 연구결과는 없다.<br/> ●그밖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br/> =유방검진의 활성화로 작은 크기인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유방암 환자의 65% 이상은 유방보존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적지 않은 유방암 환자들이 진단 당시 유방보존술이 불가능해 유방절제술을 받아야하는데 이러한 경우 유방이 없어진다는 상실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br/> 최근에는 유방을 절제하더라도 피부와 유두을 보존하고 자가조직을 이용해 유방을 동시에 재건하는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수술비용의 부담으로 시행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다. 따라서 유방암환자에게 있어 유방절제술후 동시재건은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에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국가에서도 유방동시재건에 대한 보험급여적용을 좀 더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br/>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47.txt

제목: 대한기능의학회 만성병 치료 대국민 강좌 外  
날짜: 201406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18100000029  
본문: 대한기능의학회 만성병 치료 대국민 강좌<br/> 대한기능의학회는 22일 오전 8시30분 서울성모병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올바른 음식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만성병 치료하기 대국민 강좌’을 연다. 대국민강좌에는 캐나다 존 클리네 박사와 세계노인의학회 회장을 지낸 유병팔(사진) 텍사스주립대 의대 명예교수가 나서 각각 ‘해독으로 만성병 치료하기’, ‘절식과 운동으로 건강 지키기’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br/> <br/> 연세사랑병원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강연<br/> 연세사랑병원은 고용곤(사진) 병원장과 최윤진 세포치료연구소장이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재생학회(TOBI)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해 ‘퇴행성관절염의 지방줄기세포 치료효과 연구’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정형외과 분야 비(非)수술적 치료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홍콩 등 18개국 500여명의 의과학자들이 참가했다.<br/> <br/> 한국먼디파마, 소아암 환자에 500만원 기부<br/> 한국먼디파마(대표이사 이종호)는 창립 16주년을 맞아 직원 참여형 자선 기금 프로그램인 ‘희망 저금통’ 활동을 통해 마련한 ‘희망나눔기금’ 500만원을 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했다. 또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아암 환자와 그 가족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먼디파마 희망 꽃바구니’ 와 가정에서 상비해야 하는 구급상자를 열여섯 가족에게 전달했다.<br/> <br/> 바이로메드, 중국서 신약개발 박차<br/> 바이오기업 ㈜바이로메드가 최근 중국에서 시행 중인 허혈성 지체질환 치료제 ‘VM202-PAD’2상 임상시험에 성공했다. 허혈성 지체질환은 다리 부위의 말초동맥혈관이 막혀 생기는 질환으로 악화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 VM202-PAD는 허혈성 질환 부위에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신개념 치료제다. 중국에는 허혈성 지체질환자가 3,000여만명이나 된다.<br/> <br/> 한미약품, 차세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개발<br/> 한미약품이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차세대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HM71224’ 임상시험 중간결과를 유럽 류마티스관절염학회에서 발표했다. 한미약품은 네덜란드에서 진행 중인 1상 임상시험을 끝내고 올 하반기에 글로벌 2상 임상시험에 들어가기로 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48.txt

제목: '문창극 칼럼'으로 본 총리 후보자 문창극  
날짜: 2014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10100000123  
본문: 2012년 대선 직후 “신이 내린 박근혜”<br/>사경 헤매는 DJ에 “비자금 털고 가라”<br/> <br/> 새 총리 후보자에 문창극(66) 전 중앙일보 주필이 지명됐다. 언론인 출신이 총리 후보로 발탁된 게 헌정 사상 처음이라지만 그가 과거에 쓴 칼럼을 추적하면 반길 일인지 의문이다.<br/> <br/> “<span class='quot0'>역사의 신이 50대 마음 움직였다</span>”<br/> 문 후보가 마지막으로 쓴 칼럼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2년 12월 25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하늘의 평화’다. 당시 박근혜 후보 당선 사실에 그는 안도하며 50대 유권자의 분전을 치하했다. “<span class='quot0'>역사의 신이 나타나 50대의 마음을 움직인 듯하다</span>”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다.<br/> <br/> “반대의 결과가 되었을 때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역사의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역사의 신은 늘 우리 일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베일 뒤에서 지켜보고 있기만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그는 베일을 뚫고 나타나는 것 같다. 마치 동화에서 수호천사가 갑자기 나타나 위기에 처한 주인공을 구해 주듯이 말이다. 우리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대한민국을 지켜 주었던 그가 나타난 것은 아닐까? 혹자는 그것을 집단지혜라고도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가 50대의 마음을 움직여 이 나라를 붙잡은 것 같다.” ☞ 전문 보기 <br/> <br/> “<span class='quot0'>평창 유치 직후 이건희 눈물 감동</span>”<br/>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기여가 컸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기업을 고깝게만 보지 말라는 조언도 곁들였다. 2011년 7월 12일자 ‘이건희 회장의 눈물’에서다. 당시 이 회장은 평창 올림픽 유치 등을 이유로 2009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은 터였다.<br/> <br/>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PYEONGCHANG 2018’이 선언되던 순간 여러 감동적인 장면이 보도됐다. 대통령을 비롯해 유치위원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뻐하는 모습, 나라를 위해 어린 나이에 큰 짐을 졌던 연아의 눈물 등은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중에서도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장면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울먹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 삼성 이 회장의 눈물에 대해 “혼자 사면을 받은 부담을 이번에 덜었기 때문”이라고 측근들은 해석했다. 어찌 그것뿐이었겠는가. 나는 이 회장이 이번 활동을 하면서 나라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믿는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 나라에 어떤 위상을 가진 회사인지 절감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소중함과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느끼는 기회였을 것이다. 그런 복합된 심정이 눈물로 나타났을 것이다.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라는 쾌거는 우리나라 각 분야의 보석 같은 존재들이 마음을 합하고 성심을 다해 이루어냈다. 그중에서 기업인들의 수고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에게 올망졸망한 작은 기업만 있었더라면 애초에 그런 꿈조차 꾸어보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을 계기로 온 나라 안에 국민적 화해운동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국민은 대기업의 필요성과 기업인들의 성취를 인정하고, 기업인들은 올림픽 유치에 쏟았던 그 열정으로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 회장의 눈물이 그런 대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 전문 보기 <br/> <br/> “<span class='quot0'>DJ의 MB정부 비판, 비자금 불안감 탓</span>”<br/> 문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했던 모진 언사도 그가 소통과 화합에 적절한 인사인지 의심하게 하는 근거다. 그는 2009년 8월 4일자 ‘마지막 남은 일’에서 사경을 헤매는 김 전 대통령에게 뜬금없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못 털고 세상을 뜨게 돼 안타깝다고 얘기한다.<br/> <br/>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세가 불안정하다. 한때 위중하여 장례 절차까지 정부와 협의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가 거인이었음은 확실하다. 통일에 대한 그의 접근법은 분란의 씨앗이 되었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했음은 분명히 기억될 것이다. 누구라도 죽음을 앞두게 되면 사람들은 관대해진다. 이 세상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불명예스럽게 끝나버린 대통령이 많았기 때문에 명예로운 대통령에 대한 소망은 간절하다. 그의 민주화 투쟁과 노벨 평화상 수상은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었다. 그러한 공로는 모두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꼭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남아 있다. (…)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과 재산 해외 도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는 단순히 소문 차원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몇 차례 공식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미 FBI,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미국 내 불법 유입 혐의 내사 착수’(월간조선 2006년 9월호) ‘2001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비자금 3000억을 조성했다’(월간조선 2007년 1월호) ‘자유수호국민운동(의장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김대중 수사 촉구 서명운동 전개’ 등을 비롯하여 아주 최근에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인터뷰’(월간조선 2009년 3월호)에서 “그들은 굶주린 이리떼처럼 20조짜리 회사를 뜯어먹었다”고 증언했다. 우리는 ‘고발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알아본다’며 검찰이 특정 사안에 개입한 예를 많이 보아왔다. 이 사건의 경우 이상한 점은 이렇듯 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물론 당사자 쪽에서도 일절 반응이 없다는 점이다. 검찰뿐이 아니다. 주류 언론에서조차 이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다. 사경을 헤매는 당사자에게 이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짧은 시간 내에 밝혀질 문제도 아니다. 바로 얼마 전 우리는 한 명의 대통령을 불명예스럽게 떠나보냈다.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도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은 없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런 제기된 의혹들을 그대로 덮어 두기로 할 것인가. 바로 이 점이 안타까운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므로 장례의 격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해결점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이제 전적으로 가족 손에 달렸다고 본다.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에 버금갈 수 있는 깨끗한 마무리가 있어야겠다. 그가 늘 외쳤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를 위해서 말이다.” ☞ 전문 보기 <br/> <br/> “<span class='quot0'>암 수술하듯 종북 도려냈으면 좋겠는데</span>”<br/> 종북 세력에 대한 적개심도 과거 칼럼에서 드러난다. 2012년 6월 19일자에 게재된 ‘종북의 늪’에서다. “<span class='quot0'>암 수술하듯 그 부분을 싹둑 도려냈으면 좋겠는데, 어렵다</span>”고 한탄한다.<br/> <br/> “종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답답하다. 암 수술하듯 그 부분을 싹둑 도려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모양이다. 과거 같으면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다. 반공법은 폐기되고 국가보안법은 물이 되었다. 공산주의자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데 필수적이었던 이 법들을 독재정권들이 권력 유지를 위한 억압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야당의 대표가 된 사람은 종북 비판을 매카시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매카시즘은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간 것을 말하는데 스스로 친북 주사파임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왜 매카시즘인가. 더 큰 문제는 드러난 그들보다 훨씬 더 넓게 친북세력이 우리 사회에 퍼져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암세포를 죽이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정상세포까지 건드리게 되어 결국 몸을 망친다. 근본적으로 암세포가 좋아할 환경을 만들지 말고, 영양공급을 막음으로써 스스로 쪼그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 전문 보기 <br/> <br/> 채동욱 혼외자 보도한 조선일보에 상까지 줘<br/> 최근 행적도 논란거리다. 문 후보는 지난 4월 조선일보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관련 보도에 2014 한국신문상을 안겼다. 사실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다.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그는 “<span class='quot3'>언론이 권력자의 탈선된 사생활을 보도하려 할 때 필요한 덕목은 무엇보다 용기</span>”라며 “<span class='quot3'>조선일보 편집국은 그런 용기를 보여줬다</span>”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br/> <br/> 디지털뉴스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49.txt

제목: 밀리언 달러 암[★★★☆] “즐거운 가족 영화!”  
날짜: 2014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09100000049  
본문: 밀리언 달러 암[★★★☆] “즐거운 가족 영화!”<br/> <br/> 인도 깡촌에서 강속구를 던지는 두 10대를 미국에 데려와 몇 달 만에 메이저리그 투수로 만드는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실화다.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고 박수를 치게 만드는 코미디 터치의 스포츠 드라마이자 '물 떠난 물고기' 얘기로 관객에게 지나치게 아첨하고 있지만 로맨스에 자아 구제라는 심각한 주제까지 곁들인 재미 만점의 작품이다.<br/> AMC의 인기 드라마 시리즈 매드 멘의 주인공 단 드레이퍼로 나오는 존 햄의 본격적인 빅스크린 주연작품으로 매우 튼튼하고 호감 가는 연기를 보여준다. 인도에서 현지 촬영한 돗떼기 시장 같은 뭄바이 모습과 시골경치도 좋다.<br/> 2007년 스포츠 에이전트 J.B. 번스틴(햄)은 한 때 배리 본즈와 에멧 스미스처럼 거물 선수들을 고객으로 데리고 있었으나 인도계 파트너 아쉬(아시프 만드비)와 함께 자신의 독립 에이전시를 차린 뒤로는 슬럼프에 빠진다.<br/> 고객 없는 에이전트로 몰락한 번스틴은 어느날 아쉬와 함께 TV로 인도 크리켓 경기를 보다가 인도에 가서 강속구를 던지는 피처를 고르기로 작정하고 뭄바이로 간다. 여기서 번스틴은 우선 재잘대는 아미트(피토바쉬가 재미 있는 연기를 한다)를 심부름꾼 겸 통역으로 고용한 뒤 은퇴한 야구선수 스카웃 레이(알란 아킨)를 미국에서 불러온다.<br/> 그리고 전 인도를 무대로 피처 선발 대회를 연다. 상금은 10만 달러이고 뽑히면 미국으로 가서 메이저리그와 계약을 맺는다는 조건. 이어 번스틴과 레이는 인도 방방곡곡을 뒤지고 다니면서 컨테스트를 연다.<br/> 여기서 뽑힌 두 사람이 시속 96-97마일의 강속구를 던지는 18세 청년 린쿠 싱(수라지 샤르마ㆍ파이의 인생 출연)과 디네쉬 파텔(마두르 미탈ㆍ슬럼독 밀리어네어 출연). 린쿠와 디네쉬는 번스틴의 집에 유숙하면서 남가주대 투수 코치 탐(빌 팩스턴)으로부터 지도를 받는데 강속구는 포수 글로브에 들어가질 않는다.<br/> 이런 연습장면과 함께 린쿠와 디네쉬의 미국에서의 문화갈등이 코믹하게 그려지는데 둘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도 타보지 못한 깡촌 출신이어서 미국의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br/> 번스틴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둘을 피처로 만들어 돈 벌 생각에만 몰두한다. 번스틴 뒷채에 세든 똑똑하고 섹시한 브렌다(레이크 벨)는 새 장소에 적응하느라 고생하는 두 10대를 위로해 주고 조언해 준다. 결국 번스틴은 브렌다의 사랑과 린쿠와 디네쉬의 진심과 열의에 감동해 이 둘을 상품 취급하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처럼 둘을 돌보게 되면서 자기 각성을 하게 된다.<br/> 극중 인물들이 모두 개성 있게 묘사됐는데 햄뿐 아니라 다른 배우들도 연기를 잘 한다.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의 연출력도 기민하고 빈 곳이 없다. 온 가족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정신을 고양시켜 주는 영화다.<br/> 박흥진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원 hjpark1230@gmail.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50.txt

제목: 9월부터 병원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  
날짜: 2014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09100000082  
본문: 일반병상 비율 74%→83% 확대<br/> <br/> 위암으로 대학병원 2인실에 2일, 4인실에 17일, 6인실에 30일 등 총 49일을 입원한 A씨는 입원료로만 총 205만원을 지불했다. 6인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했던 2인실과 4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했던 탓이다.<br/> 그러나 오는 9월부터 A씨는 같은 기간 입원료로 55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되기 때문이다.<br/>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br/>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을 가중시켰던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br/> 9월부터 4·5인실이 일반병상으로 포함되면 일방병상이 약 2만1천 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현행 74%에서 83%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br/> 또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지면서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돼 부담이 5∼10% 선으로 더 낮아진다. <br/> 가령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면 병원에 따라 6만3천∼11만1천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수가와 본인부담률에 따라 2만3천원(예상), 산정 특례환자의 경우 4천∼8천원 가량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br/><br/> 복지부는 또 일방병상 확대가 대형병원의 문턱을 낮춰 대형병원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br/>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은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br/>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데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br/> 또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하게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하는 현행 규정도 유지할 방침이다.<br/>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br/>연합뉴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51.txt

제목: 한국철강협회, ‘제15회 철의 날’ 기념행사 외  
날짜: 2014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09100000158  
본문: 한국철강협회, ‘제15회 철의 날’ 기념행사<br/><br/> 한국철강협회는 9일 윤상직(왼쪽 네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오준(다섯번째) 포스코 회장, 장세주(맨 오른쪽) 동국제강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제15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선재 국산화를 이뤄낸 고려재강의 이태준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해외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철강재 판매 확대에 기여한 포스코 오인환 전무가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26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br/> <br/>대한상의, 총 상금 1억원 규모 ‘제1회 대한민국 기업 사진 공모전’<br/><br/>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최대 규모 사진공모전 ‘제1회 대한민국 기업 사진 공모전(사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과 삶 그리고 사람들’을 주제로 기업과 관련된 사진이라면 모두 응모가 가능하다. 내외국인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출품작품 수도 제한이 없다. 응모 기간은 10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다. 총상금 1억원 규모인 이번 공모전은 국내 사진 공모전 중 역대 최대규모로 대상 1인에게는 상금 3,000만원이 주어진다.<br/> <br/>현대제철 신임 사장에 강학서 재경본부장<br/><br/> 현대자동차그룹은 9일 현대제철 강학서(사진) 재경본부장(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강 신임사장은 현대제철 재경본부 이사와 상무, 전무를 거쳐 경영관리부문 부사장, 현대로템 재경본부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br/> <br/>LGU+, 케이블 교체 없이 기가급 인터넷 구현 장비 개발<br/> LG유플러스는 기존의 케이블 선로 교체 없이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기가급으로 상향 가능한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장비는 통신 사업자와 가입자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핵심으로, 종전 케이블 선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속도는 5배 이상 높일 수 있다. 이 장비는 LG유플러스에서 국내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인 다산네트웍스, 유비쿼스 등과 함께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개발했다.<br/> <br/>삼성전자, 실외기 없는 휴대용 냉방기기 ‘쿨프레소’ 출시<br/> 삼성전자는 실외기 없이 이동까지 편리한 휴대용 냉방기기 ‘쿨프레소’(사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에어컨과 같은 냉방원리로 작동하지만, 실외기가 따로 필요 없다는 게 특징이다. 주변 온도보다 10도 가량 낮은 찬 바람을 내보내면서도 에너지 소비량은 선풍기 2대를 켜 놓은 수준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공기 중 유해 세균을 잡아주는 정화 기능도 포함됐다. 가격은 출고가 기준 59만원대.<br/> <br/>우정사업본부, 알뜰폰 판매 우체국 읍·면 지역 130곳 추가<br/> 우정사업본부는 10일부터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130곳 추가, 총 359곳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9월 시·군·구 단위 226개 우체국에서 알뜰폰 판매를 시작했으며, 판매 7개월여 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넘었다. 우정사업본부는 고객의 접근성 향상과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연말까지 60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br/> <br/>SKT, 브라질 월드컵 기간엔 LTE 데이터 로밍 ‘공짜’<br/> SK텔레콤은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브라질에서 데이터 로밍 전용 정액 요금제인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초고속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또 한국 대표팀 경기 당일엔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 서비스 자체를 공짜로 제공하고, 16강 진출 시 문자메시지(SMS) 발신, 8강 진출 시엔 음성 발신까지 무료 지원할 방침이다.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는 전 세계 123개국에서 하루 9,000원에 데이터 로밍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br/> <br/>롯데백화점, 친환경 영수증 도입<br/> 롯데백화점은 유해성 물질인 비스페놀이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 영수증 용지를 6월부터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비스페놀은 영수증에 인쇄되는 글자의 색을 나타내는 현색제에 포함된 물질로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br/> <br/>세븐일레븐, 상지영서대와 ‘편의점관리론’ 신설<br/>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9일 강원 원주시 상지영서대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학기부터 편의점 관련 강의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에 편의점 관련 강의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지영서대가 유통경영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신설하는 ‘편의점관리론’은 생활밀착형 유통업태인 편의점의 진열, 전산, 물류, 상품 등 분야의 현장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강의이다. <br/> <br/>CJ대한통운, 실시간 국제물류 화물 추적 시스템 <br/> CJ대한통운은 고객맞춤형 국제물류 정보시스템 ‘커스터머 포털’의 업그레이드 버전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고객사 담당자들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모바일웹(m.cj.korex.co.kr)으로 언제 어디서나 화물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52.txt

제목: 전혀 다른 업종 간 '짝짓기 마케팅' 뜬다  
날짜: 20140604  
기자: 박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04100000007  
본문: 우량 고객 유치해 매출에 긍정적 평가<br/> <br/> <br/><br/> 올 초 세탁회사 크린토피아는 KDB대우증권으로부터 화이트칼라 직장인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을 해보자는 이색적인 제안을 받았다. 두 회사는 협상에 성공해 지난 1일부터 크린토피아가 세탁 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옷걸이를 활용해 대우증권 상품을 소개하고 뒷면에 있는 쿠폰을 가지고 대우증권 지점을 찾아오면 3,000원짜리 와이셔츠 세탁 상품권을 나눠주는 마케팅을 시작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3일 “<span class='quot0'>직장인 상당수가 은행보다 증권사 문턱을 높게 여기고 있어, 이들을 증권사에 오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와이셔츠 세탁을 활용해 보기로 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매달 180만명이 이용하는 크린토피아가 와이셔츠 세탁을 주요 매출원으로 하고 있고 옷걸이를 활용하면 반복 노출이 되기 때문에 광고 효과도 클 것</span>”이라고 기대하고 있다.<br/> 새 고객 창출을 위한 기업들의 독특한 짝짓기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생각지 못했던 전혀 다른 영역에서 짝꿍을 찾고, 사소한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br/> 미래에셋생명은 4월부터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MSD와 손잡고 암 예방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MSD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등 암 예방 백신(PHV)를 맞은 사람이 ‘예방하자 암 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할 경우 월 납입액 3~7%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암에 대한 전문 상담을 원하면 한국MSD가 추천하는 전문의에게 상담 예약을 제공해주고 있다.<br/> 서귀영 미래에셋생명 마케팅지원본부 차장은 “<span class='quot1'>암 예방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암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지난 두 달 동안 비슷한 타사 상품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새 가입자를 확보할 만큼 성공적</span>”이라고 평가했다.<br/> SK텔레콤은 지난달 대한항공과 손잡고 ‘대한항공 엑설런트 T로밍’ 상품을 내놓았다. 항공사와 통신사의 첫 제휴 상품이다. 대한항공을 이용해 미국 중국 일본을 찾는 SK텔레콤 고객에게 음성 데이터 SMS 패키지를 최대 79% 할인(요금제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경우)해주는 혜택을 준다.<br/>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의 짝짓기는 공통적으로 ‘핀셋 마케팅’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핀셋으로 작은 물체를 콕 집는 것처럼 특정 고객을 콕 집어 그들만을 위한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매출 증대를 위해 특정 고객층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공략하는 것이다. 마케팅 비용이 비교적 덜 들고 실질 구매력을 갖춘 우량고객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 SK텔레콤 제휴사업본부 송석근 매니저는 “<span class='quot2'>다양한 로밍 상품이 있지만 막상 해외 여행객, 출장자 등이 잘 모르거나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2'>해외에 나가는 모든 사람이 좌석 배정이나 짐 부치기 위해 항공사 카운터를 찾기 때문에 이 곳을 적극 활용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짝짓기 상대기업들도 뜻밖의 마케팅 홍보 활동 기회를 얻게 되면서 윈윈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국MSD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암 예방 백신에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이 30대 여성층인데다 미래에셋생명과 제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집중적으로 마케팅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예방 백신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span>”고 말했다. KDB대우증권 측은 별도로 1억원 어치 크린토피아 상품권을 구매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br/>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br/>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53.txt

제목: [따뜻한 TV]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날짜: 20140602  
기자: 문미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02100000147  
본문: [따뜻한 TV]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br/> <br/>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겪어내야 할 아픔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 때론 작고 약한 체구에 커다란 짊은 지어야 할 때도 있다. 11살 성우가 짊어진 아픔의 무게가 그렇다. 3일 오후 5시 35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얼굴과 몸에 혹을 달고 사는 아이인 성우의 ‘아픈 미소’를 담았다. <br/> 전국적으로 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지만, 성우는 긴 소매에 모자가 달린 옷을 입고 집을 나선다. 어김없이 자신을 따라오는 낯선 시선에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한다. 모자로 아무리 가려보려고 애를 써도 결코 감춰지지 않는 성우의 오른쪽 얼굴은 한눈에 봐도 심각할 만큼 커져 있었다. <br/> 네 살 때 조금씩 자라기 시작한 종양이 성우의 오른쪽 얼굴과 가슴, 팔까지 뒤덮어 버린 상황이다. 11살 성우는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다. 성우의 얼굴은 자라면서 점점 심하게 변했고 왼쪽 팔 전체를 덮은 종양으로 인해 성우는 이제 왼쪽 팔을 움직이는 것조차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br/> 종양 제거 수술조차 어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보지 못한 성우. 얼굴의 종양이 입안까지 침범해 음식을 씹는 것은 물론 발음 장애까지 겪고 있는 성우는 기도에 생긴 종양이 커지면서 호흡곤란도 겪어야 했다. 더욱이 종양이 언제 암으로 변할지 몰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성우는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이 점점 더 싫어진다.<br/> 성우가 어두운 얼굴로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매번 가슴이 내려앉는 엄마. 혹시나 친구들이 성우를 놀린 것은 아닐까 오늘도 엄마의 걱정은 깊어만 간다. 성우는 어린 시절 심한 놀림을 받았던 탓에 아직도 낯선 아이들을 보면 도망친다. 다리가 불편한 아빠 역시 성우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다. 가족을 위해서 불편한 몸으로 공장, 고물상, 식당 등 가리지 않고 힘들게 돈을 벌었지만 생활비로 쓰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br/> 엄마 아빠의 소원은 종양 제거 수술로 성우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 성우 역시 하루 빨리 수술을 받아 친구들에게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다. 모두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 지, 성우의 ‘아픈 미소’는 3일 방송된다. <br/> 문미영기자 mymoon@hksp.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54.txt

제목: 담배 피우면 사망률 남자 44% 여자 48% 높아진다  
날짜: 20140602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602100000117  
본문: 아시아인 105만명 조사 <br/> <br/> 담배를 피우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대규모 추적 조사 결과 확인됐다. <br/>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유근영, 강대희, 박수경 교수 연구진은 2일 “<span class='quot0'>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7개국 데이터에서 45세 이상 성인 105만명을 추려 10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남성은 1.44배, 여성은 1.48배 사망률이 높았다</span>”고 밝혔다. 연구진은 담배가 아시아인의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br/> 추적 기간 중 사망자는 총 12만3,975명인데 이들 중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비율은 남성이 15.8%, 여성이 3.3%였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2004년 한 해 동안 이들 7개국에서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5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국가의 인구가 아시아 전체 인구의 약 71%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아시아 인구 중에선 약 200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br/> 흡연과 가장 관련이 깊은 병은 폐암으로 조사됐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3, 4배 높았다. 폐암 환자 중 남성 60.5%, 여성 16.7%가 흡연과 관련이 있었다. 또 남성은 심혈관질환 사망자의 11.4%, 암 사망자의 30.5%, 호흡기질환 사망자의 19.8%가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각각 3.7%, 4.6%, 1.7%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아시아인의 흡연율은 남성 65.1%, 여성 7.1%로 나타났다. <br/> 연구진은 “<span class='quot0'>조직적인 금연 대책이 실행되지 않으면 흡연이 아시아인의 사망률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55.txt

제목: 여성 암환우들에 외모 가꾸는 법 전수 "마음까지 치유"  
날짜: 2014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29100000178  
본문: ○아모레퍼시픽 <br/> <br/> 아모레퍼시픽의 나눔경영 슬로건은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Make up your life’이다. 여성 암 환우들에게 외모를 가꾸는 비법을 알려주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캠페인이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br/> 여성 암 환우들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 탈모 등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또 하나의 고통을 받는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들에게 화장법, 피부관리 및 헤어 스타일 연출법 등을 알려줘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br/>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 담당자와 교육강사가 자원봉사자 2,000여명이 참가해 지난해까지 총 8,000여명의 여성 암 환우에게 도움을 줬다. 암 수술 후 2년 이내로, 현재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중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헤라(HERA)’화장품과 ‘프리메라(Primera)’ 스킨케어 키트 등을 제공한다. 회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난 4월 잠실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2014년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올해에도 전국 35개 병원을 통해 지속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br/>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인 ‘그린사이클’도 운영 중이다. 이 캠페인은 화장품 빈 용기를 수거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9년 이니스프리 매장의 공병수거 이벤트에서 비롯돼, 현재 전국의 아모레퍼시픽그룹 매장에서 진행 중이다.<br/> 고객이 사용 제품의 공병을 매장으로 가져오면 멤버십 포인트를 공병 1개 당 500점씩(에뛰드하우스 300점) 쌓아준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누적 수거량은 총 431톤으로 이를 통해 어린 소나무 4,10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뒀다.<br/> 이 밖에도 아모페퍼시픽은 지난 2007년 말 국내 화장품업계 최초로 유엔글로벌컴팩트(UNGC)에 가입하기도 했다. UNGC가 표명하는 인권, 노동 등에 관한 10대 원칙들을 기업 활동 전 영역에 있어 단계적으로 적용, 진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56.txt

제목: 남의 피 받지 않는 무수혈 수술... 꾸준히 관심 받는 이유는?  
날짜: 20140529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29100000050  
본문: 환자에게 적합한 혈액 엄선해도 수혈 부작용 있어 대안으로 모색<br/>수술 전 적혈구·혈색소 미리 높여 그래도 모자랄 땐 출혈 피 재활용<br/>국내 20개 의료기관에 관련 센터 안전성 등 추가 연구로 보완돼야<br/> <br/> 지난해 초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부부가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부인의 간을 떼어 간경화를 앓던 남편에게 넣어준 것이다. 당시 간을 잘라내고 이식하는 두 수술 모두 수혈 없이 진행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수혈 수술 하면 이른바 여호와의증인 교인 등 일부 사람들이 종교 신념에 따라 고집하는 수술 방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종교와 무관하게 무수혈 수술에 관심을 갖는 환자가 적지 않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드시 수혈 수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r/> <br/> “<span class='quot0'>수혈도 장기이식의 하나</span>”<br/> 간 이식은 출혈이 가장 많은 수술 중 하나다. 간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진 간경화 환자의 간은 대부분 가장 큰 혈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수많은 모세혈관이 모여든다. 다른 간을 이식하기 위해 간의 일부를 잘라내면 출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환자라도 수혈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수혈 양을 줄일수록 환자의 예후와 사망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나와있다. <br/> 이처럼 의사들이 무수혈 수술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수혈의 부작용과 위험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감염된 혈액이 유통됐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수혈의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수혈을 할 때는 혈액형 확인뿐 아니라 추가로 10여 가지 검사를 거쳐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혈액을 고른다. 이렇듯 엄격하게 혈액을 선택해도 수혈 후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r/> 인제대 상계백병원 무수혈센터의 유병훈(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교수는 “넓게 보면 <span class='quot0'>수혈도 장기이식의 하나</span>이며 수혈 가능한 혈액이라도 막상 환자의 몸에 들어가면 크고 작은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span class='quot0'>최근 미국에서 수혈 때문에 사망한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폐에 면역반응이 생긴 경우가 많았다는 보고가 있었다</span>”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의학적 근거에 따라 무수혈 수술을 고려하는 의료진과 환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의료계는 파악하고 있다. <br/> <br/> 자기 혈액 재활용도<br/> 피는 혈관을 타고 몸 곳곳을 돌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대사산물을 가져다 배출시킨다. 수술 중에도 이런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혈관 안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피를 유지할 만큼 피의 양이 충분해야 한다. 때문에 무수혈 수술 전에는 대개 골수를 자극해 피의 주요 성분인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약(조혈제)과 산소를 운반하는 혈색소(헤모글로빈) 수치를 올리는 약(철분제)을 환자에게 투여한다. 그리고 수술 중에는 출혈 때문에 줄어든 혈관 내 피의 용량만큼을 수액으로 채워준다. <br/> 그래도 피가 부족하면 환자 자신의 혈액을 ‘재활용’하기도 한다. 수술 시작 직후 미리 환자의 피를 적당량 뽑아뒀다가 필요할 때 주입하거나 수술 중 출혈로 새어나가는 피를 기계로 빨아들인 뒤 적혈구만 걸러 다시 넣는다. <br/> 이런 과정에서 의학적 쟁점은 수혈과 무수혈을 가르는 기준이다. 과연 어느 시점까지를 무수혈 수술을 지속해도 괜찮다고 볼 수 있는지, 수혈 수술로 빨리 전환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를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현재 이를 판단하는 국제학계의 공통 기준은 피 속의 혈색소 수치다. 건강한 성인의 평소 혈색소 수치는 피 1㎗당 15g 안팎이다. 미국 의학계는 이 수치가 7g/㎗ 아래로 떨어지면 수혈을 권한다. <br/> 한국의 보건당국과 관련 학계도 이 기준을 따르는 ‘수혈 가이드라인’을 2011년 발표했다. 하지만 수술실에서는 무수혈을 시도하다가도 혈색소 수치가 8~9g/㎗만 되면 혹시나 하는 걱정에 수혈로 전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문의들은 보고 있다. 유 교수는 24일 상계백병원에서 열린 ‘무수혈수술 심포지엄’에서 “<span class='quot1'>혈색소 수치가 8~9g/㎗로 떨어졌을 때 굳이 수혈 수술로 전환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생기진 않기 때문에 국제 기준(7g/㎗)을 따를 필요가 있다</span>”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br/> <br/> 확산됐지만 여전히 ‘비주류’<br/> 무수혈 수술은 1957년 미국에서 처음 성공했다. 한국에서는 약 30년 뒤 첫 무수혈 수술이 이뤄졌다. 이후 20개 가까운 국내 의료기관에 무수혈 수술 센터가 생겼고 암을 비롯한 인공관절, 제왕절개, 심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수술에 무수혈 방식이 적용됐다. 그러나 대세는 여전히 수혈 수술이다. 무수혈 수술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br/> 무수혈 수술이 한국에서 활성화하지 못하는 이유로 전문의들은 짧은 역사와 적은 사례 탓에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수혈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환자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꼽는다. 관상동맥우회술(좁아졌거나 차단된 심장혈관 근처에 추가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우회혈관을 연결하는 수술) 같은 일부 수술에선 무수혈 방식이 수혈 방식보다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다. <br/>임소형기자 prear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57.txt

제목: '反美 필독서' 작가의 변심... 남미 좌파 충격  
날짜: 20140527  
기자: 이태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27100000138  
본문: 우루과이 출신 갈레아노<br/>"현실도 나도 많이 변해 더 이상 읽을 가치 없어"<br/>저서 '수탈된 대지' 부정<br/>좌파 "스스로 엄격해진 것" 우파 "바보들 성서 잃어"<br/><br/><br/>2009년 4월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미주기구(OAS) 정상회담장. 생전 돌출 행동으로 유명했던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책 한 권을 들고 일어섰다. 차베스는 3개월 전 취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다가가 책을 건네고 악수를 나눈 뒤 기자들에게 “<span class='quot1'>남미 역사의 기념비적 작품이자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쳐준 책</span>”이라고 자랑했다.<br/> 제국주의의 식민지 수탈을 비판해 남미 좌파의 성서처럼 여겨져 온 수탈된 대지다. 차베스 덕에 미국에서도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남미에서 40년 이상 반자본, 반미의 고전으로 통했다.<br/> 그런데 책의 저자인 에두아르노 갈레아노(73)가 최근 책의 내용을 스스로 철회해 미국 학계와 남미 지식인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갈레아노는 지난 달 책을 잘못 썼으며 자신은 책의 제목에 대해 논쟁할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우루과이 출신인 갈레아노는 남미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축구 칼럼니스트다. 그의 다른 저서 거울 너머의 역사 불의 기억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br/> 수탈된 대지는 남미에서 미 정부가 지원하는 우파 독재 정권들이 통치하던 1970년대 나왔다. 갈레아노는 당시 풍요의 땅이 오히려 침탈과 피침의 대상으로 전락한 남미 500년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의 방대한 자료로 기록했다. 이를 통해 남미의 만성적 가난과 저개발이 서구 식민주의자들과 이들의 대리인인 부자들의 수탈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br/> 갈레아노는 책 출간 이후 아르헨티나, 스페인에서 망명생활을 해야 했지만, 책은 좌파의 필독서가 돼 지금까지 10여개 국에서 100만권 이상 팔렸다. 원제는 라틴아메리카의 절개된 혈관들이지만 한국에서 수탈된 대지로 번역 출간됐다. 뉴욕타임스는 “이 책이 아프리카, 아시아를 포함한 제3세계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 같은 영향이 제3세계를 대표하는 중국 인도 브라질의 경제 성장 직전까지 계속됐다고 평가했다.<br/> 그러나 갈레아노는 지난달 브라질에서 열린 도서전에서 자신의 책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도서전에서 마련한 수탈된 대지 출간 43주년 기념행사에서 “이 책은 정치경제 서적이 되고자 했다”며 “(하지만)자신은 그에 필요한 훈련이나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나는 이 책을 다시 읽어낼 자신이 없다. (그러면)나는 졸도하고 말 것이다. 나에게 이 전통적 좌파의 산문은 극단적으로 무가치하며 용인할 수도 없다”는 말까지 했다.<br/> 갈레아노의 발언 이후 남미에서는 좌우파간 논란이 뜨겁다. 이 책을 교재로 남미 문제를 다뤄온 미국 대학들도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좌파들은 갈레아노의 발언이 책의 내용을 전면 부정한 게 아니라 작품에 대한 노작가의 엄격함과 철저함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우파인 쿠바 망명 작가 카를로스 몬타네르는 “바보(좌파)들이 자신들의 성서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남미 우파들은 그 동안 수탈된 대지를 ‘바보들의 성서’로 비웃고 자신의 가난을 남 탓으로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br/> 갈레아노 자신은 책 내용을 부인한 배경에 대해 “현실이 많이 변했고 나도 많이 바뀌었다“며 ‘변화’를 이유로 들었다. 여전히 좌파를 자처하는 갈레아노는 “현실은 아주 많이 복잡하고 그 때문에 인간의 조건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br/> 그는 최근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의 사회민주주의 조치를 높이 평가했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좌파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갈레아노는 “좌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종종 크나큰 실수를 한다”면서 쿠바 권력을 연이어 차지한 카스트로 형제와 차베스를 사례로 들었다. 갈레아노의 심경 변화를 두고 나이가 들어 보수적이 됐다거나 최근 심장마비와 암으로 투병한 후유증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br/> <br/>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58.txt

제목: 27일 희망TV, 지적장애 앓는 석규네에 닥친 불행 전해  
날짜: 20140526  
기자: 강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26100000074  
본문: TV마당/27일(화)자<br/> <br/> 희망TV-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 오후 5.35)<br/> 생후 100일이 되면서 알 수 없는 고열로 병원 생활을 했던 석규는 다섯 살 때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석규가 장애와 동반된 이식증(음식이 아닌 물질을 먹고 싶어하는 충동적 질환)으로 종이나 플라스틱 등을 삼켜 장이 괴사할뻔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는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 판정까지 받았다. 석규네 집에 드리운 불행은 이게 끝이 아니다. 5년 전 암 선고를 받은 뒤 합병증과 싸우던 엄마가 최근 치매 판정을 받은 것이다. 엄마는 약을 처방 받았지만 아이를 돌보기 위해 복용을 미루고 있다. 석규네가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을까. <br/><br/><br/> <br/>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EBS 밤 11.35)<br/> 배우 서태화가 세계 장수촌을 찾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듣는다.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하루를 달려 들어가 스바네티에 도착했다. 장수마을 우슈굴리가 그곳에 있다. 마을에서 만난 105세 할머니는 아침마다 약수 물을 마시고 요구르트로 마사지를 하며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인다. 이웃까지 챙기는 할머니는 작은 것에 고마워하는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국이기도 한 조지아에서는 건강의 비결로 와인을 꼽는 이가 많다. 지금도 전통적인 제조방식을 고수하는 이 곳 사람들은 대형 항아리에 와인을 숙성시킨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59.txt

제목: 위선으로 가득 찬 요즘, 대한민국  
날짜: 2014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26100000115  
본문: 칼럼 읽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한 첩경이다. 현장 취재 경험을 갖춘 중견 이상 언론인의 통찰이 칼럼엔 담겨 있다. 칼럼만 활용해도 번다한 사회 현안들 속에서 헤맬 필요가 없다. 잘 골라 읽으면 길이 도드라진다. 읽을 만한 칼럼들을 추려본다./ 편집자<br/><br/>현대 사회에서 대개 종교는 위선이다. 죽음-공포에서 기원한 순수 자기 기만이 삶-불안의 영역까지 확장하며 사기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내세 구원이면 몰라도 현세 기복(祈福)을 종교가 어떻게 감당하나. 이를 미끼로 세 불리기에 집착하면서 어찌 성(聖)을 입에 올리나.<br/><br/> “종파를 떠나 존경 받는 목자인 고 옥한흠 사랑의교회 목사는 2007년 성령 강림 100주년 예배에서 ‘교회가 양적 성장에 눈이 멀어,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설교해 왔다’고 회개하면서, ‘행위가 있는 믿음이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설교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현대판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뼈저린 반성이었다. 하지만 옥 목사는 그 후 여러 목사로부터 ‘왜 그런 설교를 했느냐’는 핀잔을 들었다고 고백했다. 안타깝지만 현재 한국 교회에는 옥 목사보다 그를 핀잔했던 목사들이 더 많은 듯하다. 이러니 한국 교회가 구원파 같은 이단이 독버섯처럼 자라는 데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한국 교회는 구원파와 다른가?’(한국일보 ‘편집국에서’ㆍ권대익 문화부 부장대우)<br/><br/>성소(聖所)의 타락은 종교뿐 아니다. 오락물로 호객하는 공영방송도 부자연스럽다. 그건 허약한 물적 토대의 결과만은 아닐 터. 남루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감추려는 누군가의 고의.<br/><br/>“공영방송의 현실을 보라. 그곳은 개그맨, 연예인, 스포츠맨의 영토이지, 다른 나라, 예컨대 독일의 경우처럼, 예술가, 학자, 정치인의 영역이 아니다. 그곳은 연예인의 사생활 잡담, 개그맨의 객쩍은 수다, 막장 드라마의 악취, 휴먼다큐의 값싼 감상주의, 건강에 대한 끝없는 협박, 맛있는 곳과 놀러 갈 곳에 대한 유혹으로 가득하지만, 어디에서도 우리 사회가 다다른 참담한 현실과 국가가 처한 냉엄한 상황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 방송의 민주화를 쟁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의 우민화를 저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정권의 방송 장악은 공정한 보도를 망치지만, 방송의 총체적 오락화는 대중의 의식을 잠재운다.” - ‘문제는 길환영이 아니다’(한겨레 ‘세상보기’ㆍ김누리 중앙대 교수)<br/><br/>세월호 참사 뒤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는다. 느슨한 규제가 배를 가라앉히든 말든, 규제는 여전히 도려내야 할 암(癌)이다. 보수 신문들조차 그의 리더십이 염려스럽다.<br/><br/>“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우파 경제학자들을 비판하면서 ‘피를 뽑는 치료법을 맹신하던 중세의 치료사들이 환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번 더 피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21세기 경제학계의 피뽑기 치료사들은 자신의 신념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 곳곳은 세월호처럼 위태위태한 상태다. 파이를 키우기만 할 뿐 나누지를 않으니, 양극화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성장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피뽑기 치료사들’이 스스로 치료법을 바꿀 리는 없다. 아픈 것은 환자이지 자신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들은 이 치료법으로 주머니가 계속 두둑해지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 ‘한국의 피뽑기 치료사들’(한겨레 ‘프리즘’ㆍ안선희 경제부 정책금융팀장)<br/><br/>“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째가 되는 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담화문은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 (…) 두 담화문이 이렇게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국가개조를 부르짖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국정의 기조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세월호 참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만 제대로 추진되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 ‘국가개조, 국민 합의가 중요하다’(한국일보 ‘아침을 열며’ㆍ변창흠 세종대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60.txt

제목: 의학드라마의 리얼리티  
날짜: 201405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25100000074  
본문: 실제 상황과 다른 의학드라마지만 흡사한 상황도 많아<br/>'사망환자 증례 보고회'처럼 세월호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br/><br/>의사들이 환자 침상을 밀며 급하게 뛰어가는 장면은 의학드라마에서 긴급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흔히 등장한다. 그런데 실제 병원에서는 이렇게 의사들이 뛰어다니는 경우는 없다. 지각한 학생들이나 콘퍼런스에 늦은 전공의들이 뛰긴 하지만, 환자 때문에 뛰는 것은 아니다. 응급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의료진이 현장에 마련되어 있는 의료기구를 이용해서 즉각적인 처치를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환자들 때문에 의사들이 수시로 뛰어다녀야 하는 병원이라면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br/> 의사와 병원의 사실감을 제대로 그려낸 의학드라마는 2007년의 ‘하얀 거탑’이었다. 일본작가 야마자키 도요코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수술장면 등 병원에서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려낸 드라마였다. 우리와는 다른 일본식 체계이긴 하지만, 병원의 권력 암투 과정과 주인공의 의료사고, 암에 걸려 사망한다는 구성이 꽤 사실적이었다. 단지 김명민과 차인표의 수술 경쟁 장면은 현실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다.<br/> 하얀 거탑 외에도 ‘외과의사 봉달이’, ‘브레인’, 그리고 최근의 ‘닥터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의학드라마의 주인공은 모두 외과계열 의사이다. 외과가 드라마의 긴장감을 만들어내기 좋고, 수술장면의 사실감과 볼만한 화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겠지만, 사실 분초를 다투는 위급환자는 심장마비나 협심증, 쇼크 등 내과계열 질환이 더 많다. 수술장면도 실제로 병원의 수술장을 이용하고 특수효과를 이용해 사실적으로 묘사하지만, 외과의들의 몸에 저절로 배어있는 몸짓 등에 있어서는 엉성한 모습이 많다. 수술대에 선 의사가 마스크나 모자를 만지는 행동은 불결함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는다. 수술 모자나 마스크, 수술복이 같은 색깔이어서 모두 소독이 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하는 세심치 못한 연기인데, 의과대학 학생들이 수술장 실습에서 잘못해 야단맞는 행위이기도 하다.<br/> 의학드라마가 보통 1~2개 과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진료에 필수적인 다른 과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병원이란, 특히 종합병원에는 환자의 진료를 위해 수많은 부서가 존재하고, 드라마에서는 등장하지도 않는 진단검사의학과와 영상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이외에도 전문기사, 영양사, 약사, 원무 직원, 행정직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곳이 병원인 것이다.<br/> 상당수의 의사는 의학드라마가 현실감이 없고 단지 의사가 주인공이고 병원이 무대일 뿐 야망이나 정치, 애정을 다룬 드라마로 생각하고 잘 보지 않는다. 병원도 하나의 사회로 정치적, 인간적 갈등과 애정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환자와 질병이 본질이므로 병원에서의 일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일어난다. “<span class='quot0'>이런 사례는 해외논문에서만 봤어.</span>”, “<span class='quot0'>10년에 한 번 볼까 하는 환자야</span>”라는 이야기가 오가고, 드라마 이상으로 긴장감이 넘쳐나는 곳이 병원이다. “위험합니다. 빨리빨리 수술해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주온이라는 전공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모든 의사는 위급성이 판단되면 누구보다 서둘러 수술을 진행하는 굿닥터가 된다.<br/> 실제와는 다른 점이 더 많은 의학드라마이긴 하지만 가장 흡사한 상황이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열리는‘사망환자 증례 보고회’이다. 물론 드라마에서처럼 병원장이나 전혀 관계가 없는 간부가 참석하여 윽박지르거나 하지는 않고 관련이 있는 모든 의료진이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는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요인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설사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br/> 우리 국민 모두를 침통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마무리가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 사망환자 증례 보고회와 마찬가지로 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점과 구조 실패 요인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61.txt

제목: 세계인의 날 대통령 표창 받은 ‘파란 눈의 천사’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  
날짜: 20140520  
기자: 조철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20100000109  
본문: “1970년 사제서품을 받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서울 금천구 시흥동 판자촌을 방문했을 때 먼발치에서 배현정 원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푸른 마음으로 온전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 변함없이 젊고 아름답다는 찬사가 저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염수정 추기경)<br/> 법무부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유공자 17명에게 대통령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br/> 대통령표창 중 올해 신설된 ‘올해의 이민자 상'은 42년간 사회적 약자에게 인술을 펼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벨기에 출신인 마리 헬렌 브라쇠르(68ㆍ한국명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이 수상했다. <br/> 배 원장은 벨기에 출신 간호사로 1972년 국제가톨릭형제회 파견으로 한국에 왔다. 70년대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으로 점철된 한국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온 그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추천으로 1975년 시흥동 판자촌에 무료 진료소인 ‘전진상(全眞常) 가정복지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의료봉사 활동에 돌입했다. 전진상이란 온전한 자아봉헌(全), 참다운 사랑(眞), 끊임없는 기쁨(常)의 정신을 줄인 말이다.<br/> 당시 주민 대다수가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의료봉사자의 도움으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주중에는 간호사로서 말기 암 환자 가정을 방문해 월평균 1,500명을 보살피면서 이들에게‘파란 눈의 천사’로 불렸다. <br/> 그는 우리가 접해온 일반 의사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환자가 생활하는 환경을 알아야 병의 근본 치료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는 환자가 찾아오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가계도를 작성하는 등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쏟았다. 그러나 무료 진료소 운영에 한계를 느낀 그는 1985년 가톨릭 중앙의료원에 편입해 3년 만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도 매달 1,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200여명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는 등 환자의 경제력에 따라 진료비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일부에게는 매달 생계비와 양육비,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또 1988년부터 실시해온 호스피스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하고자 97년 1월 전진상 가정 호스피스팀을 결성해 말기 암 환자들과 마지막 삶을 함께하고 있다. <br/> 법무부는 “<span class='quot0'>1990년대부터 가톨릭대 의대 의학과 및 간호학과 학생 등에게 영세 빈민들의 고통과 어려운 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실습지도에 힘써 가정의학과 진료의 모범을 보이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의 의료인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span>”고 평가했다.<br/> 배 원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span class='quot1'>전진상 정신에 따라 제 일을 한 것뿐인데 큰 관심을 보여줘 많은 위로가 된다</span>”며“앞으로도 소외 이웃들에게 더 많은 의료 혜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62.txt

제목: 화학물질에 점령당한 식탁, 우리는 매일 독을 먹는다  
날짜: 20140519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19100000101  
본문: 죽음의 식탁<br/> 마리 모니크 로뱅 지음ㆍ권지현 옮김<br/> 판미동 발행ㆍ640쪽ㆍ2만8,000원<br/> <br/> ‘환경운동의 어머니’ 레이첼 카슨은 1962년 침묵의 봄을 출간했다. DDT 등 살충제가 초래한 치명적인 결과를 비판한 이 책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비견될 정도로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책은 또 환경운동의 흐름을,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로서 시혜를 베풀 듯 다른 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존주의에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환경주의로 바꾸었다. 그 책 침묵의 봄이 나온 지 50여년. 그러나 죽음의 식탁을 읽으면 “살충제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살생제”라는 카슨의 테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br/> 죽음의 식탁은 밭에서 쓰는 농약에서부터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제와 플라스틱 용기까지 일상에 만연한 독성화학물질이 우리의 건강과 생존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추적해 밝힌 책이다. 전작 몬산토: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유명세를 탄 저자는 프랑스의 언론인으로 지난 수십 년간 암, 백혈병,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자가면역질환 등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이 의문을 풀려고 프랑스, 독일, 미국, 인도, 칠레 등 10개국에서 과학자, 활동가, 규제기관 대표 등 50여명과 인터뷰했다. 2년에 걸친 방대한 조사와 끈질긴 추적 끝에 일상을 점령한 수만 개의 화학물질이 그들 질병의 주요 원인임을 밝힌다.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독’으로 바꾼 대기업과 과학자, 규제기관의 기만과 속임수도 낱낱이 파헤친다. <br/> 저자는 먼저 농작물 재배에 쓰는 농약에 주목했다. 기업이 ‘식물 약제’라는 이름으로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 개발된 제품’을 ‘식물의 건강과 식품의 질을 보호하는 약’으로 둔갑시켜 농부와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것이다. <br/>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기업이 자사 제품을 옹호하고 이익을 대변해 줄 연구자들을 암암리에 돈을 주고 고용해 연구 결과를 조작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리처드 돌과 페토의 ‘1981년 발암 원인에 관한 연구’다. 이 연구는 담배를 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주도하는 공을 세웠다. 하지만 훗날 이 연구의 방법론적 오류가 밝혀졌고 연구를 집행한 리처드 돌이 화학업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비난을 받았다. 오늘날까지도 담배 악영향 연구가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 증가를 가리는 위장막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다. <br/> 저자는 “<span class='quot0'>화학물질 유해성 기준이 되는 일일섭취허용량과 잔류농약최대허용량의 개념은 기업과 규제기관이 합작해 멋대로 정한 속임수</span>”라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병에 걸리지 않고 매일 섭취할 수 있는 독극물의 최대량을 정한 일일섭취허용량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기준이다. 잔류농약최대허용량 또한 그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기업의 영업기밀로 분류돼 확인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도 보건당국과 규제기관들은 이 개념을 관행적으로 받아들여 쓰고 있다는 것이다. <br/> 저자는 “<span class='quot0'>이처럼 기만적인 연구와 허술한 관리 체계로 인해 아스파르탐, 비스페놀A 등과 같은 독성화학물질들이 우리의 식탁 위로 버젓이 올라와 우리는 매일매일 독을 먹고 있다</span>”고 말한다. 아스파르탐은 설탕보다 200배 높은 단맛을 내는 까닭에 ‘코카콜라 제로’ 등 음료수, 시리얼, 껌, 술 등 6,000개의 식품과 300개 이상의 의약품에 첨가제로 쓰이고 있다. 뇌 속 화학작용을 바꿔 뇌종양, 간질 등을 일으킨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제조 기업과 결탁한 규제기관들의 묵인 속에서 사용이 승인돼 현재 전 세계에서 2억명이 섭취하고 있다. 불임을 일으키고 태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비스페놀A는 플라스틱 용기, CD, 젖병, 음료수캔 등에 쓰이고 있다. 이 물질은 음식물과 접촉하면 그 안으로 침투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내분비계를 교란해 정자 수를 감소시키거나 유방암을 일으킨다. 극소량으로도 아주 위험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현행 일일섭취허용량 제도로는 통제가 어렵다. 이밖에 내분비계교란물질인 폴리염화바이페닐(PCB), 디에틸스틸베스트롤(DES),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발암 메커니즘을 유발하는 제초제 아트라진 등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br/> “<span class='quot1'>독성화학물질을 피하려면 가능한 한 유기농 식품을 먹으라</span>”는 저자는 “<span class='quot1'>인간의 건강이나 환경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것이 기업과 규제기관의 논리이기에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질병을 양산하는 독성화학물질이 우리 일상에 넘쳐날 수밖에 없다</span>”고 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지금 환경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에 만연한 독성화학물질을 소상히 밝힐 뿐 아니라 그 시스템을 둘러싼 음모를 추리 소설처럼 파헤쳐 책장이 술술 넘어간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63.txt

제목: '헌신이 무엇인가' 알고 싶다면 이 사람을 보라  
날짜: 20140519  
기자: 최윤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19100000307  
본문: 사형 구형에 "영광입니다"라던 남자 야학서 만나 옥바라지·생계 떠맡아, 남편 24년 전 암으로 떠났지만 "불행하다 생각한 적 없었다"<br/>생협·민가협 등 든든한 맏언니로 힘든 내색없이 온갖일 묵묵히… '4월혁명총집' 탈진 직접 출간도<br/>숨지기 하루 전 "암 투병 중" 갑작스런 부고에 지인들 망연자실, 볕도 안 드는 남편 묘 늘 아파하다 모란공원 양지바른 자리에 합장돼<br/><br/>지금 거짓말 같은 일들을 겪고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무참하지만, 그래도 세상은 좋아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쌍용차 사태에 분통이 터져도 동일방직 똥물사건에 비할 수 없고, 국정원의 행태가 기가 막혀도 70,80년대 그 전신들의 패악에는 댈 게 아니다. 억압의 주체와 방식이 바뀐 것뿐이라고, 국가의 직접 폭력이 자본의 우회적 폭력으로 바뀐 데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건 지금은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대통령 욕도, 30년 전에는 목숨 걸 일이었다. <br/> ‘정의는 승리한다’는 명쾌한 단문이 생략한 수많은 조건절들, 숱한 이들의 숱한 사연들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연이 있다. 민주투사의 아내이자 동료로서, 또 사회활동가로서, 떠나는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흐트러지지 않게 다잡았던 아름다운 사람 박문숙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지난 4월 2일 그가 별세했다. 향년 59세. 열아홉 대학생 때부터 생의 마지막 날까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헌신하면서 단 한 번 돋보이는 자리에 머문 적 없이 위 아래와 주변을 “어머니처럼 선생님처럼” 챙기고 보살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고인을 “<span class='quot0'>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해 온 민주화 운동의 맏언니</span>”라고 기렸다. <br/> <br/> 고인의 마지막 직함은 녹색환경운동 이사장(2011~13)이었다. 정선순 운영이사는 “<span class='quot1'>한동안 화를 삭이느라 힘들었다</span>”고 말했다. 민청련(민주화청년연합회)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친분을 맺어온 정 이사는 “부고가 전해진 뒤 7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어요. 다들 ‘우리가 아는 그 문숙이 맞아’였어요.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의 분노는 아마도 모진 운명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비롯해서 고인을 알고 산 모든 이들에 대한 속절없는 원망과 분노였을 것이다. “<span class='quot2'>고인은 자신보다 남편(김병곤씨, 90년 작고), 두 딸보다 동료와 사회를 먼저 챙겼던 분이었어요.</span>” 일감만 많고 보수는 없는 그 직책을 떠안긴 것도, 지난해 언젠가 이런저런 대화 끝에 ‘이제는 쉬고 싶다’는 고인에게 “<span class='quot2'>우리 나이면 한창 뛰어다녀야 할 땐데 벌써 무슨 말씀이냐</span>”고 무지른 것도 정 이사였다. 내색하지 않아 아무도 몰랐지만, 고인은 그 때 이미 암 투병 중이었다. “근년에는 효소에 관심을 보이며 내년부터는 수익사업을 해보자는 얘기도 나눴는데, 돌아가신 뒤 보니 이미 혼자 공부해서 효소를 무려 17가지나 발효시켜 놓으셨더군요. 단체에 주고 간 선물인 셈이죠.” 고인은 예방차원의 환경운동, 특히 친환경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사업에 열정을 쏟아, 회원들을 인솔해 전국 각지의 친환경 농촌을 다니며 교육하고 직거래 등 도농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고 한다. <br/> <br/> 1955년 1월 19일, 경북 영주의 부잣집 2남3녀 중 셋째로 태어난 박씨는 74년 서울여자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한다. 계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1학년 때 교내의 가장 선도적 학생운동 조직이던 ‘녹수회’(훗날 ‘타래회’로 개명)에 가입, 농민운동에 뜻을 두고 활동한다. 녹수회는 60년대 후반 서울대 법대 ‘농법회’와 연대해 만들어진 학내 조직으로 충청도 한 마을을 정해 매년 여름과 겨울 농활(농촌활동)을 다니던 전통이 있었다. 녹수회 선배 박성자(공예과 73학번, 슬로푸드문화원 부이사장) 씨가 고인을 처음 만난 것도 74년 농활 때였다. “비밀 서클이어서 학내에서 대놓고 아는 척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죠. 여성스럽고 조용하면서 리더십 강한, 선배 같은 후배였어요.” 박씨가 고인과 각별해진 건 대학을 졸업한 박씨가 노동 현장에서 일하던 70년대 말 무렵부터였다. “제 자취방에 자주 왔어요. 충남에서 영어교사(1978~80)를 하던 땐데 가출한 반 아이들을 찾으러 거의 주말마다 서울에 오곤 했거든요.” <br/> 농민운동 인권운동 중심의 사회운동은 70년대 중반부터 노동 현장으로 외연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고인도 대학시절 향린교회에서 야학교사로 일했고, 거기서 남편 김병곤(서울대상대 71학번, 90년 작고)씨를 만난다.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전국민주화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기소돼 비상보통군법회의 비공개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뒤 최후진술에서 “검찰관님, 재판장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는, 그래서 함께 피고로 섰던 이철 유인태 나병식 여정남 김지하 이현배 등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머쓱하게 했다는, 바로 그다. “하루는 문숙이가 묻더군요. ‘결혼할까 말까?’ 두 사람이 사귄다는 것도 그 때 알았어요. 전 무조건 하라고 했죠.” 당시 고인은 대학 졸업반이었고, 김씨는 이미 운동권의 명사(名士)였다. 민청학련 재판 일화를 덮어두더라도, 인물로나 인격으로나 전후(前後) 운동가로서의 면모로나 김씨는 참 멋진 남자였다고 했다. <br/> <br/> 하지만 김씨는 78년 4월 동일방직 사건 직후 유언비어 날조 및 국가모독 혐의로 다시 구속돼 10.26 직후인 79년 12월 5일 석방된다. 그리고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운동 현장에 복귀, 재야와 대학 학생회의 가교역 등을 맡으며 ‘80년 민주화의 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의 거친 물살에 몸을 싣는다.(김병곤 약전) 두 사람이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셋집을 구해 결혼한 게 80년 3월, 그 즈음이었다. 83년 민청련 출범- 84년 노동자복지협의회 출범- 85년 민통련 출범…, 눈코 뜰새 없던 시절이었다. 결혼과 함께 교사를 그만 둔 박씨 대신, 김씨는 대학 선배가 운영하던 회사에 잠깐 취직하지만 민청련 부위원장과 민통련 정책실 차장을 동시에 맡으면서 금세 사표를 낸다.<br/> 고인은 전업 운동가의 아내들이 대개 그랬듯, 번역이나 관공서 우편물 발송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두 딸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고, 그러면서도 어려운 내색 없이 기품을 지켰다고 한다. 누가 어떻게 먹고 사냐고 물으면 그냥 빙긋이 웃곤 했는데, 고인의 그런 태도는 생애 내내 이어졌다. 그 시절 젊은 운동가 부부 다수가 노동자 탁아소가 있던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모여 살았다. 이범영(전 한청련 의장, 94년 작고)씨의 부인 김설이씨, 김희택(전 민청련 의장)씨의 부인 조명자씨 등이 박씨와 친구처럼 지낸 이웃이었다. 박씨가 경기 부천에 액세서리 가게를 열어 잠깐 운영한 것도 그 즈음인 걸로 기억한다. “장사 수완도 있고, 야무져서 밑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수완이 나중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원재활용센터 사무국장(91~93) 시절 ‘아나바다 운동’때 발휘되죠. 훗날 박원순씨가 ‘아름다운 가게’를 시작하면서 박씨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박성자씨)<br/> <br/> 고인이 자신의 활동을 본격화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다. 생활협동조합 운동((사)한마당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 85~87),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민가협) 창립활동 및 재정위원장(85~89년)이 공식 약력에 나타나 있는 당시 이력이다. <br/> 민가협 활동은 남편 옥바라지의 연장이었을 것이다. 민청련 부의장이던 85년 7월 김씨는 또 구속된다. 김근태(2011년 작고) 당시 의장을 비롯한 민청련 간부들에 대한 전면적 탄압의 신호탄이었다. 박씨는 연행ㆍ구속 사태에 넋이 나간 부인들의 손을 이끌고 관할 경찰서며 남영동 옥인동 장안동 대공분실을 돌며 싸우고, 면회하고, 성명서 만들고, 농성했다. 그 일은 대학생과 노동자 부모들로 확대됐고, 자연스럽게 민가협과 유가협(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91~2010년) 활동으로 이어진다. <br/> “<span class='quot2'>돌이켜보면 웃을 일도 많았다</span>”며 조명자씨가 들려준 일화다. “86년 남편(김희택씨)이 남영동으로 연행됐을 땐데, 그날도 문숙이가 저와 함께 가서는 그 살벌한 대공분실 문을 두드리고 흔들며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다 잠깐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요원들이 나와선 병원으로 끌고 갔어요. 이동 중에 의식은 돌아왔지만 문숙이가 계속 기절한 척하라고 하더군요. 전 결국 병원에서 처방한 독한 신경안정제를 맞고 정말 기절을 했어요. 좀 있다 깨자마자 다시 남영동에 가서 난리를 치니까 그 사람들도 기가 막혔던지 문을 열고 면회를 시켜주데요. 대공분실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면회한 건 그게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거예요.” <br/> 고인과 동갑내기 친구 김설이씨는 “<span class='quot3'>고인이 있으면 기관원들과 싸움을 해도 참 든든했다</span>”고, “<span class='quot3'>쇠심줄처럼 질겨서 언제나 끝장을 보겠다는 식이었다</span>”고 말했다. “그런 데서 싸울 땐 으레 안 될 걸 알면서도 ‘불법 연행자 석방하라’라고 외치잖아요. 하지만 고인은 정말 석방될 때까지 외칠 것처럼 외치곤 했어요”라고 말했다. <br/> 고문 후유증으로 팔다리가 굳고 하혈까지 하던 남편 김씨는 87년 7월 2년 만기 출소하지만, 반 년도 안 지난 그 해 12월, 대통령선거 구로구 부정투표 의혹으로 촉발된 구로구청 점거농성 현장 상황실장을 맡아 다시 구속된다. 감옥에서 위암 발병 사실이 밝혀져 형 집행 정지로 6개월 만에 나온 김씨는 2년여 투병 끝에 90년 말 숨진다. 김씨의 삶을 기록한 김병곤 약전(현무환 편저, 푸른나무 발행)은 김씨의 공적 활동과 당시 정세에 초점을 맞춰 사적인 이야기나 아내 박씨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다만 임종을 다룬 마지막 장 끄트머리에 짤막하게 실려있다. <br/> “암이 유발할 수 있는 온갖 합병증이 그의 몸을 덮쳐 와도 한 순간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투지와 의지가 놀랍기만 했다. 그보다 더 경이적인 것은 아내 박문숙의 의연함이었다. 의사들이 버려둔 남편의 병을 아내는 의사보다 더 정확하고 세심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보살폈다. (…) 문병 온 친지들이 병실 문 밖으로 나가 몰래 눈물을 훔칠 때에도 박문숙은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232쪽)<br/> <br/>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유행하던 문민정부 시절, 박씨는 농민운동 비례대표로 경기도의원(95~98년)을 지낸다. 농업기반공사 사외이사(2001~03년)를 한 적도 있다. DJ정부가 국가와 공공기관 모든 위원회에 ‘여성 30% 의무 할당’ 토록 했을 때다. 마침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98~2004)으로 일하던 박성자씨가 한국여성농민연구소 부이사장(99~2003)이던 고인을 천거했다고 한다. <b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2009~11년) 시절 고인이 해낸 일이 총 8권의 방대한 월혁명 사료 총집 발간이다. ‘4월 혁명’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각계의 이견과 반발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데서부터, 좌우 보수 진보 진영의 균형을 유지하며 발간위원회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섭외하고 설득하는 일 등 가장 예민하고 속 썩는 일이 고인의 몫이었다고 한다. 편집위원회 간사였던 현종철(50) 현 사료관장은 “<span class='quot4'>제가 당시 관장이었다면 결코 해내지 못했을 일</span>”이라고 말했다. “50년 동안 사실상 방치해왔던 자료예요. 5년 걸려도 빠듯한 그 일을 1년 준비기간 포함해 3년 만에 해냈어요. 다들 밤샘을 밥 먹듯이 해가며 일에 매달려서 막판에는 다들 탈진 상태였는데, 낼 모레가 출판기념회였어요. 뭘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했던 때 고인이 계획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많은 원탁 테이블마다 초청자 한 사람 한 사람 좌석 배치표까지 그려 두셨더군요. 사료관장이 할 일이 아니죠. 그날 밤에 울컥해서 관장님께 감사 메일을 썼어요. 존경한다고요.”<br/> <br/> 고인은 어느 자리에서건, 그 무엇으로건 생색이란 걸 낸 적 없었고,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자신이 감당한 어려움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정선순 이사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셨겠지만 늘 밥값을 당신이 내려고 했어요. 누구에게 농담으로라도 ‘밥 좀 사’라고 말하는 걸 못 봤어요.”라고 말했다. 김설이씨는 “<span class='quot3'>아마 그래서, 주위에 걱정 끼치기 싫어서, 투병 사실조차 끝까지 숨겼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고인은 2006년 발병했던 암이 12년 재발하자 항암치료를 받았고 지난 해 2월 수술 직후 입원했다. 고인은 숨지기 하루 전에야 지인들에게 투병 사실을 알렸고, 친정에조차 일주일 전에 연락했다고 한다. 입원 직전까지 박씨는 그 많은 민청학련, 민청련 관련자 재심청구 업무를 모아 정리하고 대응하는 데 매달렸다. <br/> <br/> 지난 해 12월 남편의 기일, 고인의 어깨와 팔은 보호대로 묶여 있었고, 그 몸으로 말년의 거처로 세 얻어둔 포천까지 가서 제사 음식을 장만해왔다. 그날도 고인은 지인들에게 “오십견인지 어깨가 좀 아프다”고만 말했고, 정 이사에게는 “두 달만 쉬겠다”고, “2월 말 (녹색환경운동) 총회 때 보자”고 말했다. 시누이 김점란씨는 “숨지기 전날 문병 때 ‘오빠에게 시집와서 고생 많았다’고 했더니 겨우 들리는 목소리로 ‘오빠가 욕심 없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군요”라 말했다. <br/> 2012년 1월 고 김근태씨의 장지를 고르러 경기 마석 모란공원을 찾던 날, 고인은 응달의 남편의 묘 앞을 오래 떠나지 못했다. 햇볕이 안 들고 습해 이끼가 끼고 떼도 못 자라는 자리였다고 한다. “20년 넘게 늘 마음 아파했어요. 제 일 제쳐두고 남 뒤치다꺼리 그렇게 해줬지만 제 남편 묘는 못 챙긴 거죠. 주위에서 아무도 안 챙겨줬던 거죠.”(박성자씨) <br/> 장례위원회는 4일 양가 유족의 동의를 얻어 모란공원의 양지바른 자리에 부부를 합장했다. <br/> 최윤필기자 proos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64.txt

제목: 후코이단, 추출 원료에 따라 효능이 달라  
날짜: 20140516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16100000039  
본문: 지난 4월 말, 종합편성채널 TV 조선의 ‘만물상’ 프로그램을 통해 후코이단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라는 사실이 큰 주목을 받았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조류 섭취량 1위인 일본에서, 후코이단에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아포토시스 기능이 있다는 것이 최초로 발견된 이후, 후코이단에 대한 각종 연구 및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후코이단의 강력한 항암 효과가 인정되어 항암 치료의 일환으로 처방되고 있다고 한다.<br/><br/>후코이단은 미역이나 다시마, 모즈쿠(큰실말) 등과 같은 갈색을 띠는 해조류에 소량 포함되어 있는 천연 성분인데, 어떤 종류의 갈조류에서 추출하느냐에 따라 후코이단의 효능이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내각부가 인증한 NPO 후코이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뉴질랜드 통가 지역 등에서만 서식하는 모즈쿠(큰실말) 추출 후코이단의 경우,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유도 작용(암세포 자살유도 기능)이 가장 탁월하며, 미역귀 후코이단은 신생 혈관 억제 기능이 다른 어떤 갈조류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해초에서 유래한 후코이단을 혼합함으로써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도 보여진다. <br/><br/>하지만 실제로 국내의 시중 제품이나 아마존 닷컴 등과 같은 해외 온라인 구매 사이트를 통해 후코이단을 검색해보면 주로 한 종류의 후코이단을 사용한 제품, 즉 단일 후코이단 제품은 많이 볼 수 있으나, 두 가지 이상의 후코이단을 사용하는 복합 후코이단 제품은 찾아 보기 힘들다. 그 중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제품만이 유일한 복합 후코이단 제품이며 일본, 미국, 홍콩 등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br/><br/>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암세포 자살 유도를 가장 잘 한다고 알려진 일본 오키나와 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암세포의 전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갈조류로 알려진 미역귀(메카브)에서 추출한 후코이단, 그리고 면역력 증강에 탁월한 버섯 균사체로 베타글루칸이 다량 함유된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총 세 가지 성분이 함유된 복합 후코이단 제품이다.<br/><br/>만성 질환이나 암으로 후코이단의 효능을 중요시 생각하는 소비자라면, 모즈쿠 후코이단, 미역귀 후코이단, 아가리쿠스 균사체가 혼합된 복합 후코이단 제품을 고려해 볼만하다.<br/><br/>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문의 1877-8881<br/><br/><br/>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65.txt

제목: 민원 줄이랬더니… 보험사들, 소송 남발  
날짜: 20140516  
기자: 강지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16100000266  
본문: 지난해 유방암 수술을 받은 정모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암 보험에 가입한 정씨가 수술 이후 입원치료비 82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하자 보험사는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정씨가 이에 불복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사가 최근 정씨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보험금지급 면책확인 소송)을 낸 것. <br/><br/>정씨의 경우처럼 당국이 지난해부터 고객 민원 발생 건수를 줄이라고 압박하면서부터 금융사들의 고객에 대한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1만4,889건으로 전년(1만3,089건) 대비 13.7%가 줄었다. 반면 보험사가 고객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488건으로 전년(437건) 보다 11.7%가량 늘어났다. 소송제기비율도 2012년 2.9%에서 지난해 3.7%로 올랐다. <br/><br/>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보험사들이 민원 제기 건수를 줄이기 위해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게 제기해 압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br/><br/>통상적으로 고객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민원)을 신청하면 감독원은 해당 보험사에 이를 시정하라고 통보한다. 이후 보험사는 관련 민원에 대해 고객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금감원이 민원발생 건수 감축을 강조하면서,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민원인을 설득하는 것보다 소송을 선택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해지게 됐다. <br/><br/>제기된 민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민원건수에서 제외돼 민원이 줄어드는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민원인에게 큰 압박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게 유리한 합의를 얻기 쉬어지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br/><br/>결국 금융당국이 민원건수 감축이라는 가시적 성과 관리에만 매달리면서 정작 금융 고객들은 소송이라는 더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험국장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형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심적 압박감 때문에 대부분 합의하려 한다"며 "소송비율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 당국이 별도로 중점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br/><br/>자료에 따르면 동부화재가 지난해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비율도 평균(3.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8%였다. 이어 하이카손해보험(6.6%) AXA손해보험(5.8%), LIG손해보험(3.9%) 순으로 소송비율이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나 질병보험 등 과실비율을 따지고 거액의 보험금이 나가야 하는 분쟁일수록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br/><br/><br/>강지원기자 stylo@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66.txt

제목: 아베종양내과,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효과 밝혀  
날짜: 20140515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15100000214  
본문: 사람마다 재능과 성격이 다르듯, 같은 질병이라도 개인별로 치료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같은 약을 먹어도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부작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제각기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br/><br/>특히 암처럼 치료가 복잡하고 개인차가 심할 때는, 대규모 집단조사의 평균적인 결과에 기초한 임상시험에 따른 치료방식보다는 개인별 맞춤치료, 개별화의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br/><br/>개별화의료(Personalized medicine)란 환자의 질병을 분자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단하고,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까지 고려하여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적용하는 치료방식이다. <br/><br/>국제개별화의료학회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암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질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로 진행성 암과 침윤성 암도 치료가 가능해진 만큼 이제는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절망할 일은 아니다</span>”고 전했다. 국제개별화의료학회는 1999년 설립되어 매년 난치성질환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단체다. <br/><br/>아베종양내과는 개인별 유전자검사와 항원검사, 암별 종양마커 검사 등을 통해 기존 치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개인별 암세포의 특징과 항암제에 대한 내성, 암세포로 발전하게 된 원인 등을 파악하여, 더 정확한 치료와 재발 및 전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br/><br/>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면역계의 사령탑인 수지상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T세포에게 암 정보를 제시하여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span>”고 설명했다. <br/><br/>아울러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기존 치료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인체의 1% 미만인 수지상세포를 암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량 채혈로는 불가능해 1시간 이상의 성분채혈과정을 필요로 하고, 동결보관 후 사용하면 해빙 시 세포손상이 있어 치료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이에 아베종양내과는 소량의 혈액(25mL)에서 수지상세포의 원료가 되는 단구를 분리하여 유전자검사와 각종 기능검사를 한 후 개인별 맞춤형 항원을 추가, 암백신을 제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구는 혈액 중 약 8%가 있으며, 1996년 일본의 아카가와 키요코박사가 최초로 단구에서 수지상세포 유도에 성공했으며, 같은 해 세계유수학회에서 T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암 항원을 발견했다. <br/><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기존 수지상세포 치료에는 WT1과 MUC1 펩타이드만 사용하고 있지만, 아베종양내과에서는 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를 하여 개인에 맞는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제조에 여러 종류의 펩타이드를 사용한다</span>”고 말했다. <br/><br/>즉, 킬러T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WT1펩타이드를 사용하며, 헬퍼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MUC1펩타이드와 개별 특이적 암 항원 등 3~5종류의 펩타이드가 사용된다. 최근에는 NY-ES01, GV1001펩타이드가 추가되어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다. 치료는 2주에 1번씩 수지상세포의 정보 전달을 하는 암별 해당 림프절에 피하주사로 한다. <br/><br/>실제 아베종양내과는 이 같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전이·재발암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70%의 효과를 보았으며,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39명의 환자에게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와 ‘복합면역세포’로 치료한 결과, 74.4%의 효과를 거뒀다고 제 17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밝힌 바 있다. 이 결과는 치료 전후 영상진단과 종양마커검사, EGFR, K-ras, p-53검사, 48종류의 암 관련 유전자검사, 14종류의 암 억제 유전자검사, 4종류의 약제내성 유전자검사 등으로 확인했다. <br/><br/>한편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는 오는 6월 14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아베종양내과의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 결과를 추가로 밝힐 계획이며, 이외에도 ‘암 면역세포의 오늘과 내일’, ‘암 면역치료의 개발’이란 주제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br/><br/>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67.txt

제목: 1타 5피, 대장암 예방  
날짜: 2014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1510014267243  
본문: 40대가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단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숙취가 오래 갈 때, 피자에 김치를 곁들여 먹는 자신을 발견할 때, 불의를 보고 꾹 참을 때, 새해 인사로 "부자 되세요" 대신 "건강하세요"란 문자를 보낼 때 등이다. 인터넷 유머의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는 것으로 개개인마다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나는 '만성질환이나 암의 위험 요인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상당히 걱정될 때'를 넣고 싶다. <br/><br/><br/><br/>세상은 넓고 먹고 마실 것은 많은데, 웬만큼 즐거운 것은 모두 성인병과 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건학 연구결과들은 경고한다. 게다가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 일관되지 않고, 어떤 질병에는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이 다른 질병에는 별 상관없거나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만병의 근원이라는 흡연이 파킨슨병의 위험은 낮춘다. 칼슘 보충제의 장기 복용은 대장암 위험을 낮추지만 전립선암의 위험은 높인다. <br/><br/><br/><br/>이렇듯 얽히고 설킨 위험 요인들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머릿속으로 정리해 볼라 치면 '의사인 나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하물며 독자들은 얼마나 헷갈릴까'하는 걱정이 든다. 휙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끼니 때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시간 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려진 위험 인자들을 모두 피하면서 최선의 예방을 하는 길은 세상과의 통로를 닫고 산나물만을 먹으며 폐관수련(廢館修練)하는 도인이 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이다. <br/><br/><br/><br/>결국 모든 암을 예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몸에 생기는 다양한 암 중에서 꼭 예방해야 할 한 가지 암을 선정한다면 단연코 대장암을 고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장암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다 보면 당뇨병ㆍ뇌졸중ㆍ심장질환 예방과 슬림한 몸매까지 네 가지 덤이 따라 오니 가히 '1타 5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br/><br/><br/>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 술, 담배, 붉은 고기, 에너지 불균형(과식, 주전부리), 운동 부족 등이 있는데 이들은 '씹고 뜯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이면서 동시에 비만과 성인병을 일으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비만과 대사증후군 같은 성인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면 대장암은 자연히 예방된다는 것이다. <br/><br/><br/><br/>대장은 우리 몸에서 몸의 주인이 즐기고 난 찌꺼기들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파티가 성대하고 흥청망청할수록 뒤처리할 분량이 많아지니 뒤처리 하는 세포(대장의 상피세포) 중에서 짜증을 내는 놈도 있고 아예 사고를 치는 놈도 생긴다. 물론 한두 번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주지육림이 반복되면 대장의 세포들이 들썩이기 시작한다. 절제와 운동의 필요성을 항상 기억하도록 노력해 보자.<br/><br/><br/><br/>주웅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68.txt

제목: "죽음의 질은 삶의 질과 비례해요"  
날짜: 2014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1510014267240  
본문: 어른 환자 대상 호스피스 늘었지만 소아 완화치료 전문가론 국내 유일 <br/>아픈 사람 곁 지켜주는 삶을 위해 간호대학 교수직 던지고 뛰어들어 <br/>진단 초기부터 환자와 가족 돕는 선진국형 시스템 정착이 목표<br/><br/><br/><br/>1년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스물도 안 된 딸에게 말을 해야 할지 엄마는 오래 갈등했다. 당차고 주관이 뚜렷한 아이라 알려주는 게 낫겠다 싶어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딸은 아무 말도 말라 했다. 어느 날 아이는 자고 싶다며 엄마와 언니를 방에서 내보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살그머니 딸의 방문을 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딸은 잠자는 숲 속의 공주처럼 엄마 곁을 떠났다. <br/><br/><br/><br/>암을 앓던 딸에게 기적은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딸의 죽음이 아름다웠다고 기억한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외롭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라도 삶의 질이 죽음의 질에 크게 기여한다"는 황애란(61)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가족상담사가 딸의 투병 기간 동안 가족의 이야기에 늘 귀를 기울여준 덕분이다. <br/><br/><br/><br/>국내 유일의 소아 완화의료 전문가 <br/><br/><br/><br/>"엄마에게 직접 듣진 않았지만 아이는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황 상담사는 회상했다. "평소에도 딸들에게 의지하는 마음 약한 엄마가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죽음을 맞고 싶지 않았을 아이"였다는 것이다. <br/><br/><br/><br/>"그 아이가 일기를 남겼어요. 일기 안에 병으로 고뇌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죠. 대신 홀로 내면에서 괴로워했을 거에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지금도 마음이 아프네요."<br/><br/><br/><br/>그 고뇌를 밖으로 풀어낼 수 있었으면 짧았던 아이의 삶이 좀더 풍요롭지 않았을까. 가족에게는 쉽게 풀지 못한다. 사랑하는 이가 자신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 역시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한 고뇌를 들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성숙한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아동ㆍ청소년 완화의료 전문가의 역할이다. <br/><br/><br/><br/>황 상담사는 국내 병원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소아 완화의료 전문가다. 아이의 엄마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지만, 한창 예민한 나이의 아이는 그러지 못했다. 국내에 이 분야 전문가가 더 많았다면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어른 환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돌보는 호스피스는 최근 들어 부쩍 늘었지만, 중병을 앓는 아이와 그 가족들의 삶을 돕는 완화의료사는 큰 병원에서도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br/><br/><br/><br/>"아이가 아픈 가족에게는 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줘야 하고, 마음 아픈 부모를 위한 상담도 필수죠. 부모와 형제자매의 역할이 아픈 아이를 중심으로 달라져야 하고, 부부관계도 재정립돼야 해요. 어려움을 경청하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거에요. 그래야 가족의 응집력이 빛을 발할 수 있죠."<br/><br/><br/><br/>비단 상담에서 그치지 않는다. 아이가 투병하는 시간을 되도록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도록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을 아이의 몸 상태나 성격, 환경 등에 맞게 적절히 제공하는 것도 완화의료의 역할이다. 의사가 미처 주지 못한 이런 도움을 받은 환자들은 삶의 질뿐 아니라 치료 효과도 좀더 높아질 수 있다. <br/><br/><br/><br/>교수직 내려놓고 병원 직원으로 <br/><br/><br/><br/>황 상담사가 자원봉사가 아닌 정식 완화의료 전문가로 일하기 시작한 건 2003년부터다. 그 전까지 그는 연세대 간호대 교수였다. 국내 간호사 처음으로 의학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약 20년 동안 지켜온,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를 정년이 한참 남은 49세 때 미련 없이 털고 일어났다. 그런 뒤 계약직 호스피스 직원으로 다시 출발선에 선 것이다. 원하는 건 하나였다. <br/><br/><br/><br/>"아픈 이들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멘토 같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교수 하는 동안에도 1989년부터 세브란스병원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게 내게 가장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점차 들기 시작했어요."<br/><br/><br/><br/>우리나라에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활동은 역사가 30년도 채 안 될 만큼 짧다. 소아는 말할 것도 없다. 당연히 완화의료 활동이 실제로 아동ㆍ청소년 환자나 그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다. 연구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황 상담사는 자신이 직접 연구에 뛰어들진 않는다. <br/><br/><br/><br/>"환아와 가족들을 인간 대 인간으로만 만나고 싶어서요. 연구를 하게 되면 상담 대상자를 순수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목적을 갖고 대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함께 일하는 젊은 후학들에겐 연구를 독려하기도 합니다."<br/><br/><br/><br/>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 삶임에도 위기는 있었다. 상담을 원하는 환자는 많은데, 모두를 충족시켜줄 순 없었다. 항상 뭔가 더 해야 한다는 미진한 느낌이 따라다녔고, 최선을 다해도 언제나 미안함이 남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갈등도 많았지만, 황 상담사는 지금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br/><br/><br/><br/>"하이테크 넘어 하이터치로"<br/><br/><br/><br/>호스피스의 역할은 주로 여명이 얼마 안 남은 환자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더 나아가 진단 초기부터 투병의 전 과정에 동행하고, 사별 후까지 도와주는 완화의료가 이미 상당히 발전했다. 의료진도 지역사회도 제도도 완화의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양성시킨다. 황 상담사는 올해부터 병원 내 완화의료 서비스를 한층 더 체계화시켰다. 새 환자가 오면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과 함께 팀을 꾸려 환자와 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할지 계획을 세운다.<br/><br/><br/><br/>"고도의 의료기술로 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일이 '하이테크' 영역이라면 환자와 가족들이 편하게 기대고 마음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돕는 완화의료는 '하이터치' 영역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완화의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죠."<br/><br/><br/><br/><br/><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br/><br/> <br/><br/><br/><br/>▶▶▶ 관련기사 ◀◀◀ <br/><br/><br/>▶ "어떻게 아이 몸에 칼을 대냐고요? 꼭…" <br/><br/><br/>▶ "사춘기 좀 이르다고 비정상은 아니에요" <br/><br/><br/>▶ 빨라진 초경 등 생리 횟수 증가 때문에 결국… <br/><br/><br/>▶ "어른 병 앓는 아이, 치료할 수 있어요" <br/><br/><br/>▶ 어른과 전혀 다른 아이들 암… "완치될 수 있어요" <br/><br/><br/>▶ "1년에 5, 6㎝ 꾸준히 자라는지 살펴보세요"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69.txt

제목: [Check! 건강소식] 고대안암병원, 당뇨병 공개강좌 外  
날짜: 2014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1510014267242  
본문: 고대안암병원, 당뇨병 공개강좌<br/><br/><br/><br/>고려대안암병원이 30일 오후 1시 8층 대회의실에서 당뇨병 공개강좌를 연다. 강의 시작 30분 전부터 선착순 100명의 혈당을 무료로 측정해준다. 김신곤 교수와 허주미 영양사, 전승룡 사회복지사가 당뇨병 환자의 일상생활 관리법과 식이요법, 정신건강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02)920-5394<br/><br/><br/><br/>건협, 미얀마 초등학교 보건 지원<br/><br/><br/><br/>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가 미얀마에 초등학생 기생충 및 빈혈 관리를 위한 구급의약품, 검사장비, 보건교육자료 등을 지원했다. 건협은 또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와 빈혈 검사 등을 위한 보건의료사업단을 6월 중 파견하기로 했다. 미얀마 기생충 관리 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시행하고 있다. <br/><br/><br/><br/>신촌세브란스병원, 암 자연식단 특강<br/><br/><br/><br/>유방암으로 딸을 잃은 이계호 충남대 화학과 교수가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의 폐해를 알리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 식단을 소개하는 특강을 23일, 6월 2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내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한다. 암 예방과 재발 방지에 좋은 식단을 소개한다. 참석자는 선착순 신청자. (02)2228-4930, 1<br/><br/><br/><br/>치매 표어ㆍ자작송 공모<br/><br/><br/><br/>분당서울대병원에 있는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가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표어와 치매극복송을 공모한다. 표어는 30자 안팎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으면 되며 극복송은 그룹 여행스케치가 만든 노래를 편곡하거나 새롭게 작사ㆍ작곡해 제출하면 된다. 8월 8일까지. 시상은 9월 19일. www.nid.or.kr, 070-7603-3842<br/><br/><br/><br/>서울아산병원, 부인암 강좌<br/><br/><br/><br/>서울아산병원이 22일 오후 2시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자궁근종과 부인암의 최신 치료’를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연다. 김대연 산부인과 교수가 자궁근종의 조기진단법과 최신 약물치료법, 부인암의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 등에 대해 설명한다. (02)3010-3051~4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70.txt

제목: [경제 브리핑] CJ오쇼핑, 중소기업 해외진출 돕는다 外  
날짜: 2014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1510014266189  
본문: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CJ오쇼핑은 15일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식'(사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오쇼핑은 글로벌 상품소싱 자회사인 CJ IMC의 세계 유통망을 활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해외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자문 및 상품기획, 매장 입점 등을 지원한다.<br/><br/><br/><br/>4월 완성차 수출액 48.3억달러… 사상 최대실적<br/><br/><br/><br/>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완성차 수출액이 작년 동월 대비 18.9% 늘어난 48억3,0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종전 최대치는 작년 12월에 기록한 47억3,000만달러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대차의 신형 제네시스와 신형 쏘나타, 한국GM의 말리부 디젤 등 신차 판매 호조와 평균 수출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br/><br/><br/><br/>KT-서울대,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 공동 설립<br/><br/><br/><br/>KT는 서울대와 손잡고 7월까지 유전체 분석과 연구에 필요한 위한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를 공동 설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전체 분석기술을 활용하면 암 발병 가능성 예측이나 개인 유전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도 가능하다. 양측은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를 미국의 브로드연구소처럼 세계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할 계획이다.<br/><br/><br/><br/>쿠팡, 실리콘밸리 기술기업 캄씨 인수 <br/><br/><br/><br/>쿠팡은 미국의 기술기업 '캄씨'(CalmSea)를 인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캄씨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br/><br/><br/><br/>갤럭시, 브라질월드컵 국가대표 공식 단복 협찬 <br/><br/><br/><br/>삼성에버랜드의 남성복 브랜드 갤럭시는 브라질월드컵에 출전하는 국가대표팀의 공식 단복을 협찬한다고 15일 밝혔다. 갤럭시는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선수단, 스태프 등 58명에게 수트, 바지, 티셔츠, 타이, 구두 등을 지원한다.<br/><br/><br/><br/>SKT-NHN엔터, 모바일 게임시장 활성화 제휴<br/><br/><br/><br/>SK텔레콤과 NHN엔터테인먼트는 15일 모바일 게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이번 제휴로 SK텔레콤 가입자들은 NHN엔터테인먼트의 신작 게임을 데이터 요금 부담없이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br/><br/><br/><br/>SPC그룹 국내 첫 프랑스 원맥 도입 <br/><br/><br/><br/>SPC그룹은 국내 처음으로 프랑스 원맥을 들여와 파리바게뜨의 제빵 원료로 사용한다고 15일 밝혔다. SPC는 1차분 110톤을 포함해 올해 총 250톤의 프랑스 원맥을 들여와 바게트 빵의 원료로 쓸 예정이다.<br/><br/><br/><br/>대한항공, 1분기 영업이익 212억원… 흑자전환<br/><br/><br/><br/>대한항공은 올해 1분기에 21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흑자 전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1,46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수요확보 노력과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해 여객과 화물 부문 모두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br/><br/><br/><br/>아시아나항공, 1분기 21억원 영업손실<br/><br/><br/><br/>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매출 1조4,148억원, 영업손실 21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4% 줄었지만, 영업손실은 190억원 감소했다.<br/><br/><br/><br/>서울시 소상공인 어울림센터 개소<br/><br/><br/><br/>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15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 '서울시 소상공인 어울림센터'를 열였다. 어울림센터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소상공인 간 교류 활성화 및 비즈니스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설립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71.txt

제목: “매월 휴대전화 15시간 사용시 뇌종양 3배 높다”  
날짜: 20140514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14100000024  
본문: 휴대전화를 장시간 사용하면 뇌종양 발생 위험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프랑스 보르도 대학 이자벨 발디 박사는 최근 영국의학저널(BMJ)에 발표한 논문에서 한 달에 15시간 이상씩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뇌종양에 걸릴 위험이 2∼3배 높았다고 밝혔다.<br/><br/>발디 박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뇌종양 환자 447명과 건강한 일반인 892명의 휴대전화 사용량 등을 비교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br/><br/>발디 박사는 특히 지속적으로 고객이나 상사와 통화하는 사람이나 회의가 많은 영업 및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뇌종양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br/><br/>대부분의 사람이 평균적으로 매월 약 2시간 반 정도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반면에 바쁜 경영진은 훨씬 높은 수치에 도달한다. <br/><br/>발디 박사는 위험 범주는 2년에서 10년 사이로 평균 5년 정도라고 말했다. <br/><br/>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파 등 휴대전화에서 방출되는 유형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ISPED 연구소의 로저 살라먼은 “겁먹을 필요는 없다. 휴대전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br/> <br/><br/>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72.txt

제목: [지평선/5월 13일] 골든 타임  
날짜: 20140512  
기자: 황유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12100000229  
본문: 응급 외상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을 보통 사고 후 60분으로 본다. 의학적 용어로 '골든 아워(Golden Hour)'다. 이 시간 내 병원으로 후송해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1957년 미국 메릴랜드 의대의 R 애덤스 코울리 박사는 1차 대전 때 프랑스 군의 의료일지를 토대로 60분이 지나면 생존확률이 급격히 줄거나 살더라도 치명적 내상을 입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응급환자를 앰뷸런스로 후송하다 헬기를 처음 동원하게 된 것도 골든아워의 개념이 정착되면서다.<br/><br/>■ 우리의 외상환자는 연간 100만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적절한 처치를 받았으면 살았을 환자가 그렇지 못해 사망하는 확률을 '예방가능 사망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비율이 30%를 넘는다. 미국에서는 후송까지 1시간이면 될 게 4시간 이상 걸리는 후진적인 여건 탓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3조원이 넘는다. 암환자의 두 배 수준이다. 코울리 박사의 주도로 주(州) 전역에 '응급진료서비스(EMS) 시스템'을 구축한 메릴랜드의 예방가능 사망률은 5% 미만이다.<br/><br/>■ 의료계의 골든 아워 같은 결정적 시간을 통칭 '골든 타임'이라고 한다. 골든 타임은 우리 생활 어디에나 있다. 항공기 비상상황에는 '90초 룰'이 있고, 화재 현장은 '5분 남짓'이 가장 중요하다. 수면시간에도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새벽 3시를 골든 타임으로 친다. 이 시간이 포함돼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그제 급박한 순간을 잘 넘긴 것도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은 결과다.<br/><br/>■ 세월호 침몰 현장에 해경 경비정이 처음 도착했던 지난달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선실에서 마지막 카카오톡이 전송된 10시17분까지의 골든 타임 47분 동안 해경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섰다면 승객들을 대부분 구했을 것이라는 검ㆍ경의 조사가 나왔다. 깨진 창문 사이로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해경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시스템이니 뭐니 다 그만두더라도 소명의식이란 게 있는 것 아닌가. 인성까지 마비시키는 썩은 관료주의가 무섭다.<br/><br/><br/><br/>황유석 논설위원 aquarius@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73.txt

제목: 화학물질에 점령당한 식탁, 우리는 매일 독을 먹는다  
날짜: 20140509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09100000208  
본문: '환경운동의 어머니' 레이첼 카슨은 1962년 을 출간했다. DDT 등 살충제가 초래한 치명적인 결과를 비판한 이 책은 찰스 다윈의 에 비견될 정도로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책은 또 환경운동의 흐름을,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로서 시혜를 베풀 듯 다른 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존주의에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환경주의로 바꾸었다. 그 책 이 나온 지 50여년. 그러나 을 읽으면 "살충제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살생제"라는 카슨의 테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br/><br/>은 밭에서 쓰는 농약에서부터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제와 플라스틱 용기까지 일상에 만연한 독성화학물질이 우리의 건강과 생존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추적해 밝힌 책이다. 전작 으로 유명세를 탄 저자는 프랑스의 언론인으로 지난 수십 년간 암, 백혈병,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자가면역질환 등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이 의문을 풀려고 프랑스, 독일, 미국, 인도, 칠레 등 10개국에서 과학자, 활동가, 규제기관 대표 등 50여명과 인터뷰했다. 2년에 걸친 방대한 조사와 끈질긴 추적 끝에 일상을 점령한 수만 개의 화학물질이 그들 질병의 주요 원인임을 밝힌다.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독'으로 바꾼 대기업과 과학자, 규제기관의 기만과 속임수도 낱낱이 파헤친다. <br/><br/>저자는 먼저 농작물 재배에 쓰는 농약에 주목했다. 기업이 '식물 약제'라는 이름으로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 개발된 제품'을 '식물의 건강과 식품의 질을 보호하는 약'으로 둔갑시켜 농부와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것이다. <br/><br/>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기업이 자사 제품을 옹호하고 이익을 대변해 줄 연구자들을 암암리에 돈을 주고 고용해 연구 결과를 조작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리처드 돌과 페토의 '1981년 발암 원인에 관한 연구'다. 이 연구는 담배를 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주도하는 공을 세웠다. 하지만 훗날 이 연구의 방법론적 오류가 밝혀졌고 연구를 집행한 리처드 돌이 화학업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비난을 받았다. 오늘날까지도 담배 악영향 연구가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 증가를 가리는 위장막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다. <br/><br/>저자는 "화학물질 유해성 기준이 되는 일일섭취허용량과 잔류농약최대허용량의 개념은 기업과 규제기관이 합작해 멋대로 정한 속임수"라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병에 걸리지 않고 매일 섭취할 수 있는 독극물의 최대량을 정한 일일섭취허용량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기준이다. 잔류농약최대허용량 또한 그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기업의 영업기밀로 분류돼 확인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도 보건당국과 규제기관들은 이 개념을 관행적으로 받아들여 쓰고 있다는 것이다. <br/><br/>저자는 "이처럼 기만적인 연구와 허술한 관리 체계로 인해 아스파르탐, 비스페놀A 등과 같은 독성화학물질들이 우리의 식탁 위로 버젓이 올라와 우리는 매일매일 독을 먹고 있다"고 말한다. 아스파르탐은 설탕보다 200배 높은 단맛을 내는 까닭에 '코카콜라 제로' 등 음료수, 시리얼, 껌, 술 등 6,000개의 식품과 300개 이상의 의약품에 첨가제로 쓰이고 있다. 뇌 속 화학작용을 바꿔 뇌종양, 간질 등을 일으킨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제조 기업과 결탁한 규제기관들의 묵인 속에서 사용이 승인돼 현재 전 세계에서 2억명이 섭취하고 있다. 불임을 일으키고 태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비스페놀A는 플라스틱 용기, CD, 젖병, 음료수캔 등에 쓰이고 있다. 이 물질은 음식물과 접촉하면 그 안으로 침투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내분비계를 교란해 정자 수를 감소시키거나 유방암을 일으킨다. 극소량으로도 아주 위험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현행 일일섭취허용량 제도로는 통제가 어렵다. 이밖에 내분비계교란물질인 폴리염화바이페닐(PCB), 디에틸스틸베스트롤(DES),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발암 메커니즘을 유발하는 제초제 아트라진 등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br/><br/>"독성화학물질을 피하려면 가능한 한 유기농 식품을 먹으라"는 저자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것이 기업과 규제기관의 논리이기에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질병을 양산하는 독성화학물질이 우리 일상에 넘쳐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지금 환경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에 만연한 독성화학물질을 소상히 밝힐 뿐 아니라 그 시스템을 둘러싼 음모를 추리 소설처럼 파헤쳐 책장이 술술 넘어간다.<br/><br/><br/><br/>권대익기자 dkwon@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74.txt

제목: [새 책] 과학교육의 사상과 역사 外  
날짜: 2014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09100000227  
본문: 인문ㆍ교양 <br/><br/>▲과학교육의 사상과 역사<br/><br/> 발터 쇨러 지음. 과학교육을 근대 시민사회의 산물로 평가하면서 과학이 정규 교육에 편입되기까지 어떤 정치, 사상의 흐름을 거쳤는지 살펴본다. 저자는 과학교육이 오랜 시간 정치, 경제, 계급 등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라 강조한다. 정병훈 옮김ㆍ한길사ㆍ636쪽ㆍ3만원<br/><br/>▲전략전술의 한국사 <br/><br/>이상훈 지음. 한국 역사 속에 등장했던 다양한 전략전술을 주제에 따라 시대순으로 살펴본다. 우리의 전쟁사 연구에 매진해온 저자는 벽골제, 울산왜성, 탄금대에 얽힌 전술 이야기를 들려준다. 푸른역사ㆍ364쪽ㆍ1만8,000원<br/><br/>▲심슨가족에 숨겨진 수학의 비밀<br/><br/> 사이먼 싱 지음. 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과학 저널리스트의 유쾌한 수학책이다.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서 수학의 비밀을 찾는다. 한상연 옮김ㆍ윤출판ㆍ300쪽ㆍ1만4,000원<br/><br/>▲이별한다는 것에 대하여<br/><br/> 채정호 지음. 소중한 이를 잃은 슬픔에 관한 애도심리 에세이다. 상실의 슬픔을 극복하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찾을 수 있고 애도하는 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생각속의집ㆍ216쪽ㆍ1만2,800원<br/><br/>▲데리다를 읽는다/바울을 생각한다<br/><br/> 테드 W. 제닝스 지음. 미국의 진보 신학자인 저자는 자크 데리다와 사도 바울을 ‘법과 정의의 대립’이라는 주제로 재해석했다. 데리다와 바울을 정의가 법 너머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사상가로 그린다. 박성훈 옮김. 그린비ㆍ400쪽ㆍ2만7,000원<br/><br/>▲왜 인간은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가 <br/><br/>박이문 지음. 자기중심적 욕망을 억누르고 타인의 행복을 배려하는 이타의 심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았다. 저자는 끊임없이 ‘왜 인간은 남을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나무ㆍ206쪽ㆍ1만5,000원<br/><br/>▲열정의 천재들 광기의 천재들 <br/><br/>안승일 지음. 도스토옙스키, 베토벤, 고흐 등 시대를 초월해 인류에게 불멸의 가치를 남긴 위대한 천재 8인의 인생 역정을 그린다. 그들의 약점을 감싸 주고 보완해 위대한 업적에 영향을 미친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다룬다. 연암서가ㆍ444쪽ㆍ1만7,000원<br/><br/>문학ㆍ예술<br/><br/>▲리틀 드러머 <br/><br/>걸 존 르 카레 지음. 스파이 소설의 고전 와 영화로 만들어져 유명해진 의 작가가 1983년 낸 책. 조영학 옮김ㆍ알에이치코리아ㆍ660쪽ㆍ1만6,800원<br/><br/>▲불새 여인이 죽기 전에 죽도록 웃겨줄 생각이야 <br/><br/>바티스트 보리유 지음. 종합병원 인턴으로 일하는 주인공이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자 응급실의 온갖 일화를 들려준다. 이승재 옮김ㆍ아르테ㆍ336쪽ㆍ1만4,000원<br/><br/>▲이런 이야기 <br/><br/>알레산드로 바리코 지음. 비아레조 상과 팔라초 알 보스코 상, 메디시스 상을 수상했고, 영화 원작 소설로도 유명한 와 의 작가가 내놓은 여섯 번째 소설이다. 이세욱 옮김ㆍ비채ㆍ472쪽ㆍ1만3,500원<br/><br/>▲세바스치앙 살가두, 나의 땅에서 온 지구로<br/><br/> 세바스치앙 살가두, 이자벨 프랑크 지음.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다큐멘터리 사진가 세바스치앙 살가두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여정과 사진에 대한 생각을 육성으로 고백한 글이다. 이세진 옮김ㆍ솔빛길ㆍ228쪽ㆍ1만3,000원<br/><br/>아동ㆍ청소년<br/><br/>▲우리에게 희망을 보여 주세요 <br/><br/>서지원 지음ㆍ윤세정 그림.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을 맞아 어린이 인권의 내용을 동화로 풀었다. 실화를 바탕으로 세네갈 소년 발다, 수단 소녀 소피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다룬다. 소담주니어ㆍ128쪽ㆍ1만2,000원<br/><br/>▲빨간 볼<br/><br/> 얀 더 킨더르 지음. 다수의 뜻에 따르다 보면 죄책감에 둔감해진다. 나쁜 아이가 아닌 평범한 아이도 언제든지 친구를 ‘왕따’시킬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마음만 먹으면 상황을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책. 정신재 옮김ㆍ내인생의책ㆍ40쪽ㆍ2만원<br/><br/>▲지금 이대로 행복해 <br/><br/>앙드레 단 지음. 공작새의 아름다움을 따라 하려고 애쓰던 벌새가 자신만이 가진 특성과 재능을 발견하면서 행복을 찾는 과정을 담았다. 프랑스 일러스트레이터 1세대를 대표하는 저자의 대표작. 길미향 옮김ㆍ현북스ㆍ36쪽ㆍ1만2,000원<br/><br/>▲우리 아빠는 알 로봇 <br/><br/>남강한 지음. 자동차, 비행기 등 아빠가 사 준 멋진 장난감을 뽐내는 친구들 앞에서 주인공은 아빠가 만들어 준 달걀 장난감 ‘알 로봇’을 내민다. 물질적 충족보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빠가 더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책속물고기ㆍ40쪽ㆍ1만1,000원<br/><br/><br/><br/>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75.txt

제목: "소변 양, 색, 횟수 꼭 살펴주세요"  
날짜: 20140508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08100000395  
본문: Q. 어른과 아이의 요로감염 증상은 어떻게 다른가. <br/><br/>A. 어른은 고열이 나면서 토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이들, 특히 영ㆍ유아는 대부분 별다른 증상 없이 그냥 고열만 난다. <br/><br/>Q. 집에서 아이 콩팥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br/><br/>A. 소변의 양과 색깔, 횟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 된다.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붉은색이 있을 때, 소변을 너무 자주 또는 드물게 볼 때, 자꾸 참으려고 할 때는 소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태어날 때부터 콩팥 기형이 있는 아이는 치료를 받았어도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 받길 권한다. <br/><br/>Q. 콩팥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 <br/><br/>A. 조금은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운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담배와 비만은 콩팥 건강의 적이다. <br/><br/>Q. 약 많이 먹으면 콩팥이 나빠지지 않나. <br/><br/>A. 콩팥에 특별한 병이 없는 보통 아이들의 경우엔 그렇게까지 문제되진 않는다. 콩팥 건강을 걱정해 꼭 필요한 데도 약을 먹지 않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br/><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어떻게 아이 몸에 칼을 대냐고요? 꼭…"<br/>▶ "사춘기 좀 이르다고 비정상은 아니에요"<br/>▶ "어른 병 앓는 아이, 치료할 수 있어요"<br/>▶ 빨라진 초경 등 생리 횟수 증가 때문에 결국…<br/>▶ "1년에 5, 6㎝ 꾸준히 자라는지 살펴보세요"<br/>▶ 어른과 전혀 다른 아이들 암… "완치될 수 있어요"<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76.txt

제목: "오다가다 편하게 들르는 그런 소아과가 많아져야"  
날짜: 20140508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08100000396  
본문: 영유아가 아무 이유 없이 열 날 땐 요로감염 아닌지 의심해 봐야아이의 작은 신호 무시하면 큰 병 돼 콩팥 전문의면서도 감기까지 진료차례 기다리는 엄마 대화 속에 힌트… 진료실 문 열어두고 귀 기울여<br/><br/>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콩팥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둘이 해야 할 일을 하나가 하려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의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됐다. 노폐물을 걸러내는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콩팥이 하나면 생검(조직 일부를 잘라내 하는 검사)을 못 한다. 하나 있던 콩팥마저 망가질 우려가 있어서다. 약으로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걸 최대한 늦추는 것 말곤 달리 방법이 없다. <br/><br/>그 아이가 어엿한 대학생이 됐다. 성인이 됐는데도 어릴 적 주치의 김교순(62) 건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종종 찾아온다. 아이 부모는 "선생님 가까운 곳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며 아예 건국대병원 근처로 이사했다. 콩팥이 안 좋은 아이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와도, 엄마와도 정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김 교수는 "다시 태어나도 소아청소년과 의사 하겠다"며 웃는다. <br/><br/>영ㆍ유아 고열 땐 소변도 검사해야<br/><br/>콩팥이 하나뿐인 기형은 사실 극히 드물다. 아이들에게 가장 흔한 콩팥 질환은 요로감염이다. 특히 영ㆍ유아가 아무 증상 없이 열만 날 때 요로감염이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어린 아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오면 소변검사를 하는 이유다. 요로감염이면 피 속에 있어야 할 백혈구나 균이 소변에 섞여 나온다. <br/><br/>"아이들 요로감염은 세균 때문이죠. 소변 보는 부위가 항문과 가까운 여자아이에게 좀더 많아요. 1세 미만에선 남자아이가 더 많고요. 생식기 주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저귀를 되도록 자주 갈아주는 게 좋아요."<br/><br/>학교에서 하는 신체검사엔 소변검사가 포함돼 있다. 소변에 단백질이나 혈액이 섞여 나오면 콩팥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소변에서 거품 또는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변했을 때, 소변 보는 횟수가 눈에 띄게 달라졌을 때, 갑자기 몸이 붓거나 몸무게가 늘었을 때도 배설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br/><br/>태어난 직후 콩팥은 위아래 길이가 4.5㎝ 정도 된다. 키가 크면서 콩팥도 점점 자라 만13세가 넘으면 약 10㎝에 이른다. 어른보다 작은 콩팥에서도 생길 병은 다 생긴다. 요로가 갑자기 막히고 요석이 생기기도 한다. <br/><br/>"근육에 무리가 가면 급성 신장 손상이 오기도 해요. 토끼뜀처럼 근육을 갑자기 심하게 쓰거나 높은 데서 떨어져 근육이 손상된 후 소변 양이 눈에 띄게 줄고 붉은색이면 콩팥 손상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죠."<br/><br/>진료실 문 열어두는 까닭<br/><br/>"디자인대학원에 다니는 한 남학생은 어릴 때 신증후군(콩팥 이상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 몸에 알부민이 줄어드는 병)이 생겼어요. 보통은 사춘기 지나면 재발은 거의 없는데, 이 아인 자꾸 재발하네요. 스테로이드 약 쓰면서 지금껏 치료해주고 있어요."<br/><br/>콩팥이 하나뿐인 아이도 신증후군 재발로 고생하는 아이도 김 교수가 20년 가까이 성장과정을 지켜봤다. 오랫동안 병원을 다녀야 하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 김 교수는 마음이 그저 애달프다. 그리고 곁에서 가장 마음고생 하는 엄마들이 못내 안쓰럽다. <br/><br/>"많은 엄마들이 애가 아프면 자책을 해요. 얼른 치료해야 한다는 마음에 쉽게 조급해지기도 하죠. 엄마 잘못도 아니고 조급해하는 만큼 빨리 낫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엄마 마음이 편해져야 아이도 더 좋아집니다. 엄마 잘못 없다고,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애들은 아플 수 있다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것도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br/><br/>환자나 보호자를 야단치는 의사는 흔하지만, 환자 가족을 일일이 기억하고 칭찬해주는 의사는 만나기 쉽지 않다. 김 교수는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늘 진료실 문을 열어둔다. <br/><br/>"아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엄마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진료에 종종 참고가 되거든요. 막상 진료실에 들어오면 잊어버리고 얘기 못하는 증상도 먼저 알 수 있죠."<br/><br/>하지만 김 교수 입장에서도 항상 마음이 통하는 보호자만 만나는 건 아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아이가 보고 있는데도 의료진에게 소리 지르며 욕을 하고 멱살까지 잡는 보호자도 더러 있다. <br/><br/>"그 마음 이해 못하진 않죠. 한번은 전공의 멱살을 잡은 부모에게 제자 잘못 키운 탓이니 제가 죄송하다고 응급실 바닥에서 절을 했어요. 바로 조용해졌죠."<br/><br/>그리곤 그 제자를 불러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평소와 달라질 수 있다며 다독였다. 또 앞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인간적으로 점점 성숙할 것이라고, 그게 의사라는 직업의 좋은 점이라고도 제자에게 말했다. <br/><br/>국제학회가 인정한 전문가<br/><br/>김 교수는 전문의 자격을 딴 직후인 1985년 전 섟？의사 중 처음으로 국제신장학회 연구비 1만5,000달러를 받았다. 세계 곳곳에서 젊은 신장학자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 국제신장학회의 눈에 처음 띈 의사가 바로 김 교수였던 것이다. 김 교수 이후 한국인 의사 2명이 더 받았지만 여의사는 이제껏 김 교수뿐이다. 국제학계가 인정한 콩팥 전문의이면서도 김 교수는 가벼운 감기 환자까지 다 치료한다. <br/><br/>"기침 때문에 내원했던 중학생 아이가 스승의 날에 직접 만든 초콜릿을 선물하더군요. 시험에서 전교 1등 했다고, 나중에 소아청소년과 의사 될 거니까 자기 의사 되면 선생님 자리 좀 비켜달라고(웃음) 편지까지 써서요. 응원해줘야겠죠?" <br/><br/>콩팥 말고 다른 질환까지 봐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소아 의사는 어느 분야를 전공해도 아이의 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신념이다. <br/><br/>"오는 환자 막으면 안 되죠. 소아청소년과는 누구나 편하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이들 아픈 건 순간이거든요. 작은 신호 무시하면 큰 병 만들 수 있어요. 부모가 편안히 '우리 아이 괜찮나요' 물으러 언제든 오갈 수 있는 병원이 많아져야죠."<br/><br/><br/><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어떻게 아이 몸에 칼을 대냐고요? 꼭…"<br/>▶ "사춘기 좀 이르다고 비정상은 아니에요"<br/>▶ 빨라진 초경 등 생리 횟수 증가 때문에 결국…<br/>▶ "어른 병 앓는 아이, 치료할 수 있어요"<br/>▶ 어른과 전혀 다른 아이들 암… "완치될 수 있어요"<br/>▶ "1년에 5, 6㎝ 꾸준히 자라는지 살펴보세요"<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77.txt

제목: ‘마음수련과 행복, 평화 그리고 공존’ 주제 국제학술대회 열려  
날짜: 201405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07100000121  
본문: 지난 5월 3일 ‘마음수련과 행복, 평화, 그리고 공존(Maum Meditation: Happiness, Peace, and Coexistence)’이라는 주제의 '2014 전인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가 미국 UCLA 인문학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br/><br/>이 국제학술대회는 인류의 진정한 공존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인교육학회가 주최하고 UCLA 한국학 연구소가 후원했다. 국제학술대회가 열린 UCLA에는 100여 명의 인파가 몰릴 정도로 학계와 관계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br/><br/>이번 행사에는 학교심리학의 권위자인 산타바바라대학교의 펄롱(Furlong) 교수, 심리학자이자 달라이라마의 부서기관을 역임한 롭상랍게이(LobsangRapgay) 교수, MBA(Mind Body Awareness Project) 상임이사인 샘 히멜스테인(Sam Himelstein) 박사 등 석학들과 한국의 우수한 젊은 학자들이 참여해 개인과 인류의 행복, 평화, 공존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br/><br/>특히, 최근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마음수련의 ‘마음빼기’ 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그 효과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br/><br/>서울대학교 간호학연구소 윤미라 박사의 발표 논문인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유방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실증 사례 연구다. 이 연구는 마음 빼기 프로그램이 암 생존자의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 마음, 인생 만족도 등 삶의 질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br/><br/>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코티졸 호르몬 감소에 미치는 마음수련의 영향을 연구한 동국대 교육학과 신나민 교수의 논문은 학교 기반의 마음수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우울과 불안, 공격성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아동의 내면적 안정과 행복을 기초로 한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br/><br/>특히 이번 대회는 UN 산하 NGO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교육자 협회(IAEWP)’ 회장인 찰스 메르시에카 박사와 긍정심리학의 세계적 석학이자 몰입이론으로 잘 알려진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클레어몬트 대학원 교수가 축하 메세지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IAEWP는 지난 2002년 마음수련 창시자인 우명 선생에게 인간의 본성회복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마하트마 간디 평화상을 수여한 바 있다. 특히 찰스마르시에카 회장은 “<span class='quot0'>마음의 평화를 이룬 사람이 주위에도 평화를 나눠줄 수 있다</span>”며 성찰과 본성회복에 기여한 마음수련의 의미와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br/><br/>이종범 전인교육학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span class='quot0'>평화와 공존을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면에서 욕심과 이기심을 넘어선 본성의 회복을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마음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span>”고 역설했다. <br/><br/>한편, 2008년 설립된 (사)전인교육학회(http://humancompletion.org)는 그 동안 매해 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인성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제공하는 많은 성과물을 내놓은 바 있다. <br/><br/>미음수련 교육은 현재 전 세계 37개국의 350여 개의 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다. 마음수련(www.maum.org)은 마음 빼기라는 독창적인 원리를 이용한 명상 방법으로, 1996년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충남 논산에 메인 센터가 있으며, 청소년, 대학생을 비롯해 일반인, 직장인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포춘코리아 디지털뉴스팀<br/><br/>(사진: 축사를 하고 있는 존 던컨 UCLA 한국학연구소 소장)<br/><br/><br/><br/>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78.txt

제목: “저희 아이들의 천진한 얼굴 하나하나 꼭 기억해 달라”  
날짜: 201405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04100000002  
본문: 세월호 침몰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이 4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 앞에서 이틀째 침묵 시위를 벌였다. 3일부터 흰 마스크를 쓴 채 분향소 앞을 지킨 유가족들은 실종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과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했다. <br/><br/>유가족들은 ‘저희 아이를 보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A4용지 1장 분량의 글을 분향소를 찾는 추모객들에게 나눠주며 “<span class='quot0'>아이들의 천진한 얼굴 하나하나 꼭 기억해 달라</span>”고 당부했다. <br/><br/>다음은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일동’ 명의로 작성된 글의 전문. <br/><br/>저희 아이를 보러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br/><br/>저희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가족입니다.<br/><br/>저희는 그나마 아이의 시신이라도 안아보고 보냈지만 아직도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비통한 울음으로 진도에서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먼저 기도 부탁 드립니다.<br/><br/>또한 함께 희생당한 승무원들과 교사들, 아르바이트생, 일반인 승객들에게도 조의를 표하며 저희의 애절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br/><br/>사고로 아이를 잃고 경황이 없는 중에 전국민 장례 축제처럼 전국 분향소 설치에 이런저런 햇빛 대안을 내놓고 생색을 내는 사고대책본부 및 관할 정부들의 행태에 엄청난 사기극을 보는 것 같아 자식 잃은 슬픔만을 나눌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br/><br/>사고 첫 날부터 구조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회의만 하고 브리핑만 하고 사진만 찍어대는 이 정부를 저희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당시의 언론은 최선의 구조라고 했습니다.<br/><br/>현장에서 저희 부모들이 두 눈 뜨고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일하러 나가고 꼬박꼬박 세금 내고 정부를 믿고 있던 저희는 무력한 서민입니다.<br/><br/>자식을 잃은 엄청난 슬픔과 희생을 안겨주고 졸지에 유족이 된 저희들에게 심리 지원이니 생활안정대책이니 언론에 유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이들은 나머지 애들을 수습하는 것은 뒷전이 되어버렸네요. 아직 못 찾은 시신도 있는데… 오히려 유족끼리 위로하며, 진실 왜곡에 분노하는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미안하게 합니다. <br/><br/>동영상 속의 내 천진한 아이들<br/><br/>“엄마아빠 사랑해요. 내 동생 어떡하지?”<br/><br/>“야~ 헬리콥터 보인다.”<br/><br/>가만 있으라는 방송에 천진하게 “네”라고 대답하며 오히려 선생님을 걱정했던 내 새끼들! 저희는 동영상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고통을 느꼈습니다.<br/><br/>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궁금합니다.<br/><br/>암초니 뭐니 하더니 선장을 제물로 내세우고, 과적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어른들을 믿고 기다리던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카메라만 들이대고 언론 플레이만 하셨는지…. 그 아이들을 버려두고 탈출해서 나타나지 않는 선생과 길 잃은 학부모들에게 대안이나 위로조차 하지 않는 단원고 교직원들. 방송에는 학교 정상화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아침마다 건강하게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며 비통하고 부러운 심정입니다.<br/><br/>재학중인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학부모입니다.<br/><br/>그러나 자신의 고유 업무를 망각하고 책임 회피만 하는 교직원들에게 남은 아이들을 맡겨두는 것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학교 정상화는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단지 제 아이들이 하늘에서나마 다같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사고 진상 규명해주세요. <br/><br/>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세요. 믿을 수 있는 분들의 특검을 요구합니다. <br/><br/>저희는 시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국민으로서, 내 새끼를 잃은 유가족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br/><br/>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리며 우리 아이들의 천진한 얼굴 하나하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br/><br/>2014.5.3 <br/><br/>단원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일동<br/><br/><br/><br/>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79.txt

제목: MBC '휴먼 다큐 사랑' 9돌… 이번엔 아이들이 전하는 희망  
날짜: 20140501  
기자: 강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501100000105  
본문: 가정의 달 5월이면 변함없이 사랑이라는 테마로 가족의 따뜻함을 안방에 전해줬던 MBC '휴먼 다큐 사랑'이 어느새 방송 9년째를 맞았다. 2006년 5월 첫 방송 이후 줄곧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며 공감을 산 교양 프로 '휴먼 다큐 사랑'이 5일 지난 9년간의 여정을 담아낸 '사랑 그 후'를 시작으로 다시 시청자들을 찾아온다. 이번엔 이모현, 유해진 PD가 의기투합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6일 '꽃보다 듬직이', 12일 '날아라 연지', 19일 '수현아 컵짜이 나', 6월 2일 '말괄량이 샴쌍둥이' 등이 4주간 잇달아 방송된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엔 아이들의 이야기이다.<br/><br/>1부 '꽃보다 듬직이'는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삼혜원에서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생활하는 듬직이(4)의 슬픈 사연을 담았다. 듬직이는 친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자랐다. 듬직이는 팔과 다리가 굳고 고개를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뇌성마비 장애가 심해 입양을 가기도 어려웠다. 이런 듬직이에게 힘이 되는 건 삼혜원 202호 엄마들과 아이들이다. 듬직이는 바깥세상에서 받은 깊은 상처를 뒤로한 채 엄마들의 사랑을 먹으며 쑥쑥 자라고 있다. 언젠가 스스로 일어나 세상 속으로 걸어나가겠다는 꿈도 생겼다. 듬직이의 굳어졌던 몸과 마음은 점차 긴장을 풀었고, 소리를 못 냈던 입에서 "엄마"라는 말도 나왔다. <br/><br/>뇌종양 환자인 연지(6)의 이야기는 2부 '날아라 연지'에서 소개된다. 한 살 무렵 머리를 만지면 심하게 울어 정밀검사를 받았던 연지. 그 날로 뇌종양 진단이 내려졌다. 뇌 전체에 암세포와 뇌세포가 섞여 있던 것이다. 놀란 연지의 부모는 연지를 치료하기 위해 중국, 한국, 일본을 넘나들며 병원을 찾아다녔다. 그럴 때마다 듣던 말이 "이런 상태는 처음 봤다", "얼마 살지 못하니 남은 생을 잘 챙겨줘라"였다. 절망적인 말들이었다. 하지만 현재 여섯 살인 연지는 나름대로 잘 자라고 있다. 종양은 더 커졌지만, 걷기도 하고 말도 많이 늘었다. 조선족인 연지의 부모는 치료비를 벌기 위해 서울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떨어져 지낸다. 아빠는 홀로 칭다오의 회사에 다니며 돈을 번다. <br/><br/>3부 '수현아 컵짜이 나'에선 연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수현이(4)를 만난다. 한국인 아빠와 태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수현이는 100만 명 중의 1명, 전 세계 백혈병 환아의 단 2%가 걸리는 희귀병을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br/><br/>수현이의 유일한 희망은 새로운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 일이다. 한국과 태국 유전자를 반씩 지닌 수현이에게 일치하는 세포를 찾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국내는 물론 국외 조혈모세포 기증등록자 2,300만 명을 샅샅이 뒤졌을 정도다. 엄마는 태국으로 날아가 기증희망자를 수소문하고 있지만 공여자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br/><br/>200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머리가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 타티나아와 크리스타 호건(9) 자매. 4부 '말괄량이 샴쌍둥이'에서는 이들 자매의 일상을 따라간다. 호건 자매는 태어났을 때부터 뇌가 서로 연결된 탓에 분리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며 학교에도 다니고 있다. 걷기조차 쉽지 않아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때론 다투기도 하면서 일상을 만들어가는 호건 자매. 이들을 향한 가족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br/><br/>'휴먼 다큐 사랑'의 관계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매일 꿈과 기적을 이뤄가는 아이들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잠긴 시청자들이 아이들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br/><br/>'휴먼 다큐 사랑'은 2006년 첫 방송 이후 모두 34개의 '사랑' 이야기를 전했다.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 9명을 입양해 기르며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김상훈, 윤정희 부부의 '붕어빵 가족'(2013),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7살, 5살 아이들을 위해 항상 웃었던 고 최정미씨의 사연인 '풀빵엄마'(2009), 간암 말기였던 고 서영란씨와 남편 정창원씨의 이야기 '너는 내 운명'(2006), 튜브를 통해 호흡하다 인공기도 이식 수술 후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세 살배기 해나의 사연을 담은 '안녕 해나'(2013) 등은 여전히 애틋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br/><br/><br/><br/>강은영기자 kiss@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80.txt

제목: 계명대동산병원 내시경 위종양절제 2,500례 돌파… 지역 최다  
날짜: 20140429  
기자: 정광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29100000145  
본문: 계명대 동산병원이 내시경으로 위종양을 절제하는 ‘내시경 점막박리술’을 2,500례 돌파했다.<br/><br/>2004년 첫 시술 후 10년 만으로, 연평균 330례 정도이며, 대구ㆍ경북에서는 가장 많은 시술 기록이다.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전국 44개 상급 종합병원의 연평균 상부 내시경 점막박리술이 125례인 것과 비교해도 3배 가량이나 된다.<br/><br/>내시경 점막 박리술은 조기 위암이나 위용종, 조기 식도암 등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방법이다. 위벽은 점막층, 점막근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의 다섯 층으로 구분되는데, 조기위암은 림프절 전이유무에 관계없이 위 점막 또는 점막하층까지 침범한 암을 말한다.<br/><br/>이중에서 림프절전이가 거의 없는 점막층과 점막근층에 국한된 분화가 좋은 위암은 내시경으로 절제하여도 재발이 거의 없어 현재는 내시경적 치료가 수술과 더불어 표준치료로 자리잡고 있다.<br/><br/>일반 수술과 비교해 위장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고, 짧은 입원기간 등이 장점이다. 위 절제 후에 생길 수 있는 소화불량, 빈혈, 덤핑증후군, 역류증상 등의 합병증도 피할 수 있다. 특히 수술의 위험성이 높은 고령환자나 간경변증, 심폐기능 이상으로 수술을 견디기 힘든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또한 위암 치료 후 5년 생존율이 97%로 외과적 절제술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br/><br/>동산병원 소화기내과 조광범 교수는 “내시경 점막박리술은 고도로 숙련된 의료진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내시경 점막박리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그 성공률도 90%를 상회한다”며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 시대이므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r/><br/>동산병원은 소화기센터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21개월 된 세계 최연소 환아의 위 종양을 내시경으로 절제하여 세계학회를 놀라게 하는 등 내시경 점막박리술과 관련된 SCI급 논문을 국제 저명 학회지에 다수 게재해 한국의 의료기술력과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br/><br/><br/><br/>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81.txt

제목: [의료] 이대목동병원, 특수건강진단실ㆍ국가건강검진실 개소  
날짜: 2014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2810014104429  
본문: 이대목동병원이 지난 24일 특수건강진단실과 국가건강검진실 개소식을 갖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및 국가 암 검진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br/><br/><br/><br/>이번 개소식은 지난해 11월 서울서남부지역 대학병원으로는 최초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올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 암 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br/><br/><br/><br/>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유해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2014년부터 야간작업 종사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시행된다. <br/><br/><br/><br/>특수건강진단실과 국가건강검진실은 김현주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의 전문 상담, 흉부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폐기능 검사, 심전도 검사, 순음청력 검사 등 여러 검사를 한 공간에 배치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일반 건강검진 및 국가 암 검진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어 통합적인 근로자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br/><br/><br/><br/>또한, 근로자건강진단 대상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이면 예약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음식 서비스직, 간병인, 가사 관리사처럼 감정노동 등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업의 특성을 감안한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r/><br/><br/><br/>김정숙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특수건강진단실과 국가건강검진실 개소를 통해 지역사회 근로자와 의료취약 계층에게 보다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동안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수검진과 국가검진을 연계해 사업장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br/><br/>정용운기자<br/><br/><br/><br/><br/><br/><br/>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82.txt

제목: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 치료… 건보자격 도용 1년에 4만건  
날짜: 20140428  
기자: 이왕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28100000004  
본문: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암 치료를 받았던 조선족 여성 황성주(55ㆍ가명)씨. 황씨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지난달 초 숨을 거뒀다. 그런데 시신을 안치한 다음날 병원 원무과로 "나는 죽지 않았다"며 자신이 진짜 황성주라는 한 여성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불법체류자가 된 이 여성은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김모(63)씨의 부탁으로 이름을 빌려줬고, 병원에서는 황씨 이름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것. 그러나 불법체류자여서 신원 확인은 쉽지 않았다. 결국 진짜 사망자인 김모씨의 딸(40)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자청해 신원이 확인됐다. 병원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김씨의 치료비 1,400만원을 공단에 다시 돌려줬다. <br/><br/>캐나다 교포 장선혜(47ㆍ가명)씨는 2003년 한국국적을 상실하며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했다. 2011년 캐나다에서 다리가 부러져 국내에 입국해 치료를 받은 장씨는 이후 2년간 친언니의 건강보험증으로 골절뿐 아니라 척추통증, 위염, 감기, 피부염 등으로 60번이나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았다. 장씨 언니가 외국에 간 사이 치료기록이 있는 것을 의심한 공단이 이 사실을 확인해 공단부담금 60만원을 청구할 때까지 병원도 약국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br/><br/>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대여, 도용해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 2만9,379건(환수액 8억4,300만원)이었던 건강보험자격 도용건수는 이듬해 3만1,494건(환수액 8억5,000만원), 지난해 4만521건(환수액 9억3,200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사후에 적발된 것만 집계한 것이라 이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전대명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차장은 "건강보험자격 도용은 친ㆍ인척, 지인 간에 은밀히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며 "이런 행태가 근절되지 않으면 건보 재정 누수뿐 아니라 개인의 질병정보 왜곡, 수혈 오류 등 의료사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br/><br/>이런 문제점 때문에 보건당국은 2001년과 2007년 IC카드를 내장한 형태의 건강보험 도입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병원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1998년 이전에는 병원에서 환자의 의료보험증과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도록 돼있었으나 규제완화 때문에 관련 규정이 폐지됐다. 지난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만들어졌으나 단속사례는 전무하다. 지난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병원에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이 제출돼 있으나 환자들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병원들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라리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한 병원과 약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br/><br/><br/><br/>이왕구기자 fab4@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83.txt

제목: [심봉석의 매디토리/4월 28일] 스트레스 피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극복해야  
날짜: 20140427  
기자: 심봉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27100000095  
본문: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성인병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얘기하는 가장 흔한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고, 말이 쉽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별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침통함과 무력감에 젖어 집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스트레스는 많은 성인질환과 연관이 있는데,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천식, 소화기질환, 비만, 우울증, 수면장애, 피부질환, 각종 암 등에서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한다.<br/><br/>보통은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으로 나쁘게 생각하지만 원래는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수단으로, 나쁜 환경에 처했을 때나 외부자극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심리ㆍ 신체적 긴장 상태이다. 자극으로 잠시 동안만 긴장되고 바로 원상태로 복구되는 경우는, 면역력을 높이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주며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 우리 삶과 생활에 활력을 부여하는 좋은 스트레스이기도 하다.<br/><br/>1936년 캐나다의 한스 셀리가 인체에 영향을 주는 외적, 내적 자극을 스트레스라고 처음 정의하였는데 이는 긴장을 의미하는 라틴어 'stringer'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스트레스는 육체적 스트레스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내면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나뉜다. 육체적 스트레스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생기는 것으로 과로, 손상, 영양부족, 흡연, 약물이나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내부 감정의 변화에 인한 불안, 초조, 슬픔, 걱정, 시기, 질투, 증오, 분노 등이다.<br/><br/>스트레스에 대한 인체의 반응은 교감신경계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연결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주작용 물질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호르몬인 코티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등이다. 스트레스호르몬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면,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높아지며, 호흡이 빨라지고, 체온 상승과 함께 땀이 많이 나며, 정신적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해지게 된다. 또한 두통이나 근육통이 생기고 각종 욕구가 억제되고 근육들이 경직된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은 감소하고, 지방이 증가하며 뼈가 약해지고, 신경계, 면역계 및 내분비계에 나쁜 영향을 줘 각종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br/><br/>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스테로이드호르몬으로 당과 단백질의 대사, 면역기능 유지, 혈압을 조절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체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중 코티솔의 분비는 스트레스, 질병, 수면, 식사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밤에 잠을 자기 시작할 때 떨어졌다가 새벽에 증가하는데, 이는 스트레스가 많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성호르몬의 차이 때문에 남녀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코티솔과 반대작용을 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남성호르몬에 의해 억제되지만 여성호르몬에 의해선 강화돼 남성보다 여성이 스트레스에 더 잘 견디는 것이다.<br/><br/>스트레스는 비뇨생식기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중 카테콜아민과 도파민이 증가하고 생식기관의 혈류량이 감소해 난소와 고환에서 성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고 정자 생성이 감소돼 생리불순과 함께 성기능장애와 불임이 발생한다. 특히 여성은 성기능에 있어 단순한 육체적인 자극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 정신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br/><br/>가벼운 스트레스는 유산소운동과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심리조절로 치유될 수 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생활환경의 변화가 도움되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알코올은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을 증가시켜 오히려 스트레스를 악화시킨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선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더 열심히 사는 것이다.<br/><br/><br/><br/>심봉석 이화의대 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84.txt

제목: 자궁경부암예방 가다실, 선택이 아닌 필수  
날짜: 20140426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26100000031  
본문: 대구 동구에 사는 장현아(29·가명)씨는 지인이 자궁경부암에 걸렸다는 것을 듣고 바로 자궁경부암예방접종을 맞았다. 이 증상은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중요한 것은 말할나위 없지만 최근 추세는 20대 이상이면 대부분 맞는 추세다. <br/><br/>자궁경부암의 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HPV)는 성생활을 하는 여성의 80%가 감염되는 흔한 바이러스로 여러 종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HPV16과 HPV18은 자궁경부암의 70%에서 발견되고 있는 악성 종양 고위험군이다. 대부분 2년 이내로 자연치유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감염 상태가 지속되고 자궁경부의 세포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때 자궁경부 상피내이형성증을 거쳐 자궁경부암에 이르게 된다. 자궁경부 전암병변의 단계가 높을수록 자연퇴행률은 낮고 자궁경부암 진행률은 높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br/><br/>자궁경부암은 여성암 사망률 2위에 있는 무서운 병이지만 유일하게 그 원인과 백신이 알려진 암으로 정부 역시 그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 30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정 병원을 통해 자궁경부암 무료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br/><br/>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미리 받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가다실을 사용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최초 접종을 기준으로 2개월과 6개월, 총 3차 접종하게 되며 부득이한 경우 1년 이내로 접종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br/><br/>임신 중 가다실 접종에 대한 부작용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가급적 임신 중에는 접종을 피하고 접종기간에 임신이 되었다면 접종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출산 후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br/><br/>또 덴마크 지역사회 암연구센터가 2006년 가다실이 덴마크에 도입된 이후 자궁경부병변의 감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14년 4월 6일, 실제 자궁경부병변 위험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br/><br/>대구 미안의원 견용석 원장은 “<span class='quot0'>가다실은 KFDA 승인을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여성의 자궁경부, 외음부, 질, 항문의 암과 종양을 예방해주며 남성의 경우 항문질환과 생식기 사마귀를 예방해주기 때문에 남녀 모두 접종이 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은 전세계 여성 사망률 2위로 단계가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완치율 또한 크게 감소하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검사와 예방접종을 통해 자신의 몸을 돌봐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br/>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85.txt

제목: '헌신이 무엇인가' 알고 싶다면 이 사람을 보라  
날짜: 20140426  
기자: 최윤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26100000002  
본문: ● 전업운동가 김병곤의 아내사형 구형에 "영광입니다"라던 남자 야학서 만나 옥바라지·생계 떠맡아남편, 24년 전 암으로 떠났지만 "불행하다 생각한 적 없었다"● 예민하고 궂은 일은 언제나…생협·민가협 등 든든한 맏언니로 힘든 내색없이 온갖일 묵묵히…'4월혁명총집' 탈진 직전 출간도● 숨지기 하루 전 "암 투병 중"갑작스런 부고에 지인들 망연자실볕도 안 드는 남편 묘 늘 아파하다 모란공원 양지바른 자리에 합장돼<br/><br/>지금지금 거짓말 같은 일들을 겪고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무참하지만, 그래도 세상은 좋아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쌍용차 사태에 분통이 터져도 동일방직 똥물사건에 비할 수 없고, 국정원의 행태가 기가 막혀도 70,80년대 그 전신들의 패악에는 댈 게 아니다. 억압의 주체와 방식이 바뀐 것뿐이라고, 국가의 직접 폭력이 자본의 우회적 폭력으로 바뀐 데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건 이제 휴대폰만 있으면 대통령 욕이나마 할 수 있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목숨 걸 일이었다. <br/><br/>'정의는 승리한다'는 명쾌한 단문이 생략한 수많은 조건절들, 숱한 이들의 숱한 사연들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연이 있다. 민주투사의 아내이자 동료로서, 또 사회활동가로서, 떠나는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흐트러지지 않게 다잡았던 아름다운 사람 박문숙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지난 4월 2일 그가 별세했다. 열아홉 대학생 때부터 향년 59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 고인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헌신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돋보이는 자리에 머문 적 없이 위 아래와 주변을 "어머니처럼 선생님처럼" 챙기고 보살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해 온 민주화 운동의 맏언니"라고 고인을 기렸다. <br/><br/>고인의 마지막 직함은 녹색환경운동 이사장(2011~13)이었다. 정선순 운영이사는 "한동안 화를 삭이느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민청련(민주화청년연합회)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친분을 맺어온 정 이사는 "부고가 전해진 뒤 7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어요. 다들 '우리가 아는 그 문숙이 맞아'였어요.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의 분노는 아마도 모진 운명에 대한, 믿기지 않는 현실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비롯해서 고인을 알고 산 모든 이들에 대한 속절없는 원망과 분노였을 것이다. "고인은 자신보다 남편(김병곤씨, 90년 작고), 두 딸보다 동료와 사회를 늘 먼저 챙겼어요." 일감만 많고 보수는 없는 그 직책을 떠안긴 것도, 지난해 언젠가 이런저런 대화 끝에 '이제는 쉬고 싶다'는 고인에게 "우리 나이면 한창 뛰어다녀야 할 땐데 벌써 무슨 말이냐"고 무지른 것도 정 이사였다. 내색하지 않아 아무도 몰랐지만, 고인은 그 때 이미 암 투병 중이었다. "근년에는 효소에 관심을 보이며 내년부터는 수익사업을 해보자는 얘기도 나눴는데, 떠난 뒤 보니 이미 혼자 공부해서 효소를 무려 17가지나 발효시켜 놓았더군요. 우리에게 남긴 선물인 셈이죠." 고인은 예방차원의 환경운동, 특히 친환경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사업에 열정을 쏟아, 회원들을 인솔해 전국 각지의 친환경 농촌을 다니며 교육하고 직거래 등 도농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고 한다. <br/><br/>1955년 1월 19일, 경북 영주의 부잣집 2남3녀 중 셋째로 태어난 박씨는 74년 서울여자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한다. 계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1학년 때 교내의 가장 선도적 학생운동 조직이던 '녹수회'(훗날 '타래회'로 개명)에 가입, 농민운동에 뜻을 두고 활동한다. 녹수회는 60년대 후반 서울대 법대 '농법회'와 연대해 만들어진 학내 조직으로 충청도 한 마을을 정해 매년 여름과 겨울 농활(농촌활동)을 다니던 전통이 있었다. 녹수회 선배 박성자(공예과 73학번, 슬로푸드문화원 부이사장) 씨가 고인을 처음 만난 것도 74년 농활 때였다. "비밀 서클이어서 학내에서 대놓고 아는 척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죠. 여성스럽고 조용하면서 리더십 강한, 선배 같은 후배였어요." 박씨가 고인과 각별해진 건 대학을 졸업한 박씨가 노동 현장에서 일하던 70년대 말 무렵부터였다. "제 자취방에 자주 왔어요. 충남에서 영어교사(1978~80)를 하던 땐데 가출한 반 아이들을 찾으러 거의 주말마다 서울에 오곤 했거든요." <br/><br/>농민운동 인권운동 중심의 사회운동은 70년대 중반부터 노동 현장으로 외연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고인도 대학시절 향린교회에서 야학교사로 일했고, 거기서 남편 김병곤(서울상대 71학번)씨를 만난다.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전국민주화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기소돼 비상보통군법회의 비공개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뒤 최후진술에서 "검찰관님, 재판장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는, 그래서 함께 피고로 섰던 이철 유인태 나병식 여정남 김지하 이현배 등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머냘構？했다는, 바로 그다. "하루는 문숙이가 묻더군요. '결혼할까 말까?' 두 사람이 사귄다는 것도 그 때 알았어요. 전 무조건 하라고 했죠." 당시 고인은 대학 졸업반이었고, 김씨는 이미 운동권의 명사(名士)였다. 민청학련 재판 일화를 덮어두더라도, 인물로나 인격으로나 전후(前後) 운동가로서의 면모로나 김씨는 참 멋진 남자였다고 했다. <br/><br/>하지만 김씨는 78년 4월 동일방직 사건 직후 유언비어 날조 및 국가모독 혐의로 다시 구속돼 10.26 직후인 79년 12월 5일 석방된다. 그리고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운동 현장에 복귀, 재야와 대학 학생회의 가교역 등을 맡으며 '80년 민주화의 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의 거친 물살에 몸을 싣는다. 두 사람이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셋집을 구해 결혼한 게 그 무렵인 80년 3월이다. 그리고 83년 민청련 출범- 84년 노동자복지협의회 출범- 85년 민통련 출범…, 다급한 시간이 이어졌다. 결혼과 함께 교사를 그만 둔 박씨 대신, 김씨는 대학 선배가 운영하던 회사에 잠깐 취직하지만 민청련 부위원장과 민통련 정책실 차장을 동시에 맡으면서 하릴없이 사표를 낸다.<br/><br/>고인은 전업 운동가의 아내들이 대개 그랬듯, 번역이나 관공서 우편물 발송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두 딸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고, 그러면서도 어려운 내색 없이 기품을 지켰다고 한다. 누가 어떻게 먹고 사냐고 물으면 그냥 빙긋이 웃곤 했는데, 고인의 그런 태도는 생애 내내 이어졌다. <br/><br/>그 시절 젊은 운동가 부부 다수가 노동자 탁아소가 있던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모여 살았다. 이범영(전 한청련 의장, 94년 작고)씨의 부인 김설이씨, 김희택(전 민청련 의장)씨의 부인 조명자씨 등이 그 시절 이웃이자 친구들이다. 박씨가 경기 부천에 액세서리 가게를 열어 잠깐 운영한 것도 그 즈음인 걸로 지인들은 기억했다. "장사 수완도 있고, 야무져서 밑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수완이 나중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원재활용센터 사무국장(91~93) 시절 '아나바다 운동'때 발휘되죠. 훗날 박원순씨가 '아름다운 가게'를 시작하면서 박씨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박성자씨)<br/><br/>고인이 자신의 활동을 본격화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다. 생활협동조합 운동((사)한마당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 85~87),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민가협) 창립활동 및 재정위원장(85~89년)이 공식 약력에 나타나 있는 당시 이력이다. <br/><br/>민가협 활동은 남편 옥바라지의 연장이었을 것이다. 민청련 부의장이던 85년 7월 김씨는 또 구속된다. 김근태(2011년 작고) 당시 의장을 비롯한 민청련 간부들에 대한 전면적 탄압의 신호탄이었다. 박씨는 연행ㆍ구속 사태에 넋이 나간 부인들의 손을 이끌고 관할 경찰서며 남영동 옥인동 장안동 대공분실을 돌며 싸우고, 면회하고, 성명서 만들고, 농성했다. 그 일은 대학생과 노동자 부모들로 확대됐고, 자연스럽게 민가협과 유가협(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91~2010년) 활동으로 이어진다. <br/><br/>"돌이켜보면 웃을 일도 많았다"며 조명자씨가 들려준 일화다. "86년 남편(김희택씨)이 남영동으로 연행됐을 땐데, 그날도 문숙이가 저와 함께 가서는 그 살벌한 대공분실 문을 두드리고 흔들며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다 제가 잠깐 졸도를 했어요. 요원들이 나와선 병원으로 데려 갔는데 이동 중에 의식은 돌아왔지만 문숙이가 계속 기절한 척하라고 하더군요. 전 결국 병원에서 처방한 독한 신경안정제를 맞고 정말 기절을 했지만, 좀 있다 깨자마자 다시 남영동에 가서 난리를 쳤죠. 그 사람들도 기가 막혔던지 문을 열고 면회를 시켜주데요. 대공분실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면회한 건 그게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거예요." <br/><br/>고인과 동갑내기 친구 김설이씨는 "고인이 있으면 기관원들과 싸움을 해도 참 든든했다"고, "쇠심줄처럼 질겨서 언제나 끝장을 보겠다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런 데서 싸울 땐 으레 안 될 걸 알면서도 '불법 연행자 석방하라'라고 외치잖아요. 하지만 고인은 정말 석방될 때까지 외칠 것처럼 외치곤 했어요"라고 말했다. <br/><br/>고문 후유증으로 팔다리가 굳고 하혈까지 하던 남편 김씨는 87년 7월 2년 만기 출소하지만, 반 년도 안 지난 그 해 12월, 대통령선거 구로구 부정투표 의혹으로 촉발된 구로구청 점거농성 현장 상황실장을 맡아 다시 구속된다. 감옥에서 위암 발병 사실이 밝혀져 형 집행 정지로 6개월 만에 나온 김씨는 2년여 투병 끝에 90년 말 숨진다. 김씨의 삶을 기록한 (현무환 편저, 푸른나무 발행)은 김씨의 공적 활동과 당시 정세에 초점을 맞춰 사적인 이야기나 아내 박씨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다만 임종을 다룬 마지막 장 끄트머리에 짤막하게 실려있다. <br/><br/>"암이 유발할 수 있는 온갖 합병증이 그의 몸을 덮쳐 와도 한 순간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투지와 의지가 놀랍기만 했다. 그보다 더 경이적인 것은 아내 박문숙의 의연함이었다. 의사들이 値졔？남편의 병을 아내는 의사보다 더 정확하고 세심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보살폈다. (…) 문병 온 친지들이 병실 문 밖으로 나가 몰래 눈물을 훔칠 때에도 박문숙은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232쪽)<br/><br/>'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유행하던 문민정부 시절, 박씨는 농민운동 비례대표로 경기도의원(95~98년)을 지낸다. 농업기반공사 사외이사(2001~03년)를 한 적도 있다. DJ정부가 국가와 공공기관 모든 위원회에 '여성 30% 의무 할당' 토록 했을 때다. 마침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98~2004)으로 일하던 박성자씨가 한국여성농민연구소 부이사장(99~2003)이던 고인을 천거했다고 한다. <br/><br/>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2009~11년) 시절 고인이 해낸 일이 총 8권의 방대한 발간이다. '4월 혁명'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각계의 이견과 반발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데서부터, 좌우 보수 진보 진영의 균형을 유지하며 발간위원회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섭외하고 설득하는 일 등 가장 예민하고 속 썩는 일이 고인의 몫이었다고 한다. 편집위원회 간사였던 현종철(50) 현 사료관장은 "제가 당시 관장이었다면 결코 해내지 못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50년 동안 사실상 방치해왔던 자료예요. 5년 걸려도 빠듯한 그 일을 1년 준비기간 포함해 3년 만에 해냈어요. 다들 밤샘을 밥 먹듯이 해가며 일에 매달려서 막판에는 다들 탈진 상태였는데, 낼 모레가 출판기념회였어요. 뭘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했던 때 고인이 계획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많은 원탁 테이블마다 초청자 한 사람 한 사람 좌석 배치표까지 그려 두셨더군요. 사료관장이 할 일이 아니죠. 그날 밤에 울컥해서 관장님께 감사 메일을 썼어요. 존경한다고요."<br/><br/>고인은 어느 자리에서건, 그 무엇으로건 생색이란 걸 낸 적 없었고,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자신이 감당한 어려움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정선순 이사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셨겠지만 늘 밥값을 당신이 내려고 했어요. 누구에게 농담으로라도 '밥 좀 사'라고 말하는 걸 못 봤어요."라고 말했다. 김설이씨는 "아마 그래서, 주위에 걱정 끼치기 싫어서, 투병 사실조차 끝까지 숨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은 2006년 발병했던 암이 12년 재발하자 항암치료를 받았고 지난 해 2월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재발, 연초 입원했다. 고인은 숨지기 하루 전에야 지인들에게 투병 사실을 알렸고, 친정에조차 일주일 전에 연락했다고 한다. 입원 직전까지 박씨는 그 많은 민청학련, 민청련 관련자 재심청구 업무를 모아 정리하고 대응하는 데 매달렸다. <br/><br/>지난 해 12월 남편의 기일, 고인의 어깨와 팔은 보호대로 묶여 있었고, 그 몸으로 말년의 거처로 세 얻어둔 포천까지 가서 제사 음식을 장만해왔다. 그날도 고인은 지인들에게 "오십견인지 어깨가 좀 아프다"고만 말했고, 정 이사에게는 "두 달만 쉬겠다"고, "2월 말 (녹색환경운동) 총회 때 보자"고 말했다. 시누이 김점란씨는 "숨지기 전날 문병 때 '오빠에게 시집와서 고생 많았다'고 했더니 겨우 들리는 목소리로 '오빠가 욕심 없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군요"라 말했다. <br/><br/>2012년 1월 고 김근태씨의 장지를 고르러 경기 마석 모란공원을 찾던 날, 고인은 응달의 남편의 묘 앞을 오래 떠나지 못했다. 햇볕이 안 들고 습해 이끼가 끼고 떼도 못 자라는 자리였다고 한다. "20년 넘게 늘 마음 아파했어요. 제 일 제쳐두고 남 뒤치다꺼리 그렇게 해줬지만 제 남편 묘는 못 챙긴 거죠. 주위에서 아무도 안 챙겨줬던 거죠."(박성자씨) <br/><br/>장례위원회는 4일 양가 유족의 동의를 얻어 모란공원의 양지바른 자리에 부부를 합장했다.<br/><br/>최윤필기자 proose@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86.txt

제목: [세상만사/4월 25일]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날짜: 2014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2410014084208  
본문: 열 달 전에 아내를 잃었다. 만난 지 8년 만에 결혼해 28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살았다. 36년 이상의 단짝을 잃은 순간의 심사를 어찌 필설로 다할까. 슬픔과 서러움, 안타까움과 원망, 후회와 자책이 뒤엉켜 가슴을 때렸다. 그날 이후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오며 끝없이 흔들렸다. 시간이 좀 흘러 그런 아픔이 많이 닳은 지금도 아내가 마지막 생기를 붙잡고 남긴 말을 떠올리면 눈앞이 흐려진다. "맛있는 것 많이 해주려 했는데 (먼저 가서) 미안해, (애써줘서) 고마워, 사랑해." 앞으로도 오랫동안 귓전을 맴돌며 날 선 비수처럼 가슴을 찌를 말이다. 여느 부부처럼 싸움도 하고, 잔소리도 하며 살았으니, 먼저 떠나는 원통함이 있어도 좋았다. 최소한 꼭 살려내겠다던 철석 같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원망이라도 쏟아낼 법했다. 차라리 그랬다면 한결 마음이 편했다.<br/><br/><br/><br/> 44개월 동안의 암 투병이 완전한 실패로 끝나기 몇 달 전부터 밀려드는 불안과 함께 의료진에 대한 원망이 커졌다. 30여 차례나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과 외래검사를 반복하는 동안 환자 각각의 특성을 무시한 기계적 대응에 의존하는 의료현실이 눈에 들어왔다. 수련의와 전공의, 담당교수라는 위계질서에 충실한 의료체계, 환자보다는 컴퓨터와의 대화에 바쁜 의료진이 너무 답답했다. 석 달마다 담당 수련의와 전공의가 바뀌어 환자에 대한 연속적 추적 관찰이 불가능했다. 전임자가 넘겨준 차트의 수치를 건성으로 살피는 것만으로 환자의 구체적 상태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담당교수에게 기대를 걸 수도 없다. 대다수는 전공의의 보고에 전적으로 의존한 형식적 회진에 그쳤다. 밀려드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처지이니 뾰족한 수가 없을 만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병실을 돌며 자신의 환자를 돌보는 '변종 교수'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였다.<br/><br/><br/><br/> 의료현장의 허점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은 아내를 잃고 난 뒤 금세 흩어졌다. 굳이 다투어야 할 이익이 없다는 얄팍한 계산의 결과만은 아니었다. 격앙된 감정이 가라앉자 의료진이 수많은 환자를 통해 축적한 경험자료와 그에 근거한 확률에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다. 어차피 의료행위는 확률과 기대값에 따른다. 가령 뇌막염과 열 감기는 초기 증세가 비슷하다. 우선은 감기 처방을 하고, 그래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척수검사를 한다. 이 때문에 뇌막염 진단과 처방이 늦어져 치료에 애를 먹는 환자도 있다. 그런데 그런 손실의 반대편에는 무차별적 뇌막염 검사를 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그리고 그 균형점에 근접해야만 과잉진료나 부실진료 논란을 부르지 않는다. 그런 이치로 한때 원망했던 의료진에 요즘은 미안함을 느낀다.<br/><br/><br/><br/> 너무 힘들어 되도록 떠올리고 싶지도 않던 아내의 죽음을 눈시울 몇 번 적시는 정도로 담담하게 되새김질할 수 있는 것은 세월의 힘이다. 의료진에 대한 원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치에 대한 이해로 바뀐 것 또한 마찬가지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풍화하고, 나쁜 기억일수록 빨리 닳는다.<br/><br/><br/><br/> 아내의 예고된 죽음에 앞서 몇 번이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었지만 막상 일을 당하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지독할지는 상상하고도 남는다. 모든 희생자의 죽음이 안타깝고 애통하지만, 자식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아직 부모 앞에서는 응석받이일 단원고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의 죽음은 더하다. 고통을 나누려는 국민의 정성과 세월의 힘이 이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빈다. 아울러 애를 끊는 슬픔과 고통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까지 원망과 비난을 퍼붓는 일 또한 사라지길 기대한다.<br/><br/><br/><br/> 절대로 기억에서 지우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그 동안의 수색구조 작업은 국민적 자괴감을 부르기에 충분했다.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태도와 수색구조 작업의 지연은 국가적 역량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런 허점을 메우기 위한 분야별 과제는 똑똑히 기억하자. 그래야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br/><br/>황영식 논설실장 yshwang@hk.co.kr<br/><br/> <br/><br/><br/><br/>▶▶▶ 관련기사 ◀◀◀ <br/><br/><br/>▶ 장례 마친 정차웅군 아버지가… 깜짝 <br/><br/><br/>▶ 오직 손석희만이…개탄스러운 현실 <br/><br/><br/>▶ 첫 신고받은 해경 한다는 말이… 한심! <br/><br/><br/>▶ 단원고 교사들의 상태가 심상찮다 <br/><br/><br/>▶ "왜 못 구해요?" 외국인들에게 '이상한 한국' <br/><br/><br/>▶ "정몽준 아들이라는 이유로…" 변희재 글 논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87.txt

제목: [우리 아이 주치의] <6> 고려대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윤 교수  
날짜: 20140424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24100000258  
본문: 돌이 갓 지난 남자 아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굴이 노래진 채 병원에 왔다. 내시경과 피 검사 등으로 확인해보니 그 어린 몸에서 간경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생후 한달 남짓 즈음 담즙이 장으로 들어가는 담도가 막혀(담도폐쇄증) 담즙을 만들어내는 간을 십이지장과 연결하는 수술을 이미 받은 아이였다. 수술 직후엔 담즙 분비가 잘 됐지만, 점점 문제가 생기면서 간의 압력이 높아져 간경화가 생긴 것이다. 간을 빨리 이식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한시가 급했다. 다행히 외과와의 신속한 협진으로 아이는 무사히 간을 이식받았다. <br/><br/>"사선을 오가던 아이가 멀쩡한 얼굴로 인사하며 퇴원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래서 의사를 하는구나 싶다"는 이윤(37) 고려대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국내에 많지 않은 소아 내시경 전문가다. "아이가 좋아서 소아 의사가 됐다"는 이 교수는 배 아프다던 아이들이 치료받고 시원하게 똥을 누면 "그 똥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며 웃는다. <br/><br/>10㎏ 넘으면 어른용으로도 가능<br/><br/>돌 된 아기에게 웬 내시경인가 싶지만, 소아에게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의외로 많다. 자꾸 배가 아프다거나 자주 토하거나 음식을 먹기 힘들어하거나 토사물이나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내시경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어른도 싫은 내시경을 자식에게 시키기 꺼려하는 부모 마음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때때로 진단에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며 "아이의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약을 잘 조절하고, 검사 중 아이의 다양한 반응과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소아 내시경 전문의에게 검사 받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br/><br/>작은 영아에게 위 내시경 검사를 할 때는 지름이 6㎜ 정도밖에 안 되는 가는 관을 쓴다. 어른의 콧구멍에도 삽입할 수 있는 굵기다. 요즘은 어른용 위 내시경도 지름이 9㎜ 정도로 가늘어 아이 몸무게가 10㎏만 넘으면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대장 내시경은 보통 위내시경보다 약간 더 길고 굵다고 보면 된다. <br/><br/>소화관 깊숙이 들어가는 만큼 내시경은 아무리 소아용이라도 길이가 1m는 넘는다. 더구나 소아의 장은 성인보다 얇고 약하다. 내시경 검사 도중 자칫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라도 소아 내시경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br/><br/>수은건전지 삼키면 빨리 빼야<br/><br/>아이가 응급실에서 내시경을 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이물을 삼켜서다. 상당수의 이물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소화관을 내려가 대변으로 배설되지만, 꼭 내시경으로 빼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br/><br/>"소화관으로 저절로 내려가지 못할 만큼 크거나 뾰족한 것,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몸 속에 머물고 있는 것들은 빼주는 게 좋죠. 특히 수은건전지(장난감에 흔히 넣는 작고 둥근 건전지)를 삼켰다면 빨리 응급실에 가서 내시경으로 꺼내야 해요. 식도에 걸린 채로 그냥 두면 식도가 타거나 조직이 달라붙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br/><br/>배가 계속 아프거나 잘 먹지 못해 병원을 찾은 아이들 중에도 내시경 검사로 뜻밖의 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어른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역류성식도염이나 위궤양, 위염, 과민성대장염 같은 병을 앓기도 해요. 대부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식사가 불규칙하고 야식을 습관처럼 해서 그렇죠. 담도폐쇄증과 맹장염, 복막염, 장중첩증 같은 응급질환을 먼저 명확히 진단해주는 것도 제 몫이죠."<br/><br/>이 교수가 만나는 아이들은 상당수가 소화기질환을 앓고 있다. 소화기질환은 식습관이나 영양상태와 직결된다.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아이들은 어딘가 이상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빨리 찾아내 치료하고 관리해주면 많은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br/><br/>"먹었다 하면 토하고, 잘 삼키지도 못하고, 장 기능도 떨어져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아이도 있었어요. 제일 어려운 경우죠. 입원시켜서 수액 맞히고, 배에 구멍을 뚫어 영양을 보충해주면서 기다렸어요. 대견하게도 이겨냈습니다. 어린 아이를 치료하는 게 쉽지 않지만, 어려움을 이겨낸 아이가 건강한 어른이 되는 모습을 보는 건 소아 의사들만의 특별한 경험이죠."<br/><br/>즐겁게 먹는 습관부터<br/><br/>먹는 걸 유독 싫어하거나 너무 가려 먹는 아이들도 자주 본다. 이 교수는 "병이 있어서라기보다 습관이나 교육, 또는 예민한 성격의 영향인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그래도 이런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의 스트레스는 말로 다 못한다. <br/><br/>"진료실 와서 목놓아 울거나 우울증까지 겪는 어머니들도 만났죠. 자녀가 주변 다른 아이들처럼 먹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모님 스스로 아이들의 식사를 지도하는 방식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어요."<br/><br/>가령 새로운 음식을 먹일 때 부모는 대개 "몸에 좋다"거나 "친구들도 다 잘 먹는다"며 아이에게 "그러니까 너도 한번 먹어보자"며 숟가락을 내민다. 아이 입장에선 처음 보는 생경한 음식을 먹도록 강요 받는 셈이다. 좋은 느낌이 생길 리 없다. <br/><br/>"익숙하지 않은 음식의 맛이나 질감에 아이가 거부감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친근감과 호기심이 생겨 아이 스스로 먹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나중에 제 아이가 먹는 것 갖고 속 썩인다면요? 신경 안 쓰는 척 한번 내버려둘 것 같아요. 그 전에 물론 과자랑 음료수부터 싹 치워야겠죠?"<br/><br/><br/><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어떻게 아이 몸에 칼을 대냐고요? 꼭…"<br/>▶ "사춘기 좀 이르다고 비정상은 아니에요"<br/>▶ 빨라진 초경 등 생리 횟수 증가 때문에 결국…<br/>▶ "1년에 5, 6㎝ 꾸준히 자라는지 살펴보세요"<br/>▶ "어른 병 앓는 아이, 치료할 수 있어요"<br/>▶ 어른과 전혀 다른 아이들 암… "완치될 수 있어요"<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88.txt

제목: [건강] 여성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건강 습관은?  
날짜: 201404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2310014070870  
본문: 이화의료원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여성 건강 8대 수칙’을 발표했다. ‘여성 행복 사회 건강’의 8개 음절을 앞 글자로 여성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건강 습관을 담았다.<br/><br/><br/><br/>①여성 건강의 시작은 정기검진하기<br/><br/><br/><br/>여성은 사춘기, 임신, 폐경에 따른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여성 특유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단순한 피로라고 무시할 경우에는 심각한 질병을 조기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정기검진은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최신 진단기기를 이용한 간단한 검진과정을 통해 자궁근종, 난소질환 및 각종 악성종양들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조기치료가 가능해졌다. <br/><br/><br/><br/>②성심껏 준비한 컬러 푸드 맛있게 먹기<br/><br/><br/><br/>초록색 케일, 주황색 당근, 하얀색 양배추, 노랑색 파프리카, 보라색 포도, 빨간색 토마토와 같은 천연색소 음식들은 비타민과 섬유질의 보고이다. 항산화, 해독작용, 염증방지에 탁월한 신선한 컬러푸드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며, 암 발생의 1/3을 막을 수 있다.<br/><br/><br/><br/>③행복을 위한 나만의 취미 갖기<br/><br/><br/><br/>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취미활동은 성취감을 높여주며 다양한 친구와 사회를 접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친밀한 인간관계와 소속감을 높여줘 여성의 외로움과 우울증을 예방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br/><br/><br/><br/>④복부 비만은 만병의 근원, 정상 체중 유지하기<br/><br/><br/><br/>세계보건기구(WHO)가 21세기 신종 전염병 중 하나로 비만을 꼽았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 각종 암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생명을 단축시킨다. 본인 기존 체중에서 1kg 이상 늘면 즉각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 1kg을 방치하면 금방 3kg이 되고 5kg이 된다.<br/><br/><br/><br/>⑤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br/><br/><br/><br/>봉사를 통해 마음을 나누면서 삶을 감사히 여기는 것은 자신의 세로토닌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건강행위다. 세로토닌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실패나 아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는 진통 효과를 얻기도 한다. <br/><br/><br/><br/>⑥회복을 위해 하루 7시간 숙면 취하기<br/><br/><br/><br/>잠은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자연적 치유행동으로, 한국인의 적정 수면시간은 7시간이다. 수면장애는 치매, 고혈압, 뇌졸중, 동맥질환. 성기능 장애, 당뇨 및 비만 등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술이나 담배, 카페인은 숙면의 적이다.<br/><br/><br/><br/>⑦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 멀리하기<br/><br/><br/><br/>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나 피부트러블 같은 작은 증상부터 각종 심각한 신체 및 정신 질환까지 발생시킨다. 복식 호흡이나 스트레칭, 명상 등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해 준다면 면역력 증강은 물론이고 ‘강한 멘탈’을 갖게 되어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br/><br/><br/><br/>⑧강한 의지로 하루 30분이상 주 5회 땀나게 운동하기<br/><br/><br/><br/>주 5회, 하루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살짝 땀이 날 정도로 하는 유산소 운동은 피로감퇴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적정량의 근육을 만들어 주어 비만을 예방한다. 달리기나 사이클과 같은 운동이 부담스러울 경우 요가나 스트레칭으로 땀을 흘리는 것도 좋다. <br/><br/><br/><br/>정용운기자<br/><br/><br/><br/><br/><br/><br/>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89.txt

제목: 자궁경부암 99% 예방…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및 검사’ 필요  
날짜: 20140422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22100000070  
본문: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4년 세계 보건 분야의 가장 시급한 5대 과제 중 하나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확대'를 정했다. <br/><br/>더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와 성명서를 통해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전성을 입증함은 물론 접종을 장려하고 있으며,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를 국가 백신 사업으로 지정, 무료로 시행될 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br/><br/>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논란 후 백신 접종을 결심하는 여성이 급격히 줄고 있어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br/><br/>이와 관련해 삼성수여성의원 신미영 원장(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외래조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자궁경부암 백신 및 검진에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br/><br/>● 부인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이 필수 <br/><br/>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로, 모든 여성의 80%가 HPV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br/><br/>주로 성접촉으로 감염이 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성생활이 가장 활발한 20~29세가 가장 많은 감염률을 보이며, 대부분은 면역에 의해 자연 소멸되나, 발암성 HPV에 지속적으로 감염될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br/><br/>다행인 것은 현재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고위험성 HPV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백신은 자궁경부암 원인의 50~70%를 차지하는 고위험성 HPV인 16형과 18형에 대한 면역 형성은 물론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90%이상 예방할 수 있다.<br/><br/>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시기에 관련해 산부인과학회의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의 대상이 된다. 성경험이 있거나 26세 이후라도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6개월 동안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시기는 만 55세까지다. <br/><br/>● 백신만 맞으면 암 걱정은 끝? 자궁경부암 검사 필요<br/><br/>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는 여성이 많다. 예방백신 접종으로 자궁경부암의 50%정도가 예방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50%에서는 자궁경부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br/><br/>결론적으로 자궁경부암의 완벽한 예방을 위해서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과 더불어 정기검진이 필요하다. 특히 자궁경부암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나 징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br/><br/>특히 발암성 HPV 감염률은 성관계가 활발한 젊은 여성에서 가장 높게 보고되며, 35-39세 여성에서 자궁경부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젊은 여성일수록 자궁경부암 검진을 놓치지 않고 받아야 한다. <br/><br/>자궁경부암 검사 시기는 산부인과학회의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의 대상이 된다. 백신 접종으로 향후 자궁경부의 상피내종양과 경부암 발생률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현재까지는 만 20세 이상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권장한다. <br/><br/>자궁경부를 포함한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여성도 이전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었거나 검진을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검사를 지속해야 한다. 자궁경부의 이상 소견이 있었던 병력이 없고 앞서 10년간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다면 70세 이후에는 검사를 중단해도 된다.<br/><br/>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90.txt

제목: 박리디아 암 완치한 비결은 바로…  
날짜: 2014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2110014049309  
본문: 박리디아가 암을 극복한 사연을 털어놨다. <br/><br/><br/><br/>박리디아는 21일 방송된 KBS2 '여유만만' 에 배우 김성원, 서우림, 개그맨 김경민과 함께 출연해 암과 당뇨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다. <br/><br/><br/><br/>이날 박리디아는 33세 때 자궁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리디아는 "턱에 커다란 종기가 나고 냉이 심해졌다"며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br/><br/><br/><br/>병원에서 자궁암 검사를 권유받은 박리디아는 자궁 상피 내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br/><br/><br/><br/>박리디아는 그 후 건강한 식단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암을 완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br/><br/><br/><br/>네티즌들은 "박리디아 대단하네" "박리디아 다행이다" "박리디아 사연 보니 산부인과 가봐야겠다" "박리디아 건강한 식단이 최고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br/><br/>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91.txt

제목: "100년 된 도라지" 암환자에 사기 실형  
날짜: 20140420  
기자: 목상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20100000080  
본문: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심현주 판사는 간암 말기 환자에게 중국산 도라지를 '100년 된 국산 도라지'라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0ㆍ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br/><br/>김씨는 2011년 7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건강관리실에서 쑥뜸시술을 받던 A(2012년 1월 사망)씨에게 "100년 된 자연산 도라지를 달여 복용하면 간암에 특효"라고 꾀어 1억3,000만원을 받은 뒤 수입산 도라지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br/><br/>김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심마니로부터 구입한 도라지를 전달만 한 것이며 도라지 구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심 판사는 "도라지를 얻은 경위가 불분명한데다 수입산으로 판별됐고, 말기 암 환자에게 얕은 거짓말로 거액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br/><br/><br/>부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92.txt

제목: 약관 불이행vs 생명 경시 조장… 자살보험금 미지급 뜨거운 감자  
날짜: 20140420  
기자: 이동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20100000106  
본문: 생명보험사 대부분이 자살을 한 경우 약관을 어기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 당시에는 자살 사망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제로는 보험금이 절반 수준인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온 것이다. 미지급 금액은 최대 수 조원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br/><br/>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결과, 푸르덴셜생명 등 일부를 제외한 20여개 생보사 대부분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미지급된 보험금이 생보업계 전체로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 10여년간 미지급된 보험금만 수천억원에 이르며 현재 계약자까지 포함하면 향후 조 단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br/><br/>문제가 된 보험은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체결된 재해사망 특약이 있는 보험계약이다. 당시 대부분 생보사는 약관을 통해 재해사망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계약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하지만 생보사 상당수는 이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표준약관 개정 이후에는 약관 변경을 근거로 내세우며 기존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자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왔다. <br/><br/>생보사들은 2000년 초반에 종신보험 표준약관을 만들면서 표기 실수가 있었던 것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생보사들은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 대해서만 개별 보상을 해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 있고, 특히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br/><br/>금감원은 재해사망금 지급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보험 계약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자칫 자살 분위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도 지난해 8월 ING생명 검사과정에서, 2003~2010년 사이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90여건에 대해 보험금 20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8개월째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신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 조정을 통해 생보사가 보험금의 60~70% 수준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약관해석, 지급범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br/><br/><br/>이동현기자 nani@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93.txt

제목: [편집국에서/4월 21일] 규제는 암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다  
날짜: 2014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20100000069  
본문: 미국의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이 내세우는 논리 중 개인적으로 가장 반박하기 힘든 것은 "총을 손에 든 순간 힘이 센 자와 약한 자가 모두 평등해진다"는 주장이다. 만일 정부가 국민들의 총기 소유권을 박탈하게 되면 노인이나 여성처럼 약한 사람들은 힘센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br/><br/>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열린 이후 한달 간 이어진 정부 국회 기업 민원인들의 규제개혁 관련 발언들을 지켜보면서 규제와 연관된 논란이 총기소유 논란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총의 존재가 사람들 간 체중과 근육량의 차이를 무력화하듯 규제 역시 당사자간 유ㆍ불리, 수혜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놓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규제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질서라 보기도 어렵다. 허약하다는 이유로 늘 힘센 사람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br/><br/>결국 규제개혁이란 좋은 규제를 늘리고 나쁜 규제를 없애는 점진적ㆍ지속적 노력이어야 하지, 규제 총량을 줄이는 식의 단기적 양적 접근은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여객선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2008년의 규제완화가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처럼.<br/><br/>그렇다면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불행히도 '명확한 잣대가 없다'는 게 정답에 가깝다. 주류 경제학 교과서들이 잘못된 규제의 대명사처럼 언급하는 '최저임금제'조차 찬반이 갈린다. 잘못된 규제라는 근거는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한계 상황의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기 때문에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들만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폴 크루그먼 같은 경제학자는 노동시장은 빵을 파는 시장과 달리 돈 몇 푼 때문에 갑자기 직원을 해고하는 일은 잘 벌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임 노동자의 구매력이 높아져 전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점이 경험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규제의 효과는 논리와 실제가 다르고, 단기와 장기에 따라 엇갈린다.<br/><br/>대부분 사람들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영역도 있다. 바로 누구든 공짜 또는극히 낮은 비용만 내고 이용하지만,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공공토지나 지하자원, 공기와 바다 등이 이런 영역에 포함된다. 이런 영역에 도입된 규제 중 가장 성공적인 예가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를 유료로 판매하도록 한 정책이다. 몇백원의 부담이지만 소비자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해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적으로 비닐봉투 사용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런데 만일 성공에 고무된 한 정치인이 과감히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얼마 후 슈퍼마켓 주변에는 시장바구니를 잊고 장보기에 나섰다 당황한 사람들을 위해 불법 비닐봉투를 한 장에 천원 또는 이천원에 판매하는 행상이 등장할 것이다.<br/><br/>이는 미국 비영리 단체인 환경보호기금(EDF) 수석 경제학자인 거노트 와그너가 쓴 의 한 대목을 살짝 윤색한 예다. <br/><br/>이처럼 규제는 꼭 필요한 영역에 정확한 처방을 적절한 강도로 투여해야 성공할 수 있는, 매우 까다로운 존재다. 규제 대상의 이기심ㆍ나태함 같은 본성을 지나치게 제약해서도 안되고, 시장질서에 맞서서도 성공하기 힘들다. <br/><br/>반대로 과도한 규제들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질식될 지경이 돼서는 안되겠지만, 군사작전을 하듯 일거에 제거한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탄소발생량 제한, 어획량 제한, 개발제한구역 같이 철폐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인류의 생존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큰 중요한 규제들도 적지 않다.<br/><br/>박근혜 대통령의 '규제는 암덩어리'발언은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비유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규제에 대한 의학적 비유를 찾는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암이 아니라, 너무 많으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지만 적당한 수준 밑으로 떨어져도 건강이 위험해지는 '콜레스테롤'이 더 정확한 비유다.<br/><br/><br/>정영오 경제부장 young5@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94.txt

제목: 갑상선암, 원칙적인 진료만큼 환자와 소통도 중요해  
날짜: 20140418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8100000047  
본문: 최근 ‘갑상선암의 과다진단’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암등록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6년 갑상선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6.9명에 그쳤지만, 2011년에는 10만 명당 30배가 늘어난 81명으로 집계됐다. <br/><br/>이는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다른 암에 비해 높은 탓도 있지만, 해외 주변국보다 평균 10배가 넘는 수치로, 이번 갑상선암의 과다진단에 대한 논란을 과열시키는 데 한몫 했다는 평가다. <br/><br/>많은 언론이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부분과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분석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일선 진료현장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의의 요약이 결국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물론 해외의 갑상선 치료를 실제로 경험한 국내 의사의 소견이라면 더 설득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br/><br/>이런 이유로 영상의학과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협진하는 위드심의원 의료진의 조언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특히 이비인후과 조우진 원장은 세계 각국의 갑상선 암 진료원칙에 대해서 체감어린 진술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br/><br/>조우진 원장은 6년 전 100년 전통의 일본 노구치갑상선병원에 연수를 했다. 당시 그가 전문의로서 가장 궁금한 것은 다름 아닌 노구치갑상선병원의 갑상선 진료원칙이었는데, 노구치 선생의 답변은 놀랍게도 "원칙이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노구치병원은 갑상선혹만 바라보지 않고 전체적인 환자의 상태, 가족력, 생활습관, 갑상선과 주변 조직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고 한다. 즉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로 갑상선암 환자를 바라보는 100년 경험이 바탕이 된 대원칙이 있는 것이다.<br/><br/>물론 일본갑상선학회는 갑상선 진료가이드라인이 있다. 미국과 유럽의 갑상선학회도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이들 가이드라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조우진 원장은 “<span class='quot0'>이러한 상황을 달리 해석해 보면 갑상선 진료 원칙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span>”고 말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노구치갑상선병원의 100년 경험에 입각한 진료원칙이 더 타당하게 느껴진다는 소견이다. <br/><br/>국립암센터 이력을 지닌 영상의학과 심정석 원장은 암 진단과 관련해 환자들이 체감하는 부분을 오랜 진료현장 경험을 들어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 심정석 원장은 “<span class='quot1'>갑상선 혹을 살펴봤더니 암이 의심스러운 모양인데 갑상선암은 수술을 안 해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 그냥 경과관찰만 하자고 제시하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환자가 얼마나 있겠냐</span>”고 반문했다. 나중에 정말 암으로 확인되고 상태마저 악화되면 의사에 대한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송으로도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br/><br/>두 원장은 결국 의사의 진료원칙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원칙적인 진료만큼 중요한 것이 환자와의 충분한 상의와 소통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방식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두 원장은 꼬집어 말했다. 무미건조한 치료사례 나열이나 치료법의 나열이 아니라, 환자의 혼란스러움과 고뇌를 충분히 경청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형성한 내역 조사가 뒷받침되어야만 암 진단이 단순한 ‘초음파 진단 결과’에 그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br/><br/>물론 의사들이 원칙에 맞는 진료를 소신껏 하기 어려운 국내 의료현실과 암에 대한 국내 환자들의 유별난 공포, 큰 병원 치료를 막연하게 선호하는 국내환자들의 성향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기 진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며, 극단적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음파 장비와 같은 고가의 첨단 장비를 대다수의 의원급 병원들도 갖추고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단을 쉽게 할 수 있는 의료환경에도 주목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br/><br/>위드심의원은 개원 이래로 철저하게 원칙에 따르는 진료를 고수하고 있다고 두 원장은 전했다. 원칙을 빠짐없이 환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통해 환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갑상선 논란 속에서도 위드심의원은 종래와 다를 바 없는 진료를 그대로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br/><br/>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95.txt

제목: 가족력이 꼭 암을 만들진 않아요  
날짜: 2014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710014031874  
본문: Q. 가족이 암에 걸린 적이 있으면 아이도 걸리나. <br/><br/><br/><br/>A. 부모나 가까운 친척, 형제자매 중 암 환자가 있으면 아이에게 암이 생길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반드시 발병하는 건 아니니 예단할 필요는 없다. <br/><br/><br/><br/>Q. 아이들의 암은 어떻게 발견되나. <br/><br/><br/><br/>A. 소아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검사법은 아직 없다. 다만 이유 없이 열이 나거나 잘 안 먹거나 보채는 증상은 모든 소아 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백혈병은 창백해지거나 멍이 잘 들고, 팔다리 통증이나 복부 팽창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백혈병이 가장 많이 생기는 3~6세 때는 아이의 건강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뇌종양은 두통, 구토, 마비, 경련 등을 동반할 수 있다. <br/><br/><br/><br/>Q. 젊을수록 암이 빨리 진행되고 위험하지 않나. <br/><br/><br/><br/>A. 일부 성인 고형암에선 맞는 얘기지만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암은 꼭 그렇지 않다. 백혈병 중 예후가 특히 안 좋은 유형은 소아에서 드물고 뇌종양 역시 아이는 치료가 비교적 잘 되는 경우가 많다. <br/><br/><br/><br/>Q. 소아 암 치료법도 성인과 같나. <br/><br/><br/><br/>A. 혈액암은 항암제로, 고형암은 수술과 항암제, 방사선을 병행해 치료하는 기본 원칙은 비슷하다. 그러나 강도는 균형 있게 조절한다. 너무 강력하게 치료하면 완치율은 높아지겠지만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br/><br/><br/><br/>■ 유철주 교수는 <br/>▲ 1983년 연세대 의대 졸업 <br/>▲ 1993년 연세대 의학박사 취득 <br/>▲ 1995년~ 연세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br/>▲ 1996~1997년 미국 세인트 주드 어린이 암연구병원 연수 <br/>▲ 2005년~ 소아암NGO 한빛 대표이사 <br/>▲ 2012~2013년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부회장 <br/>▲ 전문 분야: 소아암(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신경모세포종, 조혈모세포이식 등)<br/><br/><br/><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96.txt

제목: 어른과 전혀 다른 아이들 암… "완치될 수 있어요"  
날짜: 20140417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7100000274  
본문: 지난해 여름 청첩장 한 통이 날아왔다. 지인이 자식 시집장가 보낸다는 소식이려니 하고 무심코 봉투를 뜯었는데, 신부 이름이 낯익다. <br/><br/>'요 녀석이 어느새 결혼을?' 유철주(55) 연세암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장의 얼굴에 살포시 미소가 담겼다. 결혼 당일 식이 끝나고 돌아가려는 유 센터장을 신랑신부는 한사코 붙잡았다. 유 센터장 덕분에 신부가 새 삶을 살게 됐으니 폐백 꼭 받으셔야 한다면서. 절도 받고 대추랑 밤도 넉넉히 던져줬다. '아팠던 기억 훌훌 털고 일어나 건강하게 자랐구나, 대견하다.'<br/><br/>유 센터장이 치료했던 아이들이 이제 많이들 어른이 됐다. 가냘픈 몸으로 생사를 오가던 녀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에서 한몫을 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유 교수는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다. 그래서 그는 또 매일 같이 아이들과 함께 암과 싸운다.<br/><br/>의사에서 스승으로<br/><br/>"딸이 어릴 때 백혈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감추고 싶어하죠. 그때 치료해준 의사가 아무리 고마워도 사돈 집안에까지 양해를 구하며 초대하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br/><br/>유 센터장이 결혼식에 폐백까지 모두 사양하지 않은 이유다. 그 신부뿐 아니다. 오래 전 암 투병으로 맺어진 인연이 유 센터장 주위에서 요즘 부쩍 눈에 띈다. 같은 병원의 소아 심장 의사인 김남균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어릴 적 유 센터장에게서 악성림프종 치료를 받았다. 백혈병을 치료해준 한 학생은 5년 전 연세대 의대에 입학했고 곧 병원에 실습을 나올 예정이다. 치료를 받았던 녀석들이 든든한 후학이 돼 돌아온 것이다. "아이들이 열심히 산 거지 뭐 꼭 제 영향이겠습니까"라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유 센터장의 표정에는 뿌듯함이 묻어난다. 그의 손을 거쳐 완치된 소아 암 환자가 1,000명이 넘는다. <br/><br/>"처음엔 병 이겨내고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원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젠 제 손을 거쳐간 아이들이 기왕이면 사회에 큰 기여를 하길 바라고 있네요. 욕심일까요(웃음)?"<br/><br/>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완치 후 생존한 사람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시대다. 어른의 암은 상당 부분 생활 습관이나 환경 등 자신의 잘못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소아 암은 아니다. 유전적 요인 때문이거나 아예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거나 헬리코박터균의 영향 등으로 생기는 대장암이나 위암이 소아에서는 아주 드물다는 게 좋은 증거다. <br/><br/>나 때문에, 내 아이가?<br/><br/>"자녀가 암이라는 소릴 들으면 대부분의 부모가 죄책감부터 느껴요. 자신이 유전적 요인을 물려줘서 아이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유전자에 내재된 문제가 성장 과정에서 환경을 비롯한 복합적인 영향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지, 암 자체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건 아닙니다. 자책할 필요 없어요."<br/><br/>한 해 동안 새로 생기는 소아(18세 미만) 암 환자는 1,300~1,500명 선이다.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의 약 1%라고 보면 된다. 소아 암의 3분의 1 가량은 백혈병이고 다음은 뇌종양, 악성림프종 순이다. 어른에게도 나타나는 암이지만 소아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혈액 속에 적혈구나 혈소판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빈혈이나 출혈, 감염 등이 생기는 백혈병은 성인에게서는 치료가 어려운 급성 골수구성이, 소아에선 완치율이 높은 급성 림프구성이 많다. 신경모세포종, 윌름스종양(콩팥 암)처럼 어린 아이에게만 생기는 암도 있다. <br/><br/>대개 소아 암은 성인 암보다 치료 경과가 좋고 완치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전체 소아 암의 생존율은 75~80%로 같은 병을 앓는 어른보다 대부분 높다. 소아에서 가장 많은 암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생존율이 85%, 뇌종양은 70% 안팎이다. 윌름스종양은 90%가 넘는다. 유 센터장은 "빨리 발견해 제때 치료하면 대개 1~3년 만에 회복된다"고 말했다. <br/><br/>병원에서 만나는 교장선생님<br/><br/>그럼에도 소아 암 치료는 여전히 쉽지 않다.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젊었을 땐 완치시키는 데만 주력했어요. 거기까지가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완치율이 계속 올라가고 경험이 쌓이면서 아이의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br/><br/>아이가 투병하는 동안에는 대개 부모 중 한 명이 아이 옆에 붙어서 치료에 전념하고 다른 한 명이 생활비를 댄다. 경제적, 육체적으로 힘든 데다 발병 원인, 잘잘못까지 불필요하게 따지다 보면 집안 갈등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투병 중 부모의 이혼을 겪는 아이가 적지 않은 이유다. 치료에 좋은 영향을 미칠 리 없다. <br/><br/>"초등학교 때 악성림프종이 뇌에 전이되고 얼굴에 마비가 와 치료하느라 1년 동안 학교를 쉰 아이가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덜 자라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채 복학했는데, 그만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됐죠. 하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했지만, 여전히 사회 적응을 어려워하고 있어요." <br/><br/>치료받느라 못한 공부는 언제든 다시 하면 되지만 친구 관계를 맺는 등의 사회적응력은 학창 시절에 기르지 못하면 어른이 돼서도 힘들다. 유 센터장은 그래서 병원 안에 아예 어린이병원학교를 만들었다. 올해가 '개교' 14주년이다. <br/><br/>"입원해 있는 동안 아이들끼리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아이가 완치돼 먼저 학교에 보낸 부모를 초청해 투병 중인 아이의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도 진행하죠. 여기선 아이들이 저를 교장선생님이라고 불러요(웃음)."<br/><br/>이런 활동이 소아 암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유 센터장은 바라고 있다. <br/><br/>"암 치료 후 복학한 아이랑 놀지 말라는 부모도 있더군요. 병 옮는다고 말이죠. 말도 안 됩니다. 학교에서마저 경쟁만 부추기는 사회가 돼버린 탓에 자기보다 못한 상황의 친구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아이들에게서 사라지고 있어요."<br/><br/>그런 얘길 들으면 유 센터장은 아이가 치료를 잘 받았으니 학교에서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편지를 담임 교사에게 보낸다. 아이들의 암 투병이 가족문제와 사회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어른들의 배려가 항암치료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br/><br/><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1년에 5, 6㎝ 꾸준히 자라는지 살펴보세요"<br/>▶ "어떻게 아이 몸에 칼을 대냐고요? 꼭…"<br/>▶ "사춘기 좀 이르다고 비정상은 아니에요"<br/>▶ 빨라진 초경 등 생리 횟수 증가 때문에 결국…<br/>▶ "어른 병 앓는 아이, 치료할 수 있어요"<br/>▶ 환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만 100만원… 헉!<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97.txt

제목: 가족력이 꼭 암을 만들진 않아요  
날짜: 20140417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7100000275  
본문: Q. 가족이 암에 걸린 적이 있으면 아이도 걸리나. <br/><br/>A. 부모나 가까운 친척, 형제자매 중 암 환자가 있으면 아이에게 암이 생길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반드시 발병하는 건 아니니 예단할 필요는 없다. <br/><br/>Q. 아이들의 암은 어떻게 발견되나. <br/><br/>A. 소아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검사법은 아직 없다. 다만 이유 없이 열이 나거나 잘 안 먹거나 보채는 증상은 모든 소아 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백혈병은 창백해지거나 멍이 잘 들고, 팔다리 통증이나 복부 팽창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백혈병이 가장 많이 생기는 3~6세 때는 아이의 건강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뇌종양은 두통, 구토, 마비, 경련 등을 동반할 수 있다. <br/><br/>Q. 젊을수록 암이 빨리 진행되고 위험하지 않나. <br/><br/>A. 일부 성인 고형암에선 맞는 얘기지만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암은 꼭 그렇지 않다. 백혈병 중 예후가 특히 안 좋은 유형은 소아에서 드물고 뇌종양 역시 아이는 치료가 비교적 잘 되는 경우가 많다. <br/><br/>Q. 소아 암 치료법도 성인과 같나. <br/><br/>A. 혈액암은 항암제로, 고형암은 수술과 항암제, 방사선을 병행해 치료하는 기본 원칙은 비슷하다. 그러나 강도는 균형 있게 조절한다. 너무 강력하게 치료하면 완치율은 높아지겠지만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br/><br/><br/><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1년에 5, 6㎝ 꾸준히 자라는지 살펴보세요"<br/>▶ "어떻게 아이 몸에 칼을 대냐고요? 꼭…"<br/>▶ "어른 병 앓는 아이, 치료할 수 있어요"<br/>▶ "사춘기 좀 이르다고 비정상은 아니에요"<br/>▶ 빨라진 초경 등 생리 횟수 증가 때문에 결국…<br/>▶ 환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만 100만원… 헉!<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98.txt

제목: [Check! 건강소식] 비만 예방 디자인 공모전 外  
날짜: 2014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7100000276  
본문: 비만 예방 디자인 공모전<br/><br/>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가 5월 15일까지 '제4회 비만 예방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을 구성해 아동 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비만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순수 창작물을 홈페이지(www.designkahp.com/designkahp2014/)를 통해 출품하면 된다. 일반부와 학생부 등 총 5개 부문에서 21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02)322-7005<br/><br/>파킨슨병 양ㆍ한방 협진<br/><br/>강동경희대병원 중풍뇌질환센터가 자세가 불안정하고 걷기가 어려워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4주간의 입원집중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의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침과 봉독약침, 뜸, 부항, 한약 등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병원 측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 정도가 18.3에서 8.7점으로, 운동기능장애 정도가 16.7점에서 10.0점으로 호전됐다고 밝혔다. <br/><br/>이화의료원 제2부속병원 조감도 공개<br/><br/>이화여대 의료원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2017년 준공 예정인 제2부속병원과 의과대학의 설계안을 확정하고 조감도(그림)를 공개했다. 모든 병실이 1인실 구조이며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됐다. 5월부터 본격 설계에 들어가 201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br/><br/>세브란스병원 암병원 개원<br/><br/>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연세암병원을 개원하고 14일 진료에 들어갔다. 5년 이상 생존해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재발이나 전이, 후유증 등을 걱정하지 않도록 '암 생존자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정보 제공과 상담은 물론 전원(轉院) 과정까지 지원하는 '굿닥터팀'을 배치했다. 병원 측은 로보틱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기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최신 치료 장비를 대폭 확충했다고 소개했다. <br/><br/>고대구로병원 암병원 개원 <br/><br/>고려대 구로병원이 암병원을 새로 열고 14일 진료를 시작했다. 기존의 일일항암치료실을 확장해 암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진료부터 치료까지 하루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암 진단부터 수술까지 걸리는 기간도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독창적이고 난이도 높은 복강경 수술을 비롯한 최소침습수술, 첨단 방사선 치료와 표적항암치료 등으로 환자 만족도와 치료 효과를 높이고 빠른 회복을 돕겠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br/><br/><br/>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099.txt

제목: [주웅 교수의 癌전무퇴] '쭉쭉빵빵'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날짜: 2014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7100000277  
본문: 지난해 이맘때 뉴욕타임스에 실린 여배우 앤젤리나 졸리의 유방 절제 소식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얼굴과 몸이 생명인 여배우가 유방 절제 수술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첫 번째 놀라움이었고 유방암 유전자가 뭐길래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궁금증과 두려움이 두 번째 놀라움이었다. <br/><br/>1975년생이니까 당년 38세, 슬슬 중년으로 접어드는 그녀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의 제목은 '나의 의학적 선택'이다. 기고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유전으로 인해 유방암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지만 현재 유방암이 생긴 것은 아니다. 앞으로 생길 암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나 스스로의 결정으로 유방 조직을 다 제거했다."<br/><br/>졸리가 가진 유전적 소인은 알려진 대로 BRCA 유전자 돌연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전자 돌연변이의 빈도가 매우 낮지만 서양은 동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졸리는 유방 절제 수술을 했듯 향후 적당한 시기에 예방적 목적으로 양쪽 난소 절제 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 출산이 아니라도 난소는 여성호르몬을 분비해 피부나 몸매의 여성다움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 난소 절제는 조금 후로 미룬 것이다. <br/><br/>졸리의 선택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과잉치료와 과잉비용에 대한 것이 많았다. 유방암 발병 확률이 높다면 검진을 자주 해 조기 발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유방 절제, 재건성형보다 비용이 적게 들 것이므로 졸리의 선택은 의료 자원의 낭비라는 주장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유방암의 위험 요인을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에 재반론을 할 수 있다. 졸리는 유전성 유방암이 아닌 자연발생(산발성) 유방암의 위험 역시 보통 여성 보다 높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절제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r/><br/>그녀의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인 다른 요인들은 바로 그녀의 (절제 수술 전의) 풍만한 가슴과 훤칠한 키다. 유방이 크다는 것은 유방 조직의 양이 많다는 것인데 유방 조직의 줄기세포 숫자는 조직의 양, 즉 유방의 크기에 비례한다. 다시 말해 가슴이 풍만한 여성은 유방 줄기세포를 더 많이 가진 것인데 줄기세포 숫자가 많을수록 세포 이상의 확률이 높아지므로 유방암 위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br/><br/>키 큰 여성 역시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한다. 키와 유방암이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는,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에 비해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까지 성장 촉진 호르몬이 더 많았을 것이고 그 호르몬은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환되는 과정에도 관여하므로 유방암의 위험이 더 높다는 가설로 설명되고 있다. 졸리가 여기까지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하튼 '쭉쭉빵빵'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br/><br/><br/><br/>주웅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 <br/> <br/><br/>▶▶▶ 관련기사 ◀◀◀<br/>▶ 은밀한 부위 아픈 여성 고민하게 만든 사연<br/>▶ 너무 많이… '월경과다' 그녀의 은밀한 고통<br/>▶ 빨라진 초경 등 생리 횟수 증가 때문에 결국…<br/>▶ 환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만 100만원… 헉!<br/>▶ 592원짜리 약을 "5원에 납품하라"… 경악<br/>▶ 가난한 남성, 부자 남성보다 10년 일찍 죽는다<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00.txt

제목: 시진핑, 파워 블로거 쉐만쯔 석방 지시  
날짜: 20140417  
기자: 박일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7100000209  
본문: 중국의 인터넷 논객인 쉐만쯔(薛蠻子)가 구속 8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br/><br/> 베이징(北京)시 공안국은 17일 병이 심할 경우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미국 국적의 화교 벤처 사업가인 쉐만쯔의 병보석 신청을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1,155만명의 웨이보(微博ㆍ중국판 트위터) 팔로워를 자랑하는 쉐만쯔는 인터넷을 통해 중국 사회 현실 등을 비판하며 큰 인기를 누리던 중 지난해 8월 갑자기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당국이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그를 본보기로 삼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체포된 뒤 관영 언론을 통해 ‘자아비판’을 하고 다른 인터넷 논객들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다. <br/><br/> 중화권 매체인 보쉰(博迅)은 쉐만쯔의 병보석 허가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쉐만쯔의 부인이 시 주석에게 편지를 보내 남편이 암을 앓고 있으니 병 치료를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br/><br/> 그러나 중국 법원은 이날 쉐만쯔와 비슷한 시기에 ‘공공질서문란죄’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친즈후이(秦志暉)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터넷 통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를 하기는 이르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br/><br/>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01.txt

제목: '주민 찾아가는 건강관리' 쪽방촌 80%가 서비스 받아  
날짜: 20140416  
기자: 정승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6100000006  
본문: 지난해 서울시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쪽방촌 10가구 중 8가구의 건강을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br/><br/>서울시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지난해 65세 이상 독거 노인, 쪽방촌, 다문화가정, 탈북자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취약계층 22만2,959명의 건강을 돌봤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 사업으로 서울 쪽방촌 전체 가구의 81%인 2,559가구가 건강관리를 받았다.<br/><br/>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가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찾아 혈압, 당뇨,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고혈압 환자에겐 스스로 혈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혈압기기를 제공하고 흡연자에게 금연클리닉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영양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도 투입된다. 지난해 전문인력 357명이 하루 평균 6.7가구를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br/><br/>관리 대상자는 고혈압환자가 8만3,9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6만2,197명) 당뇨(3만4,794명) 뇌졸중(1만1,227명) 암(1만249명) 순이었다.<br/><br/>서울시에 따르면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실제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실천한 비율은 전체 관리 대상자의 62.1%로 서울시 전체 걷기 실천율(52.1%)보다 높았고 흡연율도 12.7%로 서울시 전체 흡연율(23%)보다 낮았다. 특히 식이요법과 약 복용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 수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 대상자는 각각 5만8,546명(69.8%)과 2만800명(59.8%)으로 국내 고혈압 조절률(42.9%)과 당뇨 조절률(28.5%)을 크게 웃돌았다.<br/><br/>김창보 서울시 보건정책관은 "방문 인력이 지난해 취약계층 4만10가구를 새로 발굴해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에 등록했다"며 "앞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r/><br/><br/><br/>정승임기자 choni@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02.txt

제목: [볼만한 TV] SBS ‘희망 TV’  
날짜: 20140414  
기자: 문미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4100000210  
본문: 갑자기 찾아온 병마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병마가 희망과 사랑까지 뺏어 갈 수는 없다. SBS 는 15일 오후 5시 35분 악성뇌종양과 싸우고 있는 15세 소녀 한별이의 희망과 가족애에 대한 이야기를 선보인다. <br/><br/>한별이는 2년 전 단순 감기에 걸린 줄 알았는데 희귀 악성 종양이라는 선고를 받는다.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현대의학을 총동원해도 아직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br/><br/>갑자기 찾아 온 병은 한별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며칠 동안 계속됐던 기침과 구토가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 뇌하수체 배아세포종이라는 희귀 질환 판정을 받았다. 암 선고를 받고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과 4번의 항암치료, 무려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종양 때문에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br/><br/>한달에 20일은 병원에 입원하는 해야 하는 한별이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집에서 서울 암 전문 병원으로 매번 기차를 타고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암 때문에 또래 친구들처럼 키도 자라지 못하고 있는 한별이의 꿈은 학교로 돌아가는 것. 한별이는 교복을 입고 평범한 소녀로 살아가는 꿈을 꾼다. <br/><br/>5년간 경과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하는 한별이의 약값과 한 달에 한 번씩 재발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골수검사, 척수검사, 그리고 입원할 때마다 드는 병원비는 현재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른손과 다리에 장애를 가진 아빠는 딸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생활비와 한별이의 의료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공장에 다니던 엄마는 한별이 간호와 통원치료를 위해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br/><br/>한별이네 가족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어디를 가도 집중되는 이목과 이유 없이 떠도는 소문들이다.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진정한 친구와 도움이 필요한 시점. 한별이는 를 통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br/><br/>문미영기자<br/><br/><br/><br/>한국스포츠 문미영기자 mymoon@hksp.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03.txt

제목: "아버지 병원비 마련" 택시 강도짓 대학생에 새 삶 기회  
날짜: 20140414  
기자: 이성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4100000009  
본문: 기초생활수급자인 가정 형편 탓에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할 길이 없자 강도로 돌변했던 대학생이 갱생의 기회를 얻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연에 법원이 선처를 결정한 것이다. <br/><br/>A(22)씨에게 가난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나기 힘든 늪이었다. 2011년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했다가 한 학기 만에 입대한 A씨는 지난해 6월 제대 후에도 복학하지 못한 채 돈을 벌어야 했다. 당뇨, 갑상선 질환, 대상포진 등을 앓고 있던 아버지(55)가 지난해 12월 척추수술까지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2000년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50)도 2005년 암 수술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도움을 요청할 형편이 아니었다. <br/><br/>A씨는 낮에는 신용카드 모집, 전단지 배포, 정수기 영업 등을 하고 밤에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일했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사채를 썼고 대출금은 순식간에 1,500만원까지 불어났다. 궁지에 몰린 A씨는 평생 후회할 길로 들어섰다. <br/><br/>지난 1월 30일 새벽 A씨는 털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김모(38)씨가 모는 택시를 탔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A씨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아파서 그렇습니다"라며 집에서 들고 나온 부엌칼로 김씨를 위협, 15만원을 빼앗았다. <br/><br/>A씨는 이틀 뒤 새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모(43)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같은 수법으로 6만원을 빼앗았다가 유씨가 거세게 달려들자 돈을 택시 와이퍼에 끼워놓고 줄행랑을 쳤다. 다음날 새벽 같은 장소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A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r/><br/>A씨의 어머니는 재판 내내 법정을 찾아와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br/><br/>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지호)는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피해 액수가 경미하고,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저지른 범죄의 기본형량은 징역 5~45년이지만 재판부는 작량 감경(재판부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적용했다.<br/><br/><br/><br/>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04.txt

제목: 서울 베이비부머 위한 교육시설 자치구별로 1곳씩 짓는다  
날짜: 20140414  
기자: 김경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4100000344  
본문: 서울시가 2020년까지 50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교육시설을 25곳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br/><br/>14일 서울시가 발표한 '베이비응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과 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건강지원 등을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전용 교육공간을 25개로 늘린다. 베이비부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50+ 캠퍼스'는 서울의 5대 권역별로 1곳씩 설치된다. 2016년 마포구 산업인력공단 별관동에서 첫 선을 보이고 이듬해 구로구 오류동 천왕2지구 사회시설부지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br/><br/>또 자치구 단위 지역 특화 정보를 제공하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은평구에 이어 5월 종로구에 2센터를 개관하고, 2015년 노원ㆍ영등포구에 추가로 설치하는 등 2020년까지 20곳을 구축할 방침이다. <br/><br/>한편 이들의 직업훈련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 기술교육원 부설 '베이비부머 직업교육센터'를, 장년창업센터 부설로 '베이비부머 창업센터'를 신설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 창업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일자리 연계를 위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엑스포'도 매년 1회씩 개최할 방침이다. <br/><br/>이 밖에도 베이비부머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50+ 캠퍼스 내에 '사회공헌 허브'를 구축하고,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내년부터 만 55세 암 검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검진율을 60%까지 올릴 계획이다. <br/><br/>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63.9%가 노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했다. 평균 은퇴 연령은 52.6세, 현업 중단 이후 대책이 없는 사람은 83.4%였다.<br/><br/><br/>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05.txt

제목: 분당비뇨기과 정관수술, 통증과 정력 문제 안전할까?  
날짜: 20140414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4100000051  
본문: 세계적으로 올바른 피임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흔히 여성들의 월경 주기를 고려한 피임 방법은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권장되지는 않으며, 최근에는 남편들의 정관수술이 확실하면서도 안전한 피임법으로 알려진다. <br/><br/>정관수술은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인 정관을 차단하여 체외로 방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임효과를 얻고자 하는 수술이다. 과거에는 정관을 실로 묶는 방법이 주로 사용됐지만, 근래에 들어 실로 묶은 후 정관을 자르고, 다시 레이저로 지지는 3단계 수술로 발전하면서 수술 성공률을 한층 높이게 됐다.<br/><br/>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막연히 수술에 대한 거부감 또는 통증과 수술 후 정력 감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시술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br/><br/>이에 대해 분당정관수술 비뇨기과 맨유비뇨기과 조성우 원장은 “<span class='quot0'>정관수술에 대한 수술을 고민하는 남성들 중 대부분은 통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거나 수술 후 성기능 약화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수술 통증은 수면유도 후 수술법과 음낭 피부와 정관 부위에 2중 마취방법을 통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며, 수술 후 성기능 약화와는 관계가 없다</span>”라고 강조했다.<br/><br/>우선 수면 유도 후 국소마취 하에 수술을 진행하면 수술에 대한 환자의 부담감은 거의 없다. 요즘 많이 시행되는 무도정관수술은 음낭을 절개하지 않고 작은 구멍만 만들어 수술하기 때문에 실밥 제거나 수술 상처 부위가 작아 회복이 빠르고 더욱 편안한 수술법이기도 하다.<br/><br/>정관수술은 말 그대로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인 정관을 차단하여 피임 효과를 얻기 위한 수술법이기 때문에 고환기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정력과는 무관하다.<br/><br/>고환에서 생성되는 남성호르몬은 고환 혈관으로 배출되므로 정관수술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분비되며, 사정액 또한 정낭, 전립선 에서 만들어지는 액체 성분과 고환에서 만들어지는 정자가 함께 모여 나오는 것으로서, 정낭액과 전립선액은 그대로 분비되므로 사정액의 양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 <br/><br/>다만 이러한 방법은 수면 마취에 대한 많은 경험이 많고, 각종 안전장치가 확보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하므로 수술 병원 선택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br/><br/>분당 비뇨기과 조성우 원장은 “수면마취 시술 외에도 무도정관수술은 절개하지 않고도 정관만을 정확히 찾아내어 외부로 꺼낸 후 수술해야 하므로 수술 난이도가 높고, 수술법 습득에도 많은 시간이 걸려 실제로 무도정관 방법으로 시술하는 병원은 많지 않은 현실”이라며,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 내원하라는 곳은 무도정관수술을 하는 곳이 아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 통증 관리나 수술방법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br/><br/>한편, 분당 맨유비뇨기과는 수면유도 후 정관수술이나 무도정관수술을 포함, 신장, 방광, 전립선, 고환의 암 수술과 같은 중대한 질병 치료에서부터 조루, 발기부전 시술, 음경확대수술과 같은 다양한 남성 성형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br/><br/>대부분의 네트워크 병원에서 시행하는 상담사에 의한 상담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수술경험을 가진 원장이 직접 상담을 시행해, 환자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개인의 체형에 맞는 수술을 선택하며, 우수한 첨단 장비를 이용해 부작용과 통증이 최소화된 진료를 지향한다.<br/><br/>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06.txt

제목: '개인 흡연자 패소' 대법 판결이 부담되지만…  
날짜: 2014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410013999860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 537억원은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소세포암(폐암), 편평세포암(후두암) 환자 중 30년 이상의 흡연기간, 20갑년(1일 1갑씩 20년간 피운 흡연량)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지불한 치료비를 추정한 것이다. <br/><br/><br/><br/>한국소비자연맹, 한국부인회 등은 "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소송"이라며 지지성명을 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이 흡연 피해보상을 청구한 개인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건보공단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시각이 부쩍 커지고 있다. <br/><br/><br/><br/>개인들의 담배 소송과정에서 일부 암은 담배 때문에 발병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했지만 대법원은 '담배의 위험성을 숨긴 담배회사의 과실과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건보공단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흡연을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치부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의 과실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br/><br/><br/><br/>이에 대해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필립모리스와 BAT는 미국 내 소송에서 니코틴 함량조작, 흡연의 해독성에 대해 허위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국내 재판에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KT&G도 개인들이 낸 소송에서는 담배의 유해성을 부인했었지만 (외국 담배회사가 유해성을 시인하면) 적잖은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또한 담배회사 내부고발자의 정보 공개를 기대하고 있다.<br/><br/><br/><br/>건보공단의 소송 제기를 내심 반대해 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소송비용으로 국민의 건보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최소 3억원에서 최대 5억8,000여만원으로 지나치게 큰 금액은 아니다. <br/><br/><br/><br/>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담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없어져야 할 공적(公敵) 1호로 지적한 것으로 이번 소송은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담배소송은) 양심의 문제, 사회정의 차원의 문제"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흡연소송을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승소 가능성보다는 소송의 공익성에 방점을 뒀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금연운동협의회 회장)는 "개인의 책임 문제를 따지는 소송이 아니라 확률로서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면서도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br/><br/><br/><br/>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의 외부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을 선임했다. 남산은 공단 변호사 3명(안선영, 임현정, 전성주)과 함께 소송대리인단을 구성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남산은 지난 10일 대법원이 패소판결한 KT&G와 국가를 상대로 흡연자 30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의 대리인이다.<br/><br/><br/><br/>이왕구기자 fab4@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07.txt

제목: '개인 흡연자 패소' 대법 판결이 부담  
날짜: 20140414  
기자: 이왕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4100000309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5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 547억원은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소세포암(폐암), 편평세포암(후두암) 환자 중 30년 이상의 흡연기간, 20갑년(1일 1갑씩 20년간 피운 흡연량)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지불한 치료비를 추정한 것이다. <br/><br/>한국소비자연맹, 한국부인회 등은 "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소송"이라며 지지성명을 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이 흡연 피해보상을 청구한 개인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건보공단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시각이 부쩍 커지고 있다. <br/><br/>개인들의 담배 소송과정에서 일부 암은 담배 때문에 발병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했지만 대법원은 '담배의 위험성을 숨긴 담배회사의 과실과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건보공단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흡연을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치부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의 과실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br/><br/>이에 대해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필립모리스와 BAT는 미국 내 소송에서 니코틴 함량조작, 흡연의 해독성에 대해 허위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국내 재판에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KT&G도 개인들이 낸 소송에서는 담배의 유해성을 부인했었지만 (외국 담배회사가 유해성을 시인하면) 적잖은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또한 담배회사 내부고발자의 정보 공개를 기대하고 있다.<br/><br/>건보공단의 소송 제기를 내심 반대해 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소송비용으로 국민의 건보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최소 3억원에서 최대 5억8,000여만원으로 지나치게 큰 금액은 아니다. <br/><br/>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담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없어져야 할 공적(公敵) 1호로 지적한 것으로 이번 소송은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담배소송은) 양심의 문제, 사회정의 차원의 문제"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흡연소송을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승소 가능성보다는 소송의 공익성에 방점을 뒀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금연운동협의회 회장)는 "개인의 책임 문제를 따지는 소송이 아니라 확률로서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면서도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br/><br/>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의 외부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을 선임했다. 남산은 공단 변호사 3명(안선영, 임현정, 전성주)과 함께 소송대리인단을 구성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남산은 지난 10일 대법원이 패소판결한 KT&G와 국가를 상대로 흡연자 30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의 대리인이다.<br/><br/><br/><br/>이왕구기자 fab4@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정부, 흡연 경고그림은 반대하면서 담배소송한다고?"<br/>▶ 제조사 위법 입증해야… 사실상 승소 힘들어<br/>▶ "담배소송, 사회갈등·비용만 유발" 비난<br/>▶ “임신 중 음주는 담배·대마초보다 해롭다”<br/>▶ [건보공단 담배소송 강행] 정부는 못마땅<br/>▶ "담배 소송은 정의실현" vs "도움안되는 무모한 행동"<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08.txt

제목: 사용자의 인식을 디자인한다… 애플의 또 다른 천재 '조니'  
날짜: 20140411  
기자: 오미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1100000239  
본문: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디자인 혁명을 넘어 사고ㆍ생활방식 혁명까지 일으킨 애플의 이 제품들은 모두 한 사람의 손을 거쳐 나왔다. 스티브 잡스가 '내 영혼의 파트너'라고 불렀던 애플의 디자인 총괄 수석 부사장 조너선 아이브(47)다. <br/><br/>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지만, 그의 삶은 알려진 게 거의 없다. 영국 출신이고, 1997년 잡스와 의기투합하면서 둘이 함께 애플 신화를 썼다는 게 고작이다. 대외적으로 나서지 않는 내성적 성격과 애플의 철저한 비밀주의에 가려진 탓이다.<br/><br/>그의 삶과 경력, 디자인 철학을 자세히 밝힌 것은 '위대한 디자인 기업 애플을 만든 또 한 명의 천재'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 가 유일하다.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닷컴의 뉴스 편집자였고, 현재 애플 관련 최고의 인기 블로그인 컬트오브맥닷컴을 운영하는 리앤더 카니가 애플의 전ㆍ현직 직원을 중심으로 약 200명을 취재해 썼다. 원서는 지난해 나왔다. <br/><br/>아이브는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다.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일해 왔는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려 보인다. 상냥한 말씨의 영국 신사라는 이미지 뒤로 일에는 철저하고 집요한 전문가, 뛰어난 리더로서 그의 초상화가 보인다. 디자이너이자 영국 디자인 교육정책가였던 아버지의 영향, 디자이너로서 정체성을 심어준 뉴캐슬 과학기술대의 교육, 로버츠 위버 그룹과 탠저린 등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 등 애플 입사 전의 잘 알려지지 않은 면모도 전달한다.<br/><br/>이런 전기적 사실보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디자인 철학이다. "물건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디자인한다"는 게 핵심이다. 애플 제품이 디자인 혁명을 넘어 우리 삶에 근본적 혁신을 일으킨 비결이 여기에 있다. 이음매나 나사못 하나 보이지 않는 애플 제품의 지독한 미니멀리즘은 군더더기 없이 본질만 남을 때까지 줄이고 줄인 끝에 나온다. 그의 궁극 목표는 디자인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디자이너가 내 면전에 대고 자신의 꼬리를 흔들고 있는 것 같은 제품을 접하면 정말 짜증난다"며 "우리 목표는 단순한 제품"이라고 말한다. <br/><br/>잡스는 2011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이브는 애플에 남았다. 현 CEO 팀 쿡조차 그를 위해 일한다고 할 만큼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스티브 잡스의 진정한 후계자" "조니(조너선의 애칭)가 애플을 떠난다면 잡스 사망보다 더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평가는 과언이 아니다. 잡스 없는 애플은 어디로 갈까. 애플 최고의 혁신가 아이브를 소개한 이 책에서 그 실마리를 구할 수 있다.<br/><br/><br/><br/>오미환 선임기자 mhoh@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09.txt

제목: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강 ‘짜따룸강의 비참한 현실’  
날짜: 20140411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1100000167  
본문: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반둥을 가로질러 흐르는 찌따룸강은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강(川) 중의 하나다. 11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인도네시아 사람 3,500만명이 여전히 식수와 생활용수로 의존하고 있는 찌따룸강이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강이라고 전했다. <br/><br/>찌따룸강의 길이는 약 269㎞이며 인도네시아 수도지역인 자카르타의 1,500만명의 식수와 반둥지역의 농업용수와 약 1,000만명의 식수로 사용된다. 또한 강 유역에는 약 500만명이 강에 의지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살고 있다. <br/><br/>이 강은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멱도 감고 물고기도 살 정도로 깨끗했다. 하지만 공장의 폐수와 생활쓰레기, 그리고 죽은 동물의 사체로 오염되어 지금은 물고기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됐다. 강 유역의 2,000개가 넘는 공장에서는 불법으로 납, 수은, 비소 및 기타독소를 강에 내버리고 있으며, 5,020㎢를 오염시키고 있다. <br/><br/>그린피스는 보고서에서 “<span class='quot0'>독성화학물질로 물고기의 60% 이상이 폐사했다</span>”라며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유역의 섬유제조업체들은 갭, H&M, 아디다스 등과 비즈니스 계약으로 독성화학물질을 강으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br/><br/>강 유역에 사는 한 주민은 “더 이상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됐다”라며 “난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 결과를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br/><br/>주민들은 섬유공장에서 불법으로 화학물질을 강으로 흘려보내고 있으며, 인근마을의 우물은 수은이 권장 기준치보다 4배가량 높다고 밝혔다. <br/><br/>주민들은 이런 화학물질로 인해 암 발생 비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피부질환, 정신질환, 및 어린 아이들의 성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br/><br/>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자 지역 주민들은 강물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주워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br/> <br/><br/>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10.txt

제목: 고신대복음병원 심혈관센터 부정맥 수술 2000례 돌파  
날짜: 20140411  
기자: 김창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1100000141  
본문: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이상욱)심혈관센터는 개소 5년만에 부산지역에서는 최초로 부정맥 수술 2,000례를 돌파 했다고 11일 밝혔다. <br/><br/>심혈관센터에서 담당하는 질환은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을 비롯 고혈압· 심부전증· 부정맥· 심장판막질환· 동맥경화에 의한 혈관질환· 고지혈증 등 심장과 혈관에 발생하는 모든 병들이다. 이곳에서는 외래 진료시 접수 당일에 진찰과 검사, 결과 확인 등이 이뤄지는 원스톱(One-stop)체계를 갖추고 급성기질환의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하고 있다. <br/><br/>뇌·심혈관 계통 질환은 한국에서 암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사망원인 질환으로 식생활의 서구화로 허혈성 심장 질환의 사망률은 지난 3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br/><br/>심혈관센터 차태준 교수팀은 현재까지 부정맥 시술과 심방세동 원인 병소 절제시술을 2000례 이상 시행해 95%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br/><br/>특히 차 교수팀의 허정호 교수는 중풍과 심부전을 악화시키는 심방세동의 중요발생 원인이 심방의 '아세틸콜린 이온 전류'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해 대한순환기학회 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br/><br/><br/><br/>김창배기자 kimcb@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11.txt

제목: 그녀의 열정이 점잖은 환경운동을 투쟁으로 바꿨다  
날짜: 20140411  
기자: 유상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1100000229  
본문: 1948년 스위스 화학자 파울 헤르만 뮐러는 쓸모 없던 합성 화합물에서 획기적인 살충 효과를 발견,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했다는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이후 10여년 이 합성 화합물은 대량으로 생산돼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메틸메탄, 흔히 DDT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20세기 중반은 DDT뿐 아니라 각종 화학물질이 인류에게 다가온 복음인 양 인식되고 소비된 시대다. 1962년 봄 생물학을 전공한 조용한 성격의 작가가 을 발표하면서, 그 흐름은 극적인 반전을 맞게 된다.<br/><br/>당시에도 환경과 생태 보호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낭만적 성격의 이상주의에 가까웠다. 하지만 은 DDT가 동물에게 끼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관찰, 그것이 핵실험으로 말미암은 방사능 낙진의 영향과 비슷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대중은 경악했다. 이후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의식은 점잖은 보존주의에서 시급하고 논쟁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주의로 변화하게 된다.<br/><br/>을 쓴 사람은 레이첼 카슨이라는 이름의 50대 여성 작가였다. 를 포함한 세 권의 책을 써 내 나름의 팬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적은 없었다.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기 전 17년 간 정부 기관에서 일한 공무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발간 이후 그는 격렬한 논쟁의 중심이 됐다. 거대 기업의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바라지 않았던 바였을지 몰라도, 투사가 됐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를 '환경운동의 어머니'로 기억한다.<br/><br/>이 책은 발간 50주년을 기념해 2012년 윌리엄 사우더가 펴낸 평전이다. 카슨의 평전이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것은 아니다. 린다 리어가 1997년 쓴 책이 2004년 (원제 'Rachel Carson: Witness for Nature')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나왔다. 카슨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한 밀도 있는 전기다. 방대한 분량의 페이지 속에 카슨의 삶을 촘촘하게 재구성했다. 이 책 (원제 'On a Father Shore: The Life and Legacy of Rachel Carson')도 평전의 성격이다. 하지만 시간 흐름에 따른 서술 방식에선 벗어나 있다. <br/><br/>지은이는 카슨의 생각과 작품세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몇몇 인물과 사건, 책에 집중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카슨의 작품으로 열매 맺혔는지 과정을 추적한다. 카슨의 총체적 삶을 느끼고 싶다면 리어의 평전을, 카슨의 머릿속의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다면 사우더의 평전을 펴는 게 좋을 것이다.<br/><br/>꼼꼼한 조사를 통해 축적한 자료를 격조 있는 문장으로 써낸 이 책이 그려내는 카슨이라는 인물의 윤곽은 이렇다. 본래 매우 수줍은 성격이지만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 그에게 환호하는 대중보다는 자연세계 속에 머물 때 한결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지은이는 카슨이 벗과 나눈 낭만적 우정, 암으로 죽어가는 과정도 섬세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수필가의 섬세함을 지닌 과학자,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혁명적이었던 20세기의 개혁가, 누구보다 인간과 자연을 사랑한 한 인간의 얼굴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br/><br/>유상호기자 shy@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12.txt

제목: [위클리 트윗] 4월 4일~4월 10일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0100000321  
본문: ‏@DrMyung <br/><br/>역학분야에서 가장 확실하게 밝혀진 인과관계 중의 하나가 흡연과 폐암인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폐암 사망자 유족 등이 국가와 담배회사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확정했다. 의학 교양을 쌓고 양심을 가져라.<br/><br/>‏@andyyyyoh<br/><br/>재판부의 입장은 담배와 암이 무관하다는 게 아니고, 흡연이 암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으나, 담배를 '제조한 행위' 자체는 암 발병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네가 사서 피워놓고 왜 돈 달라 그러느냐?" 이런 것이다.<br/><br/>@ActualEntities<br/><br/>우리는 누구나 계부나 계모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은 특별한 형태의 가족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보편적 가족관계이다. 아동학대는 생부모여서 계부모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해 발생한 국가적인 문제다.<br/><br/>‏@debatetor<br/><br/>출산율이 높아져야 돈을 버는 분유 제조회사에서조차 임신하면 퇴사를 강요당하는 곳,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br/><br/>‏@tinyapl\_<br/><br/>북한은 평소엔 돈이 없어서 다 굶어 죽을 미개한 나라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선거철만 되면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진보해 무인기로 핵을 터뜨리는 과학선진국이 된다<br/><br/><br/>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13.txt

제목: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생명 경시 판결" 비판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0100000158  
본문: 15년의 길고 긴 '담배 소송'이 흡연자의 패소로 끝이 났다. 대법원은 10일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와 KT&G의 손을 들어줬다. <br/><br/>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담배소송은 15년 만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br/><br/>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흡연자측은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국가와 담배회사의 눈치를 보는 판결이자 정책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앞으로 소송은 계속 할 것이며 담배 피해에 대한 사법적·입법적인 입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r/><br/>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1950년대 미국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후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폭넓고 적극적으로 흡연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br/><br/>미국도 담배소송이 제기된 초반에는 담배회사의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 담배회사가 오래전부터 암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은폐하고 오히려 흡연자들을 깊이 중독 시키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담배회사가 흡연 피해자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결론이 잇따라 나왔다.<br/><br/>미국을 제외한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은 아직 흡연자에게 책임을 묻는 추세다. <br/><br/>네티즌들은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이제 시작이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실망이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잘 모르겠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왜 인과관계가 없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14.txt

제목: 건보공단 소송도 '뿌연 연기'  
날짜: 20140410  
기자: 송옥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0100000395  
본문: 국내 첫 담배소송이 10일 대법원에서 원고패소로 확정되면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도 먹구름을 드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담배 설계(제조)상의 결함 등 '담배회사의 위법성'과 '흡연과 암 발생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서도 똑같이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br/><br/>하지만 건보공단은 "개인이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위법성 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세계적으로도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전례가 없다"며 "공단의 담배소송 양상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br/><br/>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담배회사의 위법성 입증은 쉽진 않겠지만 조직을 갖춘 공단이 나서고 국내외 전문가, 세계보건기구(WHO)와도 협조할 예정인 만큼 법정에서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다. <br/><br/>또 건보공단은 항소심에서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소세포암(폐암)·편평세포암(후두암)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비소세포암(폐암)·세기관지 폐포세포암(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br/><br/>건보공단은 한국인암예방연구(KCPS) 자료를 활용해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환자 중 30년 이상의 흡연기간, 20갑년(1일 1갑씩 20년을 피운 흡연량)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을 가려 소송 규모를 537억원으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한국인암예방연구(KCPS)는 교직원, 공무원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어 흡연과 질병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건보공단은 11일 소송 대리인 모집을 마감하고 이르면 14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br/><br/>송옥진기자 click@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담배소송, 사회갈등·비용만 유발" 담배협회 비난<br/>▶ “임신 중 음주는 담배·대마초보다 해롭다”<br/>▶ 건보공단 담배소송 강행에 정부는 못마땅<br/>▶ "담배 소송은 정의실현" vs "도움안되는 무모한 행동"<br/>▶ 본격화되는 담배 소송, 국내외 사례는<br/>▶ 건보 최대 3천억 흡연소송… 담배사 책임입증 난관<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15.txt

제목: 15년 끌었던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날짜: 20140410  
기자: 김청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0100000347  
본문: 폐암에 걸린 흡연자들이 1999년 담배 제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지 15년 만에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일부 폐암이 흡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을 뿐 대법원에서 담배 제조의 결함이나 위해성 정보 은폐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1,2심과 같다. <br/><br/>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흡연 피해자 7명과 그 가족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r/><br/>재판부는 "흡연과 비특이성(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인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비소세포암의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단적으로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하는 경향이 확인되지만 개별 환자에 대해서는 흡연만이 폐암의 원인인지 단정짓기 어렵다는 뜻이다. <br/><br/>항소심에서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원고 4명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는데 이는 상고심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대법원 판결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2심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폐암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br/><br/>또 "니코틴을 제거하면 흡연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채용하지 않은 것을 담배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r/><br/>재판부는 "성분분석이나 동물실험 또는 외국의 문헌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모두 공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뱃갑에 경고문을 표시했으며, 흡연이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인식돼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이전부터 소비돼 온 담배와 다른 특별한 위해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br/><br/><br/><br/>김청환기자 chk@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16.txt

제목: 발병 연관성 스스로 밝혀야… 사실상 승소 불가능  
날짜: 20140410  
기자: 김청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0100000345  
본문: 대법원은 담배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두 가지 큰 벽을 제시했다. 흡연자 개개인이 담배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담배의 위험성 등을 숨긴 담배회사의 과실과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위법을 입증할 담배회사의 내부자료 등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br/><br/>우선 대법원은 흡연자 원고 2명의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환자는 의학적으로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비소세포암 등에 걸렸다. 1심 재판부는 6명 원고 전원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이중 흡연과 연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소세포암 등에 걸린 4명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4명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 주목됐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어느 쪽도 문제를 삼지 않은 쟁점이면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게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했다. 4명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이긴 쟁점이라 상고이유에서 뺐고, KT&G 등은 아예 상고를 하지 않았다. <br/><br/>대법원은 특히 KT&G의 담배 제조ㆍ설계ㆍ표시 등에서 손해배상을 할 만큼 위법성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흡연으로 인한 담배소비자의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흡연자가 니코틴 등의 약리효과를 노려 흡연하는 만큼 니코틴이나 타르가 들어가지 않은 담배 제조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계상 결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br/><br/>담배 표시상의 결함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962년에 영국왕립의학회가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신문 등을 통해 담배가 폐암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며 사망률을 높인다는 점이 보도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1975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국가가 1976년부터 담뱃갑 앞면에 '건강을 위해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등의 경고문구를 넣도록 한 점도 참작했다.<br/><br/>담배의 안전상 결함은 담배가 기호품인데다, 담배 외에도 발암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많다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배(연기)에 발암물질이 존재한다거나 이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의존증(중독)이 유발될 수 있지만,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가공 식품이나 권련에도 발암물질이 존재하는데 담배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br/><br/>또 원고측은 "KT&G가 중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담배연기의 pH농도(수소이온농도)를 조작하기 위해 암모늄 화합물을 비롯한 유해한 첨가제를 사용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대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br/><br/>국가가 흡연을 권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잎담배 경작농민들을 위해 외국산보다 국산을 애용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br/><br/>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1953년 미국에서 처음 제기됐으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유사소송이 잇따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년 담배제조사인 필립모리스에 7,95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했지만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법원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br/><br/><br/>김청환기자 chk@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담배소송, 사회갈등·비용만 유발" 비난<br/>▶ “임신 중 음주는 담배·대마초보다 해롭다”<br/>▶ 건보공단 담배소송 강행에 정부는 못마땅<br/>▶ "담배 소송은 정의실현" vs "도움안되는 무모한 행동"<br/>▶ 본격화되는 담배 소송, 국내외 사례는<br/>▶ 건보 최대 3천억 흡연소송… 담배사 책임입증 난관<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17.txt

제목: 제조사 위법 입증해야… 사실상 승소 힘들어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1010013974733  
본문: 대법원은 담배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두 가지 큰 벽을 제시했다. 흡연자 개개인이 담배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담배의 위험성 등을 숨긴 담배회사의 과실과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위법을 입증할 담배회사의 내부자료 등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br/><br/><br/><br/>우선 대법원은 흡연자 원고 3명의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환자는 의학적으로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비소세포암 등에 걸렸다. 1심 재판부는 7명 원고 전원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이중 흡연과 연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소세포암 등에 걸린 4명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4명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 주목됐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어느 쪽도 문제를 삼지 않은 쟁점이면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게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했다. 4명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이긴 쟁점이라 상고이유에서 뺐고, KT&G 등은 아예 상고를 하지 않았다. <br/><br/><br/><br/>대법원은 특히 KT&G의 담배 제조ㆍ설계ㆍ표시 등에서 손해배상을 할 만큼 위법성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흡연으로 인한 담배소비자의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흡연자가 니코틴 등의 약리효과를 노려 흡연하는 만큼 니코틴이나 타르가 들어가지 않은 담배 제조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계상 결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br/><br/><br/><br/>담배 표시상의 결함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962년에 영국왕립의학회가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신문 등을 통해 담배가 폐암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며 사망률을 높인다는 점이 보도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1975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국가가 1976년부터 담뱃갑 앞면에 '건강을 위해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등의 경고문구를 넣도록 한 점도 참작했다.<br/><br/><br/><br/>담배의 안전상 결함은 담배가 기호품인데다, 담배 외에도 발암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많다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배(연기)에 발암물질이 존재한다거나 이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의존증(중독)이 유발될 수 있지만,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가공 식품이나 궐련에도 발암물질이 존재하는데 담배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br/><br/><br/><br/>또 원고측은 "KT&G가 중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담배연기의 pH농도(수소이온농도)를 조작하기 위해 암모늄 화합물을 비롯한 유해한 첨가제를 사용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대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br/><br/><br/><br/>국가가 흡연을 권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잎담배 경작농민들을 위해 외국산보다 국산을 애용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br/><br/><br/><br/>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1953년 미국에서 처음 제기됐으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유사소송이 잇따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년 담배제조사인 필립모리스에 7,95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했지만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법원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br/><br/><br/><br/>김청환기자 chk@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18.txt

제목: [건강] 중앙대병원, 17일 ‘폐암 건강강좌’ 개최  
날짜: 20140407  
기자: 정용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07100000199  
본문: 중앙대병원이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병원 중앙관 4층 강의실에서 ‘폐암, 알고 싶어요!’란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br/><br/>폐암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암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다. 대부분의 폐암 환자들은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에 발견이 늦어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br/><br/>중앙대병원 종양협진클리닉에서는 폐암에 대해 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이 분야 전문 교수들이 최신 치료법과 협진에 의한 치료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br/><br/>이번 강좌는 ▲폐암의 초기 증상과 내과적 진단(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신종욱 교수) ▲폐암의 수술치료(흉부외과 최주원 교수) ▲방사선치료(방사선종양학과 최진화 교수) ▲항암화학요법(혈액종양내과 장정순 교수)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사전 접수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중앙대병원 대외협력팀 (02)6299-2219<br/><br/>정용운기자<br/><br/><br/><br/>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19.txt

제목: [의학] 이대여성암병원, 19일 ‘여성암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40407  
기자: 정용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07100000195  
본문: 이대여성암병원이 개원 5주년을 기념해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오는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7시까지 개원의를 대상으로 여성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br/><br/>우재희 마취통증의학과 임상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먼저 김승철 부인종양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여성암정복 특성화연구센터 개요 및 업적 소개’를 시작으로 ▲갑상선암 검사를 둘러싼 논란(전혜진 건강증진센터 교수) ▲건강검진에서 PET의 역할(김범산 핵의학과 교수) ▲초음파유도하 중심부 생검(정진 영상의학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br/><br/>이어 문병인 유방암ㆍ갑상선암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암환자의 통증관리(임우성 유방암ㆍ갑상선암센터 교수) ▲물방울 유방재건술(서현석 성형외과 교수)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스트레스 관리(임원정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진다. 아울러 정종일 포미즈 여성병원장이 ‘지역사회에서 이대여성암병원의 역할’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다.<br/><br/>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의 사전등록은 오는 16일까지이다. 참가하는 개원의들에게는 연수평점 4점이 부여된다. 이대여성암병원 (02)2650-2801<br/><br/>정용운기자<br/><br/><br/><br/>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20.txt

제목: [창간 60주년 기획] 지상대토론 갈등 넘어 통합으로 <3> 역사갈등과 실천적 해법  
날짜: 20140406  
기자: 김현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06100000123  
본문: 교학사 역사교과서 어떻게 봐야 하나허 "관점 다른 교과서의 등장이 검인정制 장점"박 "뉴라이트 개입… 교육의 정치 중립성 침해"'식민지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허 "수탈과 저항만으론 설명하기에는 문제 있다"박 "식민지근대화론은 수탈을 사실상 부인한 것"역사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허 "현대사에 다른 학문분야 연구 성과도 담아야"박 "학자 전문성 인정… 교육부 흔들리지 말아야"검인정 제도 어떻게 보나허 "세계 보편의 기준에서 검인정제도가 맞아"박 "자유발행제가 이상적이나 아직 시기상조<br/><br/>지난해 대한민국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국가였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불거진 정치권의 이념 분쟁은 교학사 역사교과서 파동에 이르러 급기야 역사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정치와 이념, 역사인식이 철저히 둘로 나눠졌다. 보수와 진보 진영은 역사마저 이념의 잣대에서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면서 공통의 역사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이성과 객관을 유지해야 할 학계까지 양편으로 갈려 통합은 요원한 듯이 보였다. <br/><br/>창간 60주년을 맞은 한국일보가 지상대토론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의 세 번째 주제로 '역사갈등과 실천적 해법'을 제시한 것은 이런 분열상을 극복하고 역사에 대한 공통인식을 확인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역사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에는 보수적 역사학자인 허동현 경희대 교수와 진보 사학자인 박찬승 한양대 교수가 참여했다. 좌담은 1일 한국일보사에서 김호기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br/><br/>역사교과서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br/><br/>김호기(사회자)= 역사논쟁이 최근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궈왔다. 보수 학계는 기존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제기하고, 진보 학계는 보수의 문제제기를 역사 왜곡과 학문의 정치화라고 반비판하고 있다. 교학사가 펴낸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봐야 하나.<br/><br/>박찬승= 2005년 뉴라이트라는 정치세력이 교과서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특히 2000년대 이후 새로 등장한 라는 검인정된 교과서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진 부분은 이승만·박정희 시대에 관한 서술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직접 역사교과서를 만들고자 했고, 이번에 나온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헌법 제3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뉴라이트가 역사교과서 문제에 본격 개입한 것은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움직임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영향력에 휘둘렸다. <br/><br/>허동현= 교과서 문제는 사실 국민통합과 관련 있는 문제다. 정치세력이 학문적인 부분을 담아야 될 교과서를 공격했다기보다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경제적 토대를 닦아서 민주화를 이룬 것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민족을 주어로 역사를 서술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주어로 역사를 서술할 것인가의 차이다. 또다른 문제는 현대사 연구를 먼저 시작한 정치사, 외교사, 경제사 등 사회과학 연구자들과 한국사학계 사이의 시각 차이다. 학문의 정치화라는 면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쪽에서 먼저 정치화를 시작했다.<br/><br/>사회자= 교학사 교과서는 기존 역사학계의 통념을 벗어난 주장을 확인 없이 담았다는 문제가 있다.<br/><br/>허동현= 교과서 특히 한국사교과서는 준거안 외에도 내용서술지침(집필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실 8종 교과서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지침을 벗어나면 검정통과가 안 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사진설명이나 표현은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 기간이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짧았던 것이 주된 원인이다. 서술의 오류를 침소봉대한 면도 있다. 검인정제도의 장점은 다른 관점의 교과서가 등장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자신의 관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진입 자체를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다. 검인정 제도의 취지가 시장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라면 이런 압박은 자가당착이다. 역사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검인정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br/><br/>박찬승= 교학사판 교과서는 역사관과 사실 서술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문명화, 근대화라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근현대사를 서술하려고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역사를 서술할 때에는 문명화와 근대화라는 기준 외에도 인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민족의 평화통일과 같은 가치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 교과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이나 6ㆍ15남북공동선언 등을 소홀히 다루고 있었다. 역사적 사실의 서술에도 너무 오류가 많았다. 검정위원회에서 460여 개의 오류를 잡아냈고, 학술 단체 등이 지적한 오류까지 朗玖？약 700여개 가까운 오류가 확인됐다. 비교육적인 내용도 많았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같은 경우, 일본이 명성황후 시신을 잔혹하게 처리한 사실을 자세하게 서술하는 등 비교육적인 내용이 있었다. 전교조 교사는 전국의 교사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교학사 교과서는 급하게 집필된 것 같고, 집필자들의 능력도 부족했다고 본다. <br/><br/>식민지시대, 어떻게 봐야 하나<br/><br/>사회자= 현대사 해석이 역사논쟁의 중심을 이룬다. 식민지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그 대표적 이슈 중 하나다. 식민지 경험에 내재한 '근대화'를 먼저 주목해야 하나, 아니면 '수탈'을 위한 경제에 불과했나. <br/><br/>허동현= 식민지의 근대화가 올바른 근대화였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일제 36년간을 '수탈'과 '저항'만으로는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수탈과 개발이 병행했다는 시각도 있고 현재 교과서에도 이는 일정 정도 반영된 것 같다.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이해할 때 광복 이후 국사학계가 '일제의 수탈에 맞서서 우리가 얼마나 활발히 독립운동을 전개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경제사학계의 '식민지근대화론'은 수탈과 저항의 이분법에 대한 반론일 수 있다. 이런 논쟁의 결과 식민지 시대에 대한 인식은 서로 보완돼 가고 있다. <br/><br/>박찬승= 식민지시대에 제도적 또는 물질적으로 근대화가 이뤄졌다고 보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의 요체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식민지시대의 수탈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 같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수탈은 없었다고 확인됐고, 교과에서도 더 이상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토지의 수탈이 있었다고 쓰진 않는다. 그러나 산미증식계획을 통한 쌀의 수탈은 여전히 있었다고 봐야 한다. 1910년대에는 매년 220만석 정도의 쌀이 국내에서 일본으로 실려갔지만 30년대 후반에는 매년 980만석이 실려갔다. 당시 지주들은 소작농에게 5~7할 정도의 소작료를 거둬 시장에 내놓았다. 소작농들은 소작료를 3~4할 정도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총독부 경찰이 직접 개입해서 소작농들을 탄압했다. 지주들이 더 많은 소작료를 거두어 시장에 내놓게 함으로써, 일본으로 더 많은 쌀을 실어갈 수 있게 했던 것이다. <br/><br/>사회자= 친일파 청산도 프랑스 등의 국가와 비교할 때 미흡한 것 아닌가.<br/><br/>박찬승= 친일파라는 표현보다는 '부일협력세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해방직후에도 여러 공적인 기관에서는 '친일파' 대신 '부일협력세력'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들은 식민지시기에 민족공동체를 배반하고 자기 일신의 부귀영달을 꾀한 세력이었기에 해방 직후 청산됐어야 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그 결과 부일협력세력에 대한 처벌은 좌절됐다. 특히 지식인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했지만 거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식인들 스스로도 자기반성 보다는 자기변명에 급급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없었던 것은 결국 한국사회에 정의·도덕·양심과 같은 것보다 돈·권력·출세가 더 중요하다는 풍조를 낳게 했다.<br/><br/>허동현= 과연 우파 민족주의자들만 일제에 협력했을까? 일제 침탈의 앞잡이였던 면서기와 순사들은 현재 기준에서 친일파로 단죄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 백성들은 일제 치하에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게 살기만 했을까 하는 점도 되새겨 보아야 한다. 특히 지식인의 경우 좌우를 떠나 같은 잣대로 심판해야 하는데 사회주의자들의 부역행위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 중 또 다른 하나가 북한에서는 친일 청산이 완벽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승만 초대 내각은 대부분 독립 운동을 한 사람이었던 데 반해 북한의 내각은 만주국에 협력했던 사람, 일본의 가미가제 출신 등 오히려 부일세력이 더 많았다. 북한에서 친일파 청산은 다름 아닌 부르주아의 숙청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br/><br/>이승만시대와 박정희시대의 명암<br/><br/>사회자= 역사논쟁에서 가장 치열한 대목이 현대사다. 특히 이념적 시각에 따라 이승만시대와 박정희시대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르다.<br/><br/>박찬승=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전쟁의 조짐이 많았음에도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고, 전쟁 발발 후 국민들에게는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혼자서 대전까지 급히 피난을 가는 등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헌법을 고쳐 장기집권을 도모했고, 3ㆍ15부정선거로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를 파괴했다. 12년간의 집권기간 중에 잘한 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공보다는 과가 훨씬 큰 인물이었다. 일부에선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서 추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 건국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헌신한 노력의 결과이지 특정한 개인의 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br/><br/>허동현= 이승만이 지킨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적색 전체주의로 중국이 翩位？품？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 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공헌자가 이승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 과정에서 문민독재가 범한 과오들을 변호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냈다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이라고 보는 것이다.<br/><br/>사회자= 박정희 시대의 경우 60년대와 70년대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 60년대는 그래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뤄졌지만 유신체제는 명백한 독재 아닌가.<br/><br/>허동현= 긴급조치 등 헌법적 자유나 인권을 제한한 유신시대를 왜 사람들이 감수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북한 때문이다. 북한이라는 더 큰 위협을 경험한 분들이기에 인권 제약을 작은 위협으로 봤던 거 같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워낙 컸기에 그럴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br/><br/>박찬승= 유신체제 시기에 만들어진 여러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가 이후에도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지금도 남아있다. 그만큼 유신체제는 정치적 측면에서 부정적 유산을 많이 남겼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도경제성장을 이뤘던 시기였고 식량자급을 이루었다는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그 주체를 재벌로 설정해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만들었다. 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에는 소홀하였고, 그 결과 중산층이 튼튼하게 자리잡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점에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에서도 긍정, 부정적 측면을 모두 보아야 한다. <br/><br/>역사갈등의 실천적 해법 <br/><br/>사회자= 어느 사회이건 역사 해석을 어느 한 집단이 독점할 수는 없다. 역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역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점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의 토론과 합의가 중요한데, 역사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br/><br/>박찬승= 우리 헌법 제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고, 제3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역사 교과서를 서술하는 문제만큼은 학자들과 교사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문제 중의 하나가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학자들도 정치성을 띠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정치인의 경우에도 '역사전쟁'운운하면서 학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학자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학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교육부는 정치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br/><br/>허동현= 하지만 '전문가나 학자의 견해를 존중하라'는 말과 '역사해석은 한 집단이 독점할 수 없다'는 입장은 상충된다. 현대사 분야는 사회과학계나 정치 외교사학계의 연구가 더 많다. 따라서 현대사 영역을 역사학자들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정치사학계의 연구 성과든 서양사학계의 연구 성과든 열린 토론을 거쳐 교과서 서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쪽만 옳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게 된다. 국민통합의 실질적 해법 중 하나로 건국의 아버지가 아닌 '건국의 아버지들'을 상정해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을 같이 기리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br/><br/>사회자=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인정 제도는 어떻게 봐야 하나. 또 국가는 역사교과서 편찬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나. 국가가 역사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br/><br/>허동현= 세계 보편의 기준에서 검인정이 맞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현대사 서술에 있어서는 다른 학문분야의 연구 성과도 담길 수 있게끔 검인정 제도나 준거안, 서술지침 등을 만들 때 한국사학계만이 아닌 타 분야 학자들도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 안에서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는다면 불필요한 역사 정쟁과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br/><br/>박찬승= 역사연구나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자유발행제가 이상적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현재로서는 검인정제도가 불가피하다. 정부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집필지침을 만들어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하고, 검정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서 교과서 검정을 충실하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만 검정위원들의 수를 더 보강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br/><br/>사회자= 역사 논쟁의 또 다른 주역인 정치권과 언론도 책임이 있지 않나.<br/><br/>박찬승= 정치인이나 언론이 '역사전쟁'이라는 선정적인 이름을 붙여 보수와 진보간 갈등을 역사 문제로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와 언론은 역사인식의 공유의 폭을 넓혀 역사갈등을 줄여갈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주면 좋겠다.<br/><br/>허동현= 정치는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본령인？역사문제의 경우 사회적 충돌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기능하고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다른 진영의 이야기도 충분히 전달하면서 해당언론이 지향하는 가치를 덧붙이는 통합자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br/><br/><br/><br/>정리=김현빈기자 hkkim@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21.txt

제목: 갓난딸과 함께한 한달 보름 엄마는 더 없이 행복했다  
날짜: 20140404  
기자: 이태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04100000256  
본문: 지난달 20일 미국 뉴욕에 사는 맥스웰 조이스는 부인 엘리자베스 조이스와 아기 릴리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사진 밑에는 '충분하지 못한 시간'이란 설명이 붙었다. 이 짧은 설명 뒤에는 미국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사연이 있었다. <br/><br/> 릴리의 엄마 엘리자베스는 지난달 9일 36세의 길지 않은 생을 마감했다. 그에게 어둠이 찾아온 건 4년 전 희귀암인 육종암이 발견되면서였다. 화학요법과 수술치료를 수 차례 받아야 했던 암환자 엘리자베스에게 지난해 봄 기적 같은 임신이 찾아왔다. 부부는 기뻐했지만 한편으로 약해진 엘리자베스의 몸 상태가 걱정이었다. 그 해 여름 여기에 절망이 더해졌다. 완치된 줄 알았던 암이 재발한 것이다. 의료진은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해 임신중절 수술을 권하고, 그렇지 않으면 온몸에 암이 퍼져 목숨이 위태롭다고 했다. <br/><br/>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에게 아기를 갖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내가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나중에 다시는 원하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면 나는 더 큰 좌절을 하게 될 거예요." 남편 맥스웰은 엘리자베스가 딸 릴리를 낳기로 했을 때 남긴 말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맥스웰은 "우리 부부는 이런 선택이 최악이자 최선이란 점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엘리자베스는 암 전이를 알아보기 위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나, 치명적으로 변한 암의 성장을 막기 위한 치료를 거부했다. 뱃속의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br/><br/> 결국 암세포는 폐 등 온몸으로 전이됐다. 의료진은 출산 예정일이 6주나 남아 있던 1월23일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 딸 릴리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예상했던 대로 엘리자베스의 상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였다. 딸의 모습을 보면서 사투를 벌이는 엘리자베스를 암세포가 갉아 들어갔다. 영면하기까지 그가 아기와 함께 한 시간은 불과 한 달 보름. 너무도 '충분하지 못한 시간'이었지만 엘리자베스의 인생에서 더 없이 행복한 순간이기도 했다. <br/><br/> 온라인에는 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엘리자베스의 모성애와 용기에 감동한 네티즌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자신이 엘리자베스와 같은 처지라면 역시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란 글도 있다. 온라인 기금모금 사이트 유케어링에 올라온 글은 이렇게 끝맺는다. "엘리자베스여, 딸은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영면하세요."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진다.<br/><br/><br/><br/>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덜컥 임신후… 여대생 김양의 안타까운 상황<br/>▶ 결혼 안한 처녀, 원치 않은 임신했다 그만…<br/>▶ 신생아실서 충격적인 장면 목격한 산모<br/>▶ 임신 시도 유부녀들에 나타난 이상한 현상<br/>▶ '도가니' 피해여성, 사투끝에 출산했지만 …<br/>▶ [경단녀에게도 기회를] 개인의 좌절, 국가의 손실<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22.txt

제목: 임신중 암에 걸렸다면?… 미국인 한 엄마의 살신성인  
날짜: 20140404  
기자: 손효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04100000263  
본문: '모정(母情)의 힘'은 강했다.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미국인 한 엄마의 '무한 사랑'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낳고 있다.<br/><br/>엘리자베스 조이스(36)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통보를 받은 암 환자였다. 항암치료가 그녀를 불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녀가 꿈에 그리던 아이를 기적적으로 갖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 무렵. <br/><br/>하지만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임신 한 달 만에 허리에 암이 재발하고 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종양은 쉽게 제거했지만 그다음이 문제였다. 수술 후 암의 전이 여부를 판별하려면 전신 스캔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다. <br/><br/>생사의 갈림길에서 번민하던 조이스의 선택은 아이의 생명이었다. 결국, 그는 암 치료를 중단했다.<br/><br/>임신 3개월째가 되자 조이스는 암이 퍼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곧 폐에도 종양이 생겨 숨쉬기조차 힘겨웠지만 그래도 생명은 포기할 수 없었다.<br/><br/>고통 속에서 아기를 지키려고 분투하던 조이스는 출산 예정일을 두 달 앞두고 인공분만으로 딸 릴리를 낳았다.<br/><br/>암이 심장과 뼈에 전이돼 더는 손 쓸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아이를 보는 즐거움은 병상의 고통을 잊게 했다.<br/><br/>출산 6주 후 조이스는 딸 아이를 안은 남편의 곁에서 영면에 들었다. 남편인 맥스 조이스는 3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딸 릴리는 건강하고 아내의 모습과 강한 정신을 꼭 빼닮았다"며"삶에 대한 아내의 낙관적 태도와 용기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br/><br/>손효숙기자<br/><br/><br/> <br/> <br/><br/>▶▶▶ 관련기사 ◀◀◀<br/>▶ 덜컥 임신후… 여대생 김양의 안타까운 상황<br/>▶ 결혼 안한 처녀, 원치 않은 임신했다 그만…<br/>▶ 신생아실서 충격적인 장면 목격한 산모<br/>▶ 임신 시도 유부녀들에 나타난 이상한 현상<br/>▶ '도가니' 피해여성, 사투끝에 출산했지만 …<br/>▶ [경단녀에게도 기회를] 개인의 좌절, 국가의 손실<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23.txt

제목: 황사 먼지·중금속에 지친 몸… '보약 음식'으로 다스려볼까  
날짜: 20140404  
기자: 유상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04100000037  
본문: 이맘때면 삼겹살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비곗살의 기름이 몸 속에 낀 먼지를 닦아내 밖으로 배출해 준다는 믿음 또는 기대 때문이다. 근거가 있는 믿음일까. 황사에 미세먼지에 변덕스러운 날씨까지 겹쳐진 4월, 우리의 몸을 지켜줄 음식에 대해 알아보자. <br/><br/>돼지고기 <br/><br/> 미끈한 기름이 세제 역할을 해서 고깃덩어리가 몸 속의 먼지를 박박 닦아 낸다는 건 취기가 충분히 오른 술자리에서나 통할 얘기. 물리적인 흡착포 역할을 할 수 있는 음식은 세상에 없다. 그러나 돼지고기가 황사에 좋다는 얘기가 반드시 틀린 것만은 아니다. 돼지고기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이 탄산가스를 중화해 폐에 쌓인 유해 물질을 중화한다. 수은, 납, 비소 등의 중금속과 화학적으로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 돼지고기는 사람의 체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위장에서 이런 작용이 활발히 일어난다. <br/><br/>도라지, 더덕, 칡 <br/><br/> 도라지는 예로부터 호흡기 질환의 주요 약재로 쓰였다. 쌉싸래한 맛을 내는 것이 사포닌 성분으로 호흡기 내 점막의 점액 분비량을 두드러지게 증가시킨다. 들이마신 먼지는 기관지를 타고 폐로 내려가는데 점액이 늘어나면 폐에 닿는 먼지가 줄어들게 된다. 천식 등 목이 아픈 질병에 도라지가 특효인 것이 이 때문. 더덕 또한 사포닌 함유량이 높다.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멎게 한다. 더덕에 많은 이눌린 성분도 폐를 보호한다. 칡에는 몸 속에서 유해 금속 이온과 착염(錯鹽)을 형성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다. 황사와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제거에 도움이 된다. <br/><br/>미역, 굴, 전복 <br/><br/> 미역의 끈적거리는 점액질은 알긴산이라는 식물섬유의 일종이다. 중금속이 몸 속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효능이 있다. 알긴산은 소화되지 않고 모두 배설되는데 늘어난 변이 중금속뿐 아니라 환경호르몬, 발암줄질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그래서 황사를 '닦아 낸다'는 표현은 사실 돼지고기보다 미역에 더 어울린다. 굴과 전복엔 무기질이 풍부한데 특히 아연이 많다. 아연은 체내에 쌓인 납을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전복은 눈이 침침할 때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먼지로 인해 생긴 시신경의 피로 증세를 풀어준다. 전복을 말리면 표면에 오징어처럼 흰 가루, 타우린이 생긴다. 타우린도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br/><br/>명태 <br/><br/> 명태는 천연 해독제로 불릴 만큼 독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크다. 숙취 해소, 간장 해독, 노폐물 제거에 두루 약에 버금가는 효능이 있다. 옛날 시골에선 농약, 지네 독, 연탄가스 따위에 중독됐을 때 명탯국을 끓여 먹는 것이 민간요법이었을 정도. 메치오닌 같은 필수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오염물질에 지친 간을 보호해 준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해서 몸 속의 오염 물질 배출을 돕기도 한다. 피로 해소를 돕는 베타인, 타우린도 풍부하다. 알레르기 체질을 개선하고 알레르기에서 비롯된 질병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황사와 함께 꽃가루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 봄철에 명태가 좋은 이유다. <br/><br/>마늘, 양파 <br/><br/> 대표적인 건강 식품으로 각광 받는 마늘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 마늘에 많이 함유된 유황 성분은 체내로 들어온 수은과 결합해 배설된다. 미세먼지 속의 수은은 체내에서 만성 피로, 고혈압, 어지럼증 등을 유발한다. 유황은 중금속이 적혈구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양파에도 유황 성분이 비교적 풍부하다. 양파는 항균효과도 있어 박테리아균을 죽인다. 생양파를 몇 분 동안 씹는 것만으로 입 속의 해로운 균을 청소할 수 있다. 공기 중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많은 철에 양파가 좋은 이유다. 양파에 있는 알롬이라는 물질은 기관지 보호 효과가 탁월하다. 양파에서 뽑아낸 알롬으로 기침과 콧물 감기를 치료하는 약을 만들기도 한다. <br/><br/>배, 매실, 오미자 <br/><br/> 호흡기 계통 질환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과일은 배다. 목과 폐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수분을 보충하는 작용이 있어 목이 아플 때, 기침과 가래가 있을 때 도움이 된다. 학교 선생님이나 성악가 등 성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배를 먹으면 목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배의 사각사각한 식감은 식이섬유의 일종인 리그닌 때문인데 이것 또한 이물질 배출을 활발하게 한다. 매실은 각종 독성물질을 분해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매실엔 구연산이 사과의 30배 이상 들어있다. 이것이 해독과 살균 작용을 한다. 오미자는 면역력을 높이고 폐를 튼튼하게 해 역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 <br/><br/>물, 녹차 <br/><br/> 위에 쓴 모든 음식보다 확실하게, 그리고 값싸게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것은 바로 물이다. 하루에 10잔 정도 물을 마시면 건조해지기 쉬운 기관지의 수분을 유지하고 체내 노폐물을 그때그때 배출할 수 있다. 따로 보습제를 바르지 않아도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공기 중의 오염 물질과 접촉하는 피부 세포를 보호한다. 녹차는 아미노산과 무기질, 섬유소 등이 풍부해 다이옥신 같은 독성 물질의 흡수를 억제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다. 특히 녹차의 탄닌 성분은 살균 효과가 탁월하다. 모과, 오미자, 구기자, 옥수수 등으로 만든 차도 체내 중금속 배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유상호기자 shy@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미세먼지에 불티나는 金겹살… 한달 새 30%가격 급등<br/>▶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삼겹살은 오히려 '독'?<br/>▶ "한·일 스모그 오염, 우리 책임 아니다" 뻔뻔한 중국<br/>▶ 中전문가 "스모그, 사스보다 훨씬 위험할 가능성"<br/>▶ 중국발 초미세먼지, 중금속 범벅이 사실로<br/>▶ "중국 최악의 스모그는 방사능 탓" 괴담<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24.txt

제목: '과잉 진료 논란'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에 한해 4000억  
날짜: 20140403  
기자: 이왕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03100000402  
본문: 과잉진단 논란을 빚고 있는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에 우리 국민들이 연간 최대 4,000억원을 쓴다는 추계결과가 나왔다. <br/><br/>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갑상선암 건강검진 서비스제공을 위한 근거창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갑상선 초음파 검진비용에 최소 1,210억원에서 최대 4,534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1년 전국 895개 의료기관(병원 238곳, 의원 557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다. 평균 갑상선 초음파 비용은 병원급 5만4,650원(1만~15만원), 의원급 3만2,670원(1만~12만원)이었다. <br/><br/>연구원은 이와 함께 20~70세 남녀 3,6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갑상선 초음파 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23.3%였고, 여성(31.3%)이 남성(15.8%)의 2배 정도 많으며, 50대(28.8%) 40대(26.3%) 60대(25.7%) 순으로 검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검진자 중 70.7%는 정상이었고 결절(혹) 판정이 23.6%, 암 진단은 1.9%였다. <br/><br/>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분석 결과 갑상선 결절 판정을 받은 환자는 6개월 내에 건강보험 의료비용 약 40만원, 이후 1년 6개월마다 약 10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br/><br/>연구원은 전세계 논문을 고찰했지만 갑상선암 초음파 선별검사를 권고할 것인지 결정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연구책임자인 현민경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서비스분석실 연구위원은 "갑상선 초음파 검사, 갑상선 결절ㆍ암 치료로 국민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br/>앞서 일부 전문의들은 최근 갑상선암의 폭증은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과다진단된 것이라며 건강검진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정재훈 대한갑상선학회 이사장은 3일 공식 입장을 내고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조기발견·치료의 이득을 볼 환자들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며 "과잉진단∙치료는 해악이지만 획일적인 제재는 더 나쁜 해악"이라고 주장했다.<br/><br/>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립암센터에 연구용역을 맡겨 갑상선암 선별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br/><br/><br/><br/>이왕구기자 fa4@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25.txt

제목: 아이가 무슨 죄… 한국서 태어났는데 무국적자  
날짜: 20140403  
기자: 강성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03100000027  
본문: 부산에서 태어나 한국에서만 살아온 다섯 살 남아가 두 차례나 부모와 이별하고 무국적자로 떠돌고 있다. 보육원에서 돌보고는 있지만 국가보조금과 건강보험 등 모든 혜택에서 배제된 채 앞날이 막막한 상태다. <br/><br/>2009년 5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태어난 서모(5)군은 2007년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아버지, 베트남인 어머니가 2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다. 그런데 서군의 출생 직후 아버지 김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서군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문제로 부부는 이혼을 했고, 김씨는 2010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br/><br/>베트남 국적의 친모는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며 시집 식구들에게 서군을 맡긴 뒤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서군의 딱한 처지를 접한 김씨의 여동생 부부는 입양을 선택했다. 여동생은 서군이 오빠의 아들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입양으로 아이의 성은 '김'에서 '서'로 바뀌었다.<br/><br/>그런데 여동생 김씨가 오빠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서류를 발견하면서 서군은 갈 곳을 잃게 됐다. 여동생 부부는 오빠의 핏줄이 아닌 서군을 입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해운대구청을 통해 부산 강서구의 A보육원에 서군을 맡겼다.<br/><br/>부모에 이어 양부모와도 헤어져 외톨이가 된 서군에 대해 당시 A보육원은 "낯선 환경을 접해서인지 무척 불안해하고,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우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관심과 애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기록했을 정도였다.<br/><br/>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는 파양을 신청했고, 2012년 6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서군의 호적은 말소됐다. 그러면서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서군은 무국적자로 전락했다.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출생 전 사망한 아버지가 사망 당시 한국 국적일 경우, 그리고 심지어 부모가 누구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출생했으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서군은 어머니의 국적이 베트남으로 명확하지만 아버지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가운데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br/><br/>이에 따라 서군 몫으로 보육원에 지원되던 국가보조금이 끊겼고,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도 박탈됐다. 후원금만으로 서군을 양육하고 있는 보육원 측은 법률구조공단, 출입국관리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서군의 무국적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br/><br/>이한숙 이주와인권 연구소장은 "무국적이라도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무국적 이주 아동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br/><br/><br/><br/>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26.txt

제목: [지평선/4월 3일] 말기 암과 신(神)  
날짜: 20140402  
기자: 이충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02100000344  
본문: 어느 날 갑자기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면 죽음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유신론자, 혹은 무신론자라면.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식인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리처드 도킨스에 버금가는 무신론자다. 그에게도 어김없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웠다. 2010년 식도암 말기 진단을 받자 유신론자들은 "히친스가 신성모독을 할 때 사용했던 부위에 암이 생긴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라며 공격했다. 히친스는 마지막 저서가 된 에서 "암은 성자든 죄인이든, 신자든 비신자든 공평하게 걸리는 병"이라고 코웃음 쳤다. 그는 1년 후 변함없는 무신론자로 생을 마쳤다.<br/><br/>■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소설가 최인호에게 신은 절대자였다. 암 진단을 받은 그에게 절망하고 분노하고 기도하고 희망을 갖는 유일한 대상이었다. 5년여의 투병 생활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글을 못쓰는 허기였다. 탁자에 놓은 성모상을 껴안고 매일 엉엉 울며 기도했다. 글을 쓰게 해달라고. 마침내 항암치료로 빠진 손톱자리에 골무를 끼우고, 구역질이 나오면 얼음을 씹으면서 두 달 만에 유작이 된 장편 를 썼다. 투병기 에서 "누군가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는 느낌이었다"고 했다.<br/><br/>■ '고집스러운' 자유주의자인 소설가 복거일은 2년 전 말기 암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다. 남은 날을 항암치료보다는 글 쓰는데 쏟고 싶었다. 최근 펴낸 자전소설 에는 운명을 맞이하는 두 가지 길이 제시돼있다. 개인의 정체성은 죽은 뒤에도 이어진다는 유신론자들의 낙관과 '나'란 존재는 유전자들을 한 세대 더 잇기 위해 쓰인 수레에 지나지 않는다는 절망이다. "절망의 길도 마음의 평정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는 그는 후자를 택한다.<br/><br/>■ 죽음을 앞두면 '파스칼의 도박'(신에게 믿음을 걸면 모든 것을 얻지만 믿지 않았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이론)은 누구에게나 부닥치는 갈등이다. 당신이라면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스스로 끊임없이 부딪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각자의 몫이다.<br/><br/><br/><br/>이충재 논설위원 cjlee@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27.txt

제목: 유엔 "후쿠시마 주민들 암 증가 확인 안돼"  
날짜: 20140402  
기자: 박민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02100000309  
본문: 유엔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 후쿠시마 주민들의 암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br/><br/>이 신문에 따르면 유엔 과학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관측 데이터와 세계 연구논문 등을 토대로 후쿠시마현 주민을 원전사고 당시 1세와 10세, 성인 등 세 그룹으로 나눠 피폭선량을 추계, 건강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고 후 1년간의 전신 피폭선량은 원전 주변을 포함한 후쿠시마현 전체에서 성인은 평균 1~10ｍ㏜(밀리시버트), 가장 영향을 받기 쉬운 1세 유아에서도 암 발생 위험이 확실히 커지는 100ｍ㏜를 밑돌았다.<br/><br/>보고서는 다만 원전 주변 20~30㎞ 권에 있던 1세 유아는 피폭선량이 평균 47~83ｍ㏜로 갑상선암 증가가 확인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후쿠시마현의 어린이 갑상선 검사에서 발견된 암 등은 "대다수가 원전사고 피폭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br/><br/><br/><br/>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28.txt

제목: “불우환자 치료기금으로 써주세요”  
날짜: 20140402  
기자: 정용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02100000104  
본문: ‘암 그리고 전쟁’(중앙생활사 발간)을 집필한 문창범 씨가 인세로 받은 100만원의 수익금을 불우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삼성서울병원에 기부금으로 전달했다.<br/><br/>‘암 그리고 전쟁’은 암에 걸린 아내를 위한 320여 일간의 투병일기. 원자핵물리학자인 문씨는 아내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안 순간부터 치료를 마치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히 기록했다. 암이라는 공포의 병을 옆에서 지켜본 당사자로서 생명에 대한 깊은 고찰도 묻어난다.<br/><br/>삼성서울병원은 “<span class='quot0'>기부금은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환자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br/><br/>정용운기자<br/><br/><br/><br/>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29.txt

제목: 정신과 치료 51%·자해 등 상해 30% 증가… 여성 "속 쓰리다" "밥맛 없다" 내과 많이 찾아  
날짜: 20140401  
기자: 이왕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01100000344  
본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은 자살 직전 정신과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지만, 여성의 경우 소화기 계통의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보건복지부가 자살자 6,172명의 의료행태를 분석한 결과 자살 직전 3개월동안 자살 10~12개월 전과 비교해 병원 정신과를 찾는 횟수가 51%나 증가했다. 자살 전 정신과를 찾은 이들 중 35.5%는 우울증, 6.7%는 조현증(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았다. 또 상해가 30% 늘었는데 자살에 앞서 자해, 수면제, 농약 복용 등 자살 시도가 또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화기계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일도 20%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자살자들의 의료비 지출은 1년 전보다 35%가 증가했다.<br/><br/>특히 여성 자살자(1,732명)는 소화기계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횟수가 47% 증가했다. 안용민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실제로는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성들은 '속이 쓰리다', '밥맛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자살 직전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을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남성(4,440명)의 경우엔 소화기계 질환 증가율(11%)보다 상해 증가율(35%)이 크게 높았다. <br/><br/>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진단 직후 자살하는 비율도 높았다. 완치로 간주되는 암 진단 5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는 확률을 자살 위험도 1.0으로 잡았을 때,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자살하는 비중이 여성은 3배, 남성은 2.6배나 높았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암 진단을 받은 직후 환자에 대해서는 암 치료뿐 아니라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br/><br/><br/>이왕구기자 fab4@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30.txt

제목: [채널 선택 4월 2일] 세계테마기행·생로병사의 비밀  
날짜: 20140401  
기자: 강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401100000297  
본문: 그레이트슬레이브·루이즈 '호수의 겨울'■ 세계테마기행(EBS 오후 8.50)<br/><br/>캐나다는 세계에서 호수가 가장 많은 나라다. 200만개 이상의 호수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매력적인 호수가 바로 그레이트슬레이브와 루이즈다. 깊이가 약 614m로 북미에서 가장 깊은 호수로 알려진 그레이트슬레이브 호수는 겨울이 오면 꽁꽁 얼어붙어 멋진 도로로 변신한다. 영하 30~40도를 밑도는 강추위에 얼음이 최대 3m 두께까지 언다. 얼어붙은 호수 위로 대형 차량이 매일 수십 번 오가며 이웃 주민들을 이어준다. 세계적인 절경으로 유명한 루이즈 호수는 에메랄드 빛을 뿜으며 주변 풍경을 더 아름답게 비친다. 얼어붙은 호수가 천연 아이스링크로 변신해 스케이트와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이들에게 명소가 됐다. <br/><br/>착한 암은 없다… 갑상선암의 오해와 진실■ 생로병사의 비밀(KBS1 밤 10.00)<br/><br/>지난 10년 사이 갑상선암 발병이 급증하면서 갑상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갑상선암을 '착한 함'으로 여긴다. 국내 갑상선암의 대부분이 유두암으로 완치율이 98%나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갑상선암이 결코 착한 암이 아니라고 말한다. 갑상선암은 림프절뿐 아니라 폐, 뼈, 뇌 등으로 쉽게 전이되며 그 중 15%는 난치성암으로 성격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환자들이 1㎝ 이하의 작은 '갑상선 유두암'의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일본에서는 갑상선 유두암을 관찰, 치료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갑상선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br/><br/><br/><br/>강은영기자 kiss@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31.txt

제목: “일광욕하면 심장마비 위험 줄일 수 있다”  
날짜: 20140328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8100000181  
본문: 적당한 일광욕이 심장마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탈리아 노바라의 이스턴 피드먼트 대학 심장병 전문의 모니카 베로디아 박사 연구팀은 비타민D가 심장 건강에 좋다며 햇볕 비타민(비타민 D) 결핍 환자에게서 심장질환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br/><br/>그러면서도 연구팀은 장시간 일광욕을 하면 피부암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r/><br/>연구팀은 심장병을 가진 1,484명 환자들의 영양분을 분석한 결과 햇볕을 쬐는 과정에서 자연 생성되는 비타민D가 부족한 환자일수록 심혈관계질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혈액이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 어떻게 흐르는 지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10명 중 7명의 환자들이 비타민D 결핍을 보인 가운데 비타민D가 가장 낮은 환자들은 일반 정상 환자들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죽상동맥경화증을 보였다. <br/><br/>비타민D 결핍이 심할수록 심장 질환이 누증됐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질환을 가질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 연구팀의 주장이다. <br/><br/>실제로 관상동맥질환은 비타민D가 부족한 환자들에게 32% 이상 더 많이 발견됐으며 일반 사람들보다 20% 이상 더 혈관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br/><br/>베로디 박사는 “<span class='quot0'>비록 비타민D 보충이 심혈관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는 약하지만 심혈관계 질병 예방차원에서라도 천연 비타민D 섭취를 늘려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br/>이어 “생선, 시리얼, 계란 등 비타민D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먹거나 적절한 운동은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장병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영양분이 면역체계를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을 야기 할 수 있는 염증 과정을 줄여주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br/><br/>또 연구팀은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이 비타민D 결핍을 보였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히스패닉계열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br/><br/>한편 비타민D는 고혈압, 암,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등의 심각한 질병과도 연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br/><br/><br/> <br/><br/>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32.txt

제목: [책소개] 어디든 아프면 - 통풍은 뼛속이 차서 생기는 병  
날짜: 20140328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8100000171  
본문: 질병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책 ‘어디든 아프면’이 이목을 끌고 있다. 책 ‘어디든 아프면’ 이 책을 보면 된다. 는 질병의 원인을 ‘혈관, 피부, 근육, 장기’가 아닌 인간의 ‘뼈’에서 찾는다. ‘어디든 아프면’ 이 책을 보면 된다. 의 부제는 ‘병이 들면 왜! 뼈는 보지 않는가?’이다. 의학에서 뼈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은 뼈가 부러지는 골절사고가 일어났을 때이다. <br/><br/>반면 ‘어디든 아프면’ 이 책을 보면 된다. 의 저자 문운석은 우리가 만성질환 혹은 불치병으로 앓고 있는 통품, 족저근막염, 관절염, 무지외반증, 암을 비롯한 수족냉증 등의 원인을 차가워진 뼈에서 찾고 있다. 책 속 ‘차가운 뼈와 따뜻한 뼈’에 대한 논의는 질병과 건강에 대한 새로의 관점을 제시하며, 통풍환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질환치료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br/><br/>책‘어디든 아프면’ 이 책을 보면 된다. 에 담겨있는 논리는 쉽고 간결하다. “발과 관절 부분의 뼛속에는 수분과 피가 다니는 뼈구멍이 있다. 여기에 요산, 칼슘, 지방 등이 차갑게 굳어 좁아져 막혀가고 있는 것을 아무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한다. <br/><br/>그리고 이것은 운동 ,족욕, 반신욕으로 극복하기 힘들다. 그래서 생긴 병이 통풍,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및 관절염, 수족냉증 등이다.(책 내용중 일부)” 저자는 차가운 뼈야말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설명한다. 뼛속을 따뜻하게 한다면, 질병은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br/><br/>차가운 몸이 건강에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강상식이다. 저자 역시 ‘태어날 땐 온몸이 따뜻하고, 병들어 병세가 깊으면 몸이 차며, 죽으면 온몸이 차가워진다’는 상식적인 논리를 서두에 내세운다. <br/><br/>여기에 더 한발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존의 방법들은 ‘부족했다’라는 대담한 주장을 한다. 예를 들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따뜻한 차를 마시고, 뜨거운 목욕이나 족욕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질병치료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br/><br/>‘어디든 아프면’ 이 책을 보면 된다. 의 저자 문운석은 65도의 열에 초점을 맞춘다. 65도의 열은 질병을 치료하는 기적과도 같은 ‘열’이라는 것이 저자의 논리다. 즉 65도는 뼛속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온도의 기준치다. 실제 기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들에서 발행하는 열의 최대치는 42도 정도다. 대중목욕탕을 가도 탕의 온도는 대부분 42도를 넘지 않는다. <br/><br/>족욕, 좌욕기도 마찬가지다. 42도 정도의 열은 피부, 근육들을 일시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 뼛속은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65도의 열로 발과 관절 부분의 뼛속을 따뜻하게 해, 우리 뼛속의 막힌 곳을 뚫어줘야 한다.(책내용중일부) <br/><br/>이렇듯 ‘어디든 아프면’ 이 책을 보면 된다. 는 인간의 뼛속을 들여다 보고, 그곳에서 질병치료의 해법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았던 ‘뼛속까지 도달하는 열’에 대해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하고 있다. <br/><br/>이런 저자의 주장은 기존 의학이 가진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질병치료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건강에 관심이 깊은 현대인들의 상식을 가볍게 비틀고 있다. 현재 ‘어디가 아프면’은 출간이후 질병과 건강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독자들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건강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br/><br/>더불어 ‘어디든 아프면’ 이 책을 보면 된다. 는 뼈를 따뜻하게 하는 생활습관과 질병에 이르는 나쁜 습관을 언급하며, 저가가 직접 개발한 체질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또한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부르는 통풍,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관절염을 비롯한 생활습관병으로 잘 알려진 불면증, 우울증에 대한 치료해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br/><br/><br/>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33.txt

제목: “민간요법, 현대의학 포기한 생명을 구한다”  
날짜: 2014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710013855900  
본문: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광준(30)씨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체력을 지니고 있어 건강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간혹 몸이 아프고 피곤하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라며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정도였다. 하지만 계속 기운이 떨어지고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자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과도한 음주 등 무절제한 생활로 인한 당뇨병이라고 진단했다. 그 무렵 친한 선배로부터 당뇨병에 좋은 민간약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입해 복용했다. 생전 처음 보는, 이름 없는 약을 먹는다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두 달쯤 먹어보니 몸이 훨씬 좋아졌다. 이후 이씨의 건강은 완전한 상태로 회복됐다.”<br/><br/><br/><br/>살아 있는 모든 존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다. 어떤 생명도 목숨을 두 개 이상 가진 것은 없고 한 번 잃으면 되살릴 수 없다. 그래서 목숨을 살리는 일은 고귀하고 가치있는 일이다.<br/><br/><br/><br/>‘발로 찾은 우리 명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병원의 의사도 아니고 한약을 이용해 치료하는 한의사도 아닌 전통의술을 통해 병을 다스리는 우리나라 명의 17명의 이야기를 담았다.<br/><br/><br/><br/>책은 너무 흔해 특별할 것도 없는 쑥이나 고들빼기가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설명한다. 또 보통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도라지가 산삼 못지않는 특별한 약으로 바꿔 당뇨병, 천식, 고혈압, 위염, 관절염 등 갖가지 난치병을 고치는 특효약으로 소개된다. <br/><br/><br/><br/>토종 약초나 뜸같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훈과 신침을 이용해 현대의학이 닿을 수 없는 부분도 한 순간에 씻은 듯이 낫게 했다는 일화를 보면 얼핏 투박하고 황당무계하다. 민간 의학 처방은 어떤 의학책에도 실려 있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다. 하지만 민간 의학은 분명히 수천 년을 지나 오늘날까지 계승된 이유가 있고 우리도 따를 수밖에 없는 진리가 숨어져 있다.<br/><br/><br/><br/>이 책에 실린 사람들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난치병을 쉽게 고치는 놀라운 의술을 갖추고 있다. 민간 명의들은 에이즈, 백혈병, 간경화, 간질, 소아마비 등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 사례와 치료법을 개발했다.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학박사도 어려워하는 무시무시한 병을 시골의 한 노인이 주변에 널린 흔한 풀로 몇 개월 만에 고친다.<br/><br/><br/><br/>‘발로 찾은 우리 명의’는 민간 의학만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으며 최고라고 자만하지 않는다. 현대의학으로는 규명되지 않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한 평생을 고생하는 환자를 위해 정성으로 달인 약을 소개하며 제안을 할 뿐 민간 의학만을 강요하지 않는다.<br/><br/><br/><br/>17인 명 모두 어느 하나 쉽게 얻은 약이 없다. 5대째 계승되어 오고 있는 비방을 전수 받기 위해 8년을 작두질을 하며 인고의 시간을 보낸 사람, 매일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신비의 약초를 찾아 헤매다 결국 천혜의 땅을 찾아 약초와 산나물을 직접 재배하는 사람, 최고 의술을 가졌다고 해서 찾아 온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불법 의약 유통 누명을 뒤집어쓰고 실형을 산 사람 등 포기할 법한 그들의 고난이 박힌 인생 이야기도 또 다른 재미다.<br/><br/><br/><br/>민간 의술을 행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활인구세(活人救世)의 풋풋한 인정이 배어 있다. 의사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시비에 휘말려 곤욕을 치러도,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협잡꾼에도 그들이 묵묵히 길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병마와 싸우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희망을 위해, 독창적이고 기이한 의술로 세상의 병든 이들을 모두 고쳐 구제창생의 큰 뜻을 펴고자 하기 때문이다.<br/><br/><br/><br/>‘발로 찾은 우리 명의’의 저자 최진규씨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 우리 나라 구석구석은 물론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그는 월간잡지 ‘시사춘추’ ‘신시’의 기자며, 인천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로 고려대학교, 한서대학교 등에서 토종약초를 강의했고 한국 토종약초연구학회를 설립했다. <br/><br/><br/><br/>약초와 민간 의학의 힘을 믿는 최진규씨는 ‘기적의 향토명의’ ‘토종의학 암 다스리기’ ‘약초산행’ ‘토종약초 장수법’ 등 1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쓴 우리나라 최고의 약초학자다.<br/><br/><br/><br/>최진규 지음 / 408p / 썰물과 밀물 / 1만9,000원 <br/><br/> <br/><br/><br/><br/>한국아이닷컴 동효정 기자 vivid@hankooki.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34.txt

제목: '병치레 기간' 여성들이 더 길다  
날짜: 20140327  
기자: 고찬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7100000423  
본문: 김모(65)씨는 해가 갈수록 달고 다니는 병명이 늘어나고 있다. 당뇨 탓에 음식조절을 한 지 몇 년째인데, 최근엔 소변 보는 게 영 불편하다. 수전증이 심해지면서 집중력도 떨어졌다. 시의원을 지낼 만큼 대외활동도 왕성했고, 매주 산행을 다녀 건강에 자신이 있었건만 점점 더 몸이 맘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는 "담배도 끊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니지만 일상생활이 예전만 못하다"고 했다.<br/><br/>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80세를 넘어섰지만, 일생 중 건강하게 지내는 기간은 65년 남짓이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지만 병치레 기간이 20년 가까이 되는 반면 남성은 10년 남짓에 그쳐 건강 기대수명은 남녀가 비슷했다.<br/><br/>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2년생의 기대수명은 남자 77.9년, 여자 84.6년으로 6.7년의 차이가 났다. 그러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아픈 기간(유병기간)을 제외한 '건강 기대수명'은 남자 65.2년, 여자 66.7년이라 그 격차가 1.5년으로 줄었다.<br/><br/>다른 연령대도 비슷했다. 예컨대 현재 60세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5년 가량을 더 오래 살 것으로 기대되지만, 남자는 앞으로 8.9년을, 여자는 13.2년을 몸이 아픈 상태로 살아야 한다. 수명의 양(나이)은 여자가, 삶의 질(건강)은 남자가 우위에 있는 셈이다.<br/><br/>남자들은 건강을 자신하는 경향도 강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기간을 감안한 주관적 건강 기대수명은 8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길게(0.2~1.3년) 나왔다. <br/><br/>대개 건강에 적신호가 커지는 65세 이상 인구는 2040년 10명당 3명으로,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15~64세 인구로 나눈 노년부양비도 2013년 16.7명에서 2040년 57.2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1980년 25.9세였던 전체 인구 평균 연령은 2040년 50세(49.7세)에 육박한다.<br/><br/>2012년 주요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순이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전년과 비교해 순위가 뒤바뀌었다. 남성의 흡연비율은 감소(-3.5%포인트)한 반면 여성은 증가(0.9%포인트)했다. 술을 주 2회 이상 매번 7잔(여자 5잔) 넘게 마시는 고(高)위험음주비율 역시 남성은 0.9%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성은 1.5%포인트 올랐다. <br/><br/>이밖에 2013년 대학 진학률은 70.7%, 고용률은 59.5%,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이었다.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48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0.9% 늘었다. 아파트 전셋값은 6.7%나 올랐다. <br/><br/>절도는 큰 폭으로 증가(전년대비 4.1%)한 반면, 기부는 2년 전보다 감소(-2.3%포인트)했다. 점점 팍팍해지는 세상 인심이 통계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br/><br/><br/><br/>고찬유기자 jutdae@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35.txt

제목: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섞어라 마셔라(5)  
날짜: 2014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7100000057  
본문: 우리가 잘 가던 그 술집 신우에서는 한때 구두에 술을 부어 마시기도 했다.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구두를 벗어 맥주와 양주를 섞어 붓고 한 잔 마시더니 ‘술잔’을 돌린 게 시작이었다. 출연자들은 경찰서에 출입하는 사회부 사건 취재기자들이었다. 시경캡(사건기자 우두머리)의 지휘를 받던 그런 기자들을 사쓰마와리(察廻リ)라고 불렀는데, 사쓰마와리들은 큰 사건이 터지면 밤샘 야근을 하고, 별 일이 없으면 저녁마다 술을 마셨다. 일과 술로 건강이 망가지는데도 마냥 좋다고 살던 시절이었다. <br/><br/>술맛이 이상한 걸 넘어 찝찝하고 역겨운 그놈의 구두주는 처음엔 비위가 좀 상했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 마실 정도는 아니었다. 재미있기도 했다. 술잔을 제공한 선배는 자리가 파하면 구두를 오랫동안 탁탁 털어 술기를 빼고 도로 신고 갔다. 하지만 양말이 다 젖는 것은 물론이고 구두가 잔뜩 불어터진 데다 발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엉망이었다. <br/><br/>그때 그렇게 놀던 모습을 사진기자인지 누군지가 찍어 ‘영구보존하세’에 실은 적이 있다. ‘영구보존하세’는 잘못되고 우스운 기사의 초고나 에피소드를 입건해 수록한 사회부 스크랩 북이었다. 견습기자들이 낄낄거리고 읽으면서 선배들의 실수를 통해 일을 배우곤 하던 교육자료이기도 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컴퓨터로 기사 제작시스템이 바뀔 무렵 다른 자료들과 함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두고두고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다. 누군가가 그 자료를 챙겼어야 하는데...<br/><br/>이렇게 구두주를 소개하다 보니 구두주의 대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와 입사 동기였던 P씨는 취하면 테이블 위의 술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물체, 즉 옴팍한 것만 있으면 술을 따라 마시던 사람이다. 안주접시 큰 것, 작은 것은 물론 재떨이 병뚜껑에도 따른다. 그러지 말라는 사람의 안경도 벗겨서 “술 못 마시면 조금만 주겠다”며 따른다. 그가 언젠가 아내가 사준 새 구두를 신고 나와 여기에 밤새 술을 따라 마셨다. 그런데 술에 혹사를 당한 탓인지 다음 날 아침 발이 시원해 내려다보니 구두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는 이야기.<br/><br/>지방에서 회사 행사를 마치고 뒤풀이하는 자리에서도 그는 여자 선배에게 구두주를 강권했다. 그 선배는 끝내 마시지 않고 거부했는데, 다음 날엔 거꾸로 자기 하이힐을 벗어서 “야, 너 이 술 좋아한다며? 너도 마셔봐라.”라고 들이댔다. <br/><br/>그는 테이블을 뒤집어 그 받침에도 술을 부었다. 네 다리 달린 테이블이 아니라 테이블 밑 한가운데 달린 원통형 받침에 소주 양주 맥주를 넘치도록 부은 후 어깨동무를 하고는 빙빙 돌다가 한 모금씩 마시는 식이었다. 바퀴벌레 알, 거미줄, 껌 씹은 것들이 달라붙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호우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어두컴컴한 지하 술집에서 그러고 놀던 사람은 ‘이런 모습만큼 그로테스크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 <br/><br/>그는 술만 섞는 것도 아니었다. 안주가 남으면 접시에 쏟아 부어 새 안주를 만들었다. 멸치, 오징어, 육포, 고추장, 마요네즈, 간장 등등 모든 게 안주 재료였다. 수틀리면 테이블 위의 모든 것을 한 팔로 쓸어내리고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것도 다반사였다. 그가 자주 다니던 어느 맥주 집에서는 테이블을 못 뒤집게 꽁꽁 묶어 놓았다는 이야기도 있다.<br/><br/>‘부서원 모두가 몸 돌보지 않고 이렇게 마셔야 단합도 되고 생산성도 높아진다’는 게 그의 소신이었다. 그의 후배들도 그렇게 마시는 걸 힘들어는 했지만 아주 싫어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가 편집국장일 때는 검찰총장 이하 검찰 간부들과 점심을 먹다가 흥이 돋아서 대낮에 폭탄주로 일합을 겨루었는데, 오후 4시나 다 돼서 “다 쓰러뜨렸다.”며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br/><br/>기자들이 대개 다 그렇지만 그는 좀 티껍거나 아니꼬운 꼴을 보기 싫어했다. 처음 만난 외교관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그가 꼬냑의 향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좀 아는 체를 했나 보다. 가만히 듣고 있던 그는 “<span class='quot0'>향 좋은 술이 그리 좋으면 이건 어떠시오?</span>”라면서 양말을 벗어서 대접에 넣고는 그 위에 맥주를 잔뜩 부어 따라준 적도 있다. <br/><br/>그의 운전기사의 마지막 일과는 널브러진 그를 업어서 집에 배달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온갖 에피소드를 남기며 다양한 방법으로 술을 마시던 그는 결국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암이었지만 ‘충성주’를 만드느라 이마로 테이블을 너무 많이 받은 것도 건강 악화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다. 지금도 하늘에서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술을 즐기고 있을까. 내년이면 벌써 그의 10주기다. <br/><br/><br/>임철순 한국일보 논설고문 fusedtree@hanmail.net<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36.txt

제목: [건강] “찾아가는 건강강좌ㆍ무료 건강검진으로 여성 건강 돕는다”  
날짜: 20140326  
기자: 정용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6100000114  
본문: 이화의료원이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여성 건강 캠페인을 3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br/><br/>세부 실천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의학 정보 전달을 위해 여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건강강좌 및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br/><br/>오는 28일에는 주웅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교수가 청호나이스 주최 ‘제1회 물 사랑교실’에서 ‘암 예방을 위한 하버드식 건강법’에 대해 강연한다. 4월에는 AIA생명, 신정 6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여성암과 치매,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여성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br/><br/>또한 여성건강백서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 발간과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심의 SNS 동영상 제작으로 여성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 길잡이로 활용케 한다는 계획이다.<br/><br/>이와 함께 현재 암환자의 효과적인 치료와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실시해온 정서 치유 프로그램 ‘파워업(Power-up) 강좌’를 더욱 활성화해 국선도, 노래교실, 합창반, 희망텃밭에 이어 웃음 치유, 미술 치료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한다. ‘명의와 함께 하는 여성암 환자 힐링 여행’도 매년 연례적 행사로 실시한다. <br/><br/>아울러 한국장기기증원(KODA) 및 한국인체조직기능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 활동과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앞장서는 한편, 서서울 생명의 전화가 주최하는 ‘청소년 자살 예방 세미나’와 ‘달빛 소나타 생명사랑 걷기운동’에도 동참하는 등 사회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br/><br/>이밖에도 향후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여성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별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도 충실히 수행한다는 방침이다.<br/><br/>이순남 이화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이대여성암병원과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개소 5주년을 기념해 시작하는 이번 여성건강 캠페인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여성의 행복과 사회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해 나가겠다</span>”고 밝혔다. <br/><br/>정용운기자<br/><br/><br/><br/>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37.txt

제목: 2300억대 담배 소송 '불 붙였다'  
날짜: 20140326  
기자: 송옥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6100000249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인(변호인) 선정 공고를 내 담배소송절차에 돌입했다. 다음달 11일까지 법무법인 1곳을 모집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규모는 최대 2,300억원 정도로, 선정된 변호인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br/><br/>공단은 24일 이사회에서 소송 규모가 537억~2,302억원 범위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공단이 최대 3,376억원 규모라고 발표했던 것보다 다소 줄어든 것은 승소 가능성을 고려해 흡연기간이 긴 환자로 대상을 좁혔기 때문이다. 과거 담배소송에서 법원이 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기준에 따라 2003~2012년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30년 이상의 흡연기간, 20갑년(1일 1갑씩 20년을 피운 흡연량)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을 가렸을 때 건보공단 일반검진자료 상 1만3,748명, 소송 규모 2,302억원이 된다. <br/><br/>안전하게 교직원, 공무원으로 한정된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자료를 활용, 3,484명에 대해 537억원의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다. 이들은 암 발생에 흡연 외에 다른 환경적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더 유리하다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br/><br/>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537억원 규모가 적당하나 시민사회단체에서 2,302억원 규모는 돼야 파급력이 있다는 의견도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br/><br/>소송절차 돌입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정부와 건보공단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소송대리인 선임 공고를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취소했다가 다시 오후 늦게 발표했다. 소송 규모 발표 역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소송 전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미뤄졌다.<br/><br/>정부가 소송을 만류하는 이유는 "소송비용에 세금이 쓰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확실할 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담배회사를 상대로 4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었지만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 흡연으로 인해 개인이 질병을 앓게 됐다는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기재부가 큰 세원인 담배회사 압박을 원치 않는다는 시각이 많다. <br/><br/>건보공단 측은 건보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자료를 이용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더 수월하고, 담배회사의 위법성에 대해 말해줄 내부고발자들의 연락이 이미 오고 있기 때문에 승소할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소송비용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 비용 1억3,790만원, 청구금액의 40% 이상 승소시 성공보수와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각 2억7,580만원), 인지대, 송달료를 모두 포함해도 5억7,000만원 정도다.<br/><br/><br/><br/>송옥진기자 click@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38.txt

제목: 아베 히로유키 방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 결과 밝혀  
날짜: 20140325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5100000201  
본문: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이 초청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br/><br/>초청 세미나는 지난 17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새로운 개별화 암 치료방식인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를 주제로 진행됐다. <br/><br/>이날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를 발표, 이를 통해 기존 암 치료방식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개인별 암세포의 특징과 항암제에 대한 내성, 암세포로 발전하게 된 이유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br/><br/>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신 수지상세포 암백치료는 정상 혈액 가운데 4~8%의 단구(單球)에 개인별 유전자 검사와 암 항원 검사를 하여 암 치료에 필요한 펩타이드를 추가한 방식</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지금까지 인체의 1% 미만인 수지상세포를 암 치료에 이용하기 위해서 약 2~3시간 동안 성분 채혈을 해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T세포에 공격대상이 되는 암 항원의 정보를 제시하여 암세포의 항원 정보를 전달받은 세포상해성 T림프구(Cytotoxic T Lymphocyte, CTL)가 이 정보를 기준으로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원리다. 따라서 CTL이 정상세포를 공격할 위험이 거의 없어서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없다. <br/><br/>암항원 인식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아베종양내과는 ‘WT1’과 ‘MUC1’ 펩타이드를 개인별 암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 단구세포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1번~449번까지 있는 WT1 펩타이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 T세포를 활성화하고, MUC1 펩타이드는 헬퍼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하여 항암기간을 6~9개월까지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br/><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지금까지 WT1 펩타이드 중 일부만 사용해 암 치료 효과가 저조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암항원인 WT1 펩타이드 전체와 MUC1 펩티드를 포함해 평균 3~5개의 펩타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우수하다</span>”고 말했다. <br/><br/>아울러 “일본 내 대부분의 병원이 수지상세포를 동결 보관해 사용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떨어졌던 단점을 해결했다”며 “본 병원에서는 매번 소량만 채혈함으로써 선도 높은 백신 제조가 가능토록 했다”고 전했다. <br/><br/>아베종양내과는 이 같은 암치료 방식인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를 통해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치료한 결과 74.4%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총 6회 실시, 암세포가 완전 관해 된 환자 2명(5.12%), 부분 관해 된 환자 5명(12.82%), 정지되거나 안정된 환자 22명(56.41%), 진행된 환자 10명(25.64%)으로 나타났다. <br/><br/>‘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에 대한 추가 임상연구결과는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학회는 오는 6월 14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다. <br/><br/><br/>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39.txt

제목: "대기오염 관련 질병, 한 해 700만명 사망"  
날짜: 20140325  
기자: 이성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5100000373  
본문: 납과 카드뮴 등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지니고 있는 미세먼지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대기오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지난 2012년 한 해에만 700만명이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br/><br/>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 오염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환경 위험 요소가 됐으며 대기 오염을 줄여야만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br/><br/>WHO는 2012년 석탄이나 나무, 화석연료 등으로 난방과 취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실내 공기 오염으로 430만명, 자동차 매연 등 대기오염으로 370만명의 질병이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보이며 실내 공기오염과 실외 대기오염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결국 700만명 가량이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br/><br/>WHO는 집안이나 야외에서의 대기오염 노출이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질환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 발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폐기종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 발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br/><br/>2012년 당시에는 지역적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지역의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의 국가들이 대기오염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r/><br/>WHO 공공건강국 국장인 마리아 네이라 박사는 "대기오염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등에 미치는 위험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현재 공공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하며 따라서 대기를 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br/><br/><br/><br/>이성원기자 sungwon@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40.txt

제목: [라제기의 시네마니아]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 '화장'  
날짜: 20140325  
기자: 라제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5100000334  
본문: 유학생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소녀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1970년대 독일 함부르크는 한국인커녕 동양인도 흔치 않았다. 소녀는 학교에서 유일한 동양인이었고 몇 년 뒤 두 번째 동양인이 입학했다. 소녀의 여동생이었다. 고립무원이었던 10대 시절 소녀는 텔레비전으로 한국영화와 처음 만났다.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1981)였다. 영화를 보며 소녀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어렴풋이 느꼈다. 소녀는 훗날 독일 감독 빔 벤더스의 '돈 컴 노킹'(2005) 등의 프로듀서로 일을 하게 됐다. 재미 영화제작자 이인아씨가 들려준 자신의 지난 날이다.<br/><br/>23일 밤 방송에서 '길소뜸'(1985)을 봤다. 한국전쟁 통에 생이별하고 아들까지 잃어버린 남녀가 30년 만에 해후하고 핏줄과 상봉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다. 아들로 여겨지는 사내를 만나고서 여인은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려 한다. 차에 치인 개를 보고 몸에 좋은 고기라며 눈을 희번덕거리거나 사람의 죽음을 돈벌이에 활용하는 비법을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사내 앞에서 여인은 치를 떤다. 어렵게 이룩한 부와 단란한 가정이 뒤늦게 찾은 아들 때문에 흔들릴까 두렵기도 하다. <br/><br/>무정하게 돌아서는 여인을 보며, 세월 앞에선 물보다 진할 수 없는 피의 무기력이 느껴지는 영화였다. 임권택 감독은 한 민족이면서도 융화되기 쉽지 않은 남북한의 현실을 세 사람의 비극에 빗대어 은유한다. 어떤 소재로든 우리 삶의 과거와 현재를 놓지 않는 임 감독의 고집은 '길소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 때 해외에서 한국영화와 동의어로 통했고 국내에선 완성도와 상업적 성공을 한꺼번에 성취했던 임 감독의 저력이 새삼 느껴졌다. <br/><br/>임 감독이 그의 102번째 영화 '화장'의 완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화장'은 말기 암환자인 아내를 간호하면서도 젊은 직장 부하에게 마음이 끌리는 50대 남자 오상무(안성기)의 이야기다. 소설가 김훈의 동명 소설이 바탕이다. 올 1월 1일 크랭크인해 이달 8일 촬영을 마쳤다. 임 감독의 최근 영화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얼마 전 1차 편집을 끝냈다는 후문이 들린다. 임 감독의 전작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수작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안성기가 일생일대의 연기를 펼쳤다는 말도 들린다. 임 감독은 자연 풍광에 기대 역사의 굴곡에 휘말린 인물들의 아픔을 묘사하곤 했는데 이번 영화는 안성기의 얼굴에 집중했다고 한다. 대가가 한 중년 남자의 내면 풍경을 렌즈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포착했을지 궁금해진다. <br/><br/>'화장'은 5월 열리는 칸국제영화제를 겨냥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반신반의하는 영화인이 적지 않았다. 완벽을 추구하다 일정을 넘기기 일쑤였던 노대가의 작업 스타일때문이었다. '화장'의 유례없는 속도전은 칸 입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날림 우려도 있지만 제작사가 '충무로 품질보증마크'인 명필름이다. 기대를 품기 충분하다. 칸영화제 초청작 명단은 내달 발표된다.<br/><br/>한국영화계 거장이 칸에 갈지를 한국 축구의 월드컵 최종 예선 통과를 바라보듯 하는 태도가 불경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임 감독이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 받아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거머쥐는 모습은 상상만해도 흐뭇하다. 황혼에 이른 연령 때문에 해가 갈수록 임 감독의 신작이 더할 나위 없이 귀하다. 올해 한국영화 기대작을 꼽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말하겠다. '화장'이라고. <br/><br/><br/><br/>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41.txt

제목: "오진 탓 폐암 말기, 5000만원 위자료"  
날짜: 20140324  
기자: 배성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4100000362  
본문: 한국소비자원이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폐암 말기 환자에게 해당 병원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br/><br/>24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일식집 요리사인 강모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오른쪽 흉부 통증으로 경기 평택시 한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세 차례 받았으나 모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이 이어지자 강씨는 이듬해 11월 수원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고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후 투병 중이다. <br/><br/>그러나 병원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강씨의 X선 검사에서 보인 폐병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단층촬영(CT) 검사가 필요했고, 이후 병변이 커졌지만 의사가 계속 정상으로 잘못 판독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초 X선 검사에서 나타난 폐병변이 2㎝ 이하로 암 초기로 보이고 한 군데서만 발견돼 적절한 진료를 받았다면 완치도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br/><br/>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런 병원의 실수와 30대인 강씨의 노동력 상실 정도를 감안해 19일 병원 측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양측에 발송했다. 15일 내 분쟁조정위 결정에 양측이 이견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지만, 한 쪽이 거부하면 결정은 무효가 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강씨 측은 수용의사가 있지만 병원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br/><br/>의료진의 암 관련 오진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 건수는 2011년 15건, 2012년 28건, 지난해 57건으로 급증했다. 변호사 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송과 달리 소비자원은 무료로 조정절차를 진행해 피해자들의 구제 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의사가 폐암의 기초 진단인 X선 자료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과 환자의 말기 암 진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점이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br/><br/><br/><br/>배성재기자 passion@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42.txt

제목: 맘모톰, 꼭 해야 하나?  
날짜: 20140324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4100000067  
본문: 올해 40대로 접어든 김모씨는 최근 가슴이 욱신거리는 느낌을 받고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다. 젊은 나이인데도 유방암에 걸려 수술을 받은 후배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눌러서 찍는 엑스레이(유방 촬영술)는 했지만, 유방초음파를 봐야 한다는 주변 지인들의 말을 흘려 들은 것이 불안해 졌다. <br/><br/>유방암은 과거 ‘선진국 병’이라고 불렸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고 미국 등의 서양에서 많이 발병됐기 때문이다. 현재도 미국의 여성 암 발병률 1위는 유방암이다. <br/><br/>하지만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암 발병이 크게 늘었다. 1996년 3,801명이었던 유방암환자발병이 15년 정도 지나니 그 수치의 약 4배 이상이 증가하여 1만 6천명을 넘게 된 것이다. <br/><br/>유방암은 특히 초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다.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와 진행 후 발견되는 경우의 예후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br/><br/>초기 진단을 하려면 자가검진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한국 여성의 유방암은 자가검진으로는 발견이 쉽지 않다. 정상유선조직이 빽빽하게 들어 차 있는 치밀한 유방이 대부분이라서 가슴에 혹이 생겨도 만져지기가 어려운 것이다. <br/><br/>정상 유선조직도 마치 혹처럼 만져지기 때문에 유방초음파를 보기 전에는 경험 많은 유방외과의 의사의 진찰로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의들의 말이다.<br/><br/>이는 X-ray로 찍는 유방촬영술로는 치밀유방 속의 혹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때문에 한국, 일본, 싱가포르 같이 치밀유방이 많은 나라의 여성들은 유방초음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시사하고 잇다. 즉, 정기적인 검진(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만이 유방암조기진단으로 이르는 유일한 통로라는 얘기다. <br/><br/>여기서 또 문제점은 유방암은 조기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유방의 혹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는 모양만 가지고는 작을 때는 구별이 힘들다. 이로 인해 유방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br/><br/>과거 세침흡입검사, 총 조직검사를 거쳐 현재는 맘모톰까지 조직검사 방법이 발전해 왔다. 현재 총조직검사가 기본 검사로 알려져 있고, 정밀한 검사를 위해 맘모톰도 많이 쓰는 추세다.<br/><br/>맘모톰은 초음파로 보면서 다소 굵은 바늘을 가슴에 삽입하여 바늘 끝의 부품이 왔다갔다하며 유방의 멍울을 제거하는 기계이름이다. 부분마취로 진행돼 부담이 적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br/><br/>강남유외과 신승호 원장은 “<span class='quot0'>수술을 하면 흉터가 크게 남지만, 맘모톰은 바늘 구멍 정도만 남기 때문에 미용적이 이점이 크다</span>”며 “<span class='quot0'>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십여 년 동안 수 백만 건 이상의 시술로 효과가 입증됐다</span>”고 전했다. <br/><br/>강남 유외과 신 원장은 이어 “<span class='quot1'>이 시술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시술 후 출혈 가능성이어서 맘모톰시술 후 탄력붕대를 감아서 시술 부위를 압박하고, 몇 시간 입원하여 출혈여부를 점검 후 퇴원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최근에는 내시경 맘모톰 기법을 도입돼 시술 부위를 직접 보면서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출혈이 많다면 특수 내시경으로 보면서 내시경장비로 지혈할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 <br/><br/>한편 전문의들은 총조직검사 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유방전공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맘모톰 시행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br/><br/><br/>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43.txt

제목: 글래머스한 남성들의 고민, 여유증  
날짜: 20140324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4100000127  
본문: 여유증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생소한 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의 고민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여유증이라고 할 수 있다. 여유증은 여성형 유방증의 줄인 말로 남성의 가슴이 여성의 가슴처럼 볼륨감이 있는 상태, 한마디로 '가슴달린 남자'라는 말이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br/><br/>문제는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서 여유증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드라져 더욱 스트레스가 가중화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과거에 비해서 많은 남성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기에 대구비뇨기과 파파스남성의원 김도형원장과 함께 여유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br/> <br/>Q. 과거 비해서 여유증 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br/><br/>A. 여유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호르몬에 유선조직의 반응이 민감해져 유방조직이 비상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갑산성기능 저하, 암 등에 의한 호르몬 이상, 신장기능이상, 내분비계 이상, 간경화 등의 대사성 질환이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남성들의 여유증 발병의 원인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비만'을 들 수 있습니다. <br/><br/>서구화된 식습관로 인해 비만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비만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br/><br/>비만은 지방조직의 증가는 물론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증가시켜 이로 인해서 가슴이 점차 돌출되고 이는 여유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br/><br/>Q. 비만이 여유증의 원인이라면 운동, 식이조절로 인해서 여유증 증상이 사라지지 않을까요?<br/><br/>A. 여유증의 원인이 중 하나가 비만이기는 하지만 여유증의 경우 지방조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선조직의 발달로 인해서 발병하는 증상입니다. <br/><br/>간혹 운동으로 여유증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지방만 빠진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여유증 증상이 나타나는데는 '유선조직'이 연관되어 있는데 지방조직만 빠지고 유선조직만 남아있기에 되면 오히려 증상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되고 이는 여유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여유증을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br/><br/>Q. 여유증 증상이 있다면 무조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일까요?<br/><br/>A.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선조직이 발달하면서 발병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유아기, 청소년기, 노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호르몬이 불안정하고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어 유선조직의 발달로 인해서 여유증 증상이 발생하게 되지만 유아기, 청소년기에 발생한 여유증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이 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유아기, 청소년기에 발병한 경우에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여유증 증상이 지속된다면 그때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br/><br/>Q.수술적인 치료라고 하기에 절개, 흉터에 대한 부담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br/><br/>A. 여유증의 경우 외과적인 절제수술이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흉터적인 문제가 환자들은 고민이 됩니다. 절개 반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두 주변을 최소 절개하여 유선조직을 제거하며 지방 흡입술로 전체적인 피하지방의 볼륨감을 줄이게 됩니다. 더욱이 여유증 수술의 경우 수면 마취 하에 시행되고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회복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br/>여유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며 검사 후에는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자신감을 찾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마음 태도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는 여유증!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자신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br/><br/><br/>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44.txt

제목: [의료] 생명보험 통계로 본 최다 사망원인 ‘남-간암, 여-폐암’  
날짜: 20140323  
기자: 정용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3100000019  
본문: 생명보험계약 통계에 따른 한국인 최다 사망원인으로 남성은 간암, 여성은 폐암인 것으로 나타났다. <br/><br/>23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생명보험상품 전체 계약을 통해 집계된 남성의 사망원인은 간암이 2010년 2,889건, 2011년 2,925건, 2012년 2,990건으로 매년 제일 많았다. <br/><br/>여성의 사망원인은 지난 3년간 폐암이 1위였으며 2010년 1,069건, 2011년 1,123건, 2012년 1,216건으로 조사됐다. 폐암은 또 지난 3년간 남성 사망원인 2위다. <br/><br/>일반적으로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이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남녀 모두 폐암으로 알려져 있다. 재작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 남성은 폐암-간암-위암, 여성은 폐암-위암-대장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br/><br/>오상철 고려대 의과대학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퍼지고 있으나 폐암은 암 가운데서도 치유가 가장 어렵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여성은 흡연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잘못된 믿음과 여권 신장 등의 영향으로 최근 흡연자와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span>”라고 설명했다. <br/><br/>정용운기자<br/><br/><br/><br/>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45.txt

제목: "황우석과 줄기세포 연구" 암 환자에 가짜 면역세포 장사  
날짜: 20140321  
기자: 한덕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1100000246  
본문: 황우석 박사와 함께 줄기세포 연구를 했다고 속여 말기 암 환자들을 모아 가짜 면역세포를 주사한 뒤 거액의 치료비를 챙긴 무면허 의료업자와 부부 모집책이 검찰에 적발됐다.<br/><br/>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이진동)는 암환자 6명으로부터 모두 5억1,900만원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무면허 의료업자 임모(57)씨와 환자 모집책 김모(58ㆍ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씨의 남편(64)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br/><br/>임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면역세포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고 속여 폐암 말기 환자 등 5명을 모집해 중국에 있는 임씨의 개인연구소에서 가짜 면역세포액을 주사한 뒤 치료비로 4억8,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모집책의 도움 없이 담도암 환자 1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 치료비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br/><br/>김씨 부부는 임씨를 '서울대에서 황우석 박사와 함께 줄기세포를 연구한 박사'라고 속여 암 환자들을 모집했으며 소개한 대가로 치료비의 30%인 1억1,300만원을 챙겼다.<br/><br/>지방의 한 의대에 진학했다가 제적돼 의사 면허가 없는 임씨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김씨 부부를 만나 범행을 모의했다.<br/><br/>임씨 등이 암 환자들에게 주사한 면역세포 주사액은 아미노산 화합물 등으로 면역력 증강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br/><br/>이들에게서 치료받은 환자 6명 가운데 3명은 치료 중 증세가 악화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국내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br/><br/><br/><br/>춘천=한덕동기자 ddhan@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46.txt

제목: 이영아, 서하준 '암세포' 대사 생각나…초면부터 폭소  
날짜: 20140321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1100000199  
본문: '이영아' '서하준'<br/><br/>배우 이영아가 배우 서하준과의 첫 만남 비화를 털어놔 웃음을 자아냈다.<br/><br/>21일 오후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컬투쇼'에는 SBS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이영아와 서하준이 함께 출연해 화려한 입담을 뽐냈다.<br/><br/>이날 방송에서 DJ 컬투가 이영아에게 서하준의 첫인상을 묻자 "사실 서하준을 처음 보자마자 '암세포' 대사 때문에 웃음이 터졌다"고 밝혔다.<br/><br/>'암세포 대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종영된 MBC 일일극 '오로라공주'에서 서하준이 암에 걸린 '설설희'를 연기하며 "암세포들도 어쨌든 생명이다.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세포들도 느낄 것 같다"라는 충격적인 대사로 시청자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대사이다.<br/><br/>서하준 역시 과거 KBS 2TV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암세포' 대사가 적힌 대본을 받아들고 5분간 얼음이 됐었다"고 말한 바 있다.<br/><br/>또한 이영아는 이날 방송에서 "서하준은 드라마에서 지고지순한 역할을 해서 조용한 성격일 줄 알았다. 하지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성격이더라. 촬영할 때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잡을 때까지 하고 왔다. 8시간 동안 잡더라"고 말했다.<br/><br/>이를 들은 서하준은 "오기가 생겨서 하다보니 해가 저물었다. 원래 뭔가를 해내지 못하면 계속 떠오른다"고 말해 주위를 폭소케 했다.<br/><br/>'이영아 서하준' 방송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영아, 웃음 터진 이유 공감간다" "이영아, 서하준 보고 초면에 빵 터졌겠어" "이영아 발언에 서하준 '암세포' 대사 또 생각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한국아이닷컴 이주화 인턴기자 enter@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47.txt

제목: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효과적인 유효치료율 기대  
날짜: 20140320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0100000116  
본문: 현대진단 의학의 발달로 암을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 치료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암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아직도 암은 치료를 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생각되기 쉽다. 현대인의 6대 질병인 암은 고통 받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암 치료에 대한 관심은 높다.<br/><br/>의학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제4의 치료법인 면역요법과 같은 암 치료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국내 환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br/><br/>특히 일본 큐우슈우지역 구마모토에 소재한 암 면역 전문병원인 센신병원의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이하 ‘박사’)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면역세포치료는 면역세포의 동시배양을 통해 면역세포가 팀이 되어 암세포를 없애는 치료법이다. <br/><br/>센신병원 측에 따르면 박사가 개발한 5종복합면역요법을 수지상세포에 인식시킨 DC-아이백/WT1요법으로 암 환자들의 유효 치료율을 70%이상 끌어올렸다고 밝혔다.<br/><br/>현재 박사가 주로 시행하고 있는 치료법은 DC-아이백/CSC요법인데, 일명 ‘암줄기세포 특이항원면역백신요법’이다. <br/><br/>암 줄기세포는 암세포를 만들어 내는 암세포의 근원이 되는 세포로 정상세포의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자기복제능력’과 ‘다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암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차단할 수 있다. 암 줄기세포는 평소 휴면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암제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원리다.<br/><br/>츠네오 박사는 일본 유명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암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항원을 3년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br/><br/>특히 5종복합면역요법과, 수지상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 그리고 암 줄기 세포 특이항원 펩티드가 결합된 DC-아이백/CSC요법으로 75% 이상의 높은 치료율을 기대하고 있다. 박사는 지난해 말부터 이 치료법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br/><br/>현재 츠네오 박사의 센신병원은 일본 정부의 지원금으로 도쿄에 제2병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일본 지역 내의 35여개의 제휴병원을 통해 암 치료를 위한 수지상세포 면역세포를 제공 중이며 수지상세포치료를 표준 치료로의 발전을 노리고 있다.<br/><br/><br/>한국아이닷컴 이동헌기자 ldh1412@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48.txt

제목: [우리 아이 주치의] <1>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혜순 교수  
날짜: 20140320  
기자: 이화여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20100000392  
본문: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br/><br/>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다들 같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작 아이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진료과로 가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해 당황하는 부모가 많다. 그런 부모들을 위해 소아 전문의들로부터 최근 빈발하는 어린이 질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처음 만난 전문의는 김혜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다. <br/><br/>10년 전 사춘기 소녀처럼 가슴이 봉긋하게 솟기 시작했을 때 아이 나이가 겨우 만 네 살이었다. 아직 어린데 가슴이 커지는 걸 이상하게 여긴 엄마가 혹시나 하고 병원을 찾았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아이의 뇌 속에 자리잡은 종양이 확인됐다. 다행히 암으로 진행되지 않는 양성이었고 크기도 비교적 작았다. <br/><br/>김혜순(50)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곧바로 호르몬 치료에 들어갔다. 종양 때문에 뇌가 아이의 몸이 사춘기인 것으로 착각, 성호르몬을 내보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그대로 두면 사춘기가 너무 일찍 와 유아 시기에 성장이 멈출 수 있었다. 6, 7년 가량 이어진 호르몬 치료는 성공적이었다. 최근 만난 아이는 대견하게도 키가 160㎝ 가까이 자랐다. <br/><br/>성조숙증 등 아이들의 내분비질환을 치료하는 김 교수는 진료 분야의 특성상 아이의 부모와 민감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그런데 자녀의 성(性) 발달을 대하는 부모의 반응이 각양각색이다. 김 교수는 사춘기를 앞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우리 아이의 성장 발달이 다른 아이와 다를 수 있다."<br/><br/>조기 사춘기 부르는 비만<br/><br/>사춘기는 뇌가 조절한다. 사춘기가 너무 일찍 오면 뇌에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고 의사들이 추정하는 이유다. 뇌질환이 있으면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돼 사춘기 시작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김 교수는 "만 여섯 살 이전에 가슴이 커지는 등 성적 성장을 보이는 아이는 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br/><br/>이 정도는 아니지만 사춘기를 또래보다 일찍 겪는 아이가 적지 않다. 유전, 비만, 환경호르몬 섭취, 생식기관의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김 교수는 이 중 비만에 특히 관심이 많다. 비만인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사춘기가 더 일찍 오는 경우가 많다. <br/><br/>"햄버거, 피자, 콜라 등 서구식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많은 열량이 몸에 들어오지만 활동량은 그에 미치지 못해요. 소비되지 않고 몸에 남은 열량이 지방세포와 결합해 피하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렇게 쌓인 피하지방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사춘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br/><br/>"내 아이가 평균이 아니라니…"<br/><br/>사실 사춘기는 전세계적으로 빨라지는 추세다. 10년마다 2, 3개월씩 당겨진다. 한국도 여성의 평균 초경 연령이 1960년대에는 15~17세였으나 1980년대엔 14세, 최근에는 12.8세를 기록했다. 대개 사춘기 시작점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초경을 한다. 한국 여아는 만 10~11세, 남아는 11~12세에 사춘기를 시작한다. <br/><br/>"가슴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를 데려온 부모가 있었어요. 딸의 사춘기가 시작됐고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설명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사춘기 연령만 생각하고 너무 이르다고 여긴 거죠."<br/><br/>부모가 이 정도 반응만 보여도 괜찮다. 자녀의 사춘기가 평균보다 조금만 일찍 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가 종종 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엄마가 있어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죠. 부모 눈에는 딸이 아직 어려 생리 뒤처리도 못할 텐데 어쩌나 싶은 거지요. 우리 아이는 모든 면에서 '정상'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라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발달 과정조차 평균에서 벗어났다고 걱정합니다."<br/><br/>부모의 이런 태도는 도리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가 지나치게 조급하거나 걱정하면 아무렇지 않던 아이조차 자신에게 병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사춘기가 평균보다 어느 정도 이르거나 늦은 것은 개인의 차이일 뿐이다. <br/><br/>이른 사춘기=작은 키? NO!<br/><br/>그러나 성장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사춘기가 유난히 빠르면 성조숙증 진단을 받게 된다. 성조숙증은 뼈를 비롯, 신체의 전반적인 성장이 매우 빨리 시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성조숙증 아이는 처음에 또래에 비해 키가 월등히 크지만 다른 아이가 정상적인 성장을 마치면 오히려 키가 그들보다 작아지기도 한다. 성장이 빨리 진행됐다가 빨리 멈출 수 있는 것이다. <br/><br/>여자 아이는 초등학교 1, 2학년 전 유방 발달이 시작하거나 4학년 전 초경을 하면 성조숙증일 가능성이 있다. 남자 아이는 초등학교 3, 4학년 전 겨드랑이에 털이 나거나 변성기가 오면 의사에게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키가 한 달에 1㎝ 이상 계속 자라고 몸무게가 500g~1㎏씩 늘어도 성조숙증을 의심할 수 있다. <br/><br/>성조숙증 기준에는 못미치지만 그래도 남보다 일찍 사춘기를 맞는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이른 사춘기를 약으로 늦춰달라는 것인데, 김 교수는 아들 딸을 키우고 있어 부모 심정은 이해하면서도 의사로선 여간 곤란한 게 아니다. <br/><br/>"제 키가 170㎝ 정도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제가 키가 크니까 키 작은 설움을 모를 거라면서 사춘기를 일찍 시작한 아이지만 키라도 크게 해달라는 거예요. 설득하느라 애 좀 먹었죠. 사춘기가 빠르다고 최종적으로 키가 작다는 법은 없거든요. 사춘기가 이른 자녀 세대가 어른이 됐을 때 부모 세대보다 키가 크다는 게 그 증거죠. 아이의 성장 발달 과정을 모두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br/><br/>단 평소 자녀의 성장 발달을 다른 아이와 비교해볼 필요는 있다. 성조숙증인데도 병원을 너무 늦게 찾으면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어서다. <br/><br/>"아이가 어렸을 때는 키가 크다고 안심하다가 그게 성조숙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적절한 치료 시기가 지나간 경우가 많지요. 특히 남자아이는 유방 발달이나 초경처럼 눈에 띄는 신체 변화가 적어 평소 고환 크기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사춘기가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br/><br/>김 교수의 아들과 딸은 지금 고등학생이고 사춘기도 지나왔다. "저는 사춘기가 늦은 편이었는데 제 딸은 빨랐어요. 늦든 빠르든 아이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장점과 자존감을 살려주는 게 부모와 의사의 역할입니다."<br/><br/>●김혜순 교수는<br/><br/>▲1989년 이화여대 의대 졸업<br/><br/>▲1997년 이화여대 의학박사 취득<br/><br/>▲1997년~ 이화여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br/><br/>▲2005~2006년 미국 LA캘리포니아대 소아병원 내분비내과 연수<br/><br/>▲2011년~ 한국소아내분비학회 기획이사<br/><br/>▲2000년~ 미국내분비학회 회원, 아시아태평양소아내분비학회 회원<br/><br/>▲전문 분야: 소아내분비내과(사춘기이상질환, 성장, 갑상선질환, 당뇨병)<br/><br/><br/><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49.txt

제목: 칠곡경북대병원 의료관광 본격 참여  
날짜: 20140317  
기자: 정광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7100000240  
본문: 올해 초 칠곡경북대병원에서 3박4일짜리 VIP 숙박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중국인 천궈(陈菓ㆍ46세)씨. 그는 이번 건강검진을 천운으로 여긴다.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 중국에서도 유명한 종합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 검진에서 갑상선 암과 뇌종양이 각각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1대 1 맞춤서비스로, 추가 검사와 수술예약, 흉터가 거의 없는 로봇 갑상선수술과 두개골 절제가 필요 없는 감마나이프 방사선으로 수술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br/><br/>천궈씨는 “수술상처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최첨단 로봇수술로 흉터 하나 없이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끔직하며, 우연히 들린 한국에서 건강검진과 수술까지 마칠 수 있어 천만 다행”이라고 말했다.<br/><br/>암과 노인성질환 전문인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본격적으로 외국인진료에 나섰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올해 슬로건을 ‘가자! 세계로!’로 정하고 지난 1월 중국 의료관광업체인 ‘헤메라’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VIP숙박 종합건강검진과 암수술을 중심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br/><br/>헤메라는 중국의 전자부품 기업인 다이 전자그룹, 롱지앤다전자저항기 유한공사, 디오브 전자유한공사등 3사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의료관광 전문 법인체로, 2013년 8월 개소하여 대구의료관광 선전 홍보관을 대구시와 공동운영하고 있다.<br/><br/>칠곡경북대병원은 외국인 전용 VIP숙박 종합건강검진을 국제진료의 시발점으로 삼아, 대구시와 향후 의료관광 발전에 있어서 다 각도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전담교수와 코디네이터의 1:1 맞춤서비스로 검진에서 진료, 수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r/><br/>박재용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여 국제진료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br/><br/>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50.txt

제목: [삶과 문화/3월 18일] 말들의 어떤 풍경  
날짜: 2014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7100000341  
본문: 우리 사회의 모든 규제들은 대부분 사후적 성격을 갖고 있다. 문제점이 발생한 뒤 그것을 개선하거나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지, 선제적으로, 미리 예견해서, 그것을 만들진 않는다는 뜻이다. 때문에 모든 규제의 뒤에는 그 나름대로의 풍경과 상처가 숨어 있다. 학교보건법만 하더라도 과거 신도시 중ㆍ고등학교 인근에 우후죽순 생겨났던 러브호텔로 인한 폐해, 거기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반발과 요구 등으로 강화된 것이다. 그러니 그 규제 속에는 이미 고통 받은 많은 사람들의 상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맞다. 대형 마트의 설립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각 지자체의 조례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 연이율 200%가 넘는 사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등도 모두 엇비슷한 사정이 포함된 제도들이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 무늬도 제각각 달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동물들의 약육강식 세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지점까지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규제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우리의 욕망을 욕망 그대로의 날 것으로 자각하게 만드는, 나름대로의 순기능도 갖고 있는 것이다.<br/><br/>물론 그렇지 않은 규제들도 존재한다. 규제 또한 인간이 만드는 것인지라 많은 사람들은 만족한다고 해도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겐 절대적인 손해로 돌아가는 것이 있고, 이쪽과 저쪽으로 팽팽하게 갈려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오로지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권력과 이익에 종사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구시대의 유물처럼 활자만으로 존재하는 것들도 있다. 게임 산업만 하더라도 그것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겐 셧다운 제 같은 것이 마음을 위축시키는 제도로 다가오겠지만, 밤낮 없이 게임에만 몰두하는 중2 아들을 둔 학부형들에겐 진작부터 생겼어야 할 규제일 뿐이다. 우리 사회의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조정, 합의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텐데,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성격이 점점 더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이다.<br/><br/>대통령이 규제에 대해 "쳐부숴야 할 원수", "암 덩어리" 같은 말들을 써가면서 혁신의 당위성을 주장한 모양이다. 대통령이 말한 규제들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지 않아 섣불리 판단내릴 순 없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아마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지칭한 듯싶다. 그 말을 접하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부끄러움이었는데, 그건 단지 투자와 공공의 목적이 충돌할 때 어느 편을 들 것이냐, 호텔을 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먼저냐, 아이들의 교육적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냐, 하는 가치 충돌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민낯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가 부끄러웠던 것은 오직 "쳐부숴야 할 원수", "암 덩어리" 같은 말의 수사법에 있었다. '쳐부수자 공산당'과 같은 1960, 70년대 반공 포스터를 그대로 연상시키는 저 말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허망하고, 모든 사태를 선악의 잣대로 구분하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다. 그것은 또한 그 이전에 했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과도 겹쳐져 대통령의 자기표현 방식에 대한 회의까지 이어졌는데, 이미 죽은 표현들과 시중에 유행하는 단어들을 고스란히 갖다 쓰는 수사법에서 세상과 자기를 확고하게 동일시하는 어떤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세상엔 나와 다른 사람들도 있고, 내가 모르는 세계도 있구나.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한 대상을 가리켜 '원수'나 '암 덩어리'와 같은 표현을 쓰지 못한다. 그 안에 어떤 상처가 있고, 또 어떤 처지가 숨어 있는지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에서부터 자기만의 표현, 자기만의 언어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말꼬리잡기 비판이 아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수필가로 활동한 문인이다. 나는 지금 그 문인에게 고언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br/><br/><br/><br/>이기호 소설가ㆍ광주대 교수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51.txt

제목: [편집국에서/3월 17일] 존속살해만 엄벌하는 것은 옳은가  
날짜: 2014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6100000097  
본문: 패륜이라고 몰매를 맞을지언정 이 질문을 던져야겠다. 우리 사회가 비속살해보다 존속살해를 엄히 처벌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br/><br/>지난해 말기 암의 고통 속에서 "죽여 달라"고 한 아버지를 가족회의 끝에 목졸라 죽인 아들이 최근 재판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았다. 광주에서 가정불화가 심했던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아들도 징역 7년형에 처해졌다. 두 사건 모두 자수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 비교적 관대하게 내려진 선고였다. 검찰의 구형량은 두 피고에 대해 똑같이 징역 15년이었다. 존속살해 사건은 연간 40~60건 정도가 발생한다. 연간 약 1,000건에 달하는 전체 살인범죄의 약 5% 안팎이지만 패륜범죄라는 이유로 주목도가 높고 처벌도 무겁다. <br/><br/>이에 비해 비속살해는 언론의 주목을 덜 받고 통계상 따로 구분되지 않아 발생 건수나 형량을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생활고 같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징역 4년형 정도로 경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징역 7년, 8년형 이상은 중형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분명히 존속살해와 비속살해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br/><br/>이러한 차별은 유교의식에 경도된 법관들의 인식 때문이 아니다. 형법 자체가 존속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어서다. 존속살해의 경우 최하 법정형이 징역 7년형으로 보통살인죄의 최하 형량(5년 이상의 징역)보다 높다. 1995년 형법 개정 전에는 존속살해죄에 대한 처벌이 사형과 무기징역뿐, 징역형은 아예 없었다. 그래서 법학자들 사이에선 존속살해만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논쟁이 꽤 오랫동안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소원에서 재판관들은 7 대 2로 "존속살인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조선시대 이래 계속된 것으로 보통살인죄보다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합헌론의 손을 들어줬다. <br/><br/>나의 법감정은 차라리 비속살해를 가중처벌하라고 외친다. 냉정함을 무릅쓰고 비교하건대 늙으신 부모보다 어리고 미성숙한 자녀야말로 절대적 약자이며, 약자에 대한 보호가 효(孝) 사상보다 더 보편적인 도덕관념 아니냐는 생각 때문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자기방어력이 미미한 어린이에게 보호자여야 할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고 목숨을 빼앗는다면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br/><br/>물론 형법 체계가 도덕론만으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처벌만이 능사냐는 다른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많다. 더구나 비속살해보다 존속살해를 금기시하는 것은 인류의 진화라는 보다 뿌리 깊은 유산인지도 모른다. 인간 수명이 번식이 불가능한 나이까지 연장된 것은 얼핏 진화론적으로 이득이 없어 보이지만 친족의 출산과 육아를 돕고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문명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됐다는 해석이 있다.<br/><br/>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우선 비속살해 사건이 얼마나 되고 이유가 뭔지 조사할 필요가 있겠는데, 실태를 조사한다면 '동반자살'이라고 잘못 일컬어지는 자녀 살해 후 자살(시도),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는 학대치사의 상당수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살인으로 여기지 않거나, 처벌을 감경하는 게 옳은지부터 따져볼 일이다. "어차피 나 없으면 못 살 테니 내 자식도 죽이겠다"거나 "내 아이를 때려 키우기는 했지만 죽이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주장을 직면하면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얼마나 은밀하고 공고하게 똬리를 틀고 있는지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 학대의 경우엔 사망에 이르는 비극은 피하더라도 한 명의 인생을 망치고 미래의 가정폭력 가해자를 낳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 <br/><br/>우리에겐 새로운 형법,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비속범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옳은 일인가?<br/><br/><br/>김희원 사회부 부장대우 hee@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52.txt

제목: 구운 토마토가 정력회복과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  
날짜: 2014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4100000084  
본문: 80도가 넘는 열을 가한 토마토는 라이코펜 함량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 심혈관계 질환과 암 예방에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br/><br/>또 토마토는 힘을 내는 데 필요한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정력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흔히 우리는 정력에 좋다고 생각되는 보양식으로 보신탕, 장어, 추어탕을 떠올리는데 유럽에서는 이 토마토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br/><br/>일찍이 영국에서 정력에 좋다는 소문과 함께 '러브애플'로 불려온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 리코펜(Lycopene)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정력과 함께 심장질환과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br/><br/>특히 미국 하버드대학의 연구 결과 토마토를 일주일에 10회 이상 먹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이 발생할 확률이 45% 낮아져, 토마토가 남성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r/><br/>또 토마토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여성들의 피부미용에도 좋다. 비타민C와 수분 등이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진정·회복 시켜주고, 각종 유기산이 비타민과 함께 작용해 신진대사 활동을 촉진시켜 피부를 건강하게 해준다. 그리고 토마토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피부 트러블의 원인 중 하나인 변비를 해소하는데도 효과가 있다.<br/><br/>☞ 88도 열 가해 만든 토마토환 구매하기<br/><br/>한국아이닷컴 뉴스부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53.txt

제목: [Check! 건강소식]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 출범 外  
날짜: 2014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3100000434  
본문: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 출범<br/><br/>삼성서울병원에 심장질환과 뇌졸중, 혈관질환을 통합 치료하는 심장뇌혈관병원이 만들어졌다. 병원 측은 치료부터 재활, 예방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진료를 시도하고 외래와 입원 공간을 합쳐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급성 뇌졸중 환자 전용 병상과 설비를 늘리고 신경 집중치료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초대 병원장을 맡은 오재건 미국 메이요클리닉 순환기내과 교수는 "심장혈관과 뇌 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을 환자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r/><br/>'수술 전 금식' 금기 깨진다<br/><br/>수술 전 8시간 이상 금식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규환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팀은 "성인 10명과 소아 30명을 대상으로 탄수화물 보충음료를 섭취한 뒤 위 상태와 불안감을 조사했더니 수술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국제수술대사영양학회 등 국제학회도 수술 2시간 전까지는 탄수화물 음료를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br/><br/>암 만성병 관리 건강강좌<br/><br/>서울대암병원이 20일 오후 3시 어린이병원 임상 제1강의실에서 '암 경험자가 잘 걸리는 만성병 관리하기'를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연다. 최호천 가정의학과 교수가 암 치료 후 잘 생기는 만성병 종류와 경과, 관리법 등을 알려준다. 강의 후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02)2072-0077, 0088<br/><br/>콩팥 질환 건강강좌<br/><br/>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18일 오후 2시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만성콩팥병 공개 강좌를 연다. 최범순 신장내과 교수가 사구체 질환을, 임현진 영양사가 저요산 식이법을, 김영주 간호사가 만성콩팥병 소개 등을 주제로 각각 강의하며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02)2258-1231<br/><br/><br/><br/>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54.txt

제목: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댈러스의 총성  
날짜: 20140313  
기자: 라제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3100000426  
본문: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최후를 맞았다. 그의 암살엔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숱한 물음표와 해석이 따라 붙는다. 역사의 큰 기호가 된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물은 많다. 영화 팬들이라면 올리버 스톤 감독의 'JFK'(1991)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케네디의 죽음 뒤에 군산복합체의 음모가 있었고 리 하비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 아닐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던 영화다. 흐릿한 초점과 거친 입자로 케네디의 최후를 담은 아마추어 영상물이 단서로 제시된다. <br/><br/>케네디 암살 사건을 중심에 둔 영화들이 대부분 케네디에 방점을 찍었다면 '더 파크랜드'는 케네디 암살의 자장 아래 놓여 있던 사람들에 초점을 맞춘다. 갑작스레 병원에 이송된 케네디의 응급 처치를 담당했던 의사들과 간호사들(대통령이 병원으로 온다는 소식에 그들은 "감기겠죠 뭐"라고 반응한다), 국가 원수의 죽음을 막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린든 존슨 부통령과 대통령의 시체를 보호해야 했던 경호원들, 케네디의 모습을 보러 나갔다가 피격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게 된 사내인 에이브러햄 자푸르더, 오스왈드의 형과 그의 어머니 등 '보통 사람들'이 돌아가며 스크린 중심에 선다.<br/><br/>세계를 뒤흔든 암살 사건의 두 주인공이었던 케네디와 오스왈드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겪은 폭풍과도 같은 3일이 영화를 채운다. 사건의 앞면에 대한 기록만 접했던 관객들에게 꼼꼼히 재연한 사건 이면을 제시하며 미국 역사의 결정적 한 순간을 좀 더 입체적으로 접근한다. 'JFK'가 당시의 영상물을 반복해 보여준 반면 이 영화는 그 영상물을 최대한 감춘다. 사건을 파헤치기보다 뜻하지 않게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겪는 감정의 파도를 전하려는 연출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br/><br/>제목은 케네디가 실려갔던 공립병원의 이름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오스왈드도 이 병원으로 옮겨져 같은 의료진 앞에서 숨을 거뒀다. 케네디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의사들은 오스왈드의 죽음 앞에 냉담하다. 영화의 마지막은 미국인들의 애도 속에 거행된 케네디 장례식과 누구도 관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던 쓸쓸하기 짝이 없는 오스왈드 장례식을 교차시키기도 한다. <br/><br/>암살 직후부터 꽤 오랜 시간 남편 케네디의 두개골 조각을 쥐고 있었던 재클린 여사의 넋을 놓은 모습, 대통령 전용기의 좌석을 제거하고 케네디의 주검을 워싱턴으로 옮겼던 사연 등이 흥미롭다. 저널리스트 겸 소설가인 피터 랜즈먼이 4년 동안 관련 인물들을 인터뷰하거나 자료를 조사해 만들었다. 20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br/><br/><br/>라제기기자 wenders@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55.txt

제목: 운석 가격 최소 50억 원? 최초 발견자 '땡 잡았네!'  
날짜: 20140312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2100000047  
본문: '운석 가격'<br/><br/>최근 경남 진주에 떨어진 암석이 운석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10일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강모 씨는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암석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br/><br/>암석의 감정을 맡은 극지연구소와 서울대 최변각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는 암석 표면에서 자성을 측정해 철 성분이 지구상 암석보다 100배 정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br/><br/>감정팀은 2주 동안 암석 표면뿐 아니라 내부까지 정밀 감정할 예정이다.<br/><br/>암석의 가치는 성분이나 희귀성에 따라 측정되는데, 1g당 최소 10만 원의 가치를 지니며, 같은 무게의 순금보다 2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br/><br/>운석의 소유권은 운석이 떨어진 땅의 소유자가 아닌 최초로 운석을 발견한 발견자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한편 서울대 최변각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는 "분류가 끝나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 가격을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현재 인터넷 상에서 언급된 가격은 조금 심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br/><br/>운석 가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운석 가격 정확하게 얼마인가" "운석 가격 저렇게나 비쌌나?" "운석 가격 대박"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br/><br/>한국아이닷컴 이선아 기자 sun@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56.txt

제목: 아산의학상에 서판길·이경수 교수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1100000379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서판길(62ㆍ왼쪽) 울산과학기술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이경수(57ㆍ오른쪽)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아산의학상 기초의학ㆍ임상의학 부문 수상자로 11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서 교수가 생명 현상의 기본 원리인 세포 신호 전달의 메커니즘 연구로 암 성장과 전이 과정의 비밀을 밝혀냈고, 이 교수는 영상 장비를 이용해 폐암 조기 진단과 암 진행 상태(병기) 결정 방법을 실용화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br/><br/><br/>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57.txt

제목: [볼만한 TVㆍ12일] 원더걸스 예은 코뿔소 보호하러 아프리카로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110013705020  
본문: 원더걸스 예은이 동물의 왕국을 방문했다.<br/><br/><br/><br/>예은이 찾아간 곳은 아프리카 남부 ‘야생동물의 천국’ 보츠와나. 이곳에 사는 야생동물 코뿔소와 코끼리는 24시간 밀렵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코뿔소 뿔은 동남아에 정력제와 암 치료제로 잘못 알려져 금보다 비싸다는 말이 있다. 밀렵꾼은 총과 야간투시경으로 무장한 채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코뿔소 사냥에 나서고 있고, 중국인이 유독 선호하는 상아를 가졌다는 이유로 코끼리도 무차별 밀렵의 표적이다. <br/><br/><br/><br/>야생동물 보호대원을 자처한 예은은 20시간 비행한 끝에 보츠와나에 도착했다. 첫 방문지는 지구에서 가장 넓은 내륙 삼각주 오카방고. 수많은 수로와 습지로 이루어진 이곳은 건기에도 물이 마르지 않아 보츠와나의 야생동물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오아시스 역할을 한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끼리 떼(약 12만 마리)와 사자, 치타, 코뿔소, 기린, 하마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모여 살고 있다.<br/><br/><br/><br/>원더걸스 예은은 바이에이 부족 마을을 방문해 부족민과 전통술을 나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얼큰하게 술이 오른 부족민이 예은을 반기는 춤을 추자 예은도 뒤질세라 걸그룹 가수답게 춤 솜씨를 뽐냈다. 마을 아낙네 셋은 예은의 머리카락을 바이에이족 방식으로 땋아줬다. <br/><br/><br/><br/>보츠와나 야생동물보호기구 와일드 라이프에 도착한 예은은 상처를 입거나 버려진 야생동물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 사자와 악어, 하이에나를 보살피고 우리를 청소하는 일은 예은의 몫. 새끼 사자 정도는 쉽사리 먹어 치우는 아프리카 보아뱀도 예은의 손길을 기다렸다. <br/><br/><br/><br/>와일드 라이프는 밀렵꾼이 활동하는 밤에도 활동한다. 예은은 야간훈련의 기본인 비박을 위해 간이 텐트 속 취침과 함께 위험한 야생동물과 밀렵꾼을 피해 은둔하는 방법도 배웠다. 야생동물 보호대원으로 활동하는 예은이 모습은 12일 밤 10시 50분 KBS 1TV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에서 방송한다. <br/><br/><br/><br/>이상준기자<br/><br/><br/><br/><br/><br/><br/>한국스포츠 이상준기자 jun@hksp.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58.txt

제목: 아베 히로유키,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 국내 세미나 예정  
날짜: 2014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010013694389  
본문: 일본 전이·재발암 치료병원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 초청 세미나가 오는 17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r/><br/><br/><br/>이번 세미나는 한국 ACC바이오의 주최로 마련됐으며, 새로운 개별화 암 치료방식인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를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다.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암백신 치료법은 1996년 아카가와 키요코 박사가 세계 최초로 단구에서 수지상세포를 유도하는 데 성공하면서 시작됐다. 또 같은 해 세계 유수 학회에서 T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암 항원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2011년에는 슈타인만 미국 록펠러대 의대 교수가 선천성 및 후천성 면역의 연결고리인 수지상세포를 발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br/><br/><br/><br/>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이 밝힌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개인별 유전자형 검사와 HLA-항원 검사, 암 별종양마커 기능검사 등을 통해 기존 치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개인별 암세포의 특징이나 항암제에 대한 내성, 암 세포로 발전하게 된 이유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치료와 재발 및 전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br/><br/><br/><br/>실제로 히로유키 박사 연구팀은 지난해 1~9월 진행성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총 6회 실시한 결과 74.4%의 성과를 거뒀다. 암세포가 완전 관해된 환자 2명(5.12%), 부분 관해된 환자 5명(12.82%), 정지되거나 안정된 환자 22명(56.41%), 진행된 환자 10명(25.64%)이다. <br/><br/><br/><br/>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수지상세포는 인체의 1% 미만이라 치료를 위해서는 약 2~3시간의 성분채혈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아베종양내과는 정상 혈액 중 4~8%의 단구(單球)에 개인별 유전자검사와 암 항원 검사를 하여 암 치료에 필요한 펩타이드를 추가함으로써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를 마련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br/><br/>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T세포에 공격대상이 되는 암 항원의 정보를 제시하여 암세포의 항원 정보를 전달받은 세포상해성 T림프구(Cytotoxic T Lymphocyte, CTL)가 이 표식을 가진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 집중 공격한다. 따라서 CTL가 정상세포를 공격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이 없다. <br/><br/><br/><br/>아베종양내과는 암항원 인식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WT1’과 ‘MUC1’ 펩타이드를 유전자 검사를 하여 개인별 암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br/><br/><br/><br/>아베 이사장은 “지금까지 WT1 펩타이드 중 일부만을 사용해 치료효과가 떨어졌다”며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암항원인 WT! 펩티드 전체와 MUC1 펩티드를 함께 활용해 치료효과가 우수하다”고 전했다. <br/><br/><br/><br/>WT1 펩타이드는 1번부터 449번까지 있으며 WT1펩타이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T세포를 활성화하고, MUC1 펩타이드는 헬퍼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하여 항암 지속기간을 6~9개월까지 유지하게 한다.<br/><br/><br/><br/>또한 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많은 일본 내 병원들이 수지상세포를 동결 보관해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아베종양내과에서 매번 소량만 채혈해 선도 높은 백신을 제조함으로써 기존 동결방식의 문제점도 개선했다</span>”고 말했다. <br/><br/><br/><br/>한편 한국 ACC바이오측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아베 이사장의 신수시장세포 임상도서 ‘암, 이젠 치료할 수 있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베종양내과의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에 대한 임상연구결과에 대한 추가발표는 오는 6월 14일 일본 삿포로에서 마련될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br/><br/><br/><br/><br/><br/>한국아이닷컴 이슬 기자 dew0514@hankooki.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59.txt

제목: 군의관이 종양 기록 확인않고 "합격" 병사 7개월간 방치해 암 4기로 진행  
날짜: 2014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010013695736  
본문: 종양이 있다는 건강검진 기록을 군의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육군 병사가 7개월 동안 치료 없이 방치돼 암이 발병 부위 주변으로 전이된 사실이 드러났다.<br/><br/><br/><br/>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의 강모 병장은 지난달 24일 체력 단련 중 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 증세로 부대 의무대에 입실, 약물 치료를 받다가 사흘 뒤 군병원인 진해해양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해양의료원은 좌우 폐 사이의 '종격동'에 암이 생겨 4기까지 진행된 것으로 진단했고 강 병장은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br/><br/><br/><br/>이와 관련해 국군의무사령부가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결과 강 병장이 상병 시절인 지난해 7월26일 국군대구병원에서 촬영한 건강검진 엑스레이에는 9㎝ 크기 종양이 종격동에서 발견됐으나, 당시 건강검진을 맡았던 군의관(대위)이 진료 기록 카드에 적힌 '종양'이라는 문구를 보지도 않고 '합격' 판정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br/><br/><br/><br/>방치된 7개월 사이 강 병장의 종양은 15㎝로 커져 비장과 림프절까지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사 관계자는 "강 병장의 증상을 조기에 알아채지 못한 군의 명백한 실수"라고 시인했다. 의무사는 이에 따라 다음달 전역 예정이었던 해당 군의관을 정직 등 중징계에 처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전역을 보류했다. 국방부는 또 강 병장의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br/><br/><br/><br/><br/><br/>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60.txt

제목: 엠플러스한국대구-건강검진의 적정주기는 언제일까?  
날짜: 20140310  
기자: 김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0100000041  
본문: “<span class='quot0'>정기검진으로는 ‘췌장암’을 못 잡더라고요.</span>”<br/><br/>대구 남구 봉덕동에 사는 직장인 이모(44)씨는 잦은 트림과 방귀로 회사에서 눈총을 받고 있다. 복부비만이 있었지만 매년 정기검진도 받고 있었기에 정밀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체중이 급격히 줄고 설사가 잦아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복부초음파 검사 결과 췌장에 종괴(혹)가 있었다. 더욱이 복부 CT 검사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span class='quot1'>정기검진을 꾸준히 해서 이상이 없으려니 했는데 암까지 발견돼 충격을 받았다</span>”고 밝혔다. <br/><br/># 매년 정기검진을 해도 위험에 노출? <br/><br/>이씨의 경우처럼 혈액검사, 소변검사, 위, 대장내시경을 후 정상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복부의 몇 가지 질환은 심해지기 전까지는 단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 <br/><br/>초음파는 인체에 해가 없고 검사 마치는 즉시 결과를 알 수 있다. 주로 간, 쓸개 (담낭), 췌장, 콩팥 (신장), 비장, 방광, 전립선, 자궁, 난소 등을 검사한다. 간암, 간경화, 지방간, 간의 물혹(낭종), 담낭결석(돌), 신장 결석, 신장의 암, 신장의 물혹, 방광 결석, 방광암, 전립선 암, 전립선 비대증, 자궁 근종, 난소암, 난소의 물혹 등을 주로 진단한다.<br/><br/>또 만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 좋고 가족력이 있거나 음주가 많은 이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다. <br/><br/>경산 대경영상의학과 정태균 원장은 “<span class='quot2'>최근 각종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가 부쩍 늘었는데 대부분이 중장년층</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중장년층은 정기검진 이외 증상에 따라 세부적으로 연간 1회 정도 정밀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br/><br/>보험과 정밀검진은 공통점이 있다. 가입이나 검진 후 아무 일 없으면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 수 록 인체의 노화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장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주기는 짧아질 수 있어 정기검진과 세부검진의 중요성은 더 강조된다.<br/><br/>김민규 기자<br/><br/><br/><br/>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61.txt

제목: 세계적 오페라 거장 모르티에 사망  
날짜: 20140310  
기자: 김소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0100000040  
본문: 세계적인 음악 기획자이자 음악 행정가인 벨기에의 제라르 모르티에가 8일(현지시간) 브뤼셀의 자택에서 지병인 췌장암으로 숨졌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향년 71세. <br/><br/>벨기에 헨트에서 태어난 모르티에는 브뤼셀의 라 모네 왕립극장을 1981년부터 10년 간 이끌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잘츠부르크 축제의 총감독을 맡아 개혁을 시도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이후 독일 루르트리엔날레 초대 총감독, 파리 국립 오페라 총감독, 바이로이트 축제 공동예술감독 등을 지내며 40여 년 간 현대 오페라의 벽을 낮추는 혁신 활동을 해왔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극장장으로 활동하다 암이 발병하면서 지난해 9월 사임했다. 외신들은 그가 과감한 변혁으로 오페라를 현대 예술로 재정의했다고 평가했다.<br/><br/>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62.txt

제목: [사진으로 보는 이주일의 小史] <128> 무소유의 수행자, 법정 스님 입적  
날짜: 2014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010013695750  
본문: '우리는 필요에 의해 물건을 가지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있다는 것이다.'(법정스님 산문집 '무소유'중에서)<br/><br/><br/><br/>평생 '무소유'를 실천하며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았던 법정스님이 2010년 3월 11일 오후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입적했다. 향년 78세, 법랍 55세였다.<br/><br/><br/><br/>육신의 굴레를 벗고 영원한 삶으로 돌아간 법정스님은 가실 때까지 꼿꼿한 출가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그가 남긴 산문집과 법문들은 일상에 함몰된 현대인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묵직한 성찰을 함께 가져다줬다.<br/><br/><br/><br/>1932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법정스님은 대학 재학 중 삶과 죽음이 오가는 한국전쟁을 경험하며 인간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고뇌와 방황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다 입산 출가를 결심했다. <br/><br/><br/><br/>강원도 오대산을 향해 집을 나섰으나 눈으로 길이 막히자 서울 안국동 선학원으로 발길을 돌렸고, 그곳에서 통합종단 초대 종정을 역임한 당대의 선지식 효봉선사를 만나 바로 머리를 깎고 구도자의 길로 들어섰다.<br/><br/><br/><br/>그날을 회고하며"삭발하고 먹물 옷으로 갈아입고 나니 훨훨 날아갈 것 같았다.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나는 그 길로 밖에 나가 종로통을 한 바퀴 돌았다"던 그는 다음날 효봉선사의 거처인 경남 통영 미래사로 내려가 땔감을 구해 아궁이를 지피는 부목 일을 시작으로 배고픈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br/><br/><br/><br/>암울한 70년대는 산사에 머물던 그를 끌어내렸다. 함석헌, 장준하선생 등과 교류하며 유신철폐와 반독재서명에 이름을 올리던 법정스님은 75년 모든 걸 뒤로한 채 다시 걸망을 메고 산으로 향했다. 그해 봄,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 반체제운동의 의미와 출가수행자로서 적개심을 품었다는 사실이 계속 자신의 마음을 괴롭혔던 탓이다.<br/><br/><br/><br/>출가 본사였던 순천 송광사로 향한 그는 대웅전 뒷산에 불일암을 짓고 수행에 들어갔다. 76년, 산문집 <무소유>를 출간한 후 방문객들이 많아지자, 92년 불일암을 떠나 강원도에 정착해 화전민이 살던 오두막에서 홀로 기거했다. <br/><br/><br/><br/>산골에 있으면서도 <버리고 떠나기>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등의 에세이집을 펴내며 대중과 소통해왔던 그는 96년, 서울 성북동의 고급요정이었던'대원각'을 기부받아 '길상사'로 탈바꿈시켰다. 이듬해 12월 열린 개원법회 때는 사상 처음으로 김수환 추기경이 방문해 종교 간의 벽을 허물었고, 그는 이에 대한 화답으로 명동성당에서 특별 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br/><br/><br/><br/>2010년 3월 11일, 법정스님은 입적을 앞두고 일체의 책 출간과 번거롭고 부질없는 장례의식을 금함으로써 소박한 다비식만 순천 송광사에서 치러졌다. <br/><br/><br/><br/>법정스님의 육신은 가고 없지만, 그가 남긴 무소유와 정신세계는 경건한 울림으로 남아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br/><br/><br/><br/><br/><br/>손용석기자 stones@hk.co.kr<br/><br/> <br/><br/><br/><br/>▶▶▶ 관련기사 ◀◀◀ <br/><br/><br/>▶ 맑고 향기로운 법정스님의 자취들 <br/><br/><br/>▶ '법정스님의 나룻배' 현장서 듣는 한강이야기들 <br/><br/><br/>▶ 28일 법정스님 49재… 스님 조명한 책들 '유감' <br/><br/><br/>▶ 작은 암자 곳곳에 법정 스님의 숨결 배어…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63.txt

제목: 그것이 알고싶다 방배동 미라, 7년간 시신과 함께한 아내 '경악'  
날짜: 2014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0100000424  
본문: '그것이 알고싶다 방배동 미라'<br/><br/>서울 방배동에서 발생한 일명 '방배동 미라 사건'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br/><br/>지난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약사 출신의 아내가 암으로 사망한 남편의 시신과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거한 사연이 공개됐다.<br/><br/>사건의 시작은 주민들의 신고였다. 방배동의 한 동네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고, 이를 참지 못한 주민들이 항의를 했지만 집 주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br/><br/>결국 지난해 12월 26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은 뒤에야 집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들이닥친 집 거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한 남자의 시신이 거실 한가운데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시신은 7년 동안 완전히 부패하지 않은 미라 상태에 가까웠다.<br/><br/>이에 경찰은 시신의 방부처리를 의심하고 부검을 진행했지만 방부처리에 필요한 약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br/><br/>증언에 따르면 아내는 7년 동안 남편의 시신과 함께 식사하고 잠을 잤으며, 심지어 씻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에는 세 자녀와 남자의 친누나도 시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남자의 가족들은 시신이 '살아있다'고 믿었다고 전했다.<br/><br/>아내는 그동안 남편의 안부를 묻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잘 지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이를 두고 남편의 사망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실제 남편의 사망을 인정하지 못한 행동으로 결론지었다.<br/><br/>네티즌들은 "그것이 알고싶다 방배동 미라, 충격적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배동 미라, 안타깝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배동 미라, 섬뜩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br/><br/>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64.txt

제목: 새로운 화장품 카테고리 만든 암버팜 솔트크림  
날짜: 2014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0100000106  
본문: 미인에 대한 기준이 과거 이목구비의 뚜렷함에서 이제 동안으로 보이는 피부로 넘어가면서 화장품의 원료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달팽이 점액으로 만든 달팽이크림이 한참 유행하더니, 벌들이 나무의 싹이나 수액 등의 식물에서 수집한다는 프로폴리스를 비롯해 뱀독으로 만든 화장품까지 등장하고 있다.<br/><br/>그런데 최근 달팽이와 뱀독 등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원료들과 달리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원료인 소금으로 만든 화장품이 여성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암버팜 솔트크림이 그것이다.<br/><br/>독일의 피부개선 화장품 전문 개발 업체인 암버팜은 수 백만 년 전 바다였던 독일 괴팅엔 지역에서 생산되는 루이젠할 소금이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 원시바다의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루이젠할 소금은 자연 그대로 피부의 피지막과 같은 약산성을 가져 피부 친화력이 매우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br/><br/>실제 본초강목 등의 한의서에도 소금의 피부 개선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유럽, 러시아, 미국, 일본 등지에선 이미 활발한 연구를 전개하고 각종 임상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br/><br/>암버팜은 이 소금의 효능에 집중해 이를 크림형태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소금의 효능을 완제품에 그대로 담아내는 멀티스테이지 특수공법을 통해 크림형태의 화장품인 솔트크림을 출시한 것. 이를 현실화 하기까지 10년에 가까운 연구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br/><br/>암버팜의 이러한 노력은 국내 병원화장품 전문 업체인 ㈜에이치에스디(대표 최승호)에 의해 한국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암버팜 솔트크림’이 국내 출시된 지 6년 째, 피부문제로 고생하는 수많은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 에이치에스디 연구개발실의 한 관계자는 “솔트크림은 국내 출시와 함께 무수한 입소문으로 온라인 시장을 달구더니 최근엔 대기업에서 유사제품을 선보이는 등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은 화장품 원료의 한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화장품으로서 암버팜 솔트크림 만큼 피부의 다양한 문제 개선에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은 앞으로도 쉽게 만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br/><br/>한편, ㈜에이치에스디는 암버팜 한국 공식 홈페이지(www.amberpharm.co.kr)를 통해 솔트크림 외에도 스킨 겸 미스트로 사용할 수 있는 솔트하일렌워터과 자연의 원료로 고도의 세정 효과를 주는 하일렌 폼겔 등을 선보이고 있다. 샘플신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건조하고 가렵고 지루한 피부 등 피부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해 볼 수 있다. 포춘코리아 온라인뉴스팀<br/><br/><br/><br/>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65.txt

제목: 방배동 미라 사건…7년간 시신과 함께 산 아내 '충격'  
날짜: 20140310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10100000082  
본문: '방배동 미라'<br/><br/>방배동 미라 사건이 놀라움을 자아낸다.<br/><br/>지난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약사 출신의 아내가 암으로 사망한 남편의 시신과 수년간 동거한 사연이 공개됐다.<br/><br/>사건의 시작은 주민들의 신고였다. 방배동의 한 동네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고, 이를 참지 못한 주민들이 항의를 했지만 집 주인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br/><br/>결국 지난해 12월 26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은 뒤에야 집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들이닥친 집 거실은 충격적이었다. 한 남자의 시신이 거실 한가운데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시신은 7년 동안 완전히 부패하지 않은 미라 상태에 가까웠다.<br/><br/>이에 경찰은 시신의 방부처리를 의심하고 부검을 진행했지만 신기하게도 방부처리에 필요한 약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br/><br/>증언에 따르면 아내는 7년 동안 남편의 시신과 함께 식사하고 잠을 잤으며, 심지어 씻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에는 세 자녀와 남자의 친누나도 시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남자의 가족들은 시신이 ‘살아있다’고 믿었다고 전했다.<br/><br/>아내는 그동안 남편의 안부를 묻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잘 지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이를 두고 남편의 사망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실제 남편의 사망을 인정하지 못한 행동으로 결론지었다.<br/><br/>네티즌들은 "방배동 미라 사건…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다니 충격이네요" "방배동 미라 사건, 아내의 마음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네요" "방배동 미라 사건, 섬뜩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br/><br/>한국아이닷컴 신수지 기자 sz0106@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66.txt

제목: 첨단 내시경, 꼭꼭 숨은 암도 찾아낸다  
날짜: 20140309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09100000126  
본문: 위암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2007~2011년 발생한 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9.4%로 1990년대 중반보다 26.6% 포인트 올랐다. 전문가들은 내시경이 위암의 조기 발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몸 안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의료기기는 50년 전인 1964년 개발됐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시경의 전신이다. 이제 내시경은 의사가 구별하기 어려운 암까지 찾아내는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다. <br/><br/>내시경은 사실 19세기부터 있었다. 당시 내시경은 거울이나 마찬가지였다. 반사경과 램프를 단 금속관을 목, 항문, 요도 쪽으로 넣어 반사돼 나온 빛을 의사가 관 끝에서 관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금속관이 인체의 장기를 치거나 찢는 사고가 빈발했다. 게다가 관에서 나오는 빛이 충분하지 않고 전달도 잘 안돼 식도나 방광처럼 가까운 장기 말고는 관찰이 어려웠다. <br/><br/>그래서 20세기 중반부터는 염화비닐 같은 부드러운 소재의 호스 내부에 작은 카메라를 달아 사용했다. 공기를 주입해 위를 부풀린 뒤 기구를 삽입, 사진을 찍고 필름을 현상해 위 내부를 확인하는 기술이었다. 이로 인해 환자의 고통은 줄었지만 장기 내부를 실시간 관찰하는 이점은 사라졌다. <br/><br/>환자 안전과 실시간 관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광섬유다. 전기나 빛 신호를 멀리 보낼 수 있는데다 잘 구부러지기도 한다. 미세한 광섬유 수만 가닥을 묶고 끝에 카메라를 단 내시경(파이버 스코프)이 1964년 등장했다. 현대적 의미의 내시경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카메라에 들어온 빛 데이터가 원통형 광섬유 구조 안에서 굴절을 반복하며 의사의 눈으로 전달되는 원리다. 2년 뒤에는 이 기구로 조직 일부를 떼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채취한 조직을 현미경으로 검사하면서 위암 검진이 본격화했다. <br/><br/>내시경은 1980년대 또 한번 크게 변한다. 빛을 전자신호로 바꿔 모니터로 전달하는 기술이 적용(비디오 스코프)돼 여러 의료인이 검진 데이터를 공유하게 됐고 내시경 끝부분에 처치 도구를 달아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 <br/><br/>요즘 내시경은 장기 안을 비출 때 백색광을 주로 쓴다. 백색광은 햇빛처럼 여러 색깔(파장)의 빛이 적당한 비율로 합쳐진 빛을 말한다. 백색광으로 장기 안을 들여다보면 벽면이 대부분 붉은색으로 나타난다. 병변이 독특하면 바로 찾아낼 수 있지만 매끈하거나 편평하면 경험 많은 의사도 모른 채 지나칠 수 있다. 가장 최근 업그레이드된 내시경은 빛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해 이런 한계를 해결했다. <br/><br/>빛은 파장 영역에 따라 침투 범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파란 빛(파장 440~500nm)을 쏘면 장기 조직 표면 아래 부분까지만 흡수되며 초록빛(520~565nm)을 쏘면 더 깊숙이 들어간다. 그래서 조직 표면과 가까운 혈관은 주로 파란 빛을, 심층부 혈관은 초록 빛을 흡수한다. <br/><br/>이 원리를 이용, 장기 내부 모세혈관의 위치와 모양 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시경을 최근 개발한 광학기업 올림푸스는 "암 조직은 세포 증식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모세혈관을 많이 만든다"며 "따라서 자세한 모세혈관 영상은 암 진단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설명했다. <br/><br/>암은 진행 정도에 따라 대개 1~4기로 구분한다. 심찬섭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색깔이 구분돼 보이는) 최신 내시경을 쓰면 기존 내시경으로는 암인지 모호한 병변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암의 전 단계인 선종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 진단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임소형기자 precare@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67.txt

제목: [World] 세계인의 식단 밀·쌀·콩·육류에 의존 '닮은꼴 변모'… "질병에 취약" 경고음  
날짜: 20140307  
기자: 이성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07100000304  
본문: 전세계인의 저녁 식사 메뉴가 점차 비슷해지고 있다. <br/><br/> 콜롬비아의 국제열대농업센터의 연구진은 지난 50년간 보다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몇 안 되는 종류의 농작물과 육류 유제품 등에서 대부분의 칼로리와 단백질 지방 등을 섭취하게 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br/><br/>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구진들은 달라진 식습관이 심장질환이나 암, 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전세계 식단이 주요 농작물 몇 가지로 집중되면서 세계의 식량자원이 해충과 질병 등에 취약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게 됐다고 경고했다. <br/><br/> 연구진들은 1961년부터 2009년까지 152개국의 식재료에 관한 유엔의 자료를 검토했다. 전체적으로 음식의 양이 늘었고, 밀은 전체 국가의 97.4%에서, 쌀은 90.8%, 콩은 74.3%의 국가에서 주요한 식재료로 소비되고 있다. 육류가 점차 단백질 섭취에서 더 중요한 공급원이 됐고, 콩과 옥수수, 팜, 해바라기 등 기름을 생산하는 농작물이 주요 표준 식량자원 자리에 오르게 됐다. <br/><br/> 개발도상국의 소득이 높아지며 육류와 설탕함유 음료 같은 전형적인 서구식 음식의 소비도 늘어났다. 나이지리아에서 중국까지 비만과 심장질환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연구진은 로이터에 말했다. <br/><br/> 연구 책임자인 콜린 코우리는 "사람들이 밀이나 옥수수 콩 유제품 육류 등 주요 식재료만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집중된 식단은 세계적인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br/><br/> 하지만 지역적으로 볼 땐 식단의 다원화도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경우 식단에서 밀과 감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코우리는 "이는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배했던 다른 많은 농작물들이 점차 재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br/><br/> 개발도상국가들의 수입이 늘면서 육류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된 것도 이유다. 패스트푸드가 풍부한 도시로의 이주와 다국적 식품회사의 마케팅 등 도 변화의 주요요인이다. <br/><br/> 식단의 동질화로 이제껏 지역적으로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던 고구마, 얌, 사탕수수, 마카 등의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태평양 섬 주민들은 필요한 지방의 원천인 코코넛을 덜 먹게 됐고 동남아시아의 사람들도 쌀에서 얻는 칼로리를 점차 줄이고 있다. <br/><br/> 연구진들은 밀과 쌀 감자 등으로 집중되는 식단이 위험하다며 세계인의 식탁에서 외면 받고 있는 호밀, 얌, 카사바 같은 농작물의 보존이 시급하고, 식량 안전을 위한 식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모든 농작물에서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br/><br/> 코우리는 "유전적 집중은 장래에 해충과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1840년대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이나. 1970년대 초 미국의 남부 옥수수 잎마름병 사태 등이 하나의 농작물에만 의존했을 때의 위험성을 일러준다"고 말했다. <br/><br/> 더블린 기술연구소 존 커니는 건강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사람들의 식단을 바꾸게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북유럽의 일부 사람들은 더 많은 과일과 채소을 먹고 육류를 줄이는 지중해식 건강 식단을 취하고 있고, 반면 남부 유럽사람들은 올리브 오일을 줄이고 육류를 늘이고 있다고 한다.<br/><br/><br/>이성원기자 sungwon@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68.txt

제목: [건강] 대장암 예방에 좋은 식습관은?  
날짜: 20140305  
기자: 정용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05100000129  
본문: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3%로, 3명 중 1명은 암 환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암은 현대인들의 생활방식과 환경의 부산물로, 이들의 개선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 암 발생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대장암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발병률이 높다. 고지방식을 포함한 서구식 식습관만 바꿔도 대장암의 발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br/><br/>●소고기ㆍ돼지고기 과다 섭취 ‘치명적’<br/><br/>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붉은색 고기는 닭고기와 같은 흰색 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이 높다. 지방의 과다섭취는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담즙산 분비를 증가시켜 대장 점막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육류는 과다 섭취 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철분의 주요 공급원이므로 무조건 피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지방이 많은 붉은색 고기 섭취는 최대한 줄이고 흰색 고기나 생선, 두부 등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br/>●암 발생률은 음주량과 정비례<br/><br/>세계보건기구(WHO)의 국가별 수명에 미치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은 술 때문에 약 11.1개월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한다. 습관적인 음주 혹은 한꺼번에 마시는 과음은 대장 뿐 아니라 식도나 간의 암 발병률을 높인다. 췌장암과 결장암 발병률도 2배 이상 높이고, 전립선암과 대장암 위험은 80% 이상 높인다. <br/><br/>●채소 섭취 ‘필수’, 드레싱 ‘주의’<br/><br/>채소는 어떤 형태로 섭취하던지 충분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생채소를 먹을 때에는 드레싱이나 쌈장 등의 양념이 많아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특히 드레싱은 지방 및 당으로 인해 칼로리 섭취가 지나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나물은 살짝 익혀내는 과정에서 질감이 부드러워지고 부피도 줄며, 약간의 기름과 양념으로만 맛을 내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비빔밥 등에 들어가는 껍질 및 줄기류의 고섬유질 채소는 섬유질 성분이 수분을 지나치게 흡수시켜 부종이나 변비, 심하면 장폐색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br/><br/>●딸기,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좋아요<br/><br/>과일 중에는 딸기나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등 베리류가 대장에 가장 좋다. 블루베리 내 식이섬유는 바나나의 2.5배로 소장에서 당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한다. 장내 독소 생성도 막아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아사이베리는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지수가 블루베리의 21배, 석류의 23배, 적포도의 55배, 키위의 120배다. 항산화 능력의 촉진이 장의 해독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br/><br/>정용운기자 <br/><br/>도움말=이대목동병원 위암ㆍ대장암협진센터 정순섭 교수<br/><br/><br/><br/>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69.txt

제목: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까지… 암 검진 클릭하면 '기겁'  
날짜: 2014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05100000045  
본문: '연아아 미안해'에 이어 '암 검진 대상' 스미싱이 등장했다. <br/><br/>지난 17일부터 2014년 건강검진 대상자 2,073만명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개별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도 화들짝 놀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br/><br/>공단은 4일 페이스북에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시기에 맞춰 건강검진을 악용한 각종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br/><br/>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문자메세지에는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 통지서 확인' '국민건강보험무료 암검진 대상' 등의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URL)가 담겨있다. 이 URL을 클릭하면 악성앱이 깔리는 것으로 보인다. <br/><br/>공단 측은 "공단이 보내는 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반송처, 대표전화 1577-1000, 공단의 인터넷 주소(http://www.nhis.or.kr)가 안내되고 있다"며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네티즌들은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하다 하다 별"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해도 너무하다"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사기꾼들 기발하네"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무심코 클릭하면 안되겠구나"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이슈만 있으면 편승하는구나"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어르신들 주의"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br/>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70.txt

제목: 2차 세계대전 연애편지, 70년 동안 뜯기지 않아…사랑이야기  
날짜: 20140305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05100000098  
본문: '2차 세계대전 연애편지'<br/><br/>최근 각종 외신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작성된 한 장의 연애편지에 대해 소개했다. <br/><br/>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실러 포크 씨가 자신이 구매한 중고 서적에서 개봉되지 않은 상태의 편지봉투를 발견했다. <br/><br/>이 편지봉투에는 ‘1945년 5월 28’이라는 소인이 찍혀있으며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 미군기지에 근무하던 앨버트 암 중사가 플로리다주에 있던 헬렌 로스멜이라는 여성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br/><br/>이후 실러 포크 씨는 봉투에 적힌 주소로 3번이나 이 편지를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매번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실러 포크 씨는 “<span class='quot0'>수취인이었던 헬렌이 꼭 이 편지를 받길 바란다</span>”며 “<span class='quot0'>당사자나 그 후손이 아니면 절대 열어볼 수 없다</span>”고 밝혔다. <br/><br/>2차 세계대전 연애편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2차 세계대전 연애편지, 뭉클하다” “2차 세계대전 연애편지,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네” "2차 세계대전 연애편지, 멋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br/>한국아이닷컴 이지영 인턴기자 enter@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71.txt

제목: 현실인가 소설인가  
날짜: 20140305  
기자: 고경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05100000344  
본문: 쌍용자동차 파업 투쟁을 이끈 활동가, 착취 당하는 대학 청소노동자, 북한의 고아원에서 자라 국가에 이용당하며 살아온 남자…르포 기사나 고발성 다큐멘터리의 취재 대상이 아닌 최근 출간된 소설의 주인공들이다. 사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소설들이 일시에 쏟아지고 있다. 저자는 청소년 소설 작가, 미국 대학 교수, 노동운동가 출신 출판인 등으로 다양하다. <br/><br/>(사계절 발행)는 청소년 소설을 주로 쓰던 박지리(29) 작가가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쓴 첫 소설이다. 대기업의 노동자 정리해고,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자본의 노예가 된 대학 등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유머와 풍자로 꼬집는다. 암에 걸린 남편의 수술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대학 청소 노동자로 일하게 된 65세 여성 양춘단의 무구한 시선을 통해 한국 사회의 치부를 들춘다. 얼마 되지 않는 임금을 깎고 모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대학 미화관리 소장에 맞서 싸우는 청소 노동자들의 모습이 수년 전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떠올리게 한다. <br/><br/>소설 속 대학은 한국 대학의 표본이자 사회 모순과 부조리가 집약된 곳이다.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해 대학에 가는 것이 꿈이었던 주인공은 모든 일을 겪은 뒤 "왜 대학에 댕기기 전보다 대학에 댕기고 난 지금, 대학이란 데가 워떤 곳인지를 더 모르겠는 걸까"라고 씁쓸하게 자문한다. <br/><br/>(컬처앤스토리 발행)의 주인공은 쌍용자동차 파업투쟁을 이끌다 투옥된 한상균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과 김혁 당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이다. 문학 창작 경험이 전혀 없던 출판인 고진(52)씨가 친구 김혁의 삶과 생각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그가 남긴 24권의 일기를 바탕으로 난생 처음 소설을 썼다. 2001년 대우자동차 농성 투쟁, 2003년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투쟁, 2009년 77일간의 쌍용차 파업 투쟁을 상세히 묘사했다. 노동운동의 한복판에서 활동했던 이들의 삶을 정면으로 다룬 드문 소설이다. <br/><br/>스탠퍼드 교수인 작가 애덤 존슨(46)이 쓴 (아산정책연구원 발행)은 가수였던 어머니가 평양으로 호송되고 난 뒤 고아원에서 자라다 군인으로 발탁된 준도가 일본인 납치범, 미국 스파이 등으로 살아가며 겪는 일을 그렸다. 평소 북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작가가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고 평양 여행과 탈북자 인터뷰 등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현실을 전한다. 작가는 말미 인터뷰에서 "북한이야말로 베일에 싸인 사회에서의 인간적인 측면을 본격 소설의 상상력으로 발견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북한 사회 전체가 국가적 규모의 트라우마 내러티브라고 믿는다"고 했다. 존슨의 세 번째 소설인 은 지난해 퓰리처상을 수상했다.<br/><br/><br/><br/>고경석기자 kave@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72.txt

제목: 2차 세계대전 연애편지, "전하지 못한 편지의 사연은…"  
날짜: 20140304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04100000136  
본문: '2차 세계대전 연애편지'<br/><br/>2차 세계대전 당시 쓰였던 연애편지가 공개돼 화제다.<br/><br/>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 언론들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쓰인 70년 된 연애편지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br/><br/>이 편지는 미국 텍사스주 댈라스에 거주 중인 실러 포크가 발견한 것으로 구매했던 <br/>고서적 안에‘1945년 5월 28일 자’ 소인이 찍혀 있는 한 통의 연애 편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br/><br/>2차 세계대전 당시 쓰인 이 편지는 당시 캘리포니아주에 팜스프링스 미군 기지에 근무하던 앨버트 암 중사가 플로리다주에 있던 헬렌 로스멜 여성에게 보낸 것이다.<br/><br/>편지는 개봉이 되지 않은 채 봉투 그대로 책 속에 보관되어 있어 놀라움을 자아낸다.<br/><br/>편지를 발견한 실러 포크는 "수취인이었던 헬렌에게 꼭 다시 보내지기를 바란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br/><br/>2차 세계대전 연애편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2차 세계대전 연애편지, 시간이 지나도 남는건 기록이군" "2차 세계대전 연애편지, 편지가 주인에게 닿지 못했구나" "2차 세계대전 연애편지,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br/> <br/><br/>한국아이닷컴 이지영 인턴기자 enter@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73.txt

제목: 스미싱 문자, 이번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날짜: 20140304  
기자: 정용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04100000133  
본문: 스미싱 문자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번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하며 건강검진 받으라는 문자로 위장했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시기에 맞춰 건강검진을 악용한 각종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br/><br/>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소액 결제 방식을 악용한 사기수법이다.<br/><br/>공단은 지난 2월 17일부터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2,73만명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개별 주소로 발송하고 있다. 공단이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돼 있고, 반송처, 대표전화(1577-1000), 공단의 인터넷주소(http://www.nhis.or.kr)가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열지 말아야 한다고 공단은 강조했다.<br/><br/>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들어 있는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br/>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건강검진 및 무료 암 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떠도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스미싱 문자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br/><br/>정용운기자<br/><br/><br/><br/>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74.txt

제목: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문자 기승…'기재된 사이트 접속 조심'  
날짜: 20140304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04100000221  
본문: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스미싱'<br/><br/>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문자가 발견되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br/><br/>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시기에 맞춰 건강검진을 악용한 각종 스미싱 문자가 발견,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br/><br/>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문자는 '건강보험 무료암 검진대상입니다' '2014년도 암검진 대상이오니, 꼭 암검진을 받으십시요'라는 문구와 함께 악성앱이 깔리는 웹사이트 주소나 전화번호를 함께 전송된다.<br/><br/>공단은 이와 관련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반송처, 대표전화 1577-1000, 공단의 인터넷 주소(http://www.nhis.or.kr)가 안내되고 있으므로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br/><br/>이어 공단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공단은 이달 초순부터 공단 건강검진 및 무료 암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스미싱 문자로 인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br/><br/>'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는 스미싱"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클릭할 뻔 했네"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조심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한국아이닷컴 이주화 인턴기자 enter@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75.txt

제목: 카레의 비밀, 다이어트·암예방 이어 '엄지의 제왕' 이 병까지 치료…  
날짜: 20140303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03100000237  
본문: '카레의 비밀'<br/><br/>항산화 작용은 물론 항암, 면역력 증가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카레의 비밀'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br/><br/>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카레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등장했다. <br/><br/>공개된 게시물에는 카레의 항산화 작용은 물론, 항암, 면연력 증가 등 다양한 효능이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br/><br/>카레의 주원료인 강황에는 커큐민을 비롯해 기타 여러 가지 향신료에 든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는 항암·항산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MBN '엄지의 제왕' 방송에서도 치매 판단을 받은 남편을 위해 강황을 이용, 치매를 극복한 방법이 공개되기도 했다.<br/><br/>실제로 카레를 즐겨 먹는 인도인의 경우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 발생률이 미국인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또한 캡사이신과 후추, 생강, 마늘 등의 향신료에 들어있는 유사한 효능을 지닌 각종 성분이 상승 작용해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비만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외에도 카레의 대표적인 효능으로 암 예방, 면역력 증가, 기억력 향상 등이 있다.<br/><br/>'카레의 비밀'을 접한 네티즌들은 "카레의 비밀, 강황이 이렇게 좋은 식품이라니" "카레의 비밀, 강황 요리에 자주 이용 해야겠다" "카레의 비밀, 치매가 치료 가능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br/><br/>한국아이닷컴 이주화 인턴기자 enter@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76.txt

제목: '안락사 논쟁' 말기 암 부친 살해 혐의 남매 징역 5~7년  
날짜: 20140303  
기자: 김기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303100000337  
본문: 말기 암으로 고통 받는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안락사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남매에게 재판부가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br/><br/>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한정훈)는 3일 아버지 이모(당시 57세)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아들(28)에게 징역 7년을, 딸(32)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인의 아내(5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가족에게 선처를 요구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딸은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br/><br/>재판부는 "설사 내일 죽는 사람,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오늘 죽이면 살인"이라며 "돌아가신 분의 (죽여 달라는) 의사를 함부로 추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고인이 피고인들에게 '죽여 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병상에서 혼란된 상태에서 한 말은 진지한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r/><br/>지난해 9월 8일 아들과 어머니, 큰 딸은 가족회의를 거쳐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연사한 것처럼 꾸며 장례까지 마쳤지만 죄책감에 술에 취해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사실이 괴로워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은 누나에게 보내고 자살을 기도하다 붙잡혀 범행이 드러났다.<br/><br/>이날 배심원단 9명은 다수결로 피고인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양형 의견은 재판부 판단보다 낮은 최저형으로 냈다. 아들과 딸에 대해서는 8명이 징역 3년 6월, 1명이 징역 7년 의견을 냈다. 아내에 대해서는 1명이 징역 1년 3월, 8명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제시했다.<br/><br/><br/><br/>의정부=김기중기자 k2j@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77.txt

제목: [View] CT·X선 검사 잦은데… 방사선 노출량은 알고 있나요  
날짜: 20140228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8100000244  
본문: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병원을 방문한 40대 초반 여성 이모씨는 폐 CT와 흉부 X선 영상을 찍었다. 촬영이 끝나자 CT와 X선 장비에 각각 0.35, 0.012mSv(밀리시버트)라는 수치가 기록됐다. 영상을 찍는 동안 이만큼의 방사선에 이씨가 피폭됐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br/><br/>영상 검사가 점점 늘면서 방사선 피폭량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은 2007년 0.93mSv에서 2011년 1.4mSv로 5년간 약 51%나 늘었다. 하지만 의료용 영상을 찍은 뒤 방사선 피폭량을 일일이 확인하는 환자도, 알려주는 병원도 아직은 드물다.<br/><br/>더 큰 문제는 안전하다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의학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에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는 연간 피폭량이 1mSv를 넘으면 안 된다는 국내외 기준이 있긴 하나 전문가들은 "의료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주장한다. "건강에 도움을 얻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생긴 피폭이라서다. 영상 촬영으로 병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로 얻는 피해보다 이득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도 키 170㎝, 몸무게 70㎏인 성인을 기준으로 인체 부위별 방사선 노출 권고량을 정해놓긴 했으나 이를 넘지 말라는 의무는 없다. 방사선량에 상한선이 있으면 암 치료 등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규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br/><br/>병원마다 나오는 방사선량도 천차만별이다. 식약처가 2007~2009년 125개 병원을 대상으로 촬영 부위별 방사선 피폭량을 조사한 결과 흉부 X선은 병원 간 최대 32배까지 차이가 났다. 두부는 28배, 유방 5배, 복부 7배, 골반 22배가 각각 차이가 났고 요추의 경우 37배에 달했다. 두부와 복부 CT는 각각 9배 차이였다. 장비 노후화와 환자 체형, 촬영 방식, 판독 기술 등 여러 이유가 작용해 나온 결과다. 일반적으로 기기가 오래되거나 성능이 떨어질수록 방사선이 더 나온다. 환자 몸집이 클수록 피폭량도 많다. 같은 기기로 같은 부위를 같은 의료진이 촬영했을 때 환자 체형에 따라 많게는 약 70％까지 피폭량이 차이 난다는 보고도 있다. <br/><br/>영상 촬영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촬영기사가 기기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 방사선 피폭량이 달라질 수도 있다. 서울 시내 종합병원의 한 영상의학과 교수는 "PET-CT를 찍을 때 방사성동위원소를 많이 넣으면 검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환자는 방사선에 더 피폭된다"고 말했다. 촬영된 영상을 판독하는 의사의 성향도 피폭량에 영향을 미친다. "의사가 노이즈(필요 없는 신호) 없이 깨끗한 영상을 봐야겠다고 하면 (촬영기사가)방사선 노출량을 높여 찍기도 한다"고 이 교수는 귀띔했다. <br/><br/>여러 요인이 방사선 피폭량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알 길이 없다. 얼마나 피폭되면 몸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지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방사선에 피폭되면 유전자가 손상된다고는 알려져 있다. 대부분은 24시간 안에 복구되지만, 일부는 손상된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피폭된 유전자가 공교롭게도 암을 억제하는 부위거나 인체에 불리한 돌연변이로 바뀔 경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한다. <br/><br/>결국 현재로선 환자나 병원이 자발적으로 방사선 피폭량을 관리하는 게 최선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검사 중 노출된 방사선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장비를 도입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차병원그룹의 의료센터 차움은 "환자의 누적 방사선량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방사선이 안 나오는 초음파나 MRI로 대체하는 등 피폭량을 최소 범위로 유지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이런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많진 않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CT에서 나온 방사선 정보를 환자 개인별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최근 개발했고, 이달 중 병ㆍ의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쓰겠다는 곳에 한해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전국 의료기관 약 1,500곳 중 400여 곳만 사용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br/><br/>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영상 검사가 점점 증가하는 만큼 방사선 피폭량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는 지난해부터 의료용 영상을 판독할 때 의료진이 피폭선량을 기입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핵의학과나 영상의학과 등에선 자칫 환자들이 꼭 필요한 검사를 방사선 피폭 걱정 때문에 거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br/><br/><br/><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 5년 새 51%나 증가<br/>▶ "엑스레이 찍다 기준치 초과 방사선량 노출 많아"<br/>▶ [기자의 눈] 방사선 쬔 식품, 명칭만 바꾼다고 안전해지나<br/>▶ 환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만 100만원… 헉!<br/>▶ 은밀한 부위 아픈 여성 고민하게 만든 사연<br/>▶ 592원짜리 약을 "5원에 납품하라"<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78.txt

제목: "가장 아름다운 순간 찍어두자" 미국 신혼부부들 웨딩 포르노 붐  
날짜: 20140228  
기자: 김현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8100000246  
본문: 결혼식에 맞춘 웨딩 사진과 함께 '웨딩 포르노' 촬영이 새 신혼풍속도가 돼 가고 있다고 미국 ABC가 27일 보도했다. <br/><br/>이 방송에 따르면 전문 사진작가인 콘스탄스 포크와 에릭 보겔은 최근 새로운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하는 사업이란 결혼을 앞둔 젊은 연인이나 결혼기념일을 맞은 신혼부부들의 '개인 포르노'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고객들이 이들의 눈 앞에서 섹스를 하는 동안 사진을 찍거나 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것인데 한 커플 당 비용이 약 4,000달러(427만원)에 달하지만 최근 고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br/><br/>개인 포르노를 찍는 심리는 간단하다. 결혼식을 앞둔 연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젊은 날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웨딩 사진을 찍는 것처럼 웨딩 포르노도 얼마든지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개인용 누드 사진을 찍고 있는 최근의 경향과 맥이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br/><br/>또한 신혼부부가 점차 느슨해지는 서로의 애정 관계에 불을 지피기 위해 개인 포르노 촬영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들이 찍은 포르노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개인 소장용으로만 간직된다. 보겔은 ABC와 인터뷰에서 "고객들이 찍는 사진이나 영상들은 시중의 성인 포르노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 중에는 기독교인도, 마지막일지도 모를 순간을 기억하기 위한 암환자도 있었다"면서 "이들이 찍은 개인 포르노는 아름다웠고 예술 작품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br/><br/>그러나 성문제 전문가인 로간 레카 박사는 이 같은 현상이 "사생활의 깊숙한 곳까지 과잉 공유하는 현상의 한 단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생활은 어느 사회든 남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 금기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필요하다면 낯선 사진작가의 눈 앞에서라도 얼마든지 전라의 몸으로 내보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br/><br/>실제 미국의 한 인터넷사이트는 각 부부들이 자신들의 성생활을 촬영한 동영상을 올리고 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를 만든 신디 갤럽은 "섹스를 (금기의 영역에서)사회화하고 싶었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다른 콘텐츠처럼 섹스도 얼마든지 공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는 자신의 사생활을 대중에 공개했을 때 예상했던 것과 다른 부정적 결과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br/><br/><br/>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이혼녀와 정 나누는 총각 늘어나는 까닭?<br/>▶ 유부녀가 남편 아닌 남자에 감정 느끼더니..<br/>▶ 재벌가 이혼녀까지… 달라진 스타의 애정행각<br/>▶ '성생활 없는(?)' 연예계 쇼윈도 부부 결국…<br/>▶ 남친이 잠자리에서 이런 경악할 요구한다면…<br/>▶ 여친 앞 방귀 뀌면 안되는 이유 있었다?<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79.txt

제목: [새 책] 풍아송 外  
날짜: 2014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8100000260  
본문: 문학<br/><br/>▲풍아송<br/><br/> 옌롄커 지음. 현대 중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 받는 저자가 2008년에 내놓은 소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 모음집인 의 최고 권위자인 대학교수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지식인 사회를 꼬집는다. 김태성 옮김. 문학동네ㆍ616쪽ㆍ2만1,000원.<br/><br/>▲목숨이 두근거릴 때마다<br/><br/> 유병록 지음. 2010년 등단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시인의 첫 시집. 삶과 죽음 사이의 균열에 숨결을 불어넣는 대지의 상상력을 담은 시 세계를 펼쳐 보인다. 창비ㆍ128쪽ㆍ8,000원.<br/><br/>▲빛의 사슬<br/><br/> 칼럼 매캔 지음. 2009년 로 전미도서상을 수상한 저자의 신작 소설로 1916년의 과거와 1991년의 현재를 오가며 현대 뉴욕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사랑과 환희, 고통과 추락을 그린다. 박찬원 옮김. 곰ㆍ368쪽ㆍ1만3,000원.<br/><br/>▲암흑향<br/><br/> 조연호 지음. 199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의 신작 시집. 사라진 한자어로 단어를 만들고 불가능한 호응으로 문장을 만드는 낯설고 새로운 문법으로 쓴 시들이 담겼다. 민음사ㆍ180쪽ㆍ9,000원.<br/><br/>인문ㆍ교양<br/><br/>▲고대 로마인의 성과 사랑<br/><br/> 알베르토 안젤라 지음. 황제의 섹스 파티나 프레스코 벽화의 성행위 장면이 고대 로마의 성과 사랑의 전부일까. 오랫동안 발굴 유적과 자료들을 연구한 저자는 그렇지 않다며 솔직했던 고대 로마인들의 성과 사랑을 생생히 보여준다. 김효정 옮김. 까치ㆍ352쪽ㆍ1만8,000원.<br/><br/>▲존 F. 케네디의 위대한 협상<br/><br/> 제프리 삭스 지음. 2년10개월이라는 짧은 재임 동안 리더십과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합의를 이끌어낸 소통법 등 핵전쟁 위기에서 세계평화를 이끌어낸 케네디 대통령의 소통 리더십을 배운다. 이종인 옮김. 21세기북스ㆍ352쪽ㆍ2만2,000원.<br/><br/>▲88연승의 비밀<br/><br/> 존 우드ㆍ스티브 제이미슨 지음. 2010년 100세로 타계한 존 우든 감독은 UCLA 농구팀을 12년 동안 이끌면서 88연승, 4시즌 연속 우승, 10차례 전미대학농구선수권 챔피언십 우승을 일궈냈다. 어떻게 그런 경이적인 승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장치혁 옮김. 클라우드나인ㆍ312쪽ㆍ1만5,000원.<br/><br/>▲원 챈스<br/><br/> 폴 포츠 지음. 영국 TV프로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서 우승하면 세계적인 가수가 된 폴 포츠의 삶을 기록한 감동 실화다. 낮에는 휴대전화 세일즈맨, 밤에는 아마추어 오페라 가수로 살았던 그의 삶을 생생히 보여준다. 부희령 옮김. 문학세계사ㆍ296쪽ㆍ1만3,000원.<br/><br/>▲요리를 욕망하다<br/><br/> 마이클 폴란 지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요리를 욕망하지만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가공식품의 늪에 깊이 빠져 있다. 현대인은 요리를 점점 덜 하고 대신 간편식품을 더 많이 섭취한다. 책은 인류 고유의 활동인 요리의 미덕과 가치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하다. 김현정 옮김. 에코리브르ㆍ560쪽ㆍ2만8,000원.<br/><br/>▲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게 되었을까<br/><br/> 루트 베르거 지음. 인간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인 언어를 어떻게 쟁취했을까. 저자는 인류의 원시로 거슬러 올라가 언어의 발생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한다. 이를 위해 생물학, 신경과학, 고고학 등 다양한 학문의 연구성과를 동원한다. 김희상 옮김. 알마ㆍ392쪽ㆍ1만8,500원.<br/><br/>▲공포의 식탁 <br/><br/>비 윌슨 지음. 부정불량식품은 후진국이 아닌 산업화한 선진국에서 더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책이 보여주는 식품 사기의 역사는 그야말로 유구하다. 인류의 근대사는 식품 사기와 맥을 함께했다. 불순물이 섞인 와인, 가짜 분유 등의 창궐에 어째서 많은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는지 살펴본다. 김수진 옮김. 일조각ㆍ512쪽ㆍ2만5,000원.<br/><br/>▲어느 날, 딸이 달라졌다<br/><br/> 이경수 지음. 살갑던 딸이 어느 날 아빠와 멀어졌다. 사춘기를 맞은 딸은 잔소리를 늘어놓는 엄마와 오히려 가까워져 아빠를 당혹스럽게 한다. 저자는 '친구 같은 부모'를 자청하지 말라고 한다. 철저히 부모로 아이의 길잡이가 되라고 말한다. 미디어윌ㆍ260쪽ㆍ1만3,000원.<br/><br/>▲헤겔의 음악 미학 <br/><br/>헤겔 원저 지음. 독일의 관념론적 철학을 완성한 헤겔이 1820년대 베를린 대학에서 미학과 예술 철학에 대한 강의를 펼쳤을 당시 제자인 호토가 이를 받아 적었다. 이 노트에서 비롯된 그의 중 음악편을 수록한 것으로 음악학자 김미애 교수의 해설이 담겼다. 김미애 옮김. 느낌이있는책ㆍ208쪽ㆍ1만5,000원.<br/><br/>어린이ㆍ청소년<br/><br/>▲우리 동백꽃 <br/><br/>김향이 글ㆍ윤문영 그림.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약탈해 간 울산동백이 400여 년 만에 돌아온 과정을 담은 그림책. 울산동백을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일본이 빼앗아간 우리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자신의 뿌리가 조선이었음을 깨달은 울산동백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우리 것의 소중함을 전해준다. 파랑새ㆍ44쪽ㆍ1만2,000원.<br/><br/>▲지난여름 할아버지 집에서 <br/><br/>아리안나 스퀼로니 글ㆍ알바 마리나 리베라 그림. 우중충한 할아버지 집에 알록달록 무지개 색 비가 내린 사연은 무엇일까. 콜라주와 디지털 기법의 화풍을 담아내 현실과 추억을 넘나드는 즐거움을 어린 독자에게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선 옮김. 뜨인돌어린이ㆍ36쪽ㆍ1만2,000원.<br/><br/>▲브루브루별 왕따통신<br/><br/> 전지은 글ㆍ남궁선하 그림. 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들에게도 하나씩 스마트폰이 들려있다. 교실은 이제 물리적인 따돌림보다 스마트폰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따돌림에 더 취약한 곳이 됐다. 아이들에게 '소통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동화다. 계림북스ㆍ184쪽ㆍ9,500원.<br/><br/>▲설탕따라 역사여행 <br/><br/>김곰 글ㆍ김소영 그림. 설탕이 바꾼 식탁의 풍경과 역사의 흐름을 보여 주는 역사 그림책이다. 인도, 유럽과 조선 등을 넘나들며 고대에서 현대까지 설탕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해 보여준다. 너머학교ㆍ44쪽ㆍ1만2,000원.<br/><br/><br/>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80.txt

제목: 복지부, 54개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27억원 지원  
날짜: 20140227  
기자: 송옥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7100000321  
본문: 보건복지부가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54개 기관(868병상)에 총 27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br/><br/>복지부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육성 차원에서 2005년부터 시설 인력 등을 기준으로 기관을 평가하고 해당 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호스피스 병동이라고도 불리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대부분 검사나 수술이 무의미한 말기 암 환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운영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br/><br/>복지부는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한 완화의료팀제도, 가정호스피스 법제화,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암 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br/><br/>완화의료 전문기관 현황은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br/><br/>송옥진기자 click@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81.txt

제목: HPV 백신, 다발성 경화증 유발 등 이상 반응 연관성 증거 없어  
날짜: 20140227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7100000092  
본문: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산하 국제백신안전성자문위원회(GACVS, Global Advisory Committee on Vaccine Safety)는 최근 주간감염병학지(Weekly Epidemiological Record)를 통해 HPV 백신 접종이 다발성 경화증을 비롯한 자가 면역 질환 위험의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br/><br/>위원회는 미국, 호주 및 일본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HPV 백신 ‘가다실®’의 제조사인 MSD 등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를 검토했다. 그 결과 HPV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으로 의심됐던 길랑바레 증후군, 발작, 뇌졸중, 정맥혈전색전증, 아나필락시스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임신 중 HPV 백신을 접종한 여성 역시 이상 반응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br/><br/>스웨덴 및 핀란드에서 약 100만명의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여자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HPV 백신을 접종한 30여 만 명에게서 자가 면역 질환, 신경계 질환 또는 정맥혈전색전증과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br/><br/>또한 미국에서 약 20만명의 여자 어린이 및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최소 1회 이상 HPV 백신을 접종한 접종군이 비접종군보다 16개 유형의 자가면역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나지 않았다.<br/><br/>이와 함께 프랑스에서 HPV 백신 접종으로 다발성 경화증이 발생했다는 사례와 관련하여 약 200만명의 12~16살의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호트 연구를 진행한 결과, HPV백신 접종군이 비접종군보다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한 입원률이 증가했다고 보기엔 부족함을 보였다. <br/><br/>위원회는 이러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HPV 백신 접종이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 자가 면역 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효과 있는 백신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br/><br/>이에 한국 MSD 의학부 김진오 이사는 “<span class='quot0'>이번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백신안전성위원회의 발표는 HPV 백신에 대한 의구심을 덜어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 생각한다</span>”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MSD는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이와 같은 연구에 동참할 예정이고,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통해 질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 <br/><br/>한편, 가다실®은 지난 해 10월 스웨덴 및 덴마크에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자가 면역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의 이상반응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br/> <br/>4가 HPV 백신 가다실은 HPV 16, 18형에 의한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다양한 HPV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예방을 도울 수 있다. 132개 국가에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HPV로 인한 질환의 예방을 위해 52개국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되었다. 호주와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남학생을 대상으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9~26세 여성의 HPV 16, 18형에 의한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및 9~26세 남성 및 여성의 HPV 16, 18형에 의한 항문암과 HPV 6, 11형에 의한 생식기 사마귀 예방에 대한 적응증을 승인받았다.<br/> <br/><br/>한국아이닷컴 장원수 기자 jang7445@hankooki.com<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82.txt

제목: 일본 정부, 암투병 직장인 32만명 치료 팔 걷는다  
날짜: 20140226  
기자: 김현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6100000362  
본문: 일본에서 암에 걸린 뒤 치료를 받아가며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약 32만5,000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이 조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생존율이 높아져 일을 해가며 투병하는 암환자가 적지 않다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이들이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올 여름까지 지원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br/><br/>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0년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추산해 일본 직장인 가운데 암환자는 남성이 14만4,000명, 여성이 18만1,000명이라는 결과를 25일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br/><br/>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60대가 6만1,000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이어 50대(3만4,000명) 70대 이상(3만2,000명) 순이었다. 여성은 50대가 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5만명, 60대가 3만4,000명이었다. 직장별로는 암환자의 28%가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나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1~29명 회사가 26%, 100~499명은 19%정도였다. <br/><br/> 한국도 사정이 비슷하지만 암은 일본에서 1981년 이후 줄곧 사망원인 1순위였다. 2011년에 암으로 숨진 사람은 약 36만명에 이른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노동가능 연령층(20~64세) 중 연간 22만명에 암이 발병하고 약 7만명이 암으로 숨진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진단을 받고 5년 뒤 생존율은 계속 높아져 60% 가까이에 이른다. <br/><br/> 후생노동성 연구팀의 2004년 조사에서는 암환자의 30%가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4%는 해고당했다. 모두가 원하지 않는데 직장을 그만 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암 투병이 직장생활을 어렵게 한 중요한 원인인 것만은 분명하다. <br/><br/> 일본 정부는 2012년 각의 결정한 암대책추진기본계획에서 '암에 걸려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사회의 구축'을 들며 '일하는 세대를 위한 암대책 내실화'를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후생노동성은 암환자 취업ㆍ근로 지원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오는 여름까지 지원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br/><br/> 이 신문은 덧붙여 암환자 취로지원단체 'CSR프로젝트' 사례도 소개했다. 이 단체는 암환자의 복직 준비나 직장에서 자신의 병을 설명하는 방식 등을 전화로 무료상담해주거나 매달 한 차례 암경험자들끼리 모여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모임을 주최하고 있다. <br/><br/> 단체를 만든 사쿠라이 오미(47)는 암 발병으로 원치 않게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다. 건축설계사무소 수석디자이너로 일하던 10년 전 건강검진에서 유방암을 발견해 1개월 뒤 절제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이어갔다. 반년 뒤 복직했지만 항암제의 부작용에 따른 체력 저하로 전과 같이 일하기란 도무지 어려웠다. "일에 한창 보람을 느끼던 때"여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심적 고통도 이만저만 아니었다. 후생노동성 자문단에도 참여하고 있는 사쿠라이 대표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건강상태나 병원 통원에 맞춰 일을 덜 수 있는 제도의 보급을 기업에 요구하는 등 환자들의 바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br/><br/> <br/><br/><br/><br/>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83.txt

제목: '동맹휴학' 원광대, 한의대생 학업 복귀  
날짜: 20140226  
기자: 최수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6100000344  
본문: 한방병원 폐원을 뼈대로 한 양ㆍ한방 통합 암병원 설립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결정했던 원광대 한의과 대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한다.<br/><br/>원광대 한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총회를 열어 동맹휴학을 철회하고 학업에 복귀한다고 26일 밝혔다.<br/><br/>총회에는 전체 재학생 436명 중 350여명이 참석, 이중 절반 이상이 휴학 철회에 찬성했다.<br/><br/>비대위는 "한방병원 폐원을 막지 못했지만 익산 한방병원이 양방 중심의 암센터로 변환되는 것을 저지했고 학습권 보장과 교학협의체 구성을 약속 받았다"면서 휴학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br/><br/>비대위 관계자는 "학교측이 총장과 교수, 학생들로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다"면서 "많은 학생이 학교와 교수를 믿어보자고 해 동맹휴학을 철회하지만 학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학습권을 저해한다면 학생들의 힘을 모아 더욱 강경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br/><br/>한편 원광학원은 1월말 암 치료에 한방의학을 결합하기 위해 의과대학병원, 익산한방병원, 산본의대병원, 산본한방병원을 통합한 '통합 암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br/><br/><br/>최수학기자 shchoi@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84.txt

제목: 국산 백혈병신약 ‘슈펙트’, 1차 치료제 적응증 확대 3상 돌입  
날짜: 20140226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6100000159  
본문: 국산 백혈병신약 ‘슈펙트’(성분명 : 라도티닙·사진)가 내년 1차 치료제로 진입하기 위한 3상에 들어간다.<br/><br/>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은 슈펙트의 1차 치료제 진입을 위한 임상 3상 환자 등록을 2년6개월 만에 마치고 3상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상기간은 1년이다.<br/><br/>일양약품은 2011년 8월부터 서울성모병원과 동남아 의료기관 등 국내외 24개 대형병원에서 진행할 3상 환자 240명을 모집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br/><br/>3상이 끝나면 슈펙트는 글리벡 내성 환자 및 불내약성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되고 있는 현재 2차 치료제에서 만성기 만성골수성백혈병 초기환자도 처방이 되는 1차 치료제로 적응증 범위가 확대된다. <br/><br/>글리벡 내성 치료제인 타시그나(노바티스)보다 약값이 절반 가량 저렴한 슈펙트가 1차 치료제로 허가 받을 경우 글리벡 등 경쟁약물과 효능과 가격에서 고가의 다국적사 백혈병치료제 처방이 힘든 국내 및 전세계 환자들에게 도움일 될 것으로 보인다.<br/><br/>또한 슈펙트는 건강보험재정 기여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있는 슈퍼 백혈병 치료제로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br/><br/>일양약품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슈펙트의 3상 환자 등록 완료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백혈병 표적항암제 시장에서 개발된 이 국산 신약이 전세계 백혈병 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다국적사와 치열한 시장 경쟁을 벌이게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중국 등 글로벌 진출에도 청신호</span>”라고 말했다.<br/><br/>슈펙트는 거대 백혈병 시장인 중국으로부터 약효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말 일양약품과 중국 고우시 정부가 투자 설립한 ‘양주일양 유한공사’를 통해 ‘신약 판매 및 기술이전’에 관한 중국 수출 계약이 성사됐고 중동의 라이프파마사와도 수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br/><br/>2003년 백혈병 유도체 개발을 시작으로 전임상과 임상을 거쳐 2012년 1월 국산 18호 신약으로 허가된 슈펙트는 출시 당시 하루 약값(800㎎) 6만4,000원의 경제적 약가로 다국적사와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신약으로 평가 받고 있다.<br/><br/>또한, 글리벡 등 기존 치료제보다 주요세포유전학적 반응률이 높고 안전성이 뛰어난 슈펙트는 초기반응도 및 약효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유효율도 글로벌 제품과의 간접 비교에서도 우수한 유효율을 나타냈다.<br/><br/>단일과제로는 대규모인 43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슈펙트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혈액학회저널 ‘블러드(Blood)’지와 세계적 뉴스 제공업체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지에 ‘경쟁력 높은 백혈병 치료제’이자 ‘암 부문 가장 유망한 글로벌 신약’으로 소개되기도 했다.<br/> <br/><br/>한국아이닷컴 장원수 기자 jang7445@hankooki.com<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85.txt

제목: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스피치&협상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중  
날짜: 20140226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6100000175  
본문: 지난 2월 5일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는 스피치&협상 최고경영자과정 제10기 수료식을 거행했다. 10기 주요 수료자는 박성래 우성실업 회장, 김우화 미오림복지재단 이사장, 조용진 국민은행 동부지역 본부장, 이경호 우드마트코리아 대표, 이외자 함라초등학교 교장, 김정수 기업은행 지점장 등이었다. <br/><br/>2009년 4월에 1기가 처음 시작된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스피치&협상 최고경영자과정은 지난 5년간 500여명의 동문을 배출했고 현재 제11기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다. 스피치&협상 최고경영자과정 제11기는 2014년 3월 19일에 교육을 시작하여 7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br/><br/>본 최고경영자과정은 중소기업체 CEO들이 스피치와 협상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한 CEO 교육과정이다. 최근에는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에 있어 스피치와 협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CEO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br/><br/>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의도를 보다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상대의 마음을 먼저 파악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피치와 협상에 대한 기술이 필수적이고 이는 교육과 실전 훈련에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br/><br/>본 교육과정의 스피치 교육내용으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스피치 비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피치 기술, 임기응변을 이용한 대중 스피치 기법, 지도자의 연설과 성공 리더십, 오바마처럼 말하고 소크라테스처럼 협상하라, 동영상 스피치 실습, 스피치 경연대회를 통한 개인별 코칭, 칭찬의 힘, 격려의 기술,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스킬, 화술과 인간관계, 유머의 원리와 기법, 조직을 죽이고 살리는 리더의 언어, 사람의 가슴과 머리에 확 꽂히는 말, 대화와 협상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기술, NLP를 통한 스피치 & 협상 기술 습득, 경청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마법의 스피치 법칙, 성공 프리젠테이션 스킬과 CEO 전략 커뮤니케이션, CEO의 실용 스피치 기법과 기업경영 커뮤니케이션, 경영자와 근로자의 갈등해소와 기업내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스토리텔링, 언론홍보의 이해와 대언론관계 관리, PCT(Public Communication Training) 기법을 통한 스피치 & 프레젠테이션 등이 있다. <br/><br/>협상 교육내용으로는 CEO의 Win-Win 협상스킬, 성공적인 협상 & 커뮤니케이션 스킬,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와 협상사례, 쇼군 3인의 리더십과 협상전략, 협상 기술을 높여주는 협상력 증강공식, 모의협상을 통한 CEO 협상력 극대화, 다양한 상황과 케이스별 협상 & 커뮤니케이션 기법, 경영활동과 현업에서 바로 활용되는 실전 협상기법, 효과적인 협상전략과 상황대처 전술, 다자간 협상에서 성공조건과 구체적 협상전술, 단계별 파워협상 스킬과 영향력 강화방법, 비즈니스 협상의 프로세스와 협상 전략과 전술, 인간심리를 활용한 고도의 심리기법과 협상 커뮤니케이션 스킬, 협상의 3개 변수(Power, Information, Time) 최적활용 노하우, 부동산 개발 및 거래시 성공적 협상스킬, 상대를 내편으로 만드는 설득 심리학, 국제 비즈니스 협상 방법과 의사소통, 교착상태와 마무리 단계에서의 협상전략, 효과적인 협상 전략가들의 숨겨진 비밀 등이 있다.<br/><br/>스피치와 협상 분야의 전문적인 강사진으로 구성된 본 교육과정의 교수진으로는 김홍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김동길 연세대학교 교수, 황용석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원장, 박갑주 스피치&협상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엄용수 방송인이자 개그맨, 신영일 전 KBS 아나운서, 김정식 코미디언, 윤치영 윤치영스피치커뮤니케이션 소장, 강지연 스피치 전문 아나운서, 이봉원 윈컴피알 대표, 송민 MC, 레크레이션 사회자, 김경석 한국웅변인협회 회장, 전대수 한국스피치교육센터 원장, 민영욱 한국 스피치&리더십센터 원장, 유호연 석세스 스피치리더십아카데미 원장, 정은상 한국웃음연구소 웃음스타강사, 김병국 협상전략연구소 소장, 국제변호사, 박건식 한국협상연구원 원장, 남학현 콜럼비아E&N 원장, 박상기 글로벌협상컨설팅 대표, 이동휘 한국협상학회 회장, 조우성 협상전문 변호사, 김성형 한국협상아카데미 대표, 박승주 PSI컨설팅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김종명 이솝러닝 대표, 김상철 네고컨설팅 대표, 이종선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소장, 탁진규 HR Line 대표, 김형진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등이 있다.<br/><br/>다른 최고경영자과정과 차별화되는 본 최고경영자과정의 특징은 다양한 비즈니스의 문제점들을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주는 스피치와 협상 스킬을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점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피치와 협상의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명품 스피치와 협상의 달인 될 수 있도록 수업시간 마다 3분 스피치 실습을 실시하고, TV 인터뷰를 대비하여 아나운서 교수가 직접 코칭을 해주는 동영상 스피치 실습, 수상자에게 트로피를 수여하？스피치 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협상 교육 역시 협상에 대한 원칙과 사례, 협상 스킬,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협상법, 개인 협상, 팀별 협상 실습 등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교육생의 만족도가 높다.<br/><br/>교육과정의 만족도는 동문들의 추천으로 이어져 매 기수마다 50%이상의 기존 동문들의 추천으로 새로운 교육생이 모집되고 있다. 본 교육과정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타 최고경영자과정에 비해 높은 여성원우의 비율이다. 여성원우들의 활발한 참여 덕분에 교육과정이 활기차고 화목한 분위기로 졸업 후에서 원우 네트워크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br/><br/>원우간 다양한 동호회 활동, 선배들의 신입원우 환영파티 개최, 국내 워크샵, 제주도 졸업여행, 각종 단합대회, 와인기차여행, 친선골프, 친선등반, 총여성회 행사, 승마체험, 해외시찰(여행) 등 다양한 원우 친목 활동을 학교 교수진이 직접 참여하여 원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동문간의 교류가 SNS를 통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블로그, 카페,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 소셜미디어 활동을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br/> <br/>그 동안 스피치&협상 최고경영자과정 수료한 주요 동문으로는 원로가수 김세레나, 백남선 이대 여성암전문병원장, 김재운 백석토건 대표이사, 엄용수 코미디언, 김팔수 서희건설 대표이사, 김학면 에스까다코스메틱 대표이사, 박인교 청안산업 회장, 오병주 국무총리실 차관, 김순길 삼진에너지 회장,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이사, 임성재 제모피아 대표이사, 차상협 청심국제병원장, 송정규 한국도선사협회장, 노충희 상계백병원장, 이태길 한국신조형협회장, 황창주 민주당 국회의원, 구차범 세희피엔씨 대표이사, 국관호 두란노아버지학교 기획본부장, 최종모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배일수 첼리쳐트레이닝 대표이사, 김상민 운양의료재단 이사장, 이상대 한국언론문화진흥원 대표이사, 최병환 패션그룹형지 부사장, 도기안 대한공경매협회장, 문성흠 신성모자 대표이사, 성흥수 신동아고속관광 대표이사, 윤보영 시인 등이 있다. <br/> <br/><br/>한국아이닷컴 장원수 기자 jang7445@hankooki.com<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86.txt

제목: 갑상선암, 면역의 균형 맞춘 비수술적 치료 대안  
날짜: 20140225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5100000099  
본문: 우리나라암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더불어 서구화된 생활양식이 주요 암의 발생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 암 발생률 1위인 갑상선암은 단순 결절이 아닌 악성종양을 말하며 전체 갑상선 혹이나 결절 중 5%정도를 차지한다. <br/><br/>갑상선암은 기원이나 형태, 위험도에 따라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역형성암으로나뉘는데 전체 갑상선암 중 80%정도는 위험도가 떨어지는 유두암이며, 20%는 비교적 예후가 양호한 여포암이나 수질암이다. 통계적으로 예후가 불량한 역형성암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br/><br/>실제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해 26일 발표된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00%였다. 전립선암(92.0%)과 유방암(91.3%) 대장암(73.8%) 위암(69.4%) 환자의 5년 생존율도 높았다. <br/><br/>5년 생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암이 없는 일반 사람보다 생존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갑상선암 환자들이 많은 건강검진을 받고 병원을 자주 다니며 관리하기 때문인 것으로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br/><br/>암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갑상선 암이 발견되면 일반적으로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전절제술이나 갑상선의 일부를 제거하는 반절제술을 권유 받게 된다.하지만 암이 발생한 부위만 제거하는것이 아니라갑상선전부를 절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암수술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br/><br/>또한 갑상선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보통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한 두차례 받아야 하는데 구역질, 미각, 입맛의 상실 등 일반적으로 방사선치료과정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에서부터 방사성요오드에 의한 백혈병, 골수암, 대장암, 직장암 등 다른 2차암의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br/><br/>수술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대손상과 같은 후유증은 물론, 갑상선이 제거된 상태에서 일생동안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점 또한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br/><br/>이와는 별도로 진단 과정에서의 오진의 가능성도 문제다. 갑상선혹이 발견되면 초음파검사와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인 암과 양성결절을 감별진단 하지만 조직검사의 한계로 완전히 조직을 절개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100% 확진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br/><br/>이런이유로 최근에는 우선적으로 갑상선절제술을 고려해야 하는 암이 아닌 경우, 당장의 수술보다 약물치료나 주기적인 추적관찰로 경과를 관찰하는 환자들이 늘어 나고 있다. 한방치료 또한 수술, 방사능치료를 피하고 자연치료를 선호하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br/><br/>행복찾기한의원 차용석 원장 “<span class='quot0'>갑상선절제술과 방사선요오드치료로 갑상선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면 환자는 일생동안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가지고 살게 되므로 크기나 위험도를 신중하게 판단해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span>”며“<span class='quot0'> 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두암은 착한암 또는 거북이암으로 알려질 정도로 잘 자라지 않고 전이도 잘 일어나지 않는 만큼 발견 당시에 크기가 1센티미터 이하라면 발견즉시 수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span>”고 설명했다.<br/><br/>차 원장은 이어 “<span class='quot1'>갑상선유두암은잘 자라지 않고 다른 암에 비해서 위험도가 많이 떨어지므로 한의학적 치료법(면역한약, 약침, 영양·식이요법등)을 통해 비수술 치료가 가능하다</span>”며“<span class='quot1'>한방치료는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인 면역의 균형을 맞추어 주므로 증상의 호전과 함께 최대한 수술하지 않고 치료 할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br/><br/>한편 ‘2013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갑상선부문’ 대상을 수상한 행복찾기한의원은 지난해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 갑상선암컨퍼런스’에 참가했다. 이 컨퍼런스는 전세계 61개국에서 양·한방의 갑상선 분야 전문의들이 참가해 갑상선암의 진단과 수술, 항암치료, 수술 후 관리 등의 최신지식을 발표하고 교류하는 자리다.<br/><br/><br/>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87.txt

제목: 정액형 민간의보 수급자들이 입원 더 오래하는 이유는?  
날짜: 20140225  
기자: 송옥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5100000365  
본문: 특정질병이 발병하면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약정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수령자들의 입원기간이 비수령자들에 비해 평균 이틀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br/><br/>25일 신기철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의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정액형 보험금 수령자의 1인당 입원기간은 9.93일로 비수령자의 입원기간(7.37일)보다 2.56일 길었다. 질병별로는 '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성 변형'으로 인한 수령자의 입원 기간이 17.16일로 비수령자(8.67일)와 차이가 가장 컸다. 이 보고서는 2011년 4~12월 무릎관절증, 인대탈구증 등 우리 국민들이 자주 입원하고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이 주로 보장하는 20개 질병으로 입원한 89만9,000명의 의료행태를 분석한 것이다. 의료기관별로는 경증환자들이 많은 의원급에서 정액형 민간의료보험금 수령자의 입원기간이 9.03일로 비수령자(4.08일)에 비해 2배 이상 길었다. 대학병원에서도 수령자의 입원기간(10.61일)이 비수령자(8.91일)보다 길었다. <br/><br/>신 교수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대책으로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예컨대 암 진단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는데, 보장성이 높아지면 가입자가 손에 쥐는 보험금은 더 많아져 불필요한 입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011년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보유한 정액형 의료보험은 427건으로 실손형 보험(81건)에 비해 5배 이상 많았다. 하루 입원할 때마다 하루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일당형이나 특정질병으로 진단받으면 일정액을 지급하는 진단형이 대표적인 정액형 보험으로 2011년 현재 국민 한 사람당 입원일당형 보험을 3.3건 가입하고 있다. 입원일이 길어지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병실료도 늘어난다. <br/><br/>신 교수는 "입원일당형, 진단비형 같은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제한하고 수술을 요하지 않는 관절, 염좌 관련 질병은 입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과잉진료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br/><br/>송옥진기자 click@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88.txt

제목: [여행] 장인의 숨결 따라 가는 봄여행  
날짜: 20140225  
기자: 한국스포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5100000162  
본문: 때로는 사람이 풍경이 된다. 이럴 때는 사람 만나는 일이 여행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장인을 찾아서’라는 테마로 장인들을 만날 수 있는 여행지 일곱 곳을 3월 가볼만한 곳으로 추천했다. 바람 순해진 봄날, 문화와 문명의 주역들을 만나러 간다. 가서 보면, 이들의 호흡 깃든 현장이 멋진 풍광 못지않게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된다. <br/><br/>● 하늘보다 파란 쪽빛 세상…전남 나주<br/><br/>다시면에 중요무형문화재 115호인 정관채 염색장의 전수관이 있다. 쪽물 들인 천이 하늘보다 파랗게 마당에 널렸다. 다시면을 비롯한 나주 일대 사람들은 예부터 쪽 염색을 많이 했다. 영산강이 자주 범람해 벼 대신 심은 것이 쪽이다. 영산강 하류는 바다와 가까워 쪽 염료 만드는데 필요한 소석회도 많았다. 이러니 자연스레 쪽 염색이 발달했다. 다시면에선 조선 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샛골을 중심으로 전통 방법으로 쪽 염료를 생산했다. 염색체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 쪽 염색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 전수관은 열린 공간이다.<br/><br/>나주 구경도 해본다. 나주는 ‘전라도의 천년 수도’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 말까지 나주목으로 성했다. 봄날 둘러볼 곳들 많다. 약 4km 길이의 나주읍성이 산책삼아 걷기 좋다. 영산포는 조선 시대 전세(田稅)를 보관하던 영산창이 있던 곳. 영산교 부근에는 그 유명한 영산포 홍어거리도 있다. 덕룡산 기슭 불회사는 들머리에 익살스러운 표정의 석장승이 유명하다. 명하쪽빛마을도 쪽 염색으로 유명하다. 나주시청 문화관광과 (061)339-8592 <br/><br/>△1박 2일 여행코스<br/><br/>첫째 날: 나주읍성→완사천→영산포 황포돛배→백호문학관→한국천연염색박물관→나주영상테마파크/ 둘째 날: 명하쪽빛마을→삼봉 정도전 선생 유배지→죽산보→불회사 <br/><br/>● 손끝에서 핀 맛과 멋…경기 부천<br/><br/>부천문화원 한옥체험마을 김치테마파크는 김순자 김치 명인이 한평생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낸 곳이다. 그는 지난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국내 최초 김치 명인 1호로 지정됐다.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김치 명장이 됐다. 이곳에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유치원생부터 성인들까지 김치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다. <br/><br/>한옥체험마을에는 최학선 전통 폐백 명인과 함께 떡케이크, 강정, 양갱 등 전통음식을 만들 수 있는 전통음식체험관도 있다. 그는 중요무형문화재 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보유자 한복려 선생에게서 폐백 음식 만드는 법을 사사했다. <br/><br/>한국만화박물관과 미니어처 테마파크 아인스월드가 한옥체험마을에서 가깝다. 한국만화박물관은 국내 만화의 메카로, 한국 만화의 역사와 발자취가 담긴 수많은 자료들이 전시 중이다. 아인스월드에는 세계 25개 나라의 유명 건축물 100여 점이 야외 전시장에 가득하다. 부천테크노파크 로봇산업연구단지에 자리한 부천로보파크는 국내 최초 로봇 상설 전시장이다. 다양한 지능형 로봇들이 전시 중인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하다. 부천시청 문화관광팀 (032)625-3117<br/><br/>△당일 여행코스: 부천문화원 한옥체험마을(김순자 명인 김치테마파크, 최학선명인 맛깔손 전통음식체험관 등)→한국만화박물관→아인스월드→부천로보파크 <br/><br/>● 담금질과 두드림의 이중주…충북 충주 <br/><br/>무학시장 입구 누리장터에 삼화대장간이 있다. 김명일 야장의 망치 소리 우렁찬 곳. 야장은 우리말로 대장장이다. 한자로 대장간을 뜻하는 풀무 ‘야(冶)’, 장인을 뜻하는 ‘장(匠)’을 쓴다. 그는 충북 무형문화재 13호다. 책이나 영화에서 보던 대장간을 직접 보고 쇠를 두드리는 이색 체험을 하러 일부러 대장간을 찾는 여행자가 많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삼화대장간이 있는 달천 변을 따라 대장간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유일하다. <br/><br/>벌겋게 달궈진 화로 앞, 탕탕 망치질하는 소리가 심장을 두드리는 듯하다. 작은 호미 하나 만드는 데 약 20회의 담금질과 1,000회 이상의 망치질이 필요하다. 손잡이를 끼우는 슴베 작업을 하고 마무리하기까지 한 시간 넘게 걸린다. <br/><br/>삼화대장간이 있는 달천 변에는 충주 전통시장 삼총사가 있다. 자유시장과 공설시장, 무학시장이다. 봄날 장터 나들이 해본다. 자유시장은 의류상과 잡화상이 주를 이루고, 무학시장은 순대골목 등 먹거리가 다양하다. 끝자리 5ㆍ10일에 열리는 충주풍물시장은 장이 설 때마다 문전성시다. 달천 변 따라 350여 개 난전이 선다. 무학시장 안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살던 반선재가 있다. <br/><br/>충주 구경에 나선다. 고려시대 절 단호사에는 ‘충주 철불’로 유명한 철조여래좌상(보물 512호)이 있다. 세계무술공원도 흥미로운 곳. 세계 여러 나라의 무술과 택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충주세계무술박물관을 중심으로 수석 공원, 돌 미로원, 야외 공연장 등이 공원에 조성돼 있다. 자전거 타기 딱 좋은 강변길도 있다. 충주시청 관광과 (043)850-6723<br/><br/>△당일 여행코스: 삼화대장간→무학시장(반선재)→자유시장→충주시 택견전수관→충주세계무술박물관→단호사(철조여래좌상)<br/><br/>● 민족의 혼을 잇다…경기 파주 <br/><br/>탄현면에 영집 궁시박물관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47호인 유영기 궁시장이 평생 연구․수집한 우리나라의 전통 활과 화살, 해외의 활과 화살을 전시한 공간이다. 궁시장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장인이다. <br/><br/>1층 전시관은 우리나라 전통 활과 화살의 역사를 보여준다. 물소 뿔과 쇠심줄, 대나무와 뽕나무, 민어의 부레(부레풀 재료) 등 각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부터 시대별로 다양한 화살까지 전시 중이다. 적이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한 편전(아기살), 임금의 명령을 전달할 때 쓰던 신전, 소리 나는 명적, 고구려를 대표하는 육량시, 태조 이성계가 주로 사용했다는 명중률 높은 유엽전 등 화살에 숨은 이야기도 재미있다. <br/><br/>우리나라의 각궁은 탄력이 좋아 멀리 나가고, 파괴력이 단연 으뜸이다. 이곳에선 활 만들기와 활쏘기 체험이 가능하다. 활 만들기는 전통 방법 그대로 하는 알짜배기 체험으로 추천할 만하다. 만든 활과 화살 한 개는 가져갈 수 있으며, 체험 비용은 2만원이다. <br/><br/>파주에 뭐 있을까 싶은데, 둘러볼 곳 은근히 많다. 영집 궁시박물관 인근에는 모산목장이 있다. 송아지 우유 주기, 여물 주기, 젖짜기, 아이스크림과 치즈 만들기 등이 가능하다. 그 유명한 헤이리 문화예술마을은 가족이나 연인들이 자주 찾는 곳.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곳으로는 세계 각국의 장난감을 전시하는 한립토이뮤지엄이, 연인과 함께라면 각 지역의 옹기와 근현대 도자작품을 전시 중인 한향림 세라믹 뮤지엄이 괜찮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촬영된 갤러리 카페 아다마스253도 요즘 인기다. 파주시청 문화팀 (031)940-4354<br/><br/>△당일 여행코스: 모산목장 체험→영집 궁시박물관→헤이리 예술마을(한립토이뮤지엄, 한향림 세라믹 뮤지엄)<br/><br/>● 독 짓는 장인들의 마을…울산 울주<br/><br/>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은 옹기 장인들의 숨결이 서린 마을이다. 50여년전 이곳에 뿌리내린 옹기 장인들은 굵고 갈라진 손마디로 개성 넘치는 독을 만들며 삶을 꾸려가고 있다. 옹기마을에는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로 지정된 장인 여덟 명이 직접 옹기를 제작하는 공방과 가마가 있다. 마을은 그들의 삶터이자 소중한 작업장이며, 일반 판매를 통해 대중과 만나는 소통의 공간이다. 옹기마을 곳곳을 둘러보면 지나치는 골목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진다. 마당 가득 쌓인 옹기 외에도 전통 흙 가마, 옹기를 테마로 한 다양한 구조물에서 봄날 ‘독 짓는 장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br/><br/>골목 따라 담벼락 너머로 옹기 공방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초창기부터 쓰인 전통 황토 가마도 만날 수 있고, 장인들이 직접 옹기를 만드는 과정도 엿볼 수 있다. 마을 뒤편에는 울산옹기박물관도 있다. 이곳 옹기아카데미는 옹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옹기를 체험하는 곳으로, 일반인도 흙 놀이와 도예 체험이 가능하다. 옹기마을 옆으로 지난해 울주민속박물관이 문 열어 울주의 농경, 해양 풍습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br/><br/>옹기마을 인근 남창마을로 간다. 이곳 남창역은 1970년대 외고산옹기마을에서 제작된 옹기들이 출하된 역으로, 지금은 옛 모습을 간직한 채 근대 유적으로 지정됐다. 남창역 앞으로는 끝 자리 3ㆍ8일에 남창장이 서는데, 이곳 장터 국밥 맛이 일품이다. <br/><br/>외고산옹기마을과 남창마을을 잇는 길은 울산의 일출 명소 간절곶으로 이어진다. 간절곶까지는 시내버스가 오가며, 진하해수욕장을 경유한다. 아이들과 함께 울산 갔다면 장생포고래박물관도 들른다. 박물관 안팎이 온통 고래 조형과 화석 등으로 채워졌는데, 아이들 참 좋아한다. 울산시청 관광과 (052)229-3891 <br/><br/>△1박 2일 여행코스<br/><br/>첫째 날: 외고산옹기마을→울주민속박물관→진하해수욕장→간절곶/ 둘째 날: 태화강 십리대밭→장생포고래박물관→반구대 암각화 <br/><br/>● 추사 김정희의 ‘명품’ 벼루가 여기에…충남 보령<br/><br/>보령의 남포 지방에서 생산되는 돌로 만든 벼루를 남포벼루다. 최고급 벼루의 대명사다. 보물 제547호로 지정된 추사 김정희 유물 중에는 벼루가 세 개 있는데, 그 중 두 개가 남포벼루다. 김진한 명장은 남포벼루 제작 기능 보유자다. 1987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6호, 1996년 석공예 부문 대한민국 명장이 됐다. 청라면에 그의 공간이 있다. 3대째 남포벼루를 제작 중이다. 벼루 하나를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두세 달. 재료가 되는 백운상석을 자르고 다듬어 틀을 잡고, 용과 학, 거북, 봉황, 사군자, 십장생 등을 조각하는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이곳에 가면 남포벼루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br/><br/>남포벼루 구경하고 보령 나들이 나선다. 보령 지역은 국내 주요 석탄 산지였다. 보령석탄박물관은 충남탄전의 발달 과정과 채굴 장비, 작업 환경 등을 소개한다. 160m 길이의 모？갱도 체험이 가능하다. <br/><br/>별미 키조개가 있는 오천항은 꼭 들른다. 키조개는 생김새가 곡식의 검불을 까부르는 키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시커멓고 커다란 키조개 속에는 큼지막한 패주(관자)가 있다. 키조개의 패주는 웬만한 조갯살보다 훨씬 크고, 달짝지근하면서도 보드랍고 쫄깃한 맛이 일품이다. 요리법도 다양해서 두툼하게 썰어 회로 먹거나, 버터에 굽기도 한다. 시원한 채소 국물에 살짝 담가 먹는 샤부샤부, 매콤한 볶음도 맛있다. 항구 입구의 충청수영성(사적 501호)에서는 항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br/><br/>천북면에는 굴이 있다. 천북굴단지에는 구이, 찜, 물회, 칼국수 등 다양한 굴 요리를 내는 음식점들이 지천이다. 보령시청 관광과 (041)930-454<br/><br/>△당일 여행코스: 남포벼루무형문화재→보령석탄박물관→성주사지→오천항→천북굴단지<br/><br/>● 140년 이어온 맛의 고장…강원 강릉<br/><br/>사천면 노동리(갈골) 한과마을은 다양한 한과 중 유과인 산자와 강정 생산지로 유명하다. 네모반듯한 것이 산자, 누에고치처럼 길고 통통한 것이 강정이다. 현재 60여 가구가 한과를 만든다. 이곳 최봉석 명인은 지난 2000년 한과 분야 최초로 전통식품명인 23호에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23호 기능보유자로 지정됐다. 제조장 부근에 강릉 지방 한과의 유래, 제조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장과 직접 한과를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관을 갖춘 갈골한과 체험전시관이 있다. <br/><br/>한과마을 가까이엔 경포대, 선교장, 참소리축음기ㆍ에디슨과학박물관, 오죽헌을 비롯해 주말이면 자리를 찾기 힘들 만큼 인기 높은 안목 커피거리, 커피 전문점 ‘커피커퍼’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박물관 등 연계 관광지가 많다. 3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대부가의 전통 가옥 선교장은 관람은 물론 숙박 체험까지 가능한 강릉의 명소다. 전통 한옥 중에서도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 <br/><br/>세계 60여 개국에서 수집한 명품 축음기와 뮤직 박스, 라디오, TV, 발명왕 에디슨의 수많은 발명품 등을 소장ㆍ전시한 참소리축음기ㆍ에디슨과학박물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어른에게도 흥미진진한 경험을 선사한다. <br/><br/>커피박물관은 커피농장, 커피 전문점과 함께 왕산면 산속에 호젓하게 자리 잡았다. 5개 테마로 구성된 박물관을 돌면서 로스팅부터 분쇄, 추출까지 동서양의 커피 역사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고, 커피나무도 직접 볼 수 있다. 강릉시청 관광과 (033)640-5420<br/><br/>△1박 2일 여행코스<br/><br/>첫째 날: 사천한과마을(갈골한과 체험전시관)→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경포대→선교장→오죽헌/ 둘째 날: 안목 커피거리→커피박물관<br/><br/>김성환기자 ·자료제공=한국관광공사<br/><br/><br/><br/>한국스포츠 김성환기자 spam001@hksp.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89.txt

제목: “비타민E 보충제 과다복용하면 전립선암 위험 20% 증가”  
날짜: 20140224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4100000065  
본문: 비타민E 보충제와 셀레늄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남성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미국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 센터가 보충제를 통해 두 영양소를 하루 권장량을 초과해 복용할 경우 남성 전립선암 확률이 17%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br/><br/>연구진은 전립선암에 걸린 남성 1,700명과 건강한 남성 3,1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결과 셀레늄과 비타민E를 과다 복용할 경우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20% 가깝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br/><br/>연구팀은 종합비타민의 경우 두 성분의 양이 많지 않아 부작용이 없지만 하루 권장량의 수십 배를 초과하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을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br/><br/>특히 영양제를 먹기 전부터 이미 셀레늄 수치가 높은 남성이 해당 영양제를 섭취할 경우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은 91%까지 증가했다. 또 셀레늄 수치가 낮은 사람이 비타민E 영양제를 먹을 경우 전립선암 확률은 63% 증가했다. <br/><br/>프레드 허친슨 암연구 센터의 앨런 크리스탈 수석연구원은 “<span class='quot0'>많은 사람들이 건강보조식품이 몸에 좋거나 적어도 해롭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span>”며 “<span class='quot0'>많은 연구들에서 하루 권장량을 훨씬 더 초과하는 특정 영양제는 암에 걸릴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span>”고 말했다. <br/><br/>당초 이번 임상시험은 고용량의 셀레늄과 비타민E 보충제가 남성의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그러나 결과으로인 보충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대상자들이 복용한 셀레늄은 200마이크로그램과 비타민E 400IU 용량이다. 이는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제에 포함된 양보다 높은 편이다. <br/><br/>임상 시험 결과 셀레늄과 비타민E간의 상호작용도 나타났다. 비타민E의 경우 저용량의 셀레륨을 복용한 남성에서도 암의 위험성을 높였다. <br/><br/>연구팀은 55세 이상 남성의 경우 권고 용량보다 더 높은 비타민E 또는 셀레늄 보충제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br/> <br/><br/>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90.txt

제목: [박근혜정부 1년- 공약 평가] 증세 없는 복지의 역설… 기초연금 등 줄줄이 후퇴  
날짜: 2014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410013558058  
본문: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은 유독 '축소 또는 변질되었거나 현 단계에서 이행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평가단은 전체 14개 복지 공약 중 11개(79%)가 축소 또는 변질돼 이행되고 있다고 평했다. 반면 당초 취지대로 이행된 공약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실직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공약 한 가지였다. <br/><br/><br/><br/>평가단은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약 이행 의지는 있으나, 증세 없이 추진하려다 보니 축소ㆍ왜곡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기초연금 도입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최대 9만6,800원(2014년 기준)인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약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초연금으로 바꿔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20만원보다 줄어드는 기초연금도입안을 내놨다. 지급대상이 공약보다 축소된 데다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역차별 논란에 휘말리면서 정치권의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정부가 약속한 올해 7월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소통능력 부재도 지적됐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가 관료 장악력은 뛰어난 반면 국회나 시민단체 등을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복지공약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br/><br/><br/><br/>대표적인 보건의료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ㆍ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도 후퇴한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환자들의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등 복지공약들은 애초 증세 같은 재원 확보 방안 없이는 원안대로 이행하기 불가능했던 공약"이라고 말했다. <br/><br/><br/><br/>평가단은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급여 등을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자의 수요에 맞춘 개별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의 개편방향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법정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바꾸면서 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 재량으로 급여 수준을 결정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집이 있는 수급자들은 현 제도보다 현금급여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됐다. <br/><br/><br/><br/>한편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공약은 백지화돼 '선심성 공약'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평가단도 만장일치로 '폐기됐거나 진행사항이 없는 공약'(X)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약이행여부 검토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생활환경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선정할 수 없다고 판단, 지자체가 지원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br/><br/><br/><br/>보육 정책은 대체로 공약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였으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표적인 보육 공약인 무상보육의 경우 보육료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라는 근본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br/><br/><br/><br/>송옥진기자 click@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91.txt

제목: ‘피겨 여왕’ 김연아의 마지막 무대 갈라쇼  
날짜: 20140223  
기자: 함태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3100000059  
본문: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수상자들의 갈라쇼가 열린 23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br/><br/>암전된 링크에 이번 시즌 갈라 프로그램인 이매진(Imagine)에 맞춰 ‘피겨 여왕’김연아(24)가 등장하자 그 뒤로 선명한 태극기가 떠올랐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김연아의 마지막 무대는 그렇게 막이 올랐다.<br/><br/>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존 레논 원곡의 이매진에 맞춰 공연을 시작한 김연아는 더블 악셀에서 살짝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풍부한 감성 연기를 시작했다.<br/><br/>그는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상상하라’는 구절에서 살코 점프를 뛰어 가사에 힘을 실었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구절에서는 집게 손가락을 들어 보여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려 했다. 이어 ‘세상이 하나가 되길 바란다’는 구절에서 두 팔로 끌어안는 동작을 한 김연아는 스파이럴 연기와 더블 악셀로 감정을 최고조로 이끌어갔다. 김연아는 곡 마지막에 기도하는 듯한 모습으로 두 손을 꼭 맞잡으며 연기를 마무리 지었다.<br/><br/>평화를 기원하는 포즈로 연기를 마치자 잠시 숙연해졌던 관중석에서는 커다란 박수가 쏟아졌다. 갈라쇼가 모두 마무리 되기 직전에도 선수들이 드나드는 입구에는 태극기가 다시금 떠올랐고 빙판 위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새겨졌다. 조명을 한 몸에 받은 김연아는 평창에서 모두를 맞이하겠다는 포즈를 취해 눈길을 끌었다.<br/><br/>이로써 ‘선수 김연아’의 공식 무대는 모두 끝이 났다. 1996년 6세부터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한 김연아는 소치 올림픽 은메달을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퇴장을 했다. <br/><br/>갈라쇼까지 마무리하며 은퇴 무대인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완전히 마친 김연아는 “<span class='quot0'>소치에 온 지 벌써 일주일이 넘게 흘렀다</span>”며 “<span class='quot0'>드디어 마지막 마무리를 했는데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br/><br/>그는 프리스케이팅에서 불거진 판정 논란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김연아는 “<span class='quot0'>억울함이나 속상한 것은 전혀 없다</span>”며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22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김연아가 출전한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경기의 판정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체육회는 서한에서 “경기 결과에 대한 IOC 차원의 적절한 조치 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함태수기자<br/><br/><br/><br/>한국스포츠 함태수기자 hts7@hksp.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92.txt

제목: [Cover Story] '웰다잉' 법제화 어디까지 왔나  
날짜: 20140222  
기자: 송옥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2100000001  
본문: "고통에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죽여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존속살해 혐의로 경기 포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아들(27)은 그렇게 말하며 괴로워했다. 사건 9개월 전 말기암 판정과 함께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아버지(56)는 극심한 고통을 못 견뎌 아들뿐 아니라 아내와 딸에게도 같은 부탁을 수 차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r/><br/>한국에서 고통을 최소화하며 가족과 지인들 곁에서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사례는 아직 드물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째 답보상태인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포천 사례만 하더라도 환자가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면 2차 비극은 없었을 것이고 임종도 훨씬 편안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br/><br/>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방안을 담은 암 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암환자의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조항을 둠으로써 재가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관리하고 간병비 등 부담을 덜게 한다는 취지다. 탈수가 빈번한 말기 암환자가 단지 수액을 맞기 위해 응급실을 찾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있다. 현재 이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종교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11.9%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이 2020년 2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1년에 암으로 사망하는 7만3,000명 중 10%가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고통스럽게 사망하고 있다"며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제화ㆍ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br/><br/>하지만 암 발병 규모와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복지부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더라도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내 완화의료팀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도입해 환자의 통증 관리, 상담 등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스피스 병상 수도 현재 880병상에서 2020년 1,400병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목표는 10년 전인 2006년 복지부가 발표한 '암 정복 10개년 계획'상의 호스피스 병상 증설 계획, 즉 2015년까지 2,500병상으로 늘리기로 한 내용보다 오히려 후퇴한 내용이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는 "복지부는 완화의료 관련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지만 이미 수가 개발만 몇 년째 하고 있다. 관련 대책이 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고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호스피스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br/><br/><br/>송옥진기자 click@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280억원 복권당첨자, 12년만에 무일푼 고독사<br/>▶ 5년 만에 발견된 '60대 할머니 고독사'<br/>▶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수급자의 쓸쓸한 죽음<br/>▶ 죽은지 6년 만에 보일러실 유골로… 중년의 고독사<br/>▶ 늘어가는 독신자… 고독사의 공포, 남의 일이 아니다<br/>▶ '70년대 女배구스타' 고독사… 집에서 20일만에 발견<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93.txt

제목: [Cover Story] '죽음' 터부시하는 문화…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는 소수뿐  
날짜: 20140222  
기자: 이성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2100000002  
본문: # 윤은자(61ㆍ가명)씨는 10년 넘는 병 수발 끝에 2012년 남편을 흉부암으로 잃자마자 난소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수술 후 완치된 줄 알았던 암은 지난해 봄 재발했다. 윤씨는 이제 '언제 죽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에 더 관심이 간다고 했다. "예전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바빴는데, 아파서 남의 도움을 받으니 그 동안 내가 남을 위해 쓴 시간이 적다는 걸 깨달았어요." 윤씨는 얼마 전부터 집 근처 텃밭에서 감자와 배추, 울타리 콩을 가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다.<br/><br/># 지난해 12월 13일 간암으로 숨진 고 이성규(당시 50세) 영화감독의 임종 과정은 품위 있는 죽음의 사례로 꼽힌다. 이 감독은 임종 11일전 대형 병원에서 호스피스로 옮겨 지인들과 차분하고 경건하게 작별했다. 그는 SNS를 통해 죽음을 앞둔 자신의 심경을 생생히 전달하기도 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이다.'(12월5일) '아직 훌쩍훌쩍 울곤 합니다만, 임종이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두려운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과정일 겁니다. 죽음의 과정이 내게 축제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12월3일) <br/><br/>준비 없이 맞는 죽음은 본인은 물론,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따른 부담이나 사후 재산 분할 문제로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웰다잉'(Well-dying)을 염두에 두는 이들이 늘고 있다. <br/><br/>웰다잉에 대한 관심은 역설적으로 의학 기술 발달과 맞닿아 있다. 정현채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학 기술의 발달로 말기 암이나 고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죽음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환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잃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웰빙 열풍과 마찬가지로, 평균적인 경제 수준이 높아져 예전에는 생각할 여력이 없었던 죽음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의견도 있다. <br/><br/>하지만 높은 관심에 비해 웰다잉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개똥 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처럼 유독 죽음을 터부시하는 한국적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전병술 건국대 종교학 교수는 말했다. 전 교수는 "죽음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삶을 강조하는 유교 전통의 영향으로 한국인은 삶을 기준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더 꺼린다. 죽음을 전제로 삶을 바라보는 실존주의 철학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br/><br/>오진탁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소장은 전통의 단절과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원인으로 꼽았다. 오 소장은 "유ㆍ불교에도 나름의 죽음 문화가 있지만 근대 이후 급격한 서구 문물 유입으로 단절됐으며, 새로 들어온 기독교 등은 아직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해줄 정도로 오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또 "생사(生死)관은 그 사회의 휴머니즘적 성숙도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되는데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주로 과학 경제 민주주의 같은 외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공백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br/><br/>웰다잉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임종 직전 부랴부랴 준비하거나 입관 체험 같은 이벤트성 행사에 자족하기 보다는 평소 죽음에 대해 생각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br/><br/>전병술 교수는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가 언뜻언뜻 느끼는 불안의 근원에는 '존재가 무(無)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며 "죽음을 인정하고 직시하면 불안감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양희 전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은 "한국의 청소년 및 노년층 자살률이 높은 원인 중 하나는 죽음에 비춰 삶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죽음 교육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을 통해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br/>손현성기자 hshs@hk.co.kr<br/><br/>▶▶▶ 관련기사 ◀◀◀<br/>▶ 280억원 복권당첨자, 12년만에 무일푼 고독사<br/>▶ 5년 만에 발견된 '60대 할머니 고독사'<br/>▶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수급자의 쓸쓸한 죽음<br/>▶ 죽은지 6년 만에 보일러실 유골로… 중년의 고독사<br/>▶ 늘어가는 독신자… 고독사의 공포, 남의 일이 아니다<br/>▶ '70년대 女배구스타' 고독사… 집에서 20일만에 발견<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94.txt

제목: [Cover Story] 죽음의 과정 수용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위축되기보다 차분히 삶 정리  
날짜: 20140222  
기자: 손현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2100000004  
본문: 전직 교사 이옥순(80ㆍ가명)씨는 2007년 자궁암 수술을 받은 뒤 연명 치료를 안 받기로 결심했다. 허리 디스크 등 잦은 병치레를 한 그는 더 이상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난 17일 "주어진 삶만 살다가 불편한 수의 대신 평상복 걸치고 집에서 숨을 거두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식들에게 연명치료를 절대 하지 말고 숨을 거둘 때 곁에 있어만 달라고 전했다.<br/><br/>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는 이들이 맞닥뜨려야 할 결정적인 난관은 죽음을 수긍하는 것이다. 그것은 죽음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감당하는 일이다. <br/><br/>경남 김해에 사는 김동건(71ㆍ가명)씨는 30여년간 교직에 몸 담았다가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지 8년간 숱한 병치레를 겪었다. 한쪽 시력을 잃고, 한쪽 다리를 절어 제대로 걸음을 뗄 수 없다. 2년 전에는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했고 지난해 말에는 폐암 판정까지 받자 귀향했다. 김씨는 이미 항암치료로 머리 숱이 듬성듬성한 자신을 보고서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 설, 그는 중절모를 선물 받았다. 그는 모자 그늘에 아직 털어내지 못했을 슬픔을 감추고 차분히 삶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김씨는 "통증도, 추함도 없이 언젠가 조용하게 잠자듯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br/><br/>전문가들은 죽음을 염두에 두더라도 황혼의 질환에 과하게 위축돼 여생을 보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건열(80) 전 서울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나이가 70대면 70%가 환자고, 80대면 80%가 환자라는 말이 있는 만큼 노인들은 대부분 폐렴 심장병 뇌질환 등 합병증에 걸릴 수 있다"며 "심지어 암도 못 고치는 병이라 생각하지 말고 '관리'하는 병이라 여기는 의식 변화가 있어야 웰다잉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도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오늘 마지막처럼 살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행복하게 살자'며 삶의 의욕을 더 높인다. 늘 죽을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일찌감치 써두고 유언장을 영정사진에 꽂아뒀다.<br/><br/>'준비하는 죽음'이 웰다잉<br/><br/>웰다잉은 '당하는 죽음이 아닌 준비하는 죽음'이다. 복지관과 종교시설 등에서 진행되는 입관 체험이나 유언장, 엔딩노트 쓰기 등 죽음 관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은 준비의 일반적이고 또 상징적인 예다.<br/><br/>정재옥(77ㆍ서울 동선동)씨는 매주 한 번 죽음연구 동아리'사(死)는 기쁨'에 6년째 참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드러누워 못질 소리를 들었다. 박씨는 "깜깜한데 못 소리만 들려 오싹했다"면서도 "누구나 공평하게 겪는 게 죽음이니 연습할 만했다"고 말했다. 이 동아리 회원 30여명은 죽음을 함께 연구ㆍ준비하면서 삶의 기쁨을 추구한다. 입관 체험, 납골당 견학 등 죽음 문화를 접하며 터부시된 죽음에 다가가기도 한다. 회원들은 일시적인 충격요법 체험에 그치지 않고 '살아 있는 동안 원수를 만들지 않는 법'등 저무는 황혼을 잘 보내는 법을 공유한다. <br/><br/>정현채 서울대 의대 내과 교수는 죽음을 이해하면 그 두려움이 줄고, 삶을 더 충만하게 향유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 교수는 2008년 3주간 폐렴을 앓은 뒤 와인 잔을 들고 웃고 있는 영정사진을 준비했다. 그는 임종 직전 비싸지 않으면서 맛과 향이 괜찮은 와인을 마실 거라고 한다. 또 그는 장례 절차도 해양장으로 미리 정해뒀다. 두 딸이 자신이 떠난 뒤 산 중턱에 마련해둔 납골당으로 찾아오기 힘들까 봐 내린 결정이다. 정 교수는 두 딸과 죽음에 대해 워낙 오래 얘기해와 서로 거부감이 없다고 했다.<br/><br/><br/><br/>손현성기자 hshs@hk.co.kr<br/>윤희수 인턴기자(덕성여대 정치외교학 3년) <br/><br/>▶▶▶ 관련기사 ◀◀◀<br/>▶ 5년 만에 발견된 '60대 할머니 고독사'<br/>▶ 280억원 복권당첨자, 12년만에 무일푼 고독사<br/>▶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수급자의 쓸쓸한 죽음<br/>▶ 죽은지 6년 만에 보일러실 유골로… 중년의 고독사<br/>▶ 늘어가는 독신자… 고독사의 공포, 남의 일이 아니다<br/>▶ '70년대 女배구스타' 고독사… 집에서 20일만에 발견<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95.txt

제목: [이종구 교수의 따져보는 보건정책] 완벽 평가받는 국가 검진, 이용률을 높여야  
날짜: 20140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0100000204  
본문: 정부가 40세 미만 피부양자 709만명의 무료 건강검진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기존 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다. 잘 된 일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은 치매 검진도 한다고 발표했다. <br/><br/>한국의 건강검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잘 돼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정부는 각종 검진을 체계화하기 위해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을 만들고 5개년 계획을 짜 검진 대상자, 검진 권장안, 검진기관 질 관리 및 사후관리, 예산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건강검진으로 질병이 조기 발견되고 사망률이 낮아지는 이익만 있을까. 검진이 전지전능의 건강관리 방법일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br/><br/>검진과 관련한 논란은 1970년대 캐나다에서 시작됐다. 검진은 '휴먼 도크(항구에서 배를 수리하는 곳)'로 불리며 각종 보험에 도입됐고 일본과 한국에서도 1980년대부터 검진이 확대됐다. <br/><br/>그러나 검진 비용이 증가하고 암 등의 권고안이 난무한데다 검진 과정에서 방사선 피폭 같은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에선 국민이 증거 중심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다. <br/><br/>공중보건학적으로 의미 있는 검진을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 1984년 시작돼 5년 후인 1989년 첫 판이 나왔다. 이후 5년마다 연구 결과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법령에 의해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할 정보를 정확히 알리면서 단순한 검진만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r/><br/>한국 상황도 비슷하다. 이를 필수 예방 서비스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5대 암, 3대 만성질병, 성병 등 검진이 효과적인 질환은 조기 발견한다. 둘째로 금연, 체중 조절, 신체 활동, 건강 식이, 금주 등 행태 교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적기 건강 관리를 위해 신생아, 성장과 발육기의 어린이, 임신과 출산기의 여성에 대한 건강 교육을 철저히 하고 생의 전환기에 있는 40세와 66세 또한 건강 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임신 여성은 빈혈과 감염병 등 각종 위험 요인 관련 예방 서비스를 잘 받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예방접종이다. 인플루엔자, MMR(홍역ㆍ유행성 이하선염ㆍ풍진), 파상풍, 백일해, 수두 등 권장된 필수 접종은 제대로 하도록 한다. <br/><br/>생의 주기별 수요에 따른 우리 정부의 서비스 제공 모형은 어느 나라보다 완벽하다. 다만 이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문제다. 또 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질과 의료인들의 동기가 매우 낮다. 이는 낮은 수가와도 관련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보건소의 홍보와 지원, 학교, 직장과 공동체의 참여 없이는 필수 예방 서비스가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br/><br/><br/><br/>서울대 의대 건강사회정책실장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96.txt

제목: 손담비 다이어트 소식에 관심 UP…유행하는 다이어트는?  
날짜: 20140220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20100000049  
본문: 가수 손담비가 디톡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름이 오기도 전부터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br/><br/>서점에도 한 해에만 수백 권의 다이어트 관련 서적이 쏟아지고, 인터넷 검색창에는 다이어트라고 검색어만 해도 수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 손담비 디톡스 다이어트를 비롯해 복싱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그리고 자가지방 흡입까지 최근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넘쳐나고 있다.<br/><br/>그래서 다이어트와 관련한 뉴스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한다.<br/><br/>해독요법인 디톡스로 다이어트를?<br/><br/>디톡스 다이어트는 해독요법인 디톡스(Detox)를 다이어트에 적용한 방법이다. 원래 암환자들에게 시행되었던 치료 대체요법이었는데 그 방법이 다이어트와 많이 닮아 있어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디톡스 다이어트, 해독 다이어트 등으로 알려져 있다.<br/><br/>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공식품, 육류, 소금, 설탕을 멀리 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고 몸속의 독소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디톡스 다이어트다.<br/><br/>초콜릿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br/><br/>미국 에모리대학교 약학대학 박사인 윌 클로워는 다이어트 책을 발표하면서 '초콜릿을 먹는 습관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가 주장한건 초콜릿의 맛을 음미하며 먹게 되면 포만감을 높여 식사량을 조절하게 되며, 이 포만감은 식욕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당분 섭취량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br/><br/>그는 특히 코코아 함유량이 많은 다크 초콜릿은 당분이 적고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동맥경화, 당뇨병 등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활동량을 늘려주고, 활동량을 늘려주는 만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쉽게말해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자연스레 당분섭취량이 줄고 체중도 줄어든다는 것이다.<br/><br/>무리한 다이어트로 살이 빠졌다면?<br/><br/>'촛농', '용암' 등 최근 급격히 살을 뺀 한 중년 연예인의 얼굴을 표현한 말들이다. 피부 처짐의 정도가 촛농이나 용암이 흘러 내리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다. 중년 이후 무리하게 살을 빼면 실제로 피부가 흘러 내린듯한 처짐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여성의 경우 다이어트 때문에 가슴이 빠져 오히려 고민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최근에 자가지방을 넣어 해결 할 수 있다. <br/><br/>아시아 최초로 '하베스트젯2 키닥터' 인증을 받은 유진성형외과 강태조 원장에 의하면 "과거에는 허벅지나 복부 등에서 지방을 흡입함으로써 단기간 다이어트 효과를 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자기 지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을 이용해 처진 얼굴에 넣어 동안으로 만들거나, 여성의 경우 작은 가슴에 자기 지방을 넣어 S라인 몸매까지 노린다. 이는 다이어트 효과 외에도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최근 여성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br/><br/>다이어트에서 중요한건 체질이다!<br/><br/>한의학에서는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것이 체질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먹고 조금만 움직이는데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있다. 사람마다 식습관, 소화흡수기능, 근육량, 기초대사량, 배설기능 등의 많은 요소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점에서 한의학에서는 다이어트 시에 체질을 중요하게 고려한다.<br/> <br/>경희불로장생한의원 이영준 원장은 "만 명의 다이어트에는 만 가지 방법이 있다"며 "식욕억제와 대사량증진을 통해 지방의 연소를 돕는 기본 원리는 여타 다이어트와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비만인의 체질에 따라 최적화된 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부기능개선, 혈액순환촉진, 노폐물배출촉진 등을 통해 다이어트의 부작용은 줄어들고 평소 가지고 있던 체질적인 약점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br/><br/>무조건 굶지말고 과일을 섭취해라!<br/><br/>사람은 먹을 때 기분이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영국건강심리학저널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젊은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더 평온하고, 행복하며, 활동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과일, 채소, 베리류, 통곡물, 살코기 등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면 우울증 위험도 낮춘다고 말했다. 특히 아보카도를 먹으면 섬유질과 비타민 E, K, 마그네슘과 칼륨을 많이 섭취하게 돼 음식량을 줄이지 않더라도 체중을 감소시키고, 복부비만을 해결할 수 있다.<br/><br/>몸무게 보다 중요한 것은 체지방 감량?<br/><br/>배우 이시영, 할리우드 스타 린지 로한의 공통점은 복싱으로 탄탄한 몸매를 만든 것이다. 복싱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도 키울 수 있는 운동이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근 인기있는 운동 방법이다. 복싱을 비롯한 헬스 등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의 경우 보여지는 체중의 변화는 크게 없다. 많이 줄어도 1~2kg 정도 감량되는 것이다. <br/><br/>그러나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는 몸무게 숫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을 감량하는데 초점을 둔다. 허리와 팔뚝, 허벅지 체지방은 줄이고 근력을 키워 매끈한 라인을 통해 몸무게의 변화보단 시각적인 변화를 노릴 수 있다.<br/><br/>한국아이닷컴 김동찬기자 dc007@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97.txt

제목: 다음달 3일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문 연다  
날짜: 20140218  
기자: 송옥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8100000283  
본문: 국립암센터는 다음달 3일 국제암대학원대학교의 개교식을 갖고 첫 신입생을 맞는다고 18일 밝혔다. <br/><br/>이번에 문을 여는 국제암대학원대학교는 암 관리 사업을 선도할 국내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매년 석사학위과정 학생 3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 베트남 캐나다 미국 등에서 생명공학 생리학 환경과학 등을 전공한 15명의 학생이 합격해 입학을 기다리고 있다.<br/><br/>국제암대학원대학교의 전공은 암관리정책학과와 시스템종양생물학 두 가지로, 암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암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암관리정책학은 암의 1차예방·조기검진·암등록통계 등 국가의 암 관리 정책에 대한 이론과 현장 지식을 다룬다. 시스템종양생물학 과정은 암 발생의 환경적, 유전적 요인 전반을 연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br/><br/>초대 총장에 취임한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0'>아시아권 개발도상국에서 암 관리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암 관리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br/><br/>송옥진기자 click@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98.txt

제목: 세계사이버대학 희귀근육병 앓는 남매 졸업과 동시에 특별상 수상  
날짜: 20140218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8100000059  
본문: 졸업식은 누구에게나 뜻 깊지만 이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br/><br/>근육 섬유에 염증이 발생해 근육이 점점 파괴되는 ‘봉입체근염’이라는 희귀근육병으로 15년간 투병중인 남매가 재학 중인 세계사이버대학 선교학과를 졸업하면서 특별상까지 수상하여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었다. <br/><br/>숟가락도 들지 못할 정도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와중에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강선영씨, 강병희씨 남매는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학업을 완주하여 이번에 졸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학업 중 암 투병까지 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을 꺾을 수는 없었다. <br/><br/>이에 세계사이버대학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학업을 마친 강선영씨, 강병희씨에게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는 바 졸업과 함께 특별상을 전달했다.<br/><br/>최근 강선영씨는 세계사이버대학 선교학과 봉사동아리인 ‘땅끝까지’의 만남을 통해 세계사이버대학을 다니면서 꿈이 생겼으며, 함께 공부하는 동생 강병희씨와 함께 결코 포기하지 않게끔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br/> <br/><br/>한국아이닷컴 장원수 기자 jang7445@hankooki.com<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199.txt

제목: 성기사마귀 콘딜로마(곤지름), 조기치료 및 예방법이 관건!  
날짜: 20140218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8100000124  
본문: 직장인 김모(27)양은 샤워를 하다 생식기에 난 뾰루지를 발견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상태가 악화된 결국 병원을 찾았다. 생식기 뾰루지의 수가 늘어나고, 심하게 간지럽기까지 해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콘딜로마 (곤지름)'라는 진단을 받았고 한 두 개였던 뾰루지는 항문 주변까지 퍼진 심각한 상태였다.<br/><br/>곤지름, HPV 6·11번에 의해 발병되는 성기사마귀<br/><br/>콘딜로마라고도 부르는 곤지름은 성 접촉 후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성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에 의해 생기는 피부질환의 일종인 ‘생식기 사마귀’다. 성기 콘딜로마(곤지름 또는 사마귀라고도 함.)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의 하나로서, 주로 HPV의 6, 11번에 의해 발생된다.<br/><br/>HPV는 고위험군(16,18번 등)과 저위험군(6,11번 등)으로 나누게 되는데, 16, 18번 등의 고위험군은 주로 고도의 자궁경부 이형성증(세포변형)이나 암과 관련이 된다. 6, 11번 등 저위험군에서는 에서는 전형적인 뾰족한 모양의 콘딜로마와 경도의 이형성증과 관련이 있다.<br/><br/>감염경로는 주로 직접적인 접촉이나 성관계 <br/><br/>콘딜로마의 감염경로는 직접적인 접촉이나 성관계에 의해 주로 발생하여 외음부와 소음순에서 대부분 발생하지만 질이나 자궁경부, 항문으로도 발생하기도 한다. 감염 후 빠르면 몇 주안에 병변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모양이 초기에는 살이 살짝 올라온듯한 쥐젖 모양을 띄다가 빠른 속도로 점점 밖으로 성장해 닭벼슬이나 브로콜리 모양이 되게 된다.<br/><br/>증상은 대부분 약간의 소양감이 있지만 통증은 없으며, 크기가 커지면 괴사를 일으켜 갈라지기도 하고 이차적 감염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출혈이나 분비물이 나타난다. 진단은 전문의의 전형적인 육안소견으로 진단이 되며 애매한 경우는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하기도 한다. 외음부에 사마귀가 있다해도 반드시 질경을 통한 질안과 자궁경부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항문 주위에도 꼼꼼히 살펴 보게 된다.<br/><br/>약물, 레이저 치료, 전기소작술 등으로 치료 <br/><br/>애플산부인과 최주혁 원장은 "성기 사마귀의 치료는 발병 초기일수록 치료가 잘되는데 그 방법은 약물을 바르거나 파괴요법이 이용되며, 파괴요법으로는 주로 레이저 치료나 전기소작술이 이용되지만 이때는 부분 마취를 한 후 시행되므로 통증은 그리 많지 않다." 말했다. <br/><br/>면역이 억제된 환자는 재발이 잘 되므로 치료 후에도 추적관찰이 시행되어야 하고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면 바로 치료해야 한다.<br/><br/>애플산부인과 신촌점 최주혁 원장은 "파괴요법, 수술 등으로 치료할 순 있지만 근본적인 인유듀종 바이러스 감염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재발해 그때마다 고민하는 것보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백신이 개발된 몇 안 되는 바이러스다. 성경험 전이거나 혹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 방문하여 백신 접종을 하고 바이러스 검사도 같이 받아 감염여부를 확인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br/><br/><br/>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00.txt

제목: '유방재건술', 그 방법과 적절한 시기는 언제?  
날짜: 20140217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7100000039  
본문: 식습관의 서구화로 과거 50대 이후 나타나던 유방암이 최근에는 1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갑상선암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여성암이 바로 유방암이다. 이처럼 유방암은 가장 흔한 여성암 중 하나다. <br/><br/>유방암은 발견시기에 따라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통해 치료하고 있다. 그러나 절제수술은 받은 많은 여성들은 회복 후에도 일상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는다. <br/><br/>유방절제술을 받은 이씨는 "절제 후 속옷에 종이나 수건을 넣어 채우고 다닌다"면서 "수영장이나 목욕탕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에 절제술을 받은 후 찾아가지도 않게 되고, 사람이 많은 공간도 자연스레 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br/><br/>이씨처럼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여성성의 상실로 인한 좌절감이나 수치심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자존심을 다치는 일이 많고, 대인관계는 물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찾는 것이 가슴을 복원하는 유방재건 수술이다.<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수는 2009년 8만 8155건에서 지난해 12만 3197건으로 4년 새 40% 늘었다. 의료계에서는 이 중 30%가량이 유방 절제 뒤 재건수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r/><br/>유방재건술은 종양제거와 함께 동시에 시술하는 즉시재건술과 유방암이 완치판정을 받은 후 시행하는 지연재건술 두 가지로 나뉜다. 조기에 발견된 암일 경우 즉시재건술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병원의 전문의가 유방암수술 시에 심사숙고해 결정할 문제다. 또 경우에 따라 수술 후에 방사선 요법이나 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건수술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유방암 환자가 선택할 수 없다.<br/><br/>지연재건수술은 유방암 치료가 종료된 후에 재발 위험에서 벗어난 다음에 받게 되는 수술을 말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지연재건수술을 받으며, 수술 시 남아있는 유방조직의 상태와 방사선 치료 유무, 환자의 개인적인 요구 등을 고려하여 자가조직, 자가지방 혹은 보형물 삽입을 결정하게 된다.<br/><br/>아시아 최초로 '하베스트젯2 키닥터' 인증을 받은 강태조 전문의에 의하면 "유방재건술은 정상 가슴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모양의 가슴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며 "수술의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은 필수조건이다"고 설명했다.<br/><br/>보형물 삽입술에 의한 방법의 장점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로 대흉근과 소흉근 사이에 실리콘백을 이식하는데 수술이 간단하고 다른 신체 부위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남아 있는 한쪽 정상 유방과 모양이나 촉감이 다를 수 있다는 한계와 구형구축(보형물 주위조직이 단단해짐)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br/><br/>미국 등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 자가지방이식술은 유방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 동시에 허벅지나 복부 등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어 최근 국내에서도 많이 찾는 방법 중 하나다. 어떤 수술이 적합한지는 환자의 나이, 체형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한다. <br/><br/>문제는 많은 환자들이 절제술 후 유방재건술에 따른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재건을 포기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선진국에서는 유방재건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호주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유방재건수술이나 인공유방 등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br/><br/>국내는 아직 건강보험에 지정되지 않아 건강보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필요하다면 유방 재건도 치료로 봐야한다면서 의료실비로 수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br/><br/>강태조 원장은 "유방암에 따는 절제술을 받은 많은 환자들이 가슴 상실에 대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방재건수술은 단순 미용의 목적이 아닌 가슴을 상실한 여성들의 자신감도 되찾고 정신적인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이다"고 말했다.<br/><br/>한국아이닷컴 김동찬기자 dc007@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01.txt

제목: 원광대 '통합 암병원' 설립 진통 커  
날짜: 20140217  
기자: 박경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7100000356  
본문: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양·한방 통합 암병원 설립을 추진하자, 원광대 한의과대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정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br/><br/>원광대 한의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4일 대학 내 멀티미디어실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동맹휴학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재학생 436명 중 352명이 참석해 94%인 331명이 휴학에 찬성했다.<br/><br/>비대위는 결의문에서"이사회의 졸속 의결로 원광대 산본·익산 한방병원의 폐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한의과생들은 교육권을 침해하는 이사회 의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철회를 촉구했다.<br/><br/>앞서 비대위는 지난 10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원광재단은 산본, 익산 한방병원의 폐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사회가 한의대 측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내린 결정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기만하는 파렴치하고 비민주적인 처사"라며 강조했다.<br/><br/>비대위는"원광대 한의과대학 부속 익산·산본 한방병원은 한의과 학생 및 전공의 교육과 임상실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기관으로 (통합될 경우)한의사들의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비대위는 ▦익산·산본 한방병원의 폐원 결정철회 ▦한의과대학 발전 대책 마련 ▦익산시의 시민 건강권 해결 대안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면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br/><br/>한편 원광학원은 지난달 말 암 치료에 양ㆍ한방의학을 결합하기 위해 의과대학병원, 익산한방병원, 산본의대병원, 산본한방병원을 통합한 '통합 암병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br/><br/><br/>박경우기자 gwpark@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02.txt

제목: 생태계 많이 회복됐지만… 채 씻기지 않은 후유증  
날짜: 20140216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6100000126  
본문: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에서 유조선이 송유관과 충돌한 데 이어 15일 부산에서 유류공급선과 화물선이 부딪혀 원유가 바다로 유출됐다. 방제작업을 서둘러 기름을 신속하게 제거하면 사고 인근 해역에서 당장 눈에 띄는 큰 생태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럴 뿐 해양 생태계는 조용히 속으로 앓는다.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의 후유증을 인간보다 오래 겪어야 한다. 충남 태안 연안의 해양 생물들이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br/><br/>2년 지나서야 회복 징후<br/><br/>2007년 12월 태안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과학자들은 사고 해역 어패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br/><br/>그냥 아무 물고기나 조개를 들여다 본다고 사고의 정확한 영향을 파악할 순 없다. 따라서 해양 환경 관련 국제기구들이 권고하는 생물종을 대상으로 해당 종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모니터링 기법으로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고 현장에서 생물 시료를 채취할 때는 영하 100도에 가까운 액체 질소나 드라이아이스 등을 채워 냉동보관이 가능한 용기를 들고 다닌다. 기름 속 화학물질이 어패류의 체내에 들어가 만드는 대사물질과 단백질 등이 변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어패류가 살아 있을 때 현장에서 해부한 다음 이런 대사물질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화학처리나 냉동보관 등을 거쳐 실험실로 운반해야 한다. <br/><br/>올해로 7년째 태안 연안을 조사 중인 과학자들은 "기름의 영향이 사고 초기보다 많이 줄고 생태계도 많이 회복됐지만 중장기적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름 유출로 해양 환경이 황폐화한 직후엔 갯지렁이처럼 유기물을 먹고 사는 생물이 크게 늘었다. 이런 종(기회종)이 많아졌다는 건 환경이 오염됐다는 증거다.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심원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책임연구원은 "사고 후 2년 정도 지나자 기회종이 조금씩 줄어들며 회복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br/><br/>그러나 아직 제거되지 않은 기름도 소량이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에는 바닷가에 기름이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직접 1m 깊이까지 땅을 파기도 했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파도가 심하게 치면 땅 속의 기름이 다시 흘러나와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br/><br/>독성 대사물질이 문제<br/><br/>바다 어류는 강ㆍ호수 등에 사는 민물 어류보다 기름 유출 사고에 취약하다. 민물 어종은 물을 직접 먹지 않지만 바다 물고기는 해수를 마셔 아가미로 걸러낸 다음 체내로 들여보내기 때문이다. 기름의 화학 성분이 체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다. <br/><br/>기름 성분은 대부분 물고기의 간에서 대사(분해)된다. 간에서 해독작용이 이뤄지는 인체와 마찬가지다. 물고기의 간은 기름의 화학물질을 해독하면서 다양한 대사물질을 만든다. 이 대사물질 중 독성을 나타내는 것이 적지 않다. 일부 독성물질은 물고기에 암을 일으킨다는 보고까지 있다. 기름 자체보다 기름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물질이 물고기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br/><br/>KIOST 유류ㆍ유해물질연구단은 기름의 수천 가지 화학물질 중 어류 체내에서 독성을 일으키는 대표 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의 농도를 태안 연안 물고기에서 측정했다. 그 결과 PAH 농도는 사고 직후 어류의 근육과 간에서 매우 높게 나왔다가 3개월 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어류 체내의 유류 대사물질 함량도 사고 직후 정상보다 100~1,000배 높은 농도를 기록했다가 감소했다. 분석에 참가한 정지현 KIOST 선임연구원은 "대사물질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경향이 지금껏 반복되고 있다"며 "여전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r/><br/>기름 오염의 영향은 어류가 유영어종인지 저서종인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물 속에서 헤엄치며 다니는 유영어종보다, 바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저서종이 퇴적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퇴적물은 기름이 해수에서보다 더 오래 남아 농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환경에 살며 흙 속의 작은 생물을 먹고 사는 저서어류는 기름 유출 사고의 영향을 장기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 <br/><br/>국제학계에서 사고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한 유영어종 중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대구, 볼락, 농어 등이 있으며 저서종은 가자미와 넙치(광어) 등이 있다. 정 연구원은 "다른 어종에 비해 체내 지방 함유량이 많은 농어가 유류 사고에 특히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기름 성분이 아무래도 지방 조직에 더 잘 섞여 쌓이기 때문이다. <br/><br/>유류처리제에 더 민감<br/><br/>어류는 기름 성분의 체내 대사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다. 근육에 축적된 화학물질 농도가 90일 정도 지나자 감소세로 돌아선 게 이 덕분이다. 하지만 대사 시스템이 어류와 전혀 다른 조개류는 기름 오염의 영향을 좀 더 오래 받는다. 산란기 같은 생리 주기에 따라 체내에 쌓이는 기름 성분의 농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기 때문에 독성물질의 배출 속도가 느리다. <br/><br/>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도 기름 유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KIOST 이균우 선임연구원 연구팀은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유출한 기름과 같은 이란산 원유와 바닷물을 섞은 물질(WAF)을 실험실에서 동물플랑크톤의 일종인 요각류들이 떠있는 물에 뿌렸다. 그 결과 요각류 새끼의 절반 이상이 96시간 이내에 죽는 급성 독성이 나타났다. <br/><br/>그런데 기름 유출 사고 때 방제용으로 바다에 뿌리는 유류처리제(계면활성제의 일종)는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원유와 바닷물, 유류처리제가 함께 섞인 물질(CEWAF)을 요각류가 떠있는 물에 뿌렸더니 새끼와 성체 모두에서 급성 독성이 나타난 것이다. WAF와 CEWAF를 처리했을 때 모두 요각류가 알을 적게 낳거나 새끼의 발달 기간이 느려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이 연구원은 "독성이 요각류 여러 세대를 거쳐 누적된다는 의미"라며 "실제 생태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요각류를 먹고 사는 어류 등 상위 단계 생물들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br/>이번 여수와 부산 사고는 태안 사고보다 규모가 작다. 그렇다고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마저 미미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과학자들조차 아직은 예측이 어렵다고 말한다. 심 연구원은 "적어도 2, 3년은 지나야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br/><br/><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03.txt

제목: [Check! 건강소식] 소아청소년 건강 블로그 오픈 外  
날짜: 2014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3100000222  
본문: 소아청소년 건강 블로그 오픈<br/><br/>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소아와 청소년을 위한 건강 정보를 담은 ‘예방접종전문가 블로그’(www.pedblog.com)를 개설했다. 예방접종, 질환과 증상, 응급사고 대처법 등이 엄마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록돼 있다. 예방접종의 오해와 진실, 접종 전후 알아야 할 주의사항 등은 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가려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의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br/><br/>복막 보존 방광암 수술 성공<br/><br/>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비뇨기과 박동수 교수팀이 방광을 제거해야 하는 방광암 환자를 수술하면서 복막을 분리, 보존하는 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기존 수술에서는 방광 천장 부분의 바깥쪽을 덮고 있는 복막이 많이 제거돼 장 조직과 서로 달라붙어 장이 마비되거나 막혀 음식을 잘 먹을 수 없고 심하면 재수술을 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병원 측은 “복막 보존 수술을 한 환자 15명은 모두 장 관련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br/><br/>내과의사가 알려주는 암 예방법<br/><br/>암 환자를 진료하는 장석원 서울내과 원장이 암을 이해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을 모아 을 출간했다. 장 원장은 “<span class='quot0'>암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몸의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다</span>”고 강조하면서 자연 치유력 강화법을 책에 소개했다. <br/><br/>혈관 최신 치료 무료강좌<br/><br/>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20일 오후 2시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심장혈관과 말초혈관 질환의 최신 치료’를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연다. 이승환 심장내과 교수와 김준범 흉부외과 교수가 이들 질환의 진단과 맞춤 치료법, 올바른 심장건강 관리법을 강의한다. 강의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 (02)3010-3051~4 <br/><br/>생활 속 건강관리 무료강좌<br/><br/>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가 21일 오후 3시 본관 지하 1층 A강당에서 ‘100세 건강, 내 몸 사랑하기’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박민선 가정의학과 교수가 잘 먹고, 많이 움직이고, 마음을 편하게 다스리는 등의 생활 속 건강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사전 등록 후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는 없다. (02)2072-3336<br/><br/>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04.txt

제목: 국내 처음으로 장수의학센터… 시민 친화적 공간도 눈길  
날짜: 20140213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3100000224  
본문: 인천 서구 심곡동에 약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인 국제성모병원이 개원한다. 국제성모병원은 17일 개원식을 갖고 18일 외래 진료를 시작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문을 열어 3월 3일 35개 진료과와 12개 전문센터 등 병원 전체가 가동에 들어간다. <br/><br/>천주교 인천교구가 설립한 이 병원은 국내에서 처음 장수의학센터를 개설한다.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이를 위해 장수의학센터는 대사증후군과 혈관 노화 예방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병원 관계자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관 상태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 노인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필요에 따라 호르몬 치료, 치매 검사, 재활 치료, 낙상 예방, 영양 상담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에 이상이 있어 진료받는 노인은 물론 건강한 노인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r/><br/>재발하거나 다른 조직으로 전이된 암 환자들을 위한 전이재발암센터도 개설한다. 말기는 아니지만 치료가 워낙 어려워 다른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 한방을 비롯한 대체의학 치료를 항암치료와 병행해주며 포기하지 않고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병원 관계자는 "인천성모병원이 국내 최초로 시도했던 전이재발암센터를 벤치마킹해 좀더 활성화하려 한다"며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뿐 아니라 대체의학 전문가, 한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협진으로 암 환자의 전신 회복력을 증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r/><br/>외과 수술과 내과 치료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수술실'이 개원과 동시에 가동되며 최신형 방사선 암 치료기 '인피니티'와 환자 친화적 자기공명영상(MRI) 장비도 갖췄다. 환자 친화적 MRI는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좁은 공간에 갇혀 있어야 하는 환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은은한 빛과 잔잔한 음악이 나오도록 설계됐다. <br/><br/>감염 주의 구역을 제외한 병원의 모든 공간과 시설은 환자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된다. '메디컬 테마파크'의 개념으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과 미용실 등을 꾸몄고 264세대 규모의 시니어타운 '마리 스텔라'와 병원 사이의 노천광장을 연중 무료로 개방해 공연과 전시회, 벼룩시장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식물공장도 눈에 띈다. 이곳에서 배양액(영양분)과 햇빛으로 재배된 채소는 원내 환자들의 음식 재료로 쓰인다. <br/><br/>지리적 특성을 살리는 계획도 마련됐다. "백령도와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과 주둔 장병을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이 가까운 만큼 해외 환자를 위한 국제 수준의 의료서비스도 준비했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br/><br/>457개 병상으로 개원하지만 2년 뒤엔 1,000개 병상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현재 콜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외래 환자 예약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br/><br/><br/><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05.txt

제목: 직장암 수술 전 MRI검사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날짜: 20140213  
기자: 정광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3100000152  
본문: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통상적으로 하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이 림프절 전이를 진단하는 데는 정확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칠곡경북대병원 대장암센터 연구팀은 미국대장항문학회 공식학회지인 ‘결장과 직장의 질환’ 1월호에 실린 ‘직장암 조직에서의 MRI의 진단 정확도’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br/><br/>연구팀에 따르면 MRI는 암의 침윤 깊이(조직에 파고 든 정도)를 예측하는 데는 정확도가 82.5%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림프절 전이 예측에는 약점을 드러냈다. 림프절 전이 여부 진단 방법의 중요한 지표인 감수성과 양성 예측률을 60%에 그쳤다.<br/><br/>연구팀은 연구 과정에서 문제가 된 2차원 영상으로 보이는 림프절 이미지와 실제 수술 후 절제한 조직이 일치하도록 ‘침 정위술 실험 기법’이라는 특수한 방법을 적용했다.<br/><br/>칠곡경북대병원 대장암센터 박준석(40)교수는 “<span class='quot0'>직장암 침윤 정도가 3기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면 방사선 치료를 한 뒤에 수술 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는 수술 후 방사선치료보다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기 대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많은 외과 의사들은 컴퓨터단층촬영(CT)나 MRI의 림프절 전이를 진단하는 데 그 정확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해 왔고 합병증과 치료비 증가가 논란</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MRI진단 결과 림프절 전이가 의심스러웠는데 막상 수술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며 “현재 기술로는 림프절전이 여부를 진단하는 데 MRI보다 더 정확한 것이 없지만, 그 결과가 상당히 부정확한 만큼 직장암 수술 전 방사선치료 여부를 결정 할 때는 침윤 정도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br/><br/><br/><br/><br/>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06.txt

제목: 유서대필사건 23년에 무죄…강기훈 망가진 삶  
날짜: 20140213  
기자: 정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3100000259  
본문: 23년 만이었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해 숨진 때가 1991년 5월. 강기훈(50)씨는 그동안 운동권 동료인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부추긴 ‘파렴치범’으로 살아야 했다. 법원이 13일 강씨에게 “자살방조는 무죄”라고 선고한 순간, 강씨는 반생(半生)을 옭아맨 조작의 굴레에서 비로소 벗어났다. <br/><br/>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이날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 복역한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span class='quot0'>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span>”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1'>(검찰의 주장과 달리)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보된 김씨의 분신자살 전 정황과 새로 감정한 객관적인 결과를 종합하면 유서는 강씨가 아니라 김씨가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pan>”고 판단했다. <br/><br/>수사 당시부터 공안당국의 조작 의혹이 제기되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려 온 유서대필 사건으로 강씨의 삶은 망가졌다. 강씨는 94년 8월 만기 출소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소프트웨어회사 등에 취직했다. 그러나 직장 동료 등 주변인들의 시선과 지워지지 않는 91년의 악몽에 갇혀 사회와 점점 멀어졌다. 강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span class='quot2'>과거의 기억들은 지나간 일이 아닌 현재였으며 눈을 뜨고 경험하는 가위눌림이거나 악몽 그 자체였다</span>”며 “<span class='quot2'>수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span>”고 털어놓았다. <br/><br/>그는 2012년 간암 판정을 받았다.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해 5월 암이 재발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를 돌보던 어머니도 2010년 암으로 세상을 뜨는 등 가족들의 고통도 컸다. 강씨는 “<span class='quot2'>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다</span>”고 했다. <br/><br/>재판부는 이날 무죄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을 줄줄이 읽어 내려갔을 뿐, 지난날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강씨는 선고 직후 “<span class='quot2'>이 재판은 사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span>”며 “<span class='quot2'>재판부가 유감을 표시하지 않아 유감</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span class='quot2'>검찰이 당시 기억을 떠올려 사과를 했어야 했다</span>”고 말했다. <br/><br/>‘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뒤 정권 규탄 목소리가 들끓던 상황에서 상황에서 운동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며 사회ㆍ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김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자 검찰은 “<span class='quot3'>김씨와 전민련 활동을 함께한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는 등 자살을 방조했다</span>”며 그를 기소했다. 강씨의 무죄 주장은 철저히 묻혔고, 대법원은 이듬해 징역 3년의 형을 확정했다.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운 감정결과로 재심을 권고했고 이듬해 강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4년 만인 2012년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91년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단호하게 강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결과가 아쉽다”며 판결문 분석 후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br/><br/><br/><br/>정재호기자 next88@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07.txt

제목: 日 국제개별화의료학회, 제18회 학술세미나 오는 6월 개최  
날짜: 20140212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2100000086  
본문: 신 수지상 암백신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 학술세미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br/><br/>국제개별화의료학회는 2003년 개별화 의료에 근간을 두고 설립됐으며, 오는 6월 일본 삿포르에서 제18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br/><br/>이 학회는 지난 17회 학술세미나에서 ‘신(新) 수지상세포 백신치료’가 전이·재발암 환자 74.4%에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br/><br/>국제개별화의료학회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아베종양내과 연구팀이 2013년 1~9월 진행성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총 6회 실시한 결과, 암세포가 완전 관해된 환자는 2명(5.12%), 부분관해된 환자 5명(12.82%), 정지·안정된 환자(56.41%) 22명, 진행된 환자 10명(25.64%)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74.4%에서 치료 성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br/><br/>나뭇가지 모양의 수지상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에게 암세포의 정보를 제공하고, 암세포의 항원 정보(표식)를 전달받은 세포상해성 T림프구(Cytotoxic T Lymphocyte, CTL)는 이 표식을 가진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 집중 공격한다.<br/><br/>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어, 이 항암면역치료는 수술이 어려운 침윤성암이나 발견이 어려운 미세한 암 치료에도 효과적이다는 것이 아베 이사장의 설명이다.<br/><br/>수지상세포는 인체에 1% 미만이라 치료를 위해서 2~3시간의 성분채혈 과정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br/><br/>아베종양내과는 정상 혈액 중 4~8%의 단구(單球)에 개인별 유전자검사와 암항원 검사를 하여 암 치료에 필요한 펩타이드를 추가하여 ‘신 수지상세포 백신치료’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이사장에 따르면 이 기술력은 현재 전 세계에서 소수의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br/><br/>수지상세포의 암항원 인식능력을 극대화시키려면 ‘WT1’과 ‘MUC1’ 펩타이드를 개인별 암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 단구세포에 추가해야 한다. 아베 이사장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펩타이드 중 일부만 사용했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떨어졌다. 또 많은 일본내 병원들이 수지상세포를 동결 보관한 후 사용했기 때문에 치료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br/><br/>이 같은 단점을 개선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암항원인 WT1 펩티드 전체와 MUC1 펩티드를 함께 활용해 치료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이 아베 이사장의 입장이며, 또한 매번 소량만 채혈로 선도 높은 백신을 제조함으로써 기존 동결방식의 문제점도 보완했다고 아베 이사장은 전했다. <br/><br/><br/>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08.txt

제목: [의료] “방광암 수술 후 소변 주머니 필요 없어요”  
날짜: 20140212  
기자: 정용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2100000171  
본문: “<span class='quot0'>인공방광 수술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무수혈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span>”<br/><br/>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이동현(사진) 교수가 8시간 이상 걸리던 인공방광 수술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무수혈 수술을 가능하게 해 주목 받고 있다. <br/><br/>무수혈 인공방광수술은 방광절제 수술시 소변 주머니를 차야 했던 방광암 환자들에게 자신의 소장을 이용해 인공 방광을 만들어 주는 수술이다. 환자의 소장으로 방광을 만들어 요관에 연결, 정상적으로 소변을 볼 수 있다. 기존의 소변주머니를 신체 외부에 만들어주는 수술보다 고난이도의 어려운 수술법이다. 70대 고령 환자는 물론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인공방광수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공방광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새로운 방광으로 3개월 적응을 마치면 잔뇨감도 거의 없고, 부부관계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br/><br/>이동현 교수는 “방광암 수술 후 소변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방광을 적출하더라도 자신의 소장을 일부 잘라내 인공방광을 만들어 줄 경우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고, 정상적인 성생활도 가능해 방광암에 걸리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며, “인공방광수술은 환자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생각하면 꼭 필요한 수술”이라고 말했다. <br/><br/>방광암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암이다. 지난해 12월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우리나라 국민에게 발병한 방광암은 총 3,549건으로 남자가 2,847건, 여자가 702건이었다. 남성암 중에서는 일곱 번째로 많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률이 높다. 주로 70세 전후로 많이 발병한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4배 정도 더 잘 걸린다.<br/><br/>한편,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에서 인공 방광 수술 실적을 연도별로 집계한 결과,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 30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21건 ▲2012년 33건 ▲2013년 4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40건의 인공방광수술을 기록한 것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실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br/><br/>정용운기자<br/><br/><br/><br/>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09.txt

제목: [편집국에서/2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함정  
날짜: 20140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1100000247  
본문: 감기로 병원을 찾아도 진료비가 수 십만원이 드는 미국이나 예약해 둔 진찰 날짜를 기다리다가 감기가 다 낫는다는 영국에서 생활해본 사람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꽤 괜찮다고 여기곤 한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을 찾을 때의 이야기일 뿐이다. 중한 병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실료(1~5인실)와 간병비, 그리고 선택진료비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결국 가족을 잃고 큰 빚까지 떠안는 일이 드물지 않다. 11일 정부가 밝힌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은 이처럼 재난과도 같은 의료비 부담의 주범을 잡겠다는 것이다. <br/><br/>사실상 3대 비급여는 '꽤 괜찮다고 여겨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지탱해 온 편법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재정으로 병원에 지급하는 금액인 보험수가를 낮게 억제하는 대신 대형 병원들은 비급여 항목을 키워 부족한 수입을 충당해왔던 것이다. 말만 선택진료비일 뿐 대형 병원에선 의사 10명 중 8명이 선택진료비를 내야 하는 특진의사로 지정돼 있고, 비어있는 병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인실, 3인실을 이용해야 하는 식으로 구조화돼 있다. 간병비까지 3대 비급여로 국민들이 지출하는 의료비가 연간 4조~5조원으로 추정된다. 국가가 주도해 건강보험을 강제 적용하되 비용이 적게 드는 질병을 우선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br/><br/>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겠다는 대책은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대로 매년 1%씩 인상하는 수준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들은 '의료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대가로서 감내할 만하다고 여길지 모른다. <br/><br/>그러나 함정은 곳곳에 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보건의료 공약이 이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약 중에는 역시 환자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임기 동안 써야 하는 건강보험 재정 규모(8조9,900억원)는 3대 비급여 대책 소요 재정(4조6,000억원)의 두 배는 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의 진전으로 자연적으로 증가할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만만치 않다.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약 8조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어 당장 융통할 수는 있겠지만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재정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으려면 재정 흑자를 갉아먹는 것도 신중해야 할 일이다.<br/><br/>또 다른 함정은 새로운 제도가 불러일으킬 의료 수요의 증가다. 입원료와 진료비가 크게 떨어지면 지금은 병원에 가지 않던 환자까지 손쉽게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해 대형 병원에 몰릴 환자 수가 예상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있다. "정책의 성패는 결국 탄력성 예측의 문제"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정책으로 인해 늘어날 의료이용량 예측이 빗나가면 소요 재정 확보 계획도 엉망이 되고 만다. 유권자들을 유혹했던 공약의 실현은 실로 엄혹하기만 하다.<br/><br/>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고 필요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이 시점에, 우리는 의료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중증질환과 대형 병원 중심의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우려 들지 말고, 질병을 키우지 않는 예방의학적 노력을 기울이고 여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해 환자의 병세가 더 악화하기 전에 동네 의원들이 조기 진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합병증으로 수술을 하지 않도록 당뇨를 관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의료비 총액을 줄이는 아주 경제적인 방법이다. 문제는 그 효과가 수 십년이 지나야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런 장기 비전을 세우고 추진할 정권을 국민이 우선 선택해야 한다.<br/><br/><br/><br/>김희원 사회부 부장대우 hee@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592원짜리 약을 "5원에 납품하라"… 경악<br/>▶ 환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만 100만원… 헉!<br/>▶ '의약품 싸게 산 병원에 인센티브' 재시행 논란<br/>▶ 은밀한 부위 아픈 여성 고민하게 만든 사연<br/>▶ 우리 동네 정신병원이 달라졌다<br/>▶ 성경험 탓? 은밀한 고통에 떨고 있는 처녀들<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10.txt

제목: 계명대의대, 기초의학에 나노기술 접목  
날짜: 20140210  
기자: 정광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0100000198  
본문: 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나노로봇, 부작용 없이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치료제…. 나노(1㎚는 10-9)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를 응용한 의료용 나노로봇이나 체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계명대가 나노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질병진단이나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br/><br/>계명대(총장 신일희)와 계명대 동산의료원(원장 김권배),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대전의 기술원에서 나노기술 연구갭리 지원 및 전문인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계명대 의대와 동산의료원 등 관계자들은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 MOU체결에 이어 기술원이 보유한 최신 나노기술 개발 관련 장비와 설비 등을 둘러보았다.<br/><br/>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기초의과학분야(MRC)에 참여, 10여명의 연구진이 진단 및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br/><br/>나노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동안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각종 진단 및 치료기법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연구진이 박테리아를 이용한 의료용 나노로봇을 개발, 동물실험을 통해 고형암의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고, 피 한 방울로 암 등 각종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해 내는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br/><br/>김권배 동산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나노종합기술원은 나노기술 연구에 필요한 고가의 최신장비와 설비를 갖추고 나노기술 연구 개발과 기초의과학 연구를 실용화하는 거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번 MOU를 계기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향후 기초의과학 연구를 발전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br/><br/>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11.txt

제목: 원광대 양·한방 통합 암병원 설립 진통  
날짜: 20140210  
기자: 최수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0100000357  
본문: 원광대가 속한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양ㆍ한방 통합 암병원을 설립하기로 하자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br/><br/>10일 원광학원에 따르면 암 치료에 한방의학을 결합하기 위해 의과대학병원, 익산 한방병원, 산본 의대병원, 산본 한방병원을 통합한 ‘통합 암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br/><br/>학원 측은 암 치료ㆍ연구는 물론 뇌졸중과 근골격계 질환에 양ㆍ한방을 병행, 치료 효과를 높이고자 국내 최초로 통합 암병원을 설립한다고 설명했다. <br/><br/>하지만 원광대 한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허울뿐인 통합’이라며 설립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br/><br/>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양ㆍ한방 통합 의료를 가장한 실질적인 ‘익산ㆍ산본 한방병원 폐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통탄해 마지 않는다”고 규탄했다.<br/><br/>또 “학교측은 익산ㆍ산본 한방병원을 2월 말까지 폐원하라는 무책임한 결정만 내렸을 뿐 이후 인력 재배치와 투자계획 등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말만 번지르르한 양ㆍ한방 통합병원이지만 이는 의대병원의 한 과로 한의과가 들어가는 실질적인 의대 흡수 통합”이라고 비난했다.<br/><br/>비대위는 결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br/><br/>익산지역에서는 양ㆍ한방의 의료진 체계와 구조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통합병원에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이경애 익산시의원은 “<span class='quot0'>40년 전통의 원광 한방병원이 폐업하게 돼 우려가 깊다</span>”며 “<span class='quot0'>원광학원은 병원 청산이 아닌 익산시민과 구성원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br/>이에 대해 원광학원은 “<span class='quot1'>통합의학을 선도하고 최적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span>”이라며 통합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br/><br/>원광학원은 현재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3개 대학병원과 전국에 10개의 계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br/><br/>최수학기자 shchoi@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12.txt

제목: [종로학원과 함께하는 실전논술]2013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1차 논술 사회계열<상>  
날짜: 20140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0100000303  
본문: [문제] 제시문 [가-2]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ㆍ50점)<br/><br/>[제시문 가]<br/><br/>1.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 철학자 데모스테네스는 “자기를 속이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은 없다. 우리는 바라는 것을 쉽게 믿어버리고 만다”고 말했다. 몇 가지 조사에 따르면 ‘자존감’뿐 아니라 ‘행복’도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관련이 없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해 지기 위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현실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바보의 낙원’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우월하게 보일 비교 기준을 선택할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의견을 견지한다는 증거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의 미래를 ‘장밋빛 안경’을 통해 바라본다. 이러한 결론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 편향을 갖는 것이 정확하고 유효한 자기 평가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정신 건강에 더 좋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 환상’이라고 한다. 자기에 대한 지나친 긍정적 평가와 미래에 대한 과도한 낙관적 신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변을 통제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은 자신의 정신 건강에 더 유익하다고 한다. 긍정적 환상이 더 나은 육체적 건강, 그리고 역경에 대한 보다 나은 대응 방법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긍정적 환상을 더 자주 품는 학생들이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았다.<br/><br/>2.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은 낙관적 사유성향이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점검, 잠재적 기회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와 연관된다. 자기 신념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적ㆍ사회적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인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 성장 또는 배움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와 해석은 사실과 확실성에만 근거할 수는 없다. 우리는 보통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 인생의 작은 사건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일정한 한계 안에서 해석한다. 사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반적 표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잔에 물이 반 밖에 안 남았다고 보지 말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다고 보라”거나 “먹구름 뒤의 태양을 보라”는 식으로 격려한다. 그러나 낙관성은 하나의 신념이므로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암이나 심장 질환이 발병하거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사회의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고 믿는다. 이러한 유형의 비현실적 낙관성은 근거 없는 안전감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행복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낙관성이 현실적이어야 한다.<br/><br/>[제시문 나]<br/><br/>“운명은 바야흐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자, 산초여, 저쪽을 보아라. 서른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흉악한 거인들이 버티고 서 있다. 나는 저놈들과 싸워 다 죽인 후에 거기서 얻은 전리품으로 일약 거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의의 전투! 이 지구상에 널려 있는 악의 씨를 없애는 하느님에 대한 위대한 봉사이다.”<br/><br/>“<span class='quot0'>아니 거인들이 어디 있어요?</span>” 하고 산초가 물었다.<br/><br/>“아, 저쪽에 긴 팔을 가진 놈들 말이다. 어떤 놈들은 팔 길이가 거의 20리에 걸쳐 뻗쳐 있구나.”<br/><br/>“나리, 저 거인처럼 보이는 것들은 말입죠, 실상은 풍차들이에요. 그리고 저 팔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의 힘으로 움직여서 맷돌을 돌리는 날개입죠.”<br/><br/>“정말 너는 모험이라는 것을 통 겪어보지 못한 모양이로구나. 저놈들은 틀림 없는 거인들이야. 겁이 나거든 여기 가만히 있거라. 내가 저놈들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는 동안 너는 여기에서 물러나 기도나 하며 엎드려 있으란 말이야.” <br/><br/>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돈키호테는 로시난테에게 박차를 가했다. 지금 공격하려는 것은 거인들이 아니고 풍차라고 악을 쓰는 산초의 말을 아예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이 거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산초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서도 그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br/><br/>“<span class='quot0'>이 비겁하고 형편없는 놈들아, 여기 기사 한 명이 너희들과 맞서려고 하니, 아예 도망갈 생각은 말아라.</span>”<br/><br/>이때 마침 바람이 불어서 풍차 날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돈키호테는 이것을 보자 다시 소리를 질렀다.<br/><br/>“<span class='quot0'>네 놈들은 부리아레오보다 더 많은 팔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호되게 당하리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span>”<br/><br/>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자기가 사모하는 둘시네아님에게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고 두 손 모아 비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고는 방패로 몸을 가리고 창은 가슴받이에 달린 철고리에 꽂은 채 로시난테에게 박차를 가하면서 맨 앞에 있는 풍차로 덤벼 들었다. 창으로 날개를 치니 세찬 바람이 일어나 날개를 돌리는 통에 창은 그만 산산조각이 나 버리고 말과 기수는 공중으로 솟았다가 땅으로 떨어져 들판을 떼굴떼굴 굴렀다. 산초가 당나귀를 전속력으로 몰아 주인을 구하려고 달려가 보니 돈키호테는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다.<br/><br/>[제시문 다]<br/><br/>옛적에 한 여자 있으되 일신이 갖은 병신이라 나이 사십이 넘도록 출가하지 못하여 그저 처녀로 있으니 옥빈홍안이 절로 늙어가고 설분화용이 공연히 없어지니 설움이 골수에 맺히고 분함이 심중에 가득하여 미칠 듯 취할 듯 좌불안석하여 세월을 보내더니 (중략)<br/><br/>내 비록 병신이나 남과 같이 못할소냐 / 내 얼굴 얽다 마소 얽은 구멍 슬기 들고 / 내 얼굴 검다 마소 분칠하면 아니 흴까 / 한 편 눈이 멀었으나 한 편 눈은 밝아있네 / 바늘 귀를 능히 꿰며 버선볼을 못 박으며 / 귀 먹다 나무라나 크게 하면 알아듣고 천둥 소리 능히 듣네 / 오른손으로 밥 먹으니 왼손 하여 무엇 할고 / 한 편 다리 병신이나 뒷간 출입 능히 하고 / 콧구멍이 맥맥하나 냄새는 쉽게 맡네 / 입술이 푸르기는 연지 빛을 발라보세 / 엉덩 뼈가 너르기는 해산 잘할 본보기요 / 가슴이 뒤 앉기는 진일 잘 할 기골일세 / 내 얼굴 볼작시면 비록 곱진 아니하나 / 일등 수모\* 불러다가 헌사롭게 단장하면 / 남이라고 맞은 서방 난들 설마 못 맞을까 / 대체로 생각하면 내가 결단 못할손가 / 부모 동생 믿다가는 서방맞기 지난하다 / 오늘 밤이 어서 가고 내일 아침 돌아오면 / 중매파를 불러다가 힘을 써서 청혼하면 어찌 아니 못될손가 / 이처럼 생각하니 없던 웃음 절로 난다 / 신령님도 알 것이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 부모들도 의논하고 동생들도 의논하여 / 김도령과 의혼하니 첫 마디에 되는구나 / 혼인택일 가까우니 엉덩춤이 절로 난다<br/><br/>\*수모: 혼례 때 신부의 단장을 도와주는 여성<br/><br/>[예시답안]<br/><br/>제시문 (가)에서는 현실주의적 낙관성을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은 낙관적 사유 성향’이라고 정의하며 현실을 기반으로 한 낙관성이 중요한 것임을 주장했다. 왜냐하면 비현실적 낙관성은 하나의 신념으로써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낮다고 믿는 것처럼 근거 없는 안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br/><br/>이와 마찬가지로 (나)에서는 돈키호테의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비현실적 낙관성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풍차를 보고 거인으로 착각하여 돌진을 한다. 그의 무지함을 간과하고 하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만의 신념을 믿고 돌진한 결과 죽고 만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은 낙관성과 자신감이 불러온 폐해를 통해 현실주의적 낙관성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br/><br/>역시 (다)에서도 일신이 갖은 병신인 여자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낙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자기 외모에 대해 얽고 검고 한 쪽 눈이 멀었다는 등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나, 자신도 꾸미고 나면 괜찮아져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 현실을 직시하더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의지 없이 막연히 장밋빛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 또한 비현실적 낙관성임을 알 수 있다.<br/><br/>(나)와(다)는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점검, 잠재적 기회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와 환경적ㆍ사회적 피드백과 극한 상황에서도 긍정적 성장 또는 배움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결여된 비현실적 낙관성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br/><br/>하나의 신념인 낙관성은 비현실적 낙관성과 현실적 낙관성이라는 양 갈래 길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현실주의적 낙관성을 함양하는 것이 장기적인 행복증진에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할 것임을 시사한다. 선범수ㆍ광주 동신고 3학년<br/><br/>[문제 분석과 답안 총평]<br/><br/>연세대 사회계열의 논술 고사 유형적 측면을 먼저 살펴 보면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문항수는 총 2문제이며 문제 풀이 시간은 2시간이 주어진다. 써야 하는 글자의 수는 총 2,000자 내외이다. 지난 연세대의 전형 방안을 살펴 보면 글잣수는 한 문제당 800~1,500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1,600~3,000자 사이의 글을 쓰는 것이다. 2013학년도 사회계열의 문제 형식을 비교해 보면서 형식적 측면에서 문제의 유형이 어떤지를 살펴 보자.<br/><br/>“제시문 (가-2)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 분석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br/><br/>2013학년도 연세대 사회계열 1번 문제는 제시문 2개를 비교하는 ‘2자 비교’이다. 비교해야 하는 제시문의 개수가 인문계열의 제시문보다 줄어 사회계열을 지원한 학생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비교 기준을 특정 제시문에서 찾으라는 요구사항을 담고 있어 기출문제를 연습하며 연세대 논술 시험을 꾸준히 대비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다소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br/><br/>연세대 사회계열 논술 문제의 주제는 인문계열의 주제인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확장한 ‘세계’에 관해 출제된다고 보면 적절하다. ‘세계’라는 주제를 풀이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종교, 과학, 환경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연세대 사회계열의 논술 문제에서 인간 세계의 각종 분야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사회과학 주제들을 출제한다는 점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조금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논술 시험을 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수험생들이 이미 사회탐구 과목들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출제하고 있기에 배경지식을 특별히 쌓을 필요는 없다. <br/><br/>논제의 요구사항을 살펴 보면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제시문 (가-2)를 바탕으로 비교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것은 (가-2)에서 비교할 기준을 찾으라는 말이다. 그리고 분석하라는 말은 그 기준들을 하나씩 연결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답안에서는 (가-2)를 먼저 정리했는데 내용이 잘 정리됐다. 낙관성은 현실적인 성격을 가져야 함을 잘 찾았다. 다만 그 이유가 아쉽다. 답안에서는 현실적 낙관성이 중요한 이유를 근거없는 안전감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그 결과까지도 보여 주고 있다. 환경적ㆍ사회적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비현실적 낙관성은 근거 없는 안전감만을 제공하여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독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성한 것이 티나는 답안이다. 다시 한 번 논술 시험에서 제시문 독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br/><br/>그 이외에 현실주의적 낙관성이 갖춰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함을 찾아 내야 한다. 먼저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점검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것과 둘째, 잠재적 기회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 셋째, 환경적ㆍ사회적 피드백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바로 이 조건들이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가-2)를 바로 정리하지 않고 (나)와 (다)를 비교하는 문장으로 답안을 전개해도 괜찮다.<br/><br/>비교 내용을 살펴 보자. 먼저 (나)에서 나오는 돈키호테는 비현실적 낙관성을 가진 인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은 맞다. 그러나 돈키호테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문에 근거하지 않고 제시문을 통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유추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돈키호테는 원작에서 죽지 않는다.<br/><br/>그러나 정작 수험생이 제시문을 오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은 제시문 (다)를 작성한 부분이다. 제시문 (다)에는 몸이 불편하여 결혼을 못한 여자가 나온다. 그런데 여자는 자신의 몸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점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십이 넘어서도 결혼의 기회를 노리면서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현재 부족한 단점을 책망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장점을 통해 결혼생활을 꾸려 갈 수 있다는 결단을 내리고 있다. 주인공은 부모, 동생의 가족들과 결혼을 상의하며 매파를 통해 결혼을 추진하여 마침내는 혼인하는 데에 성공한다.<br/><br/>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틀렸다. (다)의 주인공인 여자는 현실주의적 낙관성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두 제시문의 차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 답안은 합격과는 거리가 먼 답안이 되었다. 마지막 단락도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좋지 않다. 비교하기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비교할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근형 종로학원 논술팀장<br/><br/><br/><br/>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13.txt

제목: 강원래 김송, 암 말기 반려견과 작별…'아가 미안해 사랑해'  
날짜: 20140210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10100000241  
본문: '강원래' '강원래 김송' '강원래 김송 오열'<br/><br/>가수 강원래와 부인 김송이 반려견 똘똘이의 죽음에 오열하며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br/><br/>9일 SBS 'TV 동물농장'에서 강원래 김송 부부와 반려견 똘똘이의 마지막 모습이 전파를 탔다.<br/><br/>강원래 김송 부부의 반려견 똘똘이는 결혼 후 자녀 없이 생활해 온 부부가 7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어 온 반려견이다. 하지만 똘똘이는 지난 2011년 림프암 판정을 받았다. 당시 몇 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똘똘이는 강원래 김송 부부의 지극정성에 3년의 시간을 버텨왔지만 최근 상태가 악화돼 투병해왔다.<br/><br/>그런 똘똘이를 위해 강원래 김송 부부는 마지막 여행을 가던 중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갑자기 반려견 똘똘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진 것이다. <br/><br/>강원래 김송 부부는 황급히 가까운 휴게소로 차를 돌려 똘똘이에게 바깥 공기를 마시게 했다. 다시 안정을 찾는가 싶던 그 순간 똘똘이는 자신이 좋아하던 눈밭에서 쓰러지고 말았다.<br/><br/>차에 있던 강원래도 휠체어를 타고 똘똘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부부는 똘똘이를 부둥켜 안고 "아가 미안해, 사랑해"라며 오열했고, 반려견 똘똘이도 끝까지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보여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br/><br/>하지만 결국 똘똘이는 강원래의 무릎 위에서 숨을 거뒀다. 강원래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온 아이가 똘똘이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며 반려견을 잃은 슬픔에 오열했다.<br/><br/>'강원래 김송 부부 오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원래 김송, 의지하고 7년을 함께 해 오던 반려견의 죽음 슬프다" "강원래 김송, 강원래의 오열 너무 가슴 아프다" "강원래 김송, 너무 허전할 듯 힘내세요" 등이 반응을 보였다.<br/><br/><br/>한국아이닷컴 이주화 인턴기자 enter@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14.txt

제목: [비즈] 12개 공기업, 빚 412조 아랑곳~ 직원복지비로 수천억 펑펑!  
날짜: 20140209  
기자: 정용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09100000023  
본문: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총부채 412조원은 갚지 못하면서, 자녀 학자금과 경조금 등 직원 복지비로 최근 5년간 3,000억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 중ㆍ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의 학자금으로 수억원을 지원한 기관도 있고, 직원 가족의 틀니비까지 챙겨준 곳도 있다.<br/><br/>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 학자금, 경조금, 휴직급여, 의료비 등 4대 복지 비용은 3,174억원이었다. <br/><br/>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LH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이다. 이들 공기업의 2012년말 현재 총부채는 412조원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83.5%를 차지한다. <br/><br/>그럼에도 이들 부채 상위 기관들은 직원 자녀의 보육비ㆍ학자금으로만 5년간 2,278억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에 경조금으로 604억원, 휴직급여로 183억원, 의료비로 108억원을 썼다. <br/><br/>4대 복지비용을 보면 한전이 1,532억원으로 가장 많고, 철도공사(740억원), 석탄공사(210억원), LH(197억원), 도로공사(193억원) 등 순이다. 직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석탄공사가 1,244만원으로 1위였고, 이어 한전 795만원, 예금보험공사 679만원, 도로공사 464만원, LH 303만원 등이었다. <br/><br/>석탄공사는 학자금으로 5년간 204억원을 지출, 직원 1인당 1,211만원을 기록했다. <br/><br/>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지급했다. 수자원공사는 59명에게 총 5억5,166만3,000원의 해외 학자금을 지원했다. 평균 1인당 935만원 가량의 유학비를 지급한 셈이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중ㆍ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은 1인당 1,046만9,000원이다. 도로공사는 해외 대학에 다니는 120명에게 1인당 195만9,000원씩, 총 2억3,515만원을 지출했다.<br/><br/>한전이 같은 기간에 직원들에게 제공한 경조비는 293억원으로 1인당 152만원이다. 직원의 업무상 사망시 1억5,000만원, 배우자 사망시 2,000만원, 부모나 자녀 사망시 200만원의 위로금을 준다. 둘째부터 자녀 출산때 50만~15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한다. <br/><br/>철도공사는 휴직급여로 133억원(1인당 46만4,000원)을 지출했다. 철도공사는 업무상 질병이 나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평균임금 전액을, 업무외 질병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br/><br/>일부 공기업은 가족 간호 휴직 때에도 기존 보수의 40%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br/><br/>예보는 직원 의료비 지원액이 12억원(1인당 202만원)에 달했다. 300만원 한도에서 직원 본인과 직계 가족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100% 지급하고, 비급여도 일정 부분 지원한다. LH는 직원이나 직계 가족이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 3대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사내복지기금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가스공사는 직원 본인과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비를 대줬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 200만∼300만원 한도의 난임극복 시술비도 지급했다.<br/><br/>정부는 유가족 특별채용, 휴직급여, 퇴직금, 학자금, 경조비 등 8대 방만 경영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br/><br/>정용운기자<br/><br/><br/><br/>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15.txt

제목: [World] 환상을 보듯… 신비롭게… 미국의 미래 다룬 SF소설  
날짜: 20140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07100000276  
본문: 재미동포 작가 이창래의 새 소설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워싱턴 인근 공공도서관에 가서 대출을 신청했다. 도서관 직원 왈 "당신이 여든 두 번째 예약자"란다. 이창래의 새 소설 (On Such a Full Sea)는 지난 달 중순 워싱턴포스트 서평란에 소개됐다. 이런 신문 기사의 영향으로 소설이 도서관에 도착하기 전에 대출 신청이 쇄도한 것이다.<br/><br/>이창래는 1995년 첫 소설 (Native Speaker) 이후 내놓는 작품마다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신작도 마찬가지다. 워싱턴포스트뿐 아니라 뉴욕타임스까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그의 소설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새 책을 내놓은 뒤 그는 미국 주요 도시를 돌며 독자와 만나고 있다. 그의 소설이, 아니 이창래라는 작가가 미국 문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짐작하게 한다.<br/><br/>이번 작품은 미국의 미래를 다룬 공상과학(SF) 소설이다. 지금까지 나온 미래 소설의 계보를 따지자면 조지 오웰의 , 올더스 헉슬리의 에 이어지는 작품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br/><br/>소설은 중국에서 미국 메릴랜드주의 항구도시 볼티모어로 옮겨온 16세 처녀 팬(Fan)이 갑자기 원인 모를 이유로 사라진 같은 동네 남자친구 레그(Reg)를 찾아가며 겪는 우여곡절의 경험을 담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의 삶을 떠나온 동네 사람들이 화자가 되어 풀어간다. 새장 같이 격리된, 그러나 안정된 마을을 떠나는 고통을 동정하고 그의 모험과 방랑을 격려하는 이야기는 바로 미국의 미래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창래의 이번 작품에 유난히 미국이 뜨겁게 반응하는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른다.<br/><br/>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사람들에게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 예측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창래가 작품의 출발로 삼은 것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의 계층 격차가 커지는 오늘의 미국이다. 거기서 출발해 작가는 세 가지 미국 사회의 유형을 그려 나간다.이른바 엘리트 사회와 그 사회의 먹거리, 그리고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장과 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촌, 무정부적이고 법과 질서가 깨져 폭력이 난무하는 열려있는 도시들(Open Counties)이다.<br/><br/>팬은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사라진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 떠나지만 소설에서는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은 아닌 것 같다. 이 소설은 환상을 보듯, 신비롭게 전개되며 아울러 동화적인 분위기도 가지고 있다. 소설에서는 암 대신 'C-병(C-illness)'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팬의 남자친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추측한다. 'C-병'은 오늘날 미국의 유전자 변형, 기후 변화, 환경 생태계 파괴, 인간관계의 변동, 새로운 기술 등을 펼쳐내는 암호 코드 같은 것이다.<br/><br/>팬이 살던 마을을 나와 부딪치는 세상에는 엘리트 사회에서 성장하고 교육 받은 수의사 퀴그(Quig)와 그의 가족, 이웃들이 있다. 애완동물이 사라지면서 수의사는 비즈니스맨으로 변하고 그 수의사와 가족, 주변 사람들이 등장해 유전자 변형과 암 등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팬은 거기서 광신도들이 모여 사는 시골 집단촌으로, 그 다음 집단 살상의 사육제 같은 의식을 치르는 가족을 만난다. 그런 뒤 리오와 캐시가 사는 엘리트 가정에 들어간다. 불길하고 사악한 늙은 그 부자 집에 갇혀 그는 애완동물처럼 사육되기도 하면서 반복해 감금과 자유를 경험한다. 결국 그는 엘리트 사회의 젊은 의사 도움으로 구출돼 그 의사의 아파트에 피난처를 얻는다. 의사는 "아무도 당신을 억류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br/><br/>이 소설은 분명 가상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여기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팬의 모험은 세 가지 다른 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보여준다. 그 사회들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결국 함께 무너지는 성질의 것들이다.<br/><br/>이 작품이 SF라고 대중소설 같이 여겨서는 곤란하다. 소설에는 의학적 지식만 등장하는 게 아니다. 경제, 사회, 심리에 대한 깊고 넓은 작가의 해설이 흥미를 돋운다. 철학적이면서 우화적인 이야기들이 352쪽의 소설 전편에 작은 글씨체로 새겨져 있다. 그의 문장은 대체로 사회과학 책을 연상케 하는 것이지만 때때로 서정적이고, 은유적이며, 상징으로 넘친다. 소설의 제목도 셰익스피어의 에서 따온 것이다. 썰물이 들어왔을 때 밀물이 들어올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서서히 기울어 가고 있는 미국 사회를 향한 경고로 들을 만하다.<br/><br/>이창래가 지금까지 내놓은 소설은 한결같이 어두운 사회가 배경이었다. (A Gesture Life)에서는 태평양 전쟁에 참가한 일본 윤군 중위 하라가 위안부로 동원된 한국 여자를 강간하고 죽인다. (The Surrendered)에는 한국전쟁의 폭력과 극단적인 인간의 조건이나 상황이 전개된다. 거기엔 전쟁의 참화 속에 세운 작은 교회가 평화의 희망봉으로 떠 오른다. 2010년에 나온 는 이듬해 슛？내？후보작에 올랐지만 아깝게 상을 놓쳤다. 그보다 앞서 나온 (Aloft)은 미국 상류사회의 돈, 명예, 물질주의, 특권 같은 것들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는다. 무의미함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한 권태 같은 요소들 때문에 이 소설은 존 업다이크의 작품을 연상케 한다. 이번 작품은 그의 이런 이전 작품들의 요소를 다 간직한 작품으로 읽힌다.<br/><br/>가 나왔을 때의 기억이 새롭다. 소설의 주인공은 뉴욕의 재미동포(한인)다. 하지만 그 소설은 한인사회를 다룬 것이 아니라 스파이 이야기를 담은 스릴러였다. 한국계 이민자들의 아픔, 고통, 승리, 웃음을 기대했던 한국인 독자들이 당황한 데도 이유가 없지 않다. 나도 다른 한인들도 중국계 미국 작가 에이미 탄의 (Joy Luck Club) 같은 작품을 은근히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도 이후에도 이창래는 이런 한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br/><br/>이창래가 미국에서 높이 평가 받는 것은 그가 이민 작가들의 일반적인 작품 경향과 동떨어져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의 작가들은 이창래가 왜 미국이나 서구의 문단에서 주목 받고 있는지 곰곰이 되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어쩌면 한국 문학이 세계로 뻗어가는 지름길을 발견할지도 모를 일이다.<br/><br/><br/><br/>최연홍 시인ㆍ미국 워싱턴 거주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16.txt

제목: 건보료 고지서에 흡연 폐해 경고 문구  
날짜: 20140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0710013414778  
본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격적으로 흡연 폐해 알리기에 나선다.<br/><br/><br/><br/>건보공단은 7일 "건보료 고지서, 건강검진 안내문 등에 흡연경고 문구를 넣어 흡연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금연운동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매월 발송하는 1,030만건의 건보료 고지서에 3월부터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 차지" "임신부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등 위험 증가""헤로인, 코카인보다 높은 니코틴의 중독성" 등 강력한 흡연경고 문구가 담긴다. 연간 26만건의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과 연간 3,000만건의 성인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이미 이 달부터 흡연경고 문구를 넣어 발송하고 있다. <br/><br/><br/><br/>건보공단은 또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해 관공서를 포함한 직장가입자의 흡연율을 파악,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흡연율을 통보하고 흡연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br/><br/><br/><br/>또한 담배소송을 포함한 금연운동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과도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br/><br/><br/><br/>송옥진기자 click@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17.txt

제목: [View] 도시 민박 게스트하우스 도입 2년의 명과 암  
날짜: 20140207  
기자: 유환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07100000281  
본문: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2가 명동역 인근의 한 상가. 1층은 편의점 등이 있고 2~4층은 'A게스트하우스'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한국어 아래 영어와 일어가 병기된 걸 보니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 같았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싱글 미니룸부터 트윈룸, 온돌룸 등 다양한 룸 종류가 있었지만, 게스트하우스만의 특징인 도미토리(공동 침실)는 없다. 가장 싼 방은 3만5,000원이고, 대부분은 7만~10만원 수준이다. 인근의 모텔보다 최소 2만~3만원 가량 비싼 가격이다. 방과 부엌, 복도를 살펴보니 꽤 익숙한 모습. 고시원과 많이 닮아 있었다. 직원은 "몇 년 전에 고시원을 개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r/><br/>마침 퇴실을 하는 외국인 한 명을 만났다. 혼자 서울여행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마카오인 밍(Ming)씨는 "방이 너무 작고 침대는 좁고 불편했다. 짐이 많은데 3층까지 들고 와야 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br/><br/>서울에 외국인전용 게스트하우스(도시민박)가 허용된 것은 2011년 12월. 현행법상 도심에서는 민박업을 할 수 없지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예외를 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서울에는 정식으로 지정을 받은 377개(1,185객실)의 게스트하우스가 생겨났다. 하지만 실제로 게스트하우스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곳은 900여 곳이 넘는다.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성행하고 있다는 얘기다.<br/><br/>불법 업소들은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게스트하우스는 연면적 230㎡미만인 주택시설인 경우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업무용시설이나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할 수가 없다.<br/><br/>하지만 실제로는 고시원을 개조하거나, 한 곳만 지정을 받은 후 4~5개 지점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심지어 사우나 내 찜질방 시설을 개조해 좁은 캡슐을 침실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부당요금이나 위생상태 불량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br/><br/>이처럼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난립하는 것은 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탓이 크다. 해당 구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정증을 발급한 후에 이를 관리하거나 단속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외국인 전용시설로 돼 있지만 내국인 이용을 막는 규정은 없다. 때문에 허가를 받은 곳들도 내국인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다. 서울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숙박시설은 원래 위생과 담당인데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는)게스트하우스는 문화관광과가 담당을 하고 있다"며 "시행 초기라 아직 관리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br/><br/>문제는 이로 인해 외국인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시 숙박예약 전문사이트인 부킹닷컴에는 "매트리스와 담요가 청결하지 않았다"(Jiaxin, 중국), "방은 너무 작았고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것이 몹시 어려웠다"(Kevin, 호주) "다른 유스호스텔 등보다 가격이 비쌌는데도 시설이 쾌적하지 않았다"(Lu, 중국) 등 불만을 토로하는 이용후기가 적지 않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 했던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br/><br/>전문가들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단속도 시급하지만, 동시에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방문객의 31.1%는 21~30세였고, 1인 혹은 2인이 방문한 경우가 전체의 63%에 달했다. 숙박비 지출액의 경우 미화 100달러 이하인 경우가 33.2%였다.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상당하다는 얘기다. <br/><br/>실제로 외국인 여행객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게스트하우스가 비교적 잘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 받는 서교동 부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는 김모씨는 가정집의 2층을 외국인들이 묵도록 하고 있다. 그는 "1만5,000~3만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여행객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등 유럽식 게스트하우스 문화를 조성하려고 했다"며 "유럽여행객들이 많고 요즘은 아시아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인근의 D게스트하우스는 영어와 불어를 구사할 수 있는 프랑스인을 매니저로 고용해 인기를 끌고 있다.<br/><br/>업무 차 한국을 방문한 이들을 위해 특화된 게스트하우스도 있다. 강남구청역 인근의 A업소는 지점을 6개나 두고 있는 기업형 게스트하우스로 20~30대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했다. 이 게스트하우스의 사장은 "싱글룸이 4만~5만원 정도여서 강남 일대에 가장 저렴한 편인데다 깔끔하고 욕실이 내부에 있다는 점에서 비즈니스 호텔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다고 봤다"며 "업무를 위해 한국을 단기 방문한 유럽이나 일본인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말했다. <br/><br/><br/><br/>유환구기자 redsun@hk.co.kr<br/>이대호 인턴기자 (서강대 미국문화학 3년) <br/><br/>▶▶▶ 관련기사 ◀◀◀<br/>▶ 美영어강사 이태？게스트하우스서 숨진채 발견<br/>▶ 불량 찜질방을… 불법 게스트하우스의 행태<br/>▶ 외국 관광객들 "강남 민박 매력적이네요"<br/>▶ 자유로운 영혼들의 우연한 인연이 어우러진 '미니 지구촌'<br/>▶ 백패커 추억이 머문… 떠나자마자 그리워지는<br/>▶ 고교생들, 홍대 '게스트하우스 지도' 제작 기부<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18.txt

제목: 건강보험료 매년 올리는데도 건보 보장률 3년 연속 하락… 왜?  
날짜: 20140206  
기자: 이왕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06100000366  
본문: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3년 연속 하락했다. 정부는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지만, 병원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시술이나 수술 등 비급여 진료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br/><br/>6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건보 보장률은 2009년 65.0%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10년 63.6%, 2011년 63.0%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의료비중 공공재원 비중'(2011년) 평균은 72.2%다. 노르웨이(84.9%), 일본(82.1%) 등이 높다. <br/><br/>반면 건강보험료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았던 2009년 동결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1.7~5.9%씩 인상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공단이 책임지는 비중이 더 떨어진 것이다. <br/><br/>그 원인은 첫째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전체 치료비 중 비급여 비중은 17.2%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중은 25.6%로 전체 평균보다 8.4%포인트나 높았다. 대학병원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가 수술 등 비급여 진료를 확대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중 정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책의 핵심인 선택진료비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18.5%(병원급 이상 기준), 상급병실료는 12.9%를 차지, 병원의 주요 수입원으로 분석됐다. <br/><br/>또 급여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지출한 진료비도 20.3%로 전년(20.0%)보다 높아졌다. 원래 본인부담률이 높은 외래이용 환자가 입원 환자보다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br/><br/>한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의 건보 보장률은 77.8%로 2011년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암, 백혈병, 신부전증 등 1인당 진료비가 큰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도 77.4%로 1.9%포인트 올랐다. <br/><br/>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012년 12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1,181개 의료기관에서 외래방문진료 받거나 입ㆍ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조사해 나온 것이다.<br/><br/><br/><br/>이왕구기자 fab4@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19.txt

제목: "2030년 세계 암 발병 2200만건"  
날짜: 20140204  
기자: 김종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04100000296  
본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세계 암의 날'(4일)에 맞춰 발표한 '세계 암 보고서 2014'에서 2030년 전 세계 연간 암 발병건수가 2,200만건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정했다.<br/><br/>40개국 연구자 250명이 참가해 집필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연간 암 발병건수는 2,160만건으로, 최신 자료인 2012년(1,400만건)보다 5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암 발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2년 820만건에서 2030년 1,300만건으로 증가한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br/><br/>IARC는 늘어나는 인구와 가속하는 노령화가 암 발병과 사망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음주와 흡연, 운동부족에 따른 비만 등 나쁜 생활습관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와일드 IARC 소장은 "암 치료 효과를 높이고 비용부담을 해결하려면 예방과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공장소 흡연금지 법률제정 ▦설탕 등이 포함된 음료수에 대한 세금부과 등 정책시행을 통해 암 발병을 낮춰야 한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함께 담았다.<br/><br/>암 발병 중 남성의 경우 폐암(16.7%)이 가장 많았고 전립선암(15%) 직장암(10%) 위암(8.5%) 간암(7.5%) 순이었다. 여성은 유방암(25.2%)이 1위로 나타났으며 이어 직장암(9.2%) 폐암(8.7%) 자궁경부암(7.9%) 위암(4.8%) 등이 뒤를 이었다. 남녀를 합치면 폐암(19.4%) 유방암(11.9%) 직장암(9.7%) 간암(9.1%) 위암(8.8%) 순이었다. 2012년 한해 동안 암으로 숨진 820만명 중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59만명으로 역시 가장 많았다.<br/><br/>이와 함께 암 발병의 60% 및 암 사망의 70%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발생하는 등 저개발 국가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킹 영국 암 연구소장은 "지금부터 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수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20년 뒤엔 전 세계가 암 치료라는 위기의 중심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br/><br/><br/><br/>김종한기자 tellme@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환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만 100만원… 헉!<br/>▶ 성경험 탓? 은밀한 고통에 떨고 있는 처녀들<br/>▶ 은밀한 부위 아픈 여성 고민하게 만든 사연<br/>▶ 너무 많이… '월경과다' 그녀의 은밀한 고통<br/>▶ 가난한 남성, 부자 남성보다 10년 일찍 죽는다<br/>▶ 완전 폐지 땐 환자 부담 줄지만 건보료 오를 수도<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20.txt

제목: 암수술시 림프절 제거 '림프부종' 원인으로 지목  
날짜: 20140204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04100000187  
본문: 암 수술 환자의 증가로 림프부종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림프절 절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등을 시행함에 따라 림프계의 순환이 손상돼 림프계의 순환장애인 림프부종이 발병하는 것이다. <br/><br/>제 3의 순환계인 림프계는 림프관과 림프절로 구성돼 있으며 림프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림프액은 보통 하루에 2~4L가 만들어지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정맥계로 배출시키는 미세 순환을 담당한다. 아울러 면역세포인 림프구를 순환시켜 외부의 병원균에 대항하는 면역작용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림프액이 순환계로 빠지지 못하고 피부 및 피하지방 안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면서 고농도 단백질로 변화, 팔과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붓는 림프부종이 발생하는 것. <br/><br/>림프부종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차성 림프부종은 림프선의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해 림프선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2차성 림프부종은 유방암, 자궁암 등 암수술시 전이를 막기 위해 주위 림프절까지 폭넓게 제거했거나 방사선 치료, 외상, 감염 등으로 발생한다. <br/><br/>실제로 림프부종은 유방암의 경우 수술만 한 경우 2~27%, 방사선 치료만 한 경우 9~36%의 환자에서 림프부종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암 수술 환자가 증가하면서 림프부종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br/><br/>림프부종 초기에는 외관상으로는 특별히 부어 보이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붓거나 뻐근하게 조이거나 피부가 딱딱한 느낌을 받게 된다. 림프부종이 심해지면 눈으로도 부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며 팔과 다리 둘레가 굵어진다. 평소 입었던 옷이나 신발이 잘 맞지 않는다면 림프부종을 의심해봐야 한다. <br/><br/>치료방법으로는 압박요법, 경구약, 림프흡수마사지, 외과적 수술, 지방흡입술, 미세림프수술, 줄기세포시술 등이 있으나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림프부종이 이미 발병했다면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심한 합병증으로 말기가 되었을 경우 외과적 절제 수술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부종의 합볍증은 피부 만성염증, 피부각화증, 조직 섬유화증 등 일명 코끼리 피부처럼 변형되는 상피증이 있다. <br/><br/>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치료법에는 1930년대 개발된 순환계 물리치료로 도수 림프흡수마사지(MLD), 복합부종감소물리치료(CDP, CDT)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정상 림프절 이식이나 림프관을 이어주는 미세림프수술 및 지방흡입수술, 줄기세포수술 등 다양한 수술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br/><br/>최근 연세에스병원 심영기, 윤진호 원장으로 구성된 림프부종 연구팀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세림프수술 및 지방흡입수술, 그리고 줄기세포 수술을 이용해 하지부종 18건, 상지부종 5건 등 총 23건을 치료한 후 1년간 추적 관찰했다고 밝혔다. <br/><br/>연구팀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치료 6개월 후 평균 30% 이상의 림프부종이 감소했다는 성과를 얻었으며, 치료 효과가 양호한 경우에는 80%까지 부종이 줄어들었다. <br/><br/>연구팀의 심영기 원장은 "줄기세포 치료를 하더라도 수술로 림프절을 다 절제했기 때문에 부종이 100% 완치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불치병인 림프부종 환자들의 부종을 줄여줌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미용적으로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br/><br/>한편, 연세에스병원 림프부종 연구팀의 치료결과는 오는 6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릴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br/><br/><br/>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21.txt

제목: 일본 30세 여성 학자, 만능줄기세포 양산 길 열었다  
날짜: 20140203  
기자: 이훈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03100000007  
본문: 일본 연구진이 쥐 실험을 통해 성숙한 체세포를 다양한 조직이 될 수 있는 만능줄기세포로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유전자 조작이 필요한 유도만능줄기(iPS)세포와 달리 체세포를 약산성 용액에 담그는 간단한 방식이어서 유전자 치료 연구에 있어 획기적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br/><br/>일본 고베(神戶)의 이화학연구소 연구팀은 지난달 30일자 영국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논문을 싣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생후 1주일 된 쥐의 임파구(백혈구의 일종)를 약산성 용액에 30분간 담갔다가 배양했더니 세포의 7~9%가 일주일 내에 만능줄기세포로 변했다는 것이다. 연구팀이 자극촉발만능(STAP)세포라고 명명한 이 세포를 쥐에 이식한 결과 신경, 근육, 장기 등 다양한 세포로 분화했다. 연구를 주도한 오보카타 하루코(小保方晴子·30) 박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인간 세포에도 적용될 경우 장기·조직 재생, 암 억제 등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br/><br/>지금까지 만능세포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체세포에서 떼어낸 핵과 핵을 제거한 난자를 결합해 배아줄기(ES)세포를 만드는 방법으로, 지난해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 교수가 실험 성공을 알리는 논문을 발표했다. 황우석 박사가 2004년 세계 최초로 ES세포를 배양했다는 허위 논문을 발표한 지 9년 만이다. ES세포 배양은 그러나 성공률이 낮고 난자 파괴로 생명윤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인 iPS세포는 체세포에 4가지 유전자를 주입해 만드는 것으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彌) 일본 교토대 교수가 2006년 개발했다. 세포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체내 이식 때 암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br/><br/>STAP세포는 iPS세포보다 배양 절차가 간단하고 성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iPS세포와 ES세포와 달리 태반으로도 분화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STAP세포 배양법이 인간 세포에도 적용될 경우 병든 조직을 재생하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크리스 메이슨 영국 런던대 교수는 "iPS세포를 이용한 노안(老眼)치료를 예로 들자면 세포 배양에만 10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다"며 "STAP치료가 임상에 활용될 수 있다면 치료 기간ㆍ비용에 획기적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갓 태어난 쥐에 한정된 실험이고 STAP세포의 발현 구조가 해명되지 않은 점은 한계다. 교도통신은 이번 실험에 참여했던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STAP세포로 척수 손상을 입은 원숭이를 치료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br/><br/>한편 실험을 주도한 오보카타 박사가 무명의 젊은 여성 학자라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와세다대 응용화학과를 나와 2011년 하버드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지난해 봄 네이처에 STAP세포 관련 논문을 투고했다가 "생물세포학 역사를 우롱하는 논문"이라는 이유로 게재를 거절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보카타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유학 중 STAP세포를 처음 배양한 뒤 실험으로 입증하려 했지만 주변에서 '실수로 얻은 결과'라며 믿어주지 않아 힘들었다"며 "그러나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기술이라는 신념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보완해 네이처에 다시 투고했다"고 회고했다.<br/><br/>이훈성기자 hs0213@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22.txt

제목: 밥보다 효소생식, 패스트푸드이면서 슬로우푸드인 이유  
날짜: 20140203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03100000181  
본문: 늘 바쁜 현대인들 사이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br/><br/>특히 나 홀로 식사를 해야 하는 싱글족과 체중을 줄이려는 다이어트족이 늘어나면서 식사대용의 생식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항생제를 먹여 키운 돼지고기·닭고기·소고기가 인체의 항생제 내성을 키운다는 연구결과가 잇달아 언론에 공개되면서 생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천연재료로 만든 '밥보다 효소생식'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br/><br/>생식은 곡류·채소류·과일류 등의 자연식품의 영양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다. 생식에 그대로 보존된 파이토케미컬이 암과 당뇨, 비만 등의 성인병 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암센터 등을 비롯해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현대인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명난 생식의 효능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r/><br/>'밥보다 효소생식'은 식재료의 영양을 그대로 담았다는 측면에서 슬로우푸드이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선 패스트푸드다. 동물성 식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각종 천연식물성 식재료만을 사용해 원재료의 영양분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br/><br/>'밥보다 효소생식'은 각종 야채, 해조류, 버섯류, 과일류, 곡류 등 40여 가지의 엄선한 국산 원료로 만들어졌다. 또한 몸에 좋은 효소가 4g이나 들어 있다. 열에 의한 영양소 파괴가 불가피한 선식과 달리 '밥보다 효소생식'은 영하 40도씨에서 급속동결 건조하여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최대한 보존하고 있다. <br/><br/>'밥보다 효소생식'은 한 포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낱개 포장이라 간편하게 물이나 우유 등을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초간편 건강식이다. <br/><br/>'밥보다 효소생식'은 한 끼 식사로 먹으면 40여 가지의 생식과 효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 아침을 챙겨먹기 힘든 직장인, 매끈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려는 여성,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소식을 원하는 주부들의 한 끼 식사대용으로도 안성맞춤이다. <br/> <br/><br/>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23.txt

제목: 국내 1호 팝 칼럼니스트 서병후씨 별세  
날짜: 20140202  
기자: 고경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202100000127  
본문: 유명 팝 칼럼니스트 서병후(사진)씨가 1일 자택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2세.<br/><br/>고인은 1967년 최초 팝 음악 잡지 '팝스 코리아'를 창간하고 이후 여러 주간지에서 기자로 활동한 국내 1호 팝 칼럼니스트다. <br/><br/>1981년부터 3년 연속 MBC 대학가요제 심사위원을 맡고 미국 빌보드에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등 국내 가요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br/><br/>고인은 힙합 가수 타이거JK(본명 서정권ㆍ40)의 부친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타이거JK는 지난해 발표한 그의 노래 '살자'를 아버지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br/><br/>타이거JK는 트위터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삶은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빈소는 서울 공릉동 원자력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일 오전 9시30분.<br/><br/><br/>고경석기자 kave@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24.txt

제목: “잠 충분히 못자면 암 성장 빨라진다”  
날짜: 2014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9100000156  
본문: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할 경우 암이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 암의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시카고 대학 아동변원 연구팀이 수면과 암의 상관관계를 동물실험으로 분석한 결과를 ‘Cancer Research’ 저널에 발표했다.<br/><br/>연구팀에 따르면 수면이 손상된 쥐들의 체내 면역계가 잠을 잘 잔 쥐들의 면역계보다 조기 단계 암에 대항하는데 있어서 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연구팀은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뉘어 인위적으로 종양을 발생하게 하는 종양세포를 주입했다. 그런 다음에 한 그룹은 정기적으로 깨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한 반면 다른 한 그룸은 충분히 잠을 자도록 했다. <br/><br/>4주 간의 연구결과 잠을 제대로 못 잔 쥐들의 종양이 충분한 수면을 취한 쥐보다 종양의 크기가 2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개 종양성장을 억제하는 쥐의 허벅지 근육에 종양세포를 주입한 추가 연구결과 잠을 잘 못 잔 쥐들이 종양이 더 침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연구를 이끈 데이비드 고잘 박사는 “<span class='quot0'>수면 자체가 종양의 침입이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처음 동물실험으로 입증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치료를 위한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생물학적 매커니즘 자체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특히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초점이 종양 자체가 아니라 초기 암을 통제하거나 근절할 수 있는 능력을 위축시키는 면역체계의 손상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br/><br/>고잘 박사는 “<span class='quot0'>우리 신체의 면역 시스템은 초기 암세포를 근절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주요한 기능을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면역시스템 기능이 저하돼 암과 같은 세포를 더욱 키우게 되는 셈</span>”이라고 밝혔다. 　<br/><br/>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약 70만명의 미국인이 만성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br/> <br/><br/>한국아이닷컴 뉴스부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25.txt

제목: 서울시도 담배소송 동참하나  
날짜: 20140129  
기자: 이왕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9100000032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KT&G 등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서울시도 소송 참여를 검토하기로 했다.<br/><br/>김창보 서울시 보건정책관은 28일 "최근 건보공단 관계자가 담배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구두로 물어왔다"며 "공단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면 소송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결정 이후 "(소송참여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서울시가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료급여)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3,020억원(50%가 서울시 부담)이었던 서울시의 의료급여 예산은 지난해 8,200억원으로 10년새 2.7배 가량 증가했다. <br/><br/>건보공단은 단독으로 소송을 개시한 후 진행 상황에 따라 서울시에 보조참가인으로 소송 참여를 요청하겠다는 생각이다. 서울시 이외에 지방의 한 기초자치단체도 담배소송 동참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br/><br/>서울시의 피해배상 청구규모는 건보공단 청구금액(130억~3,326억원)의 50분의1 수준인 2억6,000만~67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2012년 서울시의 의료급여 환자 중 25년 이상 흡연을 하고, 소세포 폐암, 편평세포 후두암 등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치료액으로 추정한 수치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일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건보공단이 소송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법률적 검토를 충실히 해왔다는 점에서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공단의 요청 없이도 소송에 전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r/><br/>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서울시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공단은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소송 참여는 공단으로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공단주최로 열린 담배소송 관련 법률포럼에서도 의료급여를 지출한 지자체가 담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br/><br/>이왕구기자 fab4@hk.co.kr<br/>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br/><br/>▶▶▶ 관련기사 ◀◀◀<br/>▶ 정부는 못마땅… 왜?<br/>▶ "담배소송, 사회갈등·비용만 유발" 비난<br/>▶ “임신 중 음주는 담배·대마초보다 해롭다”<br/>▶ "담배 소송은 정의실현" vs "도움안되는 무모한 행동"<br/>▶ 본격화되는 담배 소송, 국내외 사례는<br/>▶ 건보 최대 3천억 흡연소송… 담배사 책임입증 난관<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26.txt

제목: [채널 선택 2월 1일] 실크로드 개척한 한혈마와 제주마의 관계는 外  
날짜: 20140128  
기자: 강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8100000388  
본문: 실크로드 개척한 한혈마와 제주마의 관계는<br/><br/>바람의 말(MBC 오전 7.30)<br/><br/>청마(靑馬)의 해인 갑오년. 우리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곁을 지켜온 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인류와 함께해온 말의 역사를 2부작으로 따라가 본다. <br/><br/>말은 인류 문명을 바꾼 영웅들의 동반자이자 인류 발전의 숨은 공로자로 평가 받기도 한다. 특히 중국의 서역 지방에서 산출되던 명마인 한혈마(汗血馬)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길 실크로드를 개척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혈마는 돌을 밟으면 자국이 나고, 전견박부(前肩膊部)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작진은 역사적 기록 등을 바탕으로 현재의 컴퓨터그래픽(CG) 기술로 한혈마를 복원해 공개한다. 국내 한혈마의 흔적을 찾는 과정에서 800년 역사를 거슬러 제주마의 뿌리를 밝혀내고, 그 우수성을 전한다. 과연 한혈마와 제주마는 어떤 관계일까. <br/><br/>말은 인간을 위해 아낌없이 베푼다고 해서 '오천복마'라고도 불린다. 승마는 자세교정은 물론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미래 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말 산업이 꼽히기도 한다. 이러한 말과 인간의 아름다운 동행은 과거에 이어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아직도 말이 중요한 삶의 수단인 키르키즈스탄의 마지막 유목민들을 찾아가 본다. 이들은 말을 가족과 같이 여기며 서로 교감해 감동을 선사한다. 배우 하지원이 내레이션을 맡았고, 배우 송일국은 한혈마를 찾아 말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 <br/><br/>왕중왕전 주인공은 누구?… 설 스타 탄생 예고<br/><br/>스타킹-키워주세요, 왕중왕전(SBS 오후 6.20)<br/><br/>지난 6개월 간 이어온 '스타킹' 속 코너 '키워주세요'에 출연했던 주인공들이 총출동해 왕중왕전을 갖는다. '10대 댄스스포츠 유망주' 김지수 황유성 커플, '19년 무명가수 김광석' 이헌승, '천재 기타소녀' 이하늘, '스턴트 치어리딩팀' 임팩트. '최연소 플루티스트' 변미솔. '일당백 아카펠라팀' 다이아. '리틀 최승희' 석예빈, '키워주세요' 최초로 3연승을 한 '난치병 폴 포츠' 서예준 등 총 8팀이 경쟁을 벌인다. 왕중왕전은 두 팀씩 승자 진출 방식으로, 총 7번의 대결을 통해 최종 우승팀이 결정된다. 각 팀의 공연이 끝날 때마다 패널과 100인의 판정단 점수를 합산해 결과가 발표된다. <br/><br/>볼로냐·피렌체·베네치아 카페의 향기 속으로<br/><br/>잇시티 이보영의 카페 이탈리아(올리브 밤 11.00)<br/><br/>배우 이보영이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카페 문화를 체험한다. 볼로냐를 시작으로 피렌체와 베네치아까지 특별한 여행이 시작된다. <br/><br/>첫 번째 여행지인 볼로냐는 풍부한 역사와 예술, 문화를 자랑하는 유럽의 문화 수도이며, 맛있는 음식들로 미식가가 많은 곳이다. 피렌체는 이탈리아의 심장이자 예술의 도시다. 수많은 예술가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사랑했던 카페가 즐비한 곳이기도 하다. 1733년 오픈한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인 '카페 질리'는 전통만큼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카페 '지아코사'에는 에스프레소와 베일리스(알코올 음료)를 섞어 마시는 새로운 커피 칵테일인 카페 코레토가 있다.<br/><br/><br/>강은영기자 kiss@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27.txt

제목: 서민 생계형 사범 5925명 설 특사  
날짜: 20140128  
기자: 김청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8100000309  
본문: 서민 생계형 사범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벌점ㆍ정지ㆍ취소 등 288만7,601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가 29일 실시된다. 모범수 871명도 가석방된다. <br/><br/>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면ㆍ감면안을 심의ㆍ의결 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 ▦불우수형자 15명이다. 형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사람은 풀려나며,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가석방 중인 사람은 가석방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된다. 불우수형자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환자ㆍ장애인 중에서 강력ㆍ마약ㆍ조직폭력 사범을 제외한 모범수이다. <br/><br/>사면 대상에는 장애인 아내를 부양하며 살던 중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해 복역 중인 택시운전 기사 임모(61)씨, 암 치료비 때문에 사기죄를 저지른 김모(44)씨 등이 포함됐다. 수확량이 감소하자 공유수면에 꼬막 씨조개를 뿌린 양식업자 정모(59)씨의 경우는 집행유예 효력이 없어져 다시 어업 면허 취득이 가능해졌다. <br/><br/>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았지만 행정당국의 제재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대거 구제된다. 유형별로 ▦운전면허 벌점 삭제 279만728명 ▦면허 정지ㆍ취소 집행 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326명 ▦제2종 원동기면허 제재 감면 3만4,663명 등이다.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이며 음주운전자, 과거 10년 내 감면자, 뺑소니 등은 제외됐다. <br/><br/>또 생계형 위반 행위로 어업면허ㆍ허가가 정지된 72명에 대해서는 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어업면허ㆍ허가가 취소돼 취득 유예기간 중인 영세어업인 19명은 유예기간을 감경한다. 재적발시 가중처벌을 위해 면허 취소ㆍ정지나 경고 기록이 보관돼 있는 영세어업인 6,970명에 대해선 처분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무면허, 어린 고기 포획, 조업금지구역 침범 조업, 유해약품의 사용 등 중대 위반행위는 특별감면에서 제외했다.<br/><br/><br/><br/>김청환기자 chk@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28.txt

제목: "강화 하점산업단지 분진이 주민 암 발병에 영향 줬을 가능성"  
날짜: 20140127  
기자: 이환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7100000374  
본문: 인천 강화군 하점지방산업단지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마을(목숙부락) 주민들의 호흡기 암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목숙부락에서는 최근 6년간 폐암 등으로 4명이 숨지고 후두암 등으로 2명이 투병하고 있다.<br/><br/>27일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팀이 발표한 '하점산단 주변 호흡기계질환 관련 암 발생요인 역학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산단에서 10~200m 떨어진 5곳에서 총 부유 분진 농도를 측정한 결과 목숙부락 경로당 주변의 수치가 108.64㎍/㎥에 달했다. 이는 인천시 주거지역 평균 농도인 17.7㎍/㎥의 6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다른 곳의 농도도 26.90~89.20㎍/㎥를 기록했다. <br/><br/>목숙부락 1곳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농도도 78.26㎍/㎥로 주거지역 농도인 52.91㎍/㎥를 크게 웃돌았다.<br/><br/>임종한 교수는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당 500여명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것을 감안할 때 2007~2013년 목숙부락의 폐암 사망자는 0.3명이어야 하지만 실제 4명이 숨졌다"며 "폐암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점, 조사 대상 36명의 33.3%가 염증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서풍이 부는 하점산단 서쪽에 마을이 위치한 점으로 볼 때 산단이 주민들의 폐암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br/><br/>23가구에 50여명이 거주하는 하점면 부근리 목숙부락 인근 하점산단(면적 5만8,688㎡)은 1991년 농공단지로 조성됐다. 현재 합성섬유, 타이어재생품, 수도미터기 등을 생산하는 9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이중 4개 업체는 공해(유해)물질 배출업체이다.<br/><br/><br/><br/>이환직기자 slamhj@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29.txt

제목: 건보공단, 담배소송 강행  
날짜: 20140125  
기자: 송옥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5100000025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담배소송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국내에서는 한번도 담배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적이 없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br/><br/>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15명 이사 중 13명이 참석, 11명의 찬성으로 담배소송 안건이 통과했다. 정부 측 이사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인사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건보공단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3월 이전에 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br/><br/>소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세포 폐암, 편평세포 후두암에 대해 130억~3,300억원 사이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두 암에 대해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흡연 여부, 흡연기간 등을 따져 소송 범위를 확정한다. 이 두 암은 과거 흡연피해자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암이다. <br/><br/>김 이사장은 "흡연으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연기 속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건보재정의 관리 운영 주체인 공단으로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연간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지출된다고 보고 있다. <br/><br/>건보공단이 대규모 진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송에서 이길 경우 개인들의 추가 소송도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승소할 경우 배상금으로 폐암 환자 등 흡연피해자를 지원하거나 금연운동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br/><br/>한국담배협회는 "건강보험 이사회가 재정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br/><br/>송옥진기자 click@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담배 소송은 정의실현" vs "도움안되는 무모한 행동"<br/>▶ 본격화되는 담배 소송, 국내외 사례는<br/>▶ 건보 최대 3천억 흡연소송… 담배사 책임입증 난관<br/>▶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오래 준비…증거 확보"<br/>▶ '건보공단 담배소송' 복지부가 사실상 제동<br/>▶ 담배소송, 흡연 피해자 승소는 '산넘어 산'<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30.txt

제목: [건보공단 담배소송 강행] 생활습관·직업·유전적 요인 아닌 '흡연이 질병 원인' 입증해야  
날짜: 20140125  
기자: 송옥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5100000026  
본문: 우리나라에서 담배회사 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4건이 있지만 한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 흡연으로 인해 개인이 질병을 앓게 됐다는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인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선 이번 소송은 이런 쟁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r/><br/>24일 건보공단이 담배소송 방침을 의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구상권 청구 규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구상권은 제3자의 행위 탓에 건강보험 진료비가 쓰였다면 건보공단이 대신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br/><br/>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 근거는 지난해 8월 발표한 130만명을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다.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비 부담을 분석한 결과 남성 흡연자의 경우 후두암 발생 위험 정도가 비흡연자의 6.5배에 달했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진료비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6,914억원(2011년 기준)에 달한다.<br/><br/>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빅데이터는 공단이 가진 방대한 진료내역 검진자료를 토대로 한 과학적이고 체계적 자료"라며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법원이 일부 암에 대해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더하면 입증이 더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 국내에서 2번째로 담배소송을 제기한 폐암 환자와 가족 31명의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었다. <br/><br/>건보공단은 소세포 폐암과 편평세포 후두암 환자 중 흡연 여부, 흡연 기간 등을 따져 흡연이 폐암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환자군을 소송대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2010년 두 암에 대해 지출한 진료비는 약 600억원인데, 기간을 2002~2012년으로 잡고 환자 대상도 가장 넓게 잡았을 때 청구 금액이 약 3,300억원이다. <br/><br/>하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통계적인 인과관계는 밝힐 수 있을지 몰라도 각각의 개인을 놓고 생활습관, 직업, 식습관, 가정환경,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요인이 아닌 흡연이 질병의 원인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흡연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일반적 인과관계는 입증되겠지만, 폐암환자의 발병 원인이 다른 모든 개인적 요인을 배제하고 오로지 흡연 때문이라고 어떻게 증명하냐"고 반문했다. <br/><br/>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은 또 다른 쟁점이다.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돼도 현행법 상 합법적으로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담배회사의 위법성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 2호 담배소송의 2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국담배협회 측은 "담배는 제조상 하자가 없고 제조과정에서 불법행위 역시 없다"며 "법원에서도 국내 흡연소송 4건 모두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br/><br/>과거 담배소송의 원고들은 담배회사들이 니코틴의 중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첨가물을 넣었다거나, '담배가 해롭지 않다'는 내용의 교육용 문건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했었다. 국내 최초로 담배소송을 맡아 15년째 담배회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는 "원고 측이 담배회사의 니코틴 조작을 입증하기 위해 600종에 달하는 담배 첨가물 내역을 요구했지만 담배회사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240종만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r/><br/>건보공단 측은 지난 소송들과 달리 공공기관에서 제기한 첫 소송인만큼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담배회사의 내부고발자로 인한 내부 문건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선임전문연구위원은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단이 소송 제기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면서 담배회사에서 퇴직한 내부고발자들의 연락이 이미 오고 있다"고 말했다.<br/><br/>현재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은 총 4건으로 하급심에서 아직 승소한 적은 없다. 현재 1건은 1심에서 원고 패소해 종결됐고 이 중 2건은 대법원에, 1건은 고등법원에 각각 계류돼 있다.<br/><br/><br/>송옥진기자 click@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담배 소송은 정의실현" vs "도움안되는 무모한 행동"<br/>▶ 본격화되는 담배 소송, 국내외 사례는<br/>▶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오래 준비…증거 확보"<br/>▶ '건보공단 담배소송' 복지부가 사실상 제동<br/>▶ 담배소송, 흡연 피해자 승소는 '산넘어 산'<br/>▶ 건보 최대 3천억 흡연소송… 담배사 책임입증 난관<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31.txt

제목: [카드정보 유출 대란] "건당 60원" 암거래… 고객 이름·전화·주민번호가 '좌악~'  
날짜: 20140125  
기자: 강지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5100000022  
본문: "건당 60원. 카드번호 포함 시 건당 100원."<br/><br/>개인정보 불법매매 시장에서 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 카드사의 고객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거듭 외부로 유통된 정황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 정보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데이터베이스(DB)' '카드 신상 DB' 등의 이름으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br/><br/>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KCB DB' 샘플의 경우 최근 정보가 유출된 KB국민ㆍ농협ㆍ롯데카드 고객의 이름과 집 전화번호와 주소,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이 나와있다. 암거래 DB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알게 된 국민카드 고객은 "발급받은 지 2년 정도 됐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보유출 사고가 터진 뒤에 내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고 하니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지난해 분실한 카드 정보가 최근 시장에서 거래된 롯데카드 고객은 "10여가지 정보가 유출됐다고 나왔는데 인터넷에 휴대폰 번호나 주소가 떠다닌다고 생각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br/><br/>이에 대해 국민카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은 유출되지 않았는데 유통되는 정보에는 포함된 것 자체가 이번 유출사건과 다른 건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도 "KCB직원이 유출한 원본데이터 양식과 암시장에서 돌고 있는 파일은 형식이나 내용이 다르다"며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게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출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선을 그었다. <br/><br/>검찰도 수사과정에서 정보를 유출한 KCB직원 박모(39)씨의 원본파일과 박씨가 거래한 광고대행업체 대표, 대출모집인의 자료도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외부로 유통됐을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해명이 설사 사실일지라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똥을 끄는 것에 급급해 이미 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대책은 뒷전으로 미뤄 놓은듯해 뒷맛이 개운치 않다.<br/><br/>더욱이 업계에서는 이번에 유출된 정보 역시 불법 시장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개인 정보는 주로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지만 고급 정보들은 오프라인을 통해 거래된다. 정보를 빼낸 박씨가 검찰 수사망을 피해 현금을 받고 퀵서비스나 지인을 통해 직접 전달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휴대폰번호나 주소 외에 연소득, 대출상담내역, 대출현황 등 고급 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한 대출모집인은 "소득 여부와 연봉, 직장이 어딘지 전세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해당 정보 가격은 급격히 치솟아 건당 만원이상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br/><br/>유통업자들이 정보를 재가공해 판매했을 가능성도 높다. 한 대출업체 관계자는 "정보를 문서로 출력 후 이를 스캔하고 다시 액셀로 자동 변환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10분 내로 정보가 재가공된다"며 "많은 종류의 정보를 빠른 시간 내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러 곳에서 유출된 정보 짜깁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작업을 거치면 원본데이터와 양식이 달라지지만 유형별 정보분류가 가능하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자료도 원본데이터에서 여러 차례 편집, 가공돼 원본 출처가 모호해졌을 수 있는 것이다.<br/><br/>강지원기자 stylo@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박근혜' 이름이… 경악할 동영상<br/>▶ 최악 사태 근원 제공업체 징계 못한다니<br/>▶ 고객 정보 도둑맞고… 보호해 줄테니 돈 내라?<br/>▶ "우린 책임 없어요" 어이없는 은행들<br/>▶ 개인정보 털리기 쉬운 '최악의 암호'<br/>▶ 금융공기업 감사는 '꿀보직'… 정치인 낙하산들이 곶감 빼먹듯<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32.txt

제목: "가수 지망생 트레이닝… 이젠 보컬 한류 일으켜야죠"  
날짜: 20140124  
기자: 고경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4100000244  
본문: "전 세계적으로 가수 지망생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된 트레이닝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 보니 이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br/><br/>'비오는 날의 수채화'로 유명한 가수 강인원(58)이 '보컬 한류'를 일으키고자 연예기획사를 차렸다. 신인 가수를 발굴해 스타로 만드는 기획사와 달리 보컬 트레이닝과 한류를 접목한 점이 이색적이다. <br/><br/>그는 최근 휘성, 빅마마, 케이윌 등의 보컬 트레이닝을 맡았던 장효진씨, 해외 프로모션 전문인 문상원씨와 VSM을 설립했다. VSM은 보컬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뜻의 'Vocal Secret Method'를 줄인 말이다. VSM은 국내외 가수 지망생의 보컬 트레이닝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과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겸할 예정이다. 현재는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사와 보컬 트레이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br/><br/>빼어난 가창력의 가수라기보다 작곡을 잘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알려진 그가 보컬 트레이닝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23일 만난 그는 "한창 활동할 때도 작곡하는 것보다 노래하는 것이 더 좋았다"고 했다. "2007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막상 수술하느라 열어보니 암 덩어리가 꽤 컸나 보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건강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3년 전엔 공연할 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군요. 노래 부르는 데 한계를 느꼈죠. 노래하던 사람이 못 하게 되니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때 보컬 트레이너를 알아 보다가 장효진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에게 가르침을 받다 보니 목소리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굉장한 걸 발견한 거죠."<br/><br/>강인원의 가수 경력은 30년이 훌쩍 넘는다. 1979년 포크 그룹 '따로 또 같이'로 데뷔해 1985년 '제가 먼저 사랑할래요'로 본격적인 솔로활동을 시작했다. 영화 '비 오는 날의 수채화'의 영화음악을 맡아 타이틀 곡이 크게 히트한 뒤엔 주로 TV 드라마 음악 작곡가로 활동했다. 2000년대 들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br/><br/>마이크를 내려 놓은 뒤엔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업을 했지만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신인 가수 앨범 제작에도 나섰지만, 그 역시 실패의 쓴맛을 봤다. 결혼 생활에도 부침이 있었다. 1995년 배우 이일화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지만 1년 만에 결별했고, 2005년 18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 새 삶을 시작했다. 몇 년 전부턴 LED 조명 제작 업체와 휴대전화 보호필름 제작업체를 경영하며 의욕적으로 음악과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br/><br/>"노래할 수 없어 사업을 한 건데, 사업이 잘 될 때도 신이 안 났어요. 이제 노래를 해야 할 때라는 생각에 음악으로 돌아왔죠. 요즘엔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VSM 사업 중 하나로 올해는 중국과 일본의 유명 7080 가수들과 제가 한 팀을 이뤄 공연을 할 생각입니다."<br/><br/>사업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를 오가고, VSM 경영과 가수 활동 재개를 위해 중국, 일본 관계자들과 접촉하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그는 음악을 다시 할 수 있어 즐겁다고 했다. <br/><br/>"가수로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요샌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노래를 부르면 엔도르핀이 많이 나오고 뇌도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br/><br/><br/>고경석기자 kave@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33.txt

제목: "CT호환 안되니 다시 찍어라" 병원 옮길 때마다 촬영 반복  
날짜: 20140123  
기자: 이왕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3100000312  
본문: 고등학생 아들을 둔 이재명(47ㆍ가명)씨는 재작년 봄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척추가 한 쪽으로 기운 아들의 손을 잡고 동네 병원을 찾았다. 동네병원에서는 "뼈가 어느 정도 기울어졌는지 보자"며 컴퓨터단층(CT)촬영을 했다. 5만원을 내고 검사를 한 뒤 척추측만증 판정이 나오자 동네병원에서는 정밀 진단을 위해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씨가 CT 필름을 CD에 담아 달라고 했더니 동네병원 사무장은 "어차피 큰 병원 가면 또 찍을 테니 그냥 가라"고 했다. 실랑이 끝에 복사비용 1만2,000원을 내고 CT 필름을 받았지만 대학병원에서는 "호환이 안 돼 판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동네병원보다 더 비싼 7만5,000원을 내고 한번 더 CT를 찍었다. 검사비를 3중으로 낸 것도 억울했지만 여러 번 방사선에 노출된 것도 개운치 않았다. 이씨는 "최소한 병원간 CT 공유는 가능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br/><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이 1.5배 늘어난 원인으로 CT를 꼽았다. 2007년 371만9,090건이었던 CT 검사 횟수는 2011년 627만564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이 더 많은 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PET-CT)촬영도 늘었다. 암 조기 진단과 수술 등을 위해 더 정밀한 영상을 찾기 때문이다. 서울 한 대형병원의 흉부외과 교수는 "PET-CT 촬영을 하지 않고 암 수술을 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전국의 대형병원에서 PET-CT가 일반화했다"고 말했다. <br/><br/>CT, PET-CT 기기는 과잉보급 상태다. 2011년 인구 100만명 당 CT 기기는 35.9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많고 평균(23.2대)을 크게 웃돈다. PET-CT도 인구 100만명 당 3.3대(OECD 평균 1.7대)로 5번째로 많이 보급됐다. <br/><br/>암 환자의 생존율 제고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과잉 검사도 적지 않다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추측한다. 안기종 환자연합회 대표는 "디스크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CT를 찍어 진단한 후 수술을 권하면 다른 병원에서 또 CT를 촬영한다"며 "환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기준이 없다보니 환자들은 자기가 방사선에 얼마나 피폭되는지도 모른 채 촬영을 반복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가의료 장비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30일 이내 같은 병으로 CT를 재촬영한 경우 53%가 5년 이상 된 노후 장비였는데, 노후 장비가 많은 소규모 병∙의원의 과잉진료를 추측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형 장비는 대형병원이, 노후 장비는 병ㆍ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기기의 노후 정도와 무관하게 수가가 같아 경영압박을 많이 받는 병ㆍ의원들이 과잉촬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br/><br/>식약처는 환자 개개인이 의료 방사선 피폭 누적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환자방사선량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경희대병원 등 9개 병원에서 환자들이 개인별 방사선 피폭량을 조회하는 시범사업을 벌였는데, 이를 전국 병원으로 확대해 환자 개개인의 정보를 DB화한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사선 검사 전에 환자들이 예상 피폭량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피폭량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br/><br/>이왕구기자 fab4@hk.co.kr<br/>송옥진기자 click@hk.co.kr<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34.txt

제목: 암치료, 병이 아닌 사람을 보라  
날짜: 20140122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2100000176  
본문: 미국 의사이자 세계적인 암 권위자인 전 MD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 김의신 박사는 암은 바로 수술을 하는 병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암은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의 문제이며 특정 부위만 수술을 하게 되면 정상조직 파괴와 면역력 저하로 인해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br/><br/>이미 의료계에서는 전통적인 암치료(수술·항암·방사선)의 한계와 부작용을 인식하고 면역치료, 대체요법 등 다양한 대안을 연구와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br/><br/>이 같은 흐름이 점차 확산되어 각 분야 전문가들은 ‘암치료가 당신을 죽인다’, ‘항암제로 살해 당하다’, ‘12주 한방면역요법’ 등의 관련 서적을 출판, 방송이나 언론매체들도 특집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다.<br/><br/>면역치료는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암 치료 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발 빠르게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이 동·서양의 양·한방 통합 치료 선택하고 있는 것. 작년 1월 SBS일요특선 다큐멘터리 “암 치료의 새로운 길 면역”은 이와 같은 면역치료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전달했다. <br/><br/>현대의학과 첨단 생명공학의 나라 미국의 경우 1971년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20조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암 정복에 나서고 있다.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텍사스 메디컬 센터는 암의 역사와 암의 정복을 위한 활발한 암 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3대 암센터 중 하나인 엠디엔더슨암센터는 통합의학과를 설립하여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접목한 면역치료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br/><br/>세계적 키워드인 ‘면역’. 면역을 바탕으로 하는 치료의 효과는 어떨까?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은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170명을 대상으로 한방면역치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br/><br/>이번 조사는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8가지(오심구토, 체중감소, 기력저하, 빈혈, 탈모, 손발저림, 피로감, 통증)에 대하여 한방치료로 인한 호전 정도를 7점 척도를 이용해 질문한 결과 종합평균 5.45점으로 나타났다. <br/><br/>피로감의 호전 정도가 평균 5.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피로감 증상이 있는 응답자의 92%가 피로감이 호전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br/><br/>치료기간과 내원 빈도에 따른 호전정도에 관한 조사는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 내원 빈도는 1주일에 3~5회를 내원해야 호전도에서 높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br/><br/>이번 조사를 통해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암치료를 위한 한방치료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 중 92.3%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답변했으며, 한방 면역치료에 대해 타인에게 권유할 의향에 대한 응답도 91.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br/><br/><br/>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35.txt

제목: [2030 세상보기/1월 23일] 암 권하는 예능, 암 권하는 사회  
날짜: 20140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2100000296  
본문: "본격 암 유발 예능."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벌여 매주 탈락자를 가리는 tvN 예능프로그램 시즌 2를 두고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스트레스가 주요 발암 요인이라는 통설을 기반에 둔 농담이다. 재밌자고 본 예능 프로그램인데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다. 프로그램에 '친목질'과 '왕따', 사기와 협잡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욕하면서도 보게 된다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매력일까. 는 케이블 프로그램 가운데 상당히 높은 시청률인 2%를 기록했다. <br/><br/>지난해 방영된 시즌1에서도 패거리 짓기와 특정 출연자에 대한 견제 및 은근한 따돌림은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 이름에 걸맞게 두뇌게임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체계가 우세했다. 현재 방영 중인 시즌 2에서는 출연자들이 본인들끼리 정한 서열에 따라 배제하고, 배제당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학연과 지연을 앞세워 세를 규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선배' '오빠' '누나' 등 나이와 경험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며 설득에 임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눈치 보며 다수의 편에 속하는 것, 튀거나 찍히지 않는 것, 즉 처세를 잘하는 것이 중요해졌다.<br/><br/>출연자들이 이런 면면을 보이는 건 제작진의 의도에 따른 걸로 보인다. 총괄 PD는 한 인터뷰에서 촬영장을 심리 실험실에 비유하며 "시청자들에게 경쟁 사회의 어두운 부분과 개인 간의 심리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 때문인지 시즌1과 달리 제작진은 개인의 해석능력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게임보다 이합집산이 중요한 게임으로 주 게임과 '데스매치(탈락 후보자들이 탈락자를 가리는 게임)'를 구성했고, 그걸 보는 시청자들의 손발은 저리고 가슴은 먹먹해졌다.<br/><br/>시청자들이 를 보며 스트레스받고 심지어 울적해하는 이유는 자신이 겪었던 폭력과 배제의 경험을 떠올리기 때문인 것 같다. 교실에서 선생님과 일진 등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 숨죽여야 했던 일상,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나이를 묻고 답하며 권력관계가 결정지어지는 경험, 회사에 들어가 노동력을 팔기 위해 지워내고 닦아냈던 자존심과 개성, '까라면 까'라는 상사의 요구. 출신대학과 학번을 묻고 답하며 특별한 친분을 형성하는 사람들, 그렇게 권력이 되는 '친목'들. 주말 '예능' 프로그램 는 시청자들이 겪었던 배제의 경험을 환기하고 일상의 비루함을 상기시키지만, 대안을 제시하거나 희망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저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할 뿐이다. <br/><br/>개인적으로 다행인 것은 더 이상 보며 스트레스받을 일은 없다는 거다. 지난 주말 응원했던 참가자가 탈락했다. 나는 전 프로게이머인 홍진호를 응원했는데 그가 프로그램의 이름대로 '지니어스'한 면모를 보이며 제작진이 숨겨놓은 '필승법'을 찾아내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시즌 1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시즌 2에서는 7회에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시즌1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가진 비범한 역량 덕분이겠지만, 그의 개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임이 주어진 덕도 있다. 게임을 준비해 내놓은 건 제작진이다. 의도로 설계한 결과물일 것이다. 시즌1에서는 명민한 개인이 우승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었다면, 시즌2에서 제작진은 정치적이고 사람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노련한 사회인이 우승하길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끝까지 살아남는 이가 누구일지 지켜볼 일이다(방송은 안 보고 기사로 볼 거다).<br/><br/>제작진의 의지는 '친목질'과 '처세술'을 의 생존기술로 만들었다. 한국사회의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이들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 분명한 건 한국 사회에서 폭력과 배제에 대해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이들, 뾰족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부서지거나 찢겨지기 쉬워 보인다는 것이다. 참담한 것은 TV는 끄면 되지만, 현실에서는 그리 간단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발암 가능성은 높아져만 간다.<br/><br/><br/>최서윤 발행·편집인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36.txt

제목: 심장병의 근본적인 원인, 心氣(심기)치료  
날짜: 20140122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2100000046  
본문: 40대인 A씨는 심실조기수축 공황장애 이명 소화장애 등의 증상으로 10여년 이상 고생하고 있다. <br/><br/>십여 년전 갑자기 가슴통증과 가슴이 두근거리고 철렁 내려앉는 증상이 심해서 응급실에 갔다가 심실조기수축의 진단을 받았다. 심실조기수축은 위험한 질병은 아니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고 의사들은 말한다. 하지만 그는 두근거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마다, 불안하기 짝이 없었고, 이후에 공황장애 이명 소화장애 등으로 내과 정신과 이비인후과를 전전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치료방법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br/><br/>한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받고 싶지만, 심전도나 초음파 검사 등 현대의학적인 검사를 어떻게 한의학적인 치료와 연계시켜야하는가 하는 점 때문에 망설여졌다.<br/><br/>수소문 끝에 의사이면서 한의사인 복수면허의사 선생님이 개설한 클리닉에서 서양의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을 찾았다.<br/><br/>서양의학적으로 심장은 전기적인 신호로 작동하는 근육펌프일 뿐이지만, 한의학적으로 심장은 심기(心氣)와 심혈(心血)로 구성되는데, 심혈은 구조적인 부분으로 서양의학적 심장이 이에 해당하고, 심기는 심장의 생체활성이나 심장이 작동하는 에너지이다.<br/><br/>심혈(서양의학적 심장)은 심기의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심기가 소모되면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부정맥이 생긴다. 심기가 가슴에서 막히면 이차적으로 소주천(小周天)의 흐름을 방해해서 아래로는 소화불량 위염 식도염이 생기고, 위로는 두통 어지럼증이 오고, 뒷목덜미와 어깨가 무겁고 뻐근해진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은 심기가 부족해져서 생기는 증상들이다.<br/><br/>심기의 저하는 생체활성의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면역력의 저하는 당뇨병 고혈압은 물론이고,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확대된다. 지금의 증상인 심실조기수축, 공황장애 이명 소화장애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적으로 심기를 치료해야한다. <br/><br/>심장병의 치료는 여러가지 현대의학적인 검사를 필요로 한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치료는 현대의학의 커다란 장점이다. 한의학적인 치료는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증상인 경우에 특히 장점이 있고, 치료를 계속한다면 양생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매력이 있다. 심장병 치료에서 현대의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의 장점을 각각 살려서 적절한 병행치료를 한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의사이면서 한의사들의 모임인 복수면허의사협회의 회장 나도균 원장은 말한다.<br/><br/><br/>한국아이닷컴 이슬 기자 dew0514@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37.txt

제목: MBC 여성토론 위드 "치매는 부끄러운 병이 아니다"  
날짜: 20140121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1100000089  
본문: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이 있다. 치매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대변해 주는 말이 아닐까. <br/><br/>실제로 얼마 전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아버지가 치매 부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보도돼 안타까움을 준 적이 있다. 이어 대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r/><br/>이 같은 상황에서 ‘MBC 여성토론 위드’에서 제기된 치매 관련 의료계 패널의 주장이 국내 현실을 잘 반영한 대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려대 전 신경과 교수 유재국 전문의(현 로뎀요양병원장)는 이날 패널로 출연해 한국사회에 팽배하게 자리잡은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br/><br/>유재국 전문의는 치매는 단지 병의 하나로 뇌가 점진적으로 손상되어 가는 질병이지 절대로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치매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가급적 숨기는 국내 정서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br/><br/>이어 치매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과 선입견에 대해 지적했다. 유 전문의는 “<span class='quot0'>간혹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면 아들도 걸리는 유전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오히려 환경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특히 유 전문의는 치매환자의 가족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심도있게 설명했다. 치매가 환자와 가족이 정서적으로 교감이 안 되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더욱 큰 고통을 준다는 주장이다. 그에 대한 사례로 암으로 투병하던 시어머니보다 치매를 앓았던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것이 훨씬 힘들었다고 말한 가족의 경우를 언급하며 환자와의 교감이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가족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지를 설명했다.<br/><br/>이 외에도 치매가족을 가택 간병이 아닌 요양원으로 보내는 일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죄의식을 가지지 말라고 당부했다. 유 전문의는 “<span class='quot0'>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이나 천식, 폐렴 등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 파킨슨병을 동반하는 치매 환자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런 환자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요양원이 환자에게 더 조건이 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토론을 마무리하며 유 전문의는 치매에 대한 선입견을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매’가 아닌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질의 경우 뇌전증이라는 명칭 변경을 통해 사회적 선입견을 없애고 인식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처럼 치매도 ‘뇌인지증’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도입해 치매에 대한 인식 전환을 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br/><br/>한국아이닷컴 이슬 기자 dew0514@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38.txt

제목: [채널 선택 1월 22일] 생로병사의 비밀·극한 직업  
날짜: 20140121  
기자: 강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1100000336  
본문: 자궁내막증·내막암의 원인·증상·예방법은■ 생로병사의 비밀(KBS1 밤 10.00)<br/><br/>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자궁내막증과 자궁내막암의 원인과 증상, 예방법을 알아본다. 출산의 고통과 비교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생리통은 자궁 내막조직이 파고들어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등 자궁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평소 심한 생리통을 겪고 있는 4명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진을 실시했다. 그 결과 3명에게서 자궁선근증과 자궁내막증이 확인됐다. <br/><br/>또한 자궁내막암도 국내 부인암 중 20년 사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자궁내막암은 수술을 통해 자궁과 난소를 들어내거나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하므로 가임기 여성에게는 치명적이다. 자궁질환 예방에 좋은 콩의 효능과 건강한 조리법도 알아본다. <br/><br/>영하 30도 설산서 겨우살이 캐는 약초꾼들■ 극한 직업(EBS 밤 10.45)<br/><br/>한겨울 추위를 뚫고 자라나는 신비의 약초가 있다.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겨우살이'다. 겨우살이는 벌거벗은 나뭇가지의 끝에 난 보물이다. 이 겨우살이를 채취하기 위해 약초꾼은 극심한 고초를 마다하지 않는다. <br/><br/>체감온도가 영하 30도를 웃도는 해발 1,000m 이상의 설산에 오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게다가 허벅지까지 쌓인 눈에 가파른 비탈길을 만나 평균 4시간여 산행을 해야 하는 강행군이 뒤따르는 일도 다반사다. 약초꾼들이 믿는 건 자신의 두 다리뿐이다. 산을 다 올랐다고 해도 한숨을 돌릴 수 없다. 30m 높이의 나무를 타야 하기 때문이다. 적은 수확물이지만 아찔한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br/><br/><br/><br/>강은영기자 kiss@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39.txt

제목: 건선원인, 겉이 아니라 속에 주목해야 한다  
날짜: 20140121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1100000235  
본문: 은백색의 비늘로 덮인 붉은색 발진이 전신에 나타나고 부위가 확산되는 증상이 발생한다면 건선을 의심해볼 수 있다. 건선은 피부의 암(癌)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확한 치료방법 없이는 치료가 쉽지 않은 피부질환이다.<br/><br/>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대인관계에서의 위축감을 줄 수 있어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더러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다른 만성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br/><br/>고운결한의원 서초점 이종우 원장은 “건선의 경우 여름이 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치료가 되었다 착각하고 방치하다가 만성으로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에게 건선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br/><br/>난치성피부질환을 치료하는 고운결한의원에서는 을 개발해 건선과 같은 난치성피부질환 치료율을 높이고 있다.<br/><br/>은 환자의 병리적·생리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건선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개개인에 맞춘 치료법을 적용하기 위한 진단법이다.<br/><br/>건선은 우리 몸의 면역력 교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부질환이다. 때문에 피부증상에만 연연하는 치료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내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한후 이를 바로잡아 줌으로써 우리몸의 자생력을 키워 피부증상을 회복하고 재발이 없게 치료를 해야한다.<br/><br/>한약, 침, 외용제를 환자의 체질적, 병리적 단계에 맞춰 개별적으로 맞춤 처방함으로써 건선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근본 원인 치료를 도모한다. 환자의 체질적 단점을 보완하고 환자의 면역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피부증상에 대한 치료와 내부적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 고운결한의원의 건선치료방법이다.<br/><br/>이종우 원장은 “건선은 우리 몸의 이상 신호다. 피부질환의 경우 피부의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문제점들이 피부로 나타나는 것인 만큼, 정확한 원인파악을 통한 내부적인 점검을 통해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br/> <br/><br/>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40.txt

제목: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유출시 최대 과징금 5억  
날짜: 20140120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20100000074  
본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br/><br/>안정행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br/><br/>오는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br/><br/>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br/><br/>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20일 배포하는 한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br/><br/>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도입이다. 이 규정에 따라 주민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이를 어기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br/><br/>이미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오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br/><br/>암호화와 백신 프로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접근 권한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br/><br/>또 이 같은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 안행부 장관이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명단에 대표자(CEO)나 책임 있는 임원을 올리도록 명시했다.<br/><br/>정부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 약 32만 곳 중 92.5%는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한편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진작에 했어야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치 대환영"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이제라도 다행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br/><br/>한국아이닷컴 이지영 인턴기자 enter@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41.txt

제목: 인류는 갈수록 진화한다는데… 왜 천식·암 환자는 많아지는 걸까  
날짜: 20140117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17100000172  
본문: 찰스 다윈이 에서 말한 것처럼 인류가 자연선택의 법칙에 따라 진화해왔다면 현재 우리의 유전자는 과거보다 우수해서 더 건강하고 질병에 덜 걸려야 마땅하다. 그런데 왜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비정상 면역 반응에 의한 질환이 늘어나고 있을까. 왜 암에 더 많이 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는 왜 그렇게도 많을까. 진화론의 논리대로 모든 생물학적 현상이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 나타난다면 오늘날 만연해 있는 인류의 질병도 유전자가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r/><br/>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인 저자는 진화론만으로 발병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변화한 환경에 유전자가 적응하지 못할 때 질병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수백만년 동안 수렵채집의 환경 속에서 살아온 인류의 유전자가 최근 1만년 사이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등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지 못하면서 질병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혈압, 당뇨병, 알레르기 질환, 암과 같은 질병이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저자는 이런 현상이 개인의 고통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위기라고 우려한다. <br/><br/>저자는 질병을 초래한 환경 요인으로 먹거리, 기후변화, 햇빛, 오래 달리기, 술, 담배, 산업혁명, 화석연료 등 8가지를 꼽았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에서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감염병이 강력한 생물 무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감염병뿐 아니라 오늘날의 질병 대부분은 인간이 초래한 환경적 변화에서 시작됐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오늘날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인류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br/><br/>권대익기자 dkwon@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42.txt

제목: 암 활동 멈추면 약 끊어도 될까… '기능적 완치' 연구 활발  
날짜: 20140116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16100000253  
본문: 40대 남성 이모씨는 올해로 약을 끊은 지 10년째다. 병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여느 건강한 이들과 별 차이 없이 생활한다. 검사에서 재발이 걱정됐던 적이 지난 10년 동안 두 번 정도 있었지만 다행히 치료 없이도 별 탈 없이 넘어갔다. 그가 앓는 병은 혈액암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이다. 몸에 암세포는 남아 있지만 희한하게도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얌전하다. 이렇게 오래 복약을 중단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이씨가 처음이다. <br/><br/>과거 불치병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만성골수성백혈병이 평생 약 먹으며 잘 관리하면 되는 만성질환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리고 이제는 조심스럽게 완치를 내다본다. 약 안 먹어도 암이 활동하지 않는 '기능적 완치'에 국제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br/><br/>암 같은 중병을 다루는 의사들은 완치라는 표현에 유독 민감하다. 다 제거된 듯 보이던 암이 환자도, 의료진도 모르는 사이 훌쩍 자라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그런데도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일본 등의 의료진이 복약을 중단하는 기능적 완치 임상연구를 진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환자는 항암제 복용의 부작용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br/>'기능적 완치'가 암세포가 다 제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약을 끊었는데도 암세포가 최소한만 남은 채 더 늘지 않고 증상이 안 나타나는 상태가 지속되는 걸 말한다. 암세포가 끊임없이 새끼 치며 증식하는 본래 기능을 안 한다는 얘기다. <br/><br/>올해로 5년째 국내 15개 병원과 함께 기능적 완치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김동욱 서울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팀은 "지금까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100명이 약을 끊었고 그 중 이씨를 포함해 약 70%가 약을 안 먹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재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용 중단 후 재발은 보통 6개월 이내에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다. <br/><br/>장기나 조직을 공격하는 모든 암세포는 암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실제로 단백질을 비롯한 체내 대사물질을 소비하며 새끼 암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건 전체 암 줄기세포의 약 1%에 불과하다. 나머지 99%는 휴지기 상태에 있다. 백혈병 치료제 등 항암제 대부분은 활동 중인 1% 암 줄기세포의 새끼들을 공격한다. 이렇게 항암제를 오랫동안 쓰다 보면 활동이 활발한 암세포는 거의 죽고 검사에서 암 유전자 수가 '0'으로 기록된다. <br/><br/>기능적 완치 연구는 바로 이런 환자들을 주목한다. 암세포가 존재하긴 하지만 장기 기능과 환자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활동하지 않은 채 얌전히 있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굳이 부작용 많고 비싼 항암제를 평생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환자의 면역력이 꼽힌다. 암세포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든 상황에선 새로 암세포가 생겨나더라도 면역세포가 알아서 제거한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 면역세포의 능력을 키우면 기능적 완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란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br/><br/>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몸 안에 암세포가 존재하는 한 항암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되고 완치로 봐도 안 된다는 것이다. 국제학계에서 기능적 완치 기준이나 지침이 나오지 않는 한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 암 유전자를 찾아내는 기술의 정확도나 예민도가 병원마다, 의료진마다 다르다는 점도 기능적 완치의 걸림돌이다. 약을 먹어야 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를 유전자 검사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br/><br/>기능적 완치 환자가 많아지더라도 진단 초기에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는 대다수 전문의가 동의한다. 김 교수는 "진단 직후 2, 3년은 암세포가 가장 많은 시기"라며 "이 기간 동안 환자 마음대로 약을 끊으면 암세포에 유전자 변형이 쉽게 일어나 약에 내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기능적 완치는커녕 치료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김 교수팀의 임상연구에선 표적항암제를 적어도 3년 이상 썼고 예민한 유전자 검사에서 2년 넘게 암 유전자가 나오지 않은 환자들만 약 복용을 중단했다.<br/><br/><br/><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br/> <br/><br/>▶▶▶ 관련기사 ◀◀◀<br/>▶ 완전 폐지 땐 환자 부담 줄지만 건보료 오를 수도<br/>▶ 환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만 100만원… 헉!<br/>▶ 성경험 탓? 은밀한 고통에 떨고 있는 처녀들<br/>▶ 은밀한 부위 아픈 여성 고민하게 만든 사연<br/>▶ 너무 많이… '월경과다' 그녀의 은밀한 고통<br/>▶ 가난한 남성, 부자 남성보다 10년 일찍 죽는다<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43.txt

제목: [이종구 교수의 따져보는 보건정책] 달에 간 것처럼 암 정복도 더 공격적으로  
날짜: 20140116  
기자: 이종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16100000255  
본문: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는 '문 샷(Moon shot)' 계획은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미션이었다.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는 이보다 앞선 1944년 '암을 퇴치하겠다'는 미션을 만들었다. 이 같은 담대한 사명을 가진 이 센터가 암 환자를 치료한 지 70년이 되면서 다시 문 샷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인류는 1969년 달나라에 갔지만 암 퇴치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 <br/><br/>한국에서는 매년 20만명 정도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7만명 이상이 사망한다. 완치율도 높아져 암에 걸린 사람 중 3분의 2는 5년 이상 생존한다. 암 통계가 만들어진 1999년 이후 암을 경험한 사람은 100만명이 넘는다.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환자는 각각 100%, 90%의 생존율을 보인다. 일반인의 생존율과 비슷하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의 암 관리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국립암센터와 지역 암센터 등 하부 시스템의 정비 및 연계, 치료비 지원, 강력한 조기 검진 사업, 금연 정책, B형간염 예방접종 등의 덕이다. <br/><br/>그래도 매년 2조5,000억원 이상의 암 진료비가 건강보험에서 나간다. 암 진료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면 더 많은 의료비가 지출된다. 근거 없이 혹세무민하는 의학 정보의 난무도 지출을 부추긴다. <br/><br/>과학적으로 보면 암은 예방 가능한 부분이 많다. 암 환자의 30%는 생활습관과 식이습관에서 비롯됐다. 20%는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다. 나머지 50% 중 일부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하면 일반인과 비슷하게 지낼 수 있다. <br/><br/>암으로 인한 공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달에 사람을 보낸 것처럼 적극적으로 암을 퇴치시키겠다는 것이 미국의 '문 샷 프로그램'이다. 우리도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br/><br/>먼저 흡연, 비만, 과도한 음주, 건강을 해치는 식이 습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암 환자 30%의 예방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B형간염과 자궁경부암 같이 예방 가능한 암은 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해 적기에 백신을 접종토록 한다. 셋째,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검진 사업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근거 중심의 검진이 되도록 개선한다. 넷째, 재난적 의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검사와 약제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암을 경험한 100만명을 잘 관리하고 이들의 경험을 암 예방과 연계시킨다. 여섯째, 그럼에도 여전히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상과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암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해 낭비 요인을 줄인다. 마지막으로 암 진료비의 10%는 과학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개발에 사용하고 정확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br/><br/><br/><br/>이종구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br/> <br/><br/>▶▶▶ 관련기사 ◀◀◀<br/>▶ 완전 폐지 땐 환자 부담 줄지만 건보료 오를 수도<br/>▶ 환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만 100만원… 헉!<br/>▶ 우리 동네 정신병원이 달라졌다<br/>▶ 성경험 탓? 은밀한 고통에 떨고 있는 처녀들<br/>▶ 은밀한 부위 아픈 여성 고민하게 만든 사연<br/>▶ 가난한 남성, 부자 남성보다 10년 일찍 죽는다<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44.txt

제목: 암환자의 발기부전, 해결책은?  
날짜: 20140116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16100000056  
본문: 의료기술의 발달로 각종 암에 걸린 환자들의 생존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전립선암, 대장암 및 직장암 등의 골반 내 종양도 마찬가지. 그 병기에 관계 없이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다. <br/><br/>현재 대부분의 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에서 생존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줘 있다. 하지만 암에서 생존한 대한 대가는 여러 형태로 찾아오곤 한다. 그중 남성에게 가장 큰 고민을 안겨주는 것은 발기부전이다. 이러한 남성 암환자의 생존 후 삶의 질 관리는 아직 요원한 상태다. <br/><br/>암 치료 후 발기부전이 생기는 원인은?<br/><br/>전립선을 비롯한 대장, 직장 등 골반 내 종양의 치료 후에는 요추와 천추에서 나와 음경으로 향하는 자율신경계 및 음경으로 향하는 혈관의 손상이 암 제거 수술 중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수술 후 발기부전이 병발하는 것. <br/><br/>최근에는 로봇 수술 등 술기의 발달로 예전보다 수술 후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환자는 적지 않다. 이 같은 경우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신경 및 혈관의 회복을 기다려 볼 수 있지만 1년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발기력이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br/><br/>이러한 발기부전은 남성으로서의 자존감 상실, 사회적 자신감 하락, 부부관계의 악화 등 다양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br/><br/>이에 미국 Institute of Urologic Excellence에서 골반 내 종양으로 인한 발기부전 환자들을 위한Coloplast Prosthetic urology Global Training(음경 보형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발기부전클리닉 세움비뇨기과 박성훈 원장을 통해 암환자의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 알아봤다.<br/><br/>암 치료 후 발기부전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br/><br/>비교적 간단한 치료인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나 발기부전 주사 치료제가 있지만 골반 내 종양 수술 후 신경, 혈관이 모두 손상되어 이러한 동맥성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법은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r/><br/>가장 확실한 치료법으로는 ‘음경 보형물 삽입술’이 있다. 기능을 상실한 음경 해면체를 대신해서 음경에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환자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나 발기가 가능하며, 사정, 피부 감각, 쾌감 등이 그대로 유지되어 자연스러운 성생활이 가능하다. <br/><br/>이러한 음경 보형물에는 굴곡형과 팽창형 두 종류가 있다. 굴곡형 보형물은 항상 발기 상태가 유지 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나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달리 조작이 필요 없어 사용이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에는 강직도를 개선한 제품이 출시돼 활용되고 있다. <br/><br/>팽창형 보형물은 수압으로 작동하는 음경 임플란트로 발기부전 환자 및 배우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료법이다. 자연스러우며 펌프 조작이 간단해 사용이 쉽고 특히 음경의 최대 굵기와 길이를 회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최근 기구의 개선 및 술기의 발달로 연령과 수술 등의 과거 병력에 큰 제한 없이 수술 받을 수 있다.<br/><br/>발기부전 수술 후 환자와 배우자들의 반응은?<br/><br/>미국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팽창형 보형물 수술 후 환자 및 배우자는 발기부전 치료 중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br/><br/>실제 미국에서는 매년 최소 2~3만 명의 환자가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전립선암 수술 후 음경 보형물 수술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도 전립선암을 비롯한 대장암, 직장암 수술을 받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음경 보형물 수술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br/><br/>세움 비뇨기과 박성훈 원장은 “<span class='quot0'>암 환자의 발기부전 문제는 수술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수술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임에도 서로 쉬쉬하다가 남성으로서의 자신감 상실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span>”며“<span class='quot0'>전립선암 등의 골반 내 종양 수술 후에는 골반의 해부구조가 변하여 수술이 까다롭기 때문에 발기부전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곳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br/><br/><br/>한국아이닷컴 이슬 기자 dew0514@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45.txt

제목: 대한민국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는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날짜: 20140115  
기자: 송원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15100000040  
본문: 약학대학,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의과학 및 의료보건 특성화 <br/><br/>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는 2012년 가천의과학대와 경원대가 합쳐저 새롭게 출범한 이후 2020년 10대 명문사학 진입을 목표로 도약중이다. 박애·봉사·애국의 건학이념 아래 글로벌캠퍼스(성남)와 메디컬캠퍼스(인천) 2개 캠퍼스에 16개 단과대학, 75개학과에 2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br/><br/>가천대는 대학 특성화 발전을 위해 ‘G2N3+GL’ 전략을 내세웠다. 가천대가 보유한 세계 수준의 선도적 연구기관인 뇌융합과학원과 이길여암·당뇨연구원을 중심으로, 영상의학과 첨단 의료기기 분야, 난치성 질환 치료 신약 개발 분야 등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달성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기반(G2)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국가 선도적 연구 분야 3개(N3)를 중심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 경영 분야, 건축 및 예술문화 분야, 공공 분야에서 차세대 사회지도자급 인력(Global Leader·GL)을 양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는 입학정원 525명에 재학생수 3,896여명으로 약학대학,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이 설치돼 있으며 의과학 및 의료보건 분야를 특성화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각 부문 우수 교수를 초빙하고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연구능력이 뛰어난 교수에게는 강의책임시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주고, 연구정착금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각종 장려책으로 연구역량을 끌어 올리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는 물론 제2외국어인 중국어, 일본어 등 2~3개의 언어를 원활히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취업률 100%를 위해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교생이 하나 이상의 전공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적극 장려해 2012년도 간호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합격률이 100%, 응급구조사·방사선사 96% 등으로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br/><br/>1) 간호대학<br/><br/>간호학과는 명실상부한 우수 간호인력 배출의 요람으로 졸업생들은 보건소, 학교, 정부 행정기관, 국내외 병원 등의 각계각층에서 인정을 받으며 활약 중이다. 현재 간호대학 교수는 22명이다. 재학생의 수는 876명으로, 2012년 경원대 간호학과와의 통합이후의 학생 수는 한 학년 당 235명이며, 2014년부터 신입생 정원이 증원돼 255명이다. 또한 가천대학교 간호대학원 내에 노인·마취·응급·종양 전문 간호사 과정이 개설됐으며, 마취 전문간호사 과정은 전국에서 가천대가 유일하다.대부분의 실습은 가천대길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간호학, 모성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등 특수 분야는 전문실습지를 확보해 실습하고 있다.2010~2012년 3년 연속 국가고시 100%의 합격률을 기록 중으로 전체 학생 중 남학생 비율은 10~15% 정도다.<br/><br/>2) 보건과학대학-의공학과<br/><br/>의공학과의 의공학(Biomedical Engineering, BME)이란 인체를 진단하는 의료용 센서(DNA, 단백질, 세포, 조직, 심장 질환 검출 등), 진단장비(MRI, CT, X-선, 초음파 영상장치 등)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치료용 전열기, 마이크로파, 원격 의료시술용 로봇 등)을 개발 및 연구하는 학문이다. 현재 총 재학생의 수는 165명으로 모든 학생이 지도교수와의 1학기 3회 이상의 상담으로 개인상담 및 취업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공기사 자격증 취득 특강과 취업진로를 위한 특강이 매년 개설되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br/><br/>학생들은 4학년 여름방학 때 실습이 이루어지며 대부분 이길여암당뇨연구원, 뇌융합과학원, 길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br/><br/>이 밖에 의공학과 국내외 의료기기 업체, 연구소, 병원 의공팀 등에서 인정을 받으며 공학도로써 활약을 하고 있다.<br/><br/>3) 보건과학대학-응급구조학과<br/><br/>응급구조학과는 전국 10개 응급구조학과 중 하나로 응급처치에 관한 과학적 의료지식과 실무 중심의 기술을 교육하여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초의학과 전문 응급의료관련 이론을 교육함은 물론 응급처치 관련기관에서 현장 실무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br/><br/>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학교 측과 실습 연계를 맺은 10여 개 의료기관 및 인천관내 소방 안전센터에 실습생 자격으로 파견된다. 학생들은 4학년 2학기에 시행되는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응급구조사1급)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후 권역, 전문, 지역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 의료기관에서의 전문인력으로 일할 수 있으며, 임상경력을 토대로 소방공무원(119구급대)과 보건직 공무원 및 소방안전관리사(공무원)로도 진출할 수 있다. <br/><br/>4) 보건과학대학-방사선학과<br/><br/>방사선학과는 가천대 길병원과 뇌융합과학원, 이길여암·당뇨연구원와 연계하여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초음파, 방사선 치료 기술학, 소동물 단층촬영 등 기초 방사선 과학 분야와 임상 분야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br/><br/>특히 가천대 길병원에서 첨단의료 장비들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으며 담당 교수진이 임상에서 실무를 직접 적용, 지도하는 등 임상실습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국내ㆍ외 의료기관(종합병원ㆍ병원ㆍ의원), 보건소, 보건직공무원, 의료장비 및 방사성의약품판매회사, 보험회사 대인 보상팀, 의료영상전송(PACS)관련회사 등에 종사하게 된다. 졸업 후 취득 가능한 면허증 및 자격증으로는 방사선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및 방사선 취급감독 면허, 관리사, 의학물리사, 임상초음파사 등이 있다. <br/><br/>5) 보건과학대학-치위생학과 <br/><br/>치위생학과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원리와 방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교육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유능한치과위생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가천대 길병원 치과센터를 비롯한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 의료기관의 지도 치과위생사와 협의를 통해 임상실습 프로토콜을 제작하여,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높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한 구강보건활동을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능력 개발을 지향하고 있으며, 학생 전담 지도 교수제 및 1:1 전문가 멘토링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향상과 더불어 전문적인 진로구축에 힘쓰고 있다. 2009년부터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치위생학 전공의 석사과정을 개설 운영하면서 치위생학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정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치위생학계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br/><br/>6) 보건과학대학-물리치료학과<br/><br/>물리치료학과는 질병이나 외상으로 손상을 입은 환자의 신체적, 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해 개설된 인천 유일의 학과이다. 물리치료학은 의학 전반에 걸쳐 다뤄지고 있으며, 인체의 생리 및 기능에 대한 구조적 이해도가 높고 의학의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 기술을 교육하는 의료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br/><br/>국내외의 급격한 임상, 교육과 연구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임상과 연계된 첨단화된 물리치료 신기술과 이론을 통한 물리치료 기술을 연구, 개발, 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br/>또한 다년간 경력을 갖춘 물리치료학 전공 교수진들이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가천대 길병원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향후 임상분야로의 진로가 밝다. 물리치료학과 졸업 후 기능장애를 입은 환자들이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물리치료사를 활동할 수 있으며 물리치료사의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국가고시 100%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물리치료학과는 면허취득자는 국내외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거나 병원, 재활센터, 스포츠구단 등 여러 기관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br/><br/>7) 보건과학대학-운동재활복지학과<br/><br/>운동재활복지학과는 2012년 국내 최초로 운동재활을 통한 건강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과이다. <br/><br/>우리나라가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과 더불어 장애인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운동재활과 건강운동을 지도 할 전문 인력양성은 시대적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책무는 국가주도의 건강복지차원에 인력양성이 절실히 요구 된다. 또한 웰빙 욕구증가 및 여가시간 증가, 신체활동의 기회 감소 및 각종 스트레스에 의한 만성적인 질병과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면서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br/><br/>이에 본 학과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운동재활전문가를 양성하여 건강복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재활을 통한 건강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이론과 실기교육을 시킴으로써 실전형 운동재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복지사회로의 구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br/>8) 약학대학<br/><br/>약학대학의 ‘G-ACE Program’(Global, Green, Gachon and Gil Adventure, Creativity, Excellence)은 선택과 집중, 글로칼리제이션, 의무와 경쟁의 개념을 적용한 교육과정이다. 학부교육과정인 3년차의 전문화기반 교육과정(G-A: Gachon Excellence Progam)을 골자로 연구·임상약사를 중점 특성화 분야로 선정, 보다 차별화된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약학대학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 약학인 양성을 위해 졸업논문 작성을 의무화하고, 건학이념인 박애·봉사·애국의 실현을 위해 재학 중 30시간의 봉사활동이 졸업요건이다. 1, 2학년 학생에겐 전액 장학금을, 연구 및 임상약사 트랙을 선택한 3, 4학년에겐 전액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다른 대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학생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천연물신약(한의과대학) 및 첨단약물제제개발(바이오나노대학)에 관한 인프라를 확립, 세계적 수준의 의약·생명과학·특성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br/><br/>뇌융합과학원, 이길여암·당뇨연구원 등 기초과학 아낌없는 투자 <br/><br/>가천대는 이길여 총장의 굳은 의지 아래 총 1,800억원을 들여 뇌과학연구소(2004년), 바이오나노연구원(2007년), 암당뇨연구원(2008년)을 잇달아 설립하는 등 매년 기초과학 연구분야에 파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설립된 뇌과학연구소는 MRI와 PET를 혼합한 ‘7T PET-MRI’를 이용해 초정밀 뇌신경 지도 제작에 성공했다. 이 지도는 뇌 부위 등을 구조적으로 영상화한 기존 뇌지도를 넘어 뇌신경다발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어, 수술 좌표는 물론 뇌질환을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3월 뇌과학연구소, 치매·파킨슨병연구소, 정신건강연구소, 뇌질환 유전체 연구소, 나노의학 연구소, 테라그노스틱 컴파운드 개발연구소 등을 총 5개 연구기관을 한 곳에 모은 뇌융합과학원을 설립했다.향후 인재 양성을 위한 뇌융합대학원과 연구업적의 신속한 임상적용을 위한 뇌병원도 설치할 예정이다.지난 2008년 설립된 이길여암당뇨연구원은 마우스 대사질환특화센터,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확장증 연구센터, 실험동물센터 등 국내외에서 독보적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인천 유일의 바이오 분야 연구교육기관으로 만성질환인 암과 당뇨의 정복을 위해 국내 최대 실험용 설치류 실험센터를 설립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전임상 실험을 시행해 암, 당뇨의 치료를 현실화 시키고 있다. 암당뇨연구원은 지난 2009년 5월 국내 최초로 한국인의 게놈 지수를 작성했으며, 최근에는 손쉽게 암을 진단하고, 암의 진행단계는 물론 예후까지 판별할 수 있는 진단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조직검사로는 종양의 악성·양성 여부만을 판별 하지만 새로 개발된 진단법은 단 하루만에 종양의 예후, 전이 가능성, 치료효과가 좋은 약 등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암당뇨연구원은 현재 하버드대, 예일대, 존스홉킨스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석 플로리다 주립 의과대학 교수와 진행하는 유전성출혈성모세혈관확장증에 대한 공동연구도 그 가운데 하나다.<br/><br/><br/><br/>송원영기자 wysong@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46.txt

제목: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마음 상처까지 `힐링`  
날짜: 2014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1410013214210  
본문: 갑상선암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여성암이 바로 유방암이다. 이처럼 유방암은 가장 흔한 여성암 중 하나다. <br/><br/><br/><br/>유방암으로 유방을 절제한 사람들은 회복 후에도 일상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는다. 여성성의 상실로 인한 좌절감이나 수치심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자존심을 다치는 일이 많고 대인관계는 물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쉽다. <br/><br/><br/><br/>이러한 문제 때문에 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이 가슴을 복원하는 유방재건 수술을 받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최근 보형물 삽입이나 자가지방이식 수술 등으로 인해 과거의 모습과 유사한 가슴을 재현할 수 있게 되어 유방재건술의 전망도 밝은 편이다. <br/><br/><br/><br/>수술방법은 종양제거와 함께 동시에 시술하는 즉시재건술과 유방암이 완치판정을 받은 후 시행하는 지연재건술 두 가지로 나뉜다. 조기에 발견된 암일 경우 즉시재건술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병원의 전문의가 유방암수술 시에 심사숙고해 결정할 문제다. 또 경우에 따라 수술 후에 방사선 요법이나 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건수술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유방암 환자가 선택할 수 없다.<br/><br/><br/><br/>지연재건수술은 유방암 치료가 종료된 후에 재발 위험에서 벗어난 다음에 받게 되는 수술을 말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지연재건수술을 받으며 수술 시에는 남아있는 유방조직의 상태와 방사선 치료 유무, 환자의 개인적인 요구 등을 고려하여 자가조직, 자가지방 혹은 보형물 삽입을 결정하게 된다.<br/><br/><br/><br/><br/><br/><br/><br/><br/><br/> <br/> <br/><br/><br/>유방재건술은 정상 가슴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모양의 가슴을 만드는 것이 목표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 측 가슴 모양을 변화시켜서라도 양쪽의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기도 한다. 보형물이나 자가지방 재건은 간단히 입원하지 않고 시술이 가능하다.<br/><br/><br/><br/>보형물 삽입술은 실리콘백, 코헤시브겔백(코젤백) 등 보형물 삽입을 통한 수술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로 대흉근과 소흉근 사이에 실리콘백을 이식하는데 수술이 간단하고 다른 신체 부위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남아 있는 한쪽 정상 유방과 모양이나 촉감이 다를 수 있다는 한계와 구형구축(보형물 주위조직이 단단해짐)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br/><br/><br/><br/>자가지방이식술은 유방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 동시에 허벅지나 복부 등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어 최근 많이 찾는 방법 중 하나다. 어떤 수술이 적합한지는 환자의 나이, 체형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한다. <br/><br/><br/><br/>유방재건술은 잃어버린 가슴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유방암 환자의 여성성을 회복해주는 일종의 심신재활치료법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한다.<br/><br/><br/><br/>유방암의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유방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인 외과적인 가슴 절제 후 삶의 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많은 환자들이 절제술 후 유방재건술에 따른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재건을 포기 하는 경우도 있다.<br/><br/><br/><br/>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방암 수술에 따른 치료목적의 가슴 성형은 부가가치세를 면제시켜 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의료실비보험 중 일부 상품에서 유방재건수술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오는 2016년에는 유방재건술 치료비의 일부를 건강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br/><br/><br/><br/>유진성형외과 강태조 원장은 "유방암에 따는 절제술을 받은 많은 환자들이 가슴 상실에 대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방재건수술은 단순 미용의 목적이 아닌 가슴을 상실한 여성들의 자신감도 되찾고 정신적인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이다"고 말했다.<br/><br/><br/><br/>이어 강태조 원장은 “<span class='quot1'>보통 암 초기나 재발이 적은 경우 암 제거와 함께 즉시 유방재건술을 시행하지만, 즉시재건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며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의료실비 등 꼼꼼히 체크한 다음 수술을 받는다면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br/><br/>한국아이닷컴 김동찬기자 dc007@hankooki.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47.txt

제목: [뷰티]가슴 재건 수술 전 반드시 알아봐야 할 항목은?  
날짜: 2014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14100000053  
본문: 해마다 1만여 명의 유방암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여성 암 가운데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유방암은 자궁근종과 골다공증 등과 함께 여성의 3대 질병 중 하나로 꼽힐 정도이다. <br/><br/>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방 절제수술이 진행되는데, 이때 여성의 상징인 가슴을 잃게 된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여성들은 건강을 되찾아도 상실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이런 여성들이 유방재건 수술을 위해 성형외과를 찾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는 유방재건수술 치료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br/><br/>유방재건 수술을 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이다. 이는 남아 있는 유방조직의 상태와 방사선 치료 유무, 환자의 개인적인 요구 등을 고려해 수술방법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3D 스캐너 촬영을 통한 3차원적인 촬영으로 재건수술 전후의 가슴 형태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수술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유방 재건수술 방법에는 보형물 재건, 자가조직 이식술, 지방이식술 등이 있다. <br/><br/>보형물 재건수술은 유방 손실이 적은 경우와 유방 손실이 심한 경우로 나눠 진행된다. 유방 손실이 적은 경우는 조직 확장 기간 없이 바로 보형물 삽입이 가능하며 유방 손실이 심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3~6개월 이상의 조직 확장 기간을 거쳐 물방울 보형물을 삽입한다. <br/><br/>자가조직 이식술은 조직 확장 기간 없이 바로 배꼽 이하 부위의 피부와 피하조직을 이용하여 유방 재건을 하는 수술법이다. 주로 보형물을 사용해 재건하기 어려운 심한 함몰이나 방사선 치료 등으로 회복 불가능한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 적합하다. <br/><br/>간편한 지방이식술도 있는데, 브라바를 사용하는 경우 4주간 최소 16시간 이상 브라바를 착용한 후 확보된 공간에 지방을 이식하며, 브라바 없이 하는 경우에는 부분 함몰 등 변형이 경미할 땐 바로 지방이식이 가능하다. <br/><br/>BR바람성형외과 선상훈 원장은 "유방 재건 수술은 유방암 수술과 함께할 경우, 수술 후 심리적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수술 후 새로운 가슴과 정신적인 만족감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으며, 많은 여성이 유방재건술 후 재발한 종양이 늦게 발견되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다면 유방 재건 시술과 종양의 판독 여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br/><br/>선 원장은 “<span class='quot1'>유방 재건수술을 하기 전 반드시 알아봐야 할 항목으로 유방재건 경험이 많은 병원인지, 수술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취과 의료진이 있는지, 다양한 재건 방법을 쓸 수 있는 병원인지를 꼭 체크해봐야 할 것</span>”이라고 조언했다. 포춘코리아 온라인뉴스팀<br/><br/><br/><br/>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48.txt

제목: 추운 겨울철 머릿속의 시한폭탄, 뇌동맥류  
날짜: 20140113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13100000071  
본문: 추운 겨울이 되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게 되면 연로하신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 바로 뇌혈관질환이다.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우리 몸의 혈관은 수축되기 때문에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뇌혈관질환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br/><br/>그 중에서도 머릿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뇌동맥류는 뇌의 혈관에 생기는 뇌혈관질환의 일종으로 혈관벽의 한 부분이 약한 부위가 생겨 마치 작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한다.<br/><br/>이렇게 혈관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는 대부분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어느 순간 이것이 파열되어 소위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게 되면 극심한 두통, 구토,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갑작스럽게 일생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과 구토가 수반된다면 뇌동맥류 출혈을 의심하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br/><br/>뇌동맥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약한 혈관 부위에 혈류가 계속적으로 부딪혀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데 50~60대에 가장 많이 발견된다. 일단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발병자의 거의 반수가 병원에 도착 전에 사망하거나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병이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약 50% 정도가 치료도중 사망하거나 구명하더라도 중증의 장애를 가지게 되는 매우 무서운 질환이다.<br/><br/>이런 위험한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에는 전혀 증상을 느낄 수 없어 조기발견이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영상기술의 발달로 고자장 자기공명장치(3T MRI)를 이용한 뇌혈관검사(MRA)를 통해 뇌와 뇌혈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br/><br/>그 중에서도 명진단영상의학과는 뇌·심장혈관질환검진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여 대학병원급 3T MRI를 도입하여 화제가 된 곳으로 배민영 원장의 꼼꼼한 검사와 판독으로 작지만 강한 병원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3T MRI의 경우 기존의 MRI와 다르게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어 조영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년 경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판독을 해주는 곳으로 5,000여건의 다양한 암과 뇌·심혈관 진단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br/><br/>명진단영상의학과 배민영 원장은 “뇌·심혈관질환은 급성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고혈압, 당뇨, 가족력이 있다면 40대부터, 늦어도 50대 부터는 뇌·심혈관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 고 말한다.<br/><br/>이렇게 뇌혈관검사를 통해 뇌동맥류를 조기진단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뇌동맥류의 크기가 2mm 이하인 경우에는 추적검사와 체중조절 등 혈관관리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보다 큰 경우 차후 생길 수 있는 파열에 의한 재앙을 막는 차원에서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뇌동맥류의 치료는 동맥내로 직접 접근하여 특수 코일로 파열된 부위를 막기도 하고(혈관내 색전치료술) 혹은 직접 개두술을 시행하여 동맥류를 묶어주거나(클립결찰술) 혈관기형을 제거하기도 한다.<br/><br/>뇌동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스트레스, 과체중, 운동부족 등의 위험요인이 되는 생활습관을 교정해서 혈관건강을 지키고 평소 증상이 없더라도 뇌혈관의 상태를 진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br/><br/>한국아이닷컴 이슬 기자 dew0514@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49.txt

제목: 삶의 마지막… 그러나 죽음 없인 삶도 없다  
날짜: 20140110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10100000108  
본문: 죽겠다는 말, 참 흔히들 한다. 하기 싫어 죽겠고, 보고 싶어 죽겠고, 귀찮아 죽겠단다. 자기 앞에 닥친 상황을 '죽음'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전달하는 데는 그만큼 견뎌내기가 힘들다는 걸 상대방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을 것이다. <br/><br/>하지만 물리학의 관점으로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체에게는 죽음이 삶보다 덜 힘든 상태다. 요즘처럼 추운 날 창을 열어놓은 채 난방 하는 집, 우리 몸이 딱 그런 상황이다. 밖에서 끊임없이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와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집 안의 난방 시스템은 쉴 새 없이 가동돼야 한다. 이런 무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난방 시스템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어느 순간 멈춰버린다. 그때부터는 집 안과 밖이 온도가 같은 균형 상태를 이루게 된다. 과학자인 저자들의 눈에는 난방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이 인체로 치면 죽음이다. <br/><br/>실제로 우리 몸의 난방 시스템은 주인이 모르는 사이 야금야금 낡아간다. 난방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 중 고장 나거나 수명을 다한 것들이 매일 약 100억개씩 죽는다. 눈의 망막 세포는 단 10일, 피 속 적혈구 세포는 120일, 폐 세포는 400~500일 일하다 사라진다. 이들의 자리를 새 세포가 대체하지만, 이런 '작은 죽음'들은 결국 언젠가 '완전한 죽음'으로 이어진다. 완전한 죽음을 맞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른 게 불공평해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죽음은 자연스럽다. <br/><br/>는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까지 샅샅이 파헤쳐 놓았다. 부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아야 할 때 난방 시스템의 처절한 몸부림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한다. 영양 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장기를 공격해 식민지화하는 암세포의 제국주의적 행태,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에 공격 당한 세포들이 침입자를 몰아내기 위해 일으키는 치열한 전투, 쥐약에 들어 있는 독 성분을 만나 온몸의 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이다 호흡기관이 멈춰서기까지 과정 등이 눈 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br/><br/>암을 비롯한 수많은 병, 각종 미생물과 독 등은 저마다의 노하우로 난방 시스템을 여지 없이 무너뜨린다. 인체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말 그대로 기적 같을 뿐이다. 교통사고나 고문, 사형, 살인처럼 더욱 부자연스러운 사망마저 보태면 죽음의 기제는 한층 다양해진다. <br/><br/>방부 조치나 화장을 하지 않은 시체는 사후 이틀 정도 지나면 맹장 근처 피부에 초록색 반점이 나타난다. 부패가 시작됐다는 신호다. 시신의 내장을 이미 미생물이 장악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책에 따르면 '지구에서 생명 모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조하는 원자들을 지구 생태계에 제공'하는 단계다. '삶을 위한 죽음'이란 제목처럼 말이다. <br/><br/>이토록 다양한 죽음에 잘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따윈 없다고 저자들은 책 말미에서 못 박는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의 말처럼 "사람들은 마치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살며, 절대 살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죽는다"고.<br/><br/><br/><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50.txt

제목: 폴란드산 ‘아로니아’의 효능을 아시나요  
날짜: 2014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10100000084  
본문: SBS 생방송투데이가 10일 폴란드산 아로니아의 강력한 항산화 효능에 대해 소개한다.<br/><br/>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관목인 아로니아는 작고 검은 자줏빛의 신맛이 나는 열매로 블랙쵸크베리 또는 쵸크베리로 불리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이미 그 효능을 인정 받고 있다.<br/><br/>아로니아는 어디서든 잘 자란다고 알려져 있지만 특히 영하 20도의 추위와 5개월간의 우기 없는 강렬한 자외선을 받는 가혹한 환경에서 최적으로 자생하며, 성장 과정에서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을 많이 축적하게 된다.<br/><br/>웰파인 아로니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자연 환경이 가장 좋은 폴란드에서 아로니아를 대량 생산해 낼 수 있어 대규모 상업적인 재배를 통해 전 세계 생산량의 95%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국내에도 원액 엑기스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특히 폴란드산 아로니아에 들어 있는 안토시아닌은 포도의 80배, 야생 블루베리의 33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안토시아닌은 암·당뇨 등 중증 질환이나 인체 노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는 활성 산소를 중화시키는 작용이 매우 뛰어나다. 토코페롤보다 5~7배 강한 효과를 보여 눈의 피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와 야간 시력 장애 등에도 효과가 있다. 항 당뇨 효과, 소염 및 살균작용, 치매 예방 등 노화 방지는 물론, 피를 맑게 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 고지혈증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br/><br/>웰파인 아로니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아로니아 농축액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폴란드인은 많은 육류 섭취에도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매우 적기 때문에 ‘폴리쉬 패러독스’라고도 알려져 있다</span>”고 소개했다. 생방송투데이에선 아로니아 농축액을 매일 보약처럼 섭취하는 것이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포춘코리아 온라인뉴스팀<br/><br/><br/><br/>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51.txt

제목: [문화산책/1월 11일] 집을 구하러 다니며  
날짜: 2014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10100000143  
본문: 이사 때마다 집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 방 두 칸에 가족과 비비고 살만한 공간 하나를 찾는 일이 서울 바닥에선 고약한 일이다. 십 년이 넘게 나는 일 년에 한번 꼴로 이사를 해왔는데 올해는 유난히 이사가 버겁게 느껴진다. 아마도 내 거주지에서 손가락이 열 개이고 발가락이 열 개이며 잇몸이 붉은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방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가 다가오면 더럭 겁이 난다. 나는 시인인데 원고 마감보다 방 계약 마감이 아직 더 두려운 사람이다. 집주인은 편집자보다 전화는 잘 받고 친절한 사람이다. 하지만 편집자와는 달리 생떼를 써도 안 되고 핑계는 안 통하는 사람이다. 월세가 하루만 늦어도 그는 밤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다. 초인종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귀를 쫑긋하는 사람은 기어 다니는 아가다. 문을 열어주면 주인은 내게 어깨동무를 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한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다. 면회하고 돌아온 수인처럼 나는 아이의 장난감을 들고 쓴웃음이 난다. 부부는 돌아누워 이불을 뒤척이는 소리만으로도 저 사람이 잠이 잘 안 오는 모양이구나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내도 잠이 잘 안 오는 모양이다. <br/><br/>살았던 공간까지 데리고 함께 떠날 수 없는 것이 이사다. 짐도 버리고 갈 수 있다. 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데리고 떠나야 한다. 처음부터 내 것은 아니었으니 비워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아내와 아이는 처음부터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게 좀 미안하고 어이없어서 세상에 버럭 화를 내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다. 이 집을 떠나야 할 이유를 서로에게 설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린 조금 더 쓸쓸해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계약되었으니 집을 비워주고 새집을 찾아야 한다. 매년 앞에 놓인 간단한 사실이지만 십 년 동안 해법을 찾지 못했다.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기분이 망가진다. <br/><br/>"딱 한 집에서 5년만 살아봤으면…." 아내도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 생각이 같아지는 순간들이 있나 보다. 올해는 유난히 날씨도 춥고 방이 쉬이 구해지지 않는다. 전셋값이 폭등했고 집을 비우려면 들어올 사람을 구해야 하고, 가진 보증금으로 들어갈 집을 찾아야 한다. 아이를 오전에 어린이 집에 보내고 아내와 나는 각각 흩어져서 부동산정보를 통해 매물이 나왔다는 집으로 향한다. 핸드폰으로 서로가 지금 보고 있는 집 사진을 찍어 보낸다. 구석구석 찍어 보낸다. 받아보는 사진 속 타인의 살림들을 보면 심란해진다. 집을 구하기 위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 방을 볼 때마다 그들의 애살스러운 삶의 결들 앞에서 눈을 돌리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다. 세척이 안 된 식기들. 체모가 남아있는 이부자리. 아이들의 장난감. 구도 속에 흩어진 낯선 살림들의 풍경들을 찍어 보내야 한다. 방금 전까지 식솔들이 나누었던 온기들이 타자에 의해 노출되어지는 순간 누군가의 삶을 훔쳐보는 일은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니다. 우리와 같은 시세에 살림을 갖추고 사는 구석구석을 바라보는 일이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공간에서 산다면 이 정도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겠지? "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아내와 나는 분위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잘 파악하며 견딜 수 있을 것이다. <br/><br/>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자신이 가진 물성의 조건이 객관화되는 경험을 여러 번 목격 해야 한다. 처음엔 짜증이 나다가 조금씩 받아들인다. 최상보다는 최악을 피해 보자는 심사로 투표하던 기분으로 우리 살림이 들어가야 할 방을 인정한다. 암환자는 병을 살림의 일부로 받아들이기까지 짧아도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암세포는 어디선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 세포의 일부였음을 받아들일 즈음 삶에게도, 죽음에게도 더 이상 떼를 쓰고 싶어지진 않을 것이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언젠가 살고 싶은 집을 구경 좀 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지금 장난치세요?" 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살고 싶은 집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가 장난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마감을 하듯이 집을 구하러 다닌다. 한 달 후 나는 어느 집에선가 다시 원고 마감을 하기 위해 끙끙거리고 있을 것이다. 마감 기념으로 부엌에서 아내와 블루스를 출 것이다.<br/><br/><br/><br/>김경주 시인ㆍ극작가 <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52.txt

제목: ‘꿈의 암치료기’ 부산 첫 도입  
날짜: 20140109  
기자: 강성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09100000066  
본문: 방사선보다 치료율이 월등히 높아 ‘꿈의 암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부산 기장군에 설치된다. <br/><br/>기장군은 10일 오후 3시 장안읍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옆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입자치료센터 착공식을 연다. <br/><br/>센터는 1,950억원을 투입해 8만8,139㎡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2016년 하반기 개원할 예정이다.<br/><br/>센터에는 빛의 70% 속력으로 가속된 탄소입자가 인체 내 암세포만 정확하게 파괴하는 첨단 의료기인 중입자 가속기가 설치된다.<br/><br/>중입자 가속기는 기존 방사선과는 달리 암 부위 도달 전에는 20~30% 가량의 방사선량을 전달하고, 암 부위에는 나머지 70~80%의 방사선량을 전달해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파괴한다.<br/><br/>때문에 정상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이 암 치료가 가능하다. 또 치료과정에 통증과 후유증이 거의 없고 두경부암, 폐암, 간암, 골육종 등 난치성 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중입자 치료 선도국인 독일과 일본의 과거 10여년의 중입자치료 임상결과를 보면 암 종류에 따라 50~90%의 생존율을 나타냈다.<br/><br/>기존 방사선 치료는 전체 치료기간이 2~3개월 소요되는 반면 중입자 가속기는 치료기간을 2~3주로 크게 단축할 수 있다.<br/><br/>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는 현재 일본, 독일, 중국, 이탈리아에서 총 8개만 운영되고 있다.<br/><br/>기장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중입자치료센터와 함께 2016년과 2018년 각각 완공 예정인 수출용 신형 연구로와 방사성 동위원소융합연구원이 들어서면 명실상부한 의ㆍ과학 융합산업의 메카가 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br/><br/>강성명기자 smkang@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53.txt

제목: [채널 선택 1월 10일] 하나뿐인 지구·별이 빛나는 카페  
날짜: 20140109  
기자: 강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09100000233  
본문: 패스트 패션에 담긴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 하나뿐인 지구(EBS 오후 8.50)<br/><br/>유행에 따라 제작돼 소비자의 손에 빠르게 전달되는 '패스트패션'. 제조·유통일괄형(SPA) 매장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값싼 옷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20대 나이의 젊은이가 1년 동안 구입한 옷은 평균 78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약 7만2,000톤의 의류가 폐기된다. 무게 1㎏짜리 청바지 6,405만장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렇게 많이 사고 쉽게 버리는 의류를 만드는데 여러 사람의 땀과 희생이 필요하다.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들은 글로벌 SPA 브랜드가 발주한 엄청난 물량과 짧은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너져 가는 건물 안에서 단돈 260원의 시급을 받으며 쉴 새 없이 일한다. <br/><br/>농구스타 박찬숙씨의 선수 시절 뒷이야기■ 별이 빛나는 카페(MBC퀸 밤 12.00)<br/><br/>가수 임백천이 진행하는 음악 토크쇼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당시 은메달리스트였던 농구스타 박찬숙씨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그는 화려했던 선수 시절의 뒷이야기를 말하면서 사별한 남편에 대해서도 털어놓는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년도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해 견디기 힘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린다. 암 투병을 하던 남편이 떠난 뒤 방황했지만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던 속사정도 들려준다. '사라진 스타 왜!' 코너에서는 가수 김추자가 화려한 연예계 생활을 접고 대중 앞에서 사라진 사연을 들려준다. '그땐 그랬지' 코너는 1984년 당시 추억의 건전가요 이야기를 풀어본다.<br/><br/><br/><br/>강은영기자 kiss@hk.co.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54.txt

제목: [건강]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건강검진 특별 우대 이벤트 실시  
날짜: 20140108  
기자: 정용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08100000097  
본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 오는 3월 31일까지 새해맞이 건강검진 특별 우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br/><br/>특별 우대 이벤트의 점진항목으로는 스페셜 효 검진, 스마트 검진, 암 정밀 검진, 뇌 건강ㆍ심장건강 특화검진 등이 있다. ‘스페셜 효 검진’은 저선량 흉부 CT, 경독맥 도플러 초음파, 동맥경화도, 심전도, 종합혈액, 소변 검사가 포함돼 있다. ‘스마트 검진’은 신체계측과 혈압, 종합 혈액검사와 상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등이 포함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검사가 가능하다. ‘뇌 건강ㆍ심장건강 특화검진’은 뇌 MRI, 뇌혈관 조영 MRA, 경두개 뇌혈류초음파,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심장초음파, 운동부하 심전도, 동맥경화도 검사 등이 포함돼 있다. 뇌졸중과 뇌종양, 치매,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진단에 도움이 된다. 폐암, 갑상선암, 위암 등 각종 암의 가족력, 흡연자, 간접흡연 노출자 등은 ‘암 정밀 검진’을 고려해 볼만 하다. <br/><br/>서남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위ㆍ대장 내시경을 비롯해 이화여대 교수진을 비롯한 전문 의료진이 직접 검사를 시행해 검진결과의 정확도 면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으며 임상최고의 사양 장비로 검사 받을 수 있다.<br/><br/>서남병원 건강증진센터장 정혜경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건강에 대해 막연하게 걱정만 하지 말고 생활패턴과 가족력, 나이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br/><br/>서남병원 건강검진 특별 우대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건강증진센터 (02) 6300-7700~1로 하면 된다.<br/><br/>정용운기자<br/><br/><br/><br/>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55.txt

제목: [심봉석의 메디토리/1월 6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학적 담론  
날짜: 20140105  
기자: 심봉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05100000096  
본문: 고사성어인 '귤화위지'(橘化爲枳)는 기후와 풍토가 달라지면 귤도 탱자가 되듯이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가 있다. 건강도 마찬가지로 질환의 발생에는 유전, 환경 그리고 생활습관 요인이 작용하는데, 주로 생태계 환경과 식이습관을 비롯한 생활형태가 영향을 미친다. 암의 발생에 있어서도 유전적 원인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인은 서구인에 비해 유방암이나 대장암,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낮은데, 서구로 이주한 한국인 1.5 혹은 2세대들은 식습관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서구인과 비슷한 발병률을 가지게 된다. 한국인의 건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달라진 환경과 문화적 생태계의 영향을 받아 질병 감수성이 바뀌게 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생활환경도 서구화되면서 서구형 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등 질병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 혹은 생활습관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은 원인이 다양하고 발생까지의 기간이 길며 시점이 불분명하여 그 요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힘들다.<br/>다문화가정은 한민족과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2000년대 들어 타민족과의 결혼 빈도가 높아지고 혼혈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제정된 새로운 용어이다. 다문화가정은 2013년 현재 75만명 정도이며 2020년에는 1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은 전에는 중국계 여성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 수는 19만명을 넘어서서, 5년 전인 2008년의 5만여 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재학 중인 자녀는 5만여 명이고 아직은 초등학생이 70%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의 증가가 두드러져 2020년엔 국내 청소년의 20%가 다문화가정 출신으로 전망된다.<br/>하지만 아직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 언어 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이들은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우선은 다문화가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서 및 문화적 융화가 필요하겠지만, 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역시 시급한 문제이다. 대부분 가임기인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은 자녀출산 및 양육으로 연결돼 우리나라 인구의 양적 질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자라서 성인이 되면 국방, 납세 등 대한민국 국민의 역할을 할 미래의 인적 자원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은 개인이 가진 유전적 특성과 생활환경의 영향과 함께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건강과 질병은 이러한 모든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하다.<br/>정혜원 이화의대 교수가 지난 8년간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시행한 질병관리본부의 국내이주자 코호트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건강상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혈 유병률과 기생충 감염률, B형간염 위험률이 높으며, 간 질환, 고지혈증의 위험도가 높다고 한다. 빈혈은 동남아시아 출신들에게 많은데, 임신부의 빈혈은 모성 사망률을 높이고 저체중아, 미숙아, 영아사망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위험도가 높고, 식생활에 있어서도 같은 거주지역의 한국인 여성들보다 영양소 평균 섭취량이 낮았다. 다행히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주여성의 나이가 증가하고 자녀의 성장, 남편의 고령화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건강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br/>현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별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단회성 검진이나 진료 차원이 많다. 앞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이들이 처한 의학적 상황에 대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br/><br/>심봉석 이화의대 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 <br/> <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56.txt

제목: [Cover Story] 현장 르포… 구로 인력시장 조선족의 새해  
날짜: 20140104  
기자: 정지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04100000011  
본문: ● 조선족이라 차별받는다한국 노동자들에게도 천대… 건설 현장선 대부분 월급 떼여일당 받는 인력시장으로 와 구급차 실려가도 치료비 못 받아● 조선족이라 자랑스럽다일제에 저항, 한국 문화 보존… 교육 수준도 높고 청결한 민족한국인들은 그 자부심을 몰라● 갑오년의 소원은…"그런 거는 별로 없어 그냥 떳떳하게 일 했으면"가족 위해 오늘도 새벽 버스에<br/>24일 새벽 4시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삼거리. 간판 네온사인마저 꺼져 어두운 거리를 흐릿한 커피 자판기 혼자 밝히고 있었다. "부아아앙" 적막을 깨고 버스 한 대가 자판기 앞 정류장에 섰다. 대림-석수역을 오가는 5618번 지선버스. 새벽 3시40분에 출발한 첫 차다. 남자들이 버스에서 내렸다. 모두 짧게 깎은 머리에 두툼한 점퍼와 장갑으로 '중무장'했다. 구로 새벽 인력시장은 그렇게 열렸다. <br/>남왕수(54) 씨가 커피 자판기로 향했다. 어디서 왔냐고 묻자 연변 억양으로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하얼빈!"이라고 대답했다. 구로동 보증금 50만원 월세 28만원의 4평 쪽방에 사는 그는 조선족(중국 동포)이다. 철컹 하는 소리와 함께 내려 놓은 가방에는 안전화와 안전모 망치 따위의 공구가 들어 있다고 했다. 왜 한국에 오셨냐는 뻔한 질문에 그는 사람 좋게 웃었다. "돈 벌러 왔다. 돈.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 아니냐. 하얼빈에서 30마지기(약 900평) 논농사를 지었다. 월 1,000위안(약 17만원)쯤 벌었다. 환율 차이가 줄어들긴 했지만, 월 150만원을 벌면 중국에서 회사 다니는 것 보다 두 배 이상 많다." <br/>법무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체류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은 44만 7,877명. 통계청이 가장 최근(2010) 발표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조선족 남성의 56%가 단순 노무에 종사한다. 서울에서 가장 큰 인력시장인 남구로 인력시장의 주력도 조선족이다. 태영인력사무소 박용문(37) 대표는 "서울 경기지역 건설인력 60~70%가 조선족 노동자"라며 "그들이 없으면 건설현장이 안 돌아간다"고 단언했다.<br/>"돈 벌러 왔다" <br/>새벽 4시20분 태영인력사무소 3층 철문 앞은 벌써 20여 명의 조선족 인부들로 붐볐다. 직원이 문을 열자 우르르 들어가 책상 위에 신분증과 외국인 등록증을 꺼내 놓는다. 쪽지에 이름만 써서 건네는 이들도 있다. H2비자(취업비자)가 없는 사람들이다.<br/>소개소는 그날그날 현장의 인력 주문에 따라 인부들을 안배해 '인력 송출표'를 작성한다. 원칙은 선착순이지만 실제로는 사무소와 친밀한 오야지(팀장)에게 우선 순위가 돌아간다. 솜씨 좋고 부지런한 인부 10~12명을 거느린 오야지를 확보해야 성수기 비수기를 막론하고 안정적으로 노동자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일 노동 당일 임금이 원칙. 수원 인천 등 장거리는 현장에서 보낸 봉고차를 타고 가고 서울 지역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한다. 임금은 잡부(자재정리) 6만~9만원 목수(형틀 제작) 11만원 선이다. 거기서 10%는 인력 소개소, 10%는 오야지 몫이다. 건설 비수기인 겨울에는 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박 소장은 "여름 성수기 인력시장 규모는 1,500명에 달하지만 겨울에는 30% 수준으로 줄어 아예 여기 안 나오는 인부들도 많다"며 "여름에 하루 280명까지 보내봤는데 지금은 12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br/>남왕수 씨는 폐 건축자재를 치우거나 철근 등을 정리하는 잡부다. "오후부턴 다리가 후들거린다. 조금 쉴라 치면 게으르다고 욕설이 날아 든다. 니야까(밀차) 데꾸(못 빼기)등 현장 용어도 어렵다. 일당 받고 셋방으로 돌아오면 밤 9시. 라면 끓여먹고 곧장 곯아 떨어진다. 또 그래야 다음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자리를 못 구한 남 씨는 "다른 데도 알아봐야겠다"며 자리를 떴다. 일대에는 약 200여 곳의 인력사무소가 있다. <br/>거리에는 구로구 자원봉사자들이 설치한 2m높이의 가스난로 2개가 시뻘건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거기 불나방처럼 붙어선 이들만도 줄잡아 200여 명이다. 대부분 남씨처럼 허탕친 이들. 좀 적게 벌어도 월급 주는 일자리가 낫지 않을까. 남씨는 "정기로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2개월치 월급을 떼였다. 월급 받으려면 경찰서 노동부 가고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그럴 돈도 시간도 없다. 조선족 중에 월급 안 떼여본 사람 없다. 그래서 대부분 일당 받는 새벽 인력시장에 온다"고 말했다. <br/>한두 사람씩 우리의 대화에 끼어 들었다. 지린성(吉林省) 창춘(長春)에서 왔다는 최모(51)씨는 "한국 정부가 한국에 5년 이상 머문 조선족에겐 재외국민동포(F4)비자를 주는데, 그 비자론 단순 노무(노가다)일은 못 한다. 일본이나 미국 동포는 F4비자로 단순 노무도 할 수 있는데 조선족만 차별한다"고 말했다. 랴오닝성(遼寧省) 선양(沈陽)에서 왔다는 손모(47)씨는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냐. 단순노무 하지 말라는 건 일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말했다.<br/>'조선족'은 자부심이 깃든 단어다<br/>인력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 남구로역 5번 출구 앞은 한국인 공간이고, 조선족 영역은 거리 위쪽 하나은행 주변이다. 그래서 5번 출구 앞에 있는 '희망식당 빨간밥차'에 조선족이 다가가려면 배짱이 필요하다. 서울 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하는 빨간밥차는 주중 오전 4시30분부터 6시 15분까지 새벽 노동자와 노숙인을 위해 식사를 제공한다. 이미 밥차 주변에는 2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김치찌개 냄새를 맡으며 모여 서 있었다. 조선족 최모씨는 "이 길이 두만강이다. 이 쪽은 중국 땅 저 쪽은 한국 땅"이라고 말했다. 빨간 밥차의 최승아 사회복지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선족이 오면 무시하고 괴롭히는 한국인들이 있다. 그래서 조선족들이 잘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br/>손모 씨는 "한번은 일 끝나고 삼겹살 회식을 하는데 한국인 반장이 '이런 거 먹어 봤냐'고 하더라. 중국에선 더 거하게 차려 먹는데 우스웠지만 참았다. 더운 여름 노가다판에서 무더위에 쓰러지거나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람도 봤다. 그렇게 사고가 나도 치료비 제대로 못 받는다. 천대받는 게 너무 많다"고 말했다. "솔직히, 그런 것들 보다, 길거리에서 한국인들이 '조선족'이라고 숙덕이는 게 제일 싫다. 한 핏줄 아닌가? " <br/>6만 회원을 가진 국내 최대 조선족 인터넷 커뮤니티 '중국조선족대모임' 허을진(47) 대표는 "조선족은 일제에 저항하고 한국 문화를 지켜온 민족이다. 소수민족 가운데서 교육수준도 높고 청결하다. 한국 사람들은 조선족들이 지켜온 자부심을 모른다"고 말했다. <br/>전날 밤 11시까지 택배 분리작업을 한 이태균(41)씨는 5시간 일하고 3만5,000원을 벌었다.이씨는 택배회사나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한다. 이 씨의 할아버지는 경남 합천에서 3.1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이계엽(李啓燁)씨다. 출소 후에도 중국 북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사망했고, 유해는 2006년 대전 국립묘지에 안치됐다. 하얼빈에서 살던 이 씨도 그때 한국으로 들어와 귀화했다.<br/>-한국엔 왜 왔나요?<br/>"할아버지도 한국 사람. 아버지도 한국 사람. 나도 한국 사람. 조국이라 왔다." <br/>-야속할 때 많겠네요?<br/>"어쩔 수 없지 않은가. 중국에서 농사를 짓던 조선족과 지금 한국인들 사이에 20년 정도 문화적 차이가 난다. 세대가 넘어가기 전까지, 내 자식이 장성해서 한국에서 대학 나와 인정받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이 내게 붙인 '조선족'이라는 딱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br/>"아빠 언제 옵니까?"<br/>"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무~웃힌 바~암"<br/>24일 오후 8시 구로구 가리봉동 중국동포교회 7층에서 성탄 예배가 열렸다. 하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깔끔히 차려 입은 지구촌 학교(다문화 대안 초등학교) 여덟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200평 예배실을 채웠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 그를 부축하는 청년, 분홍색 가방을 멘 어린 소녀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br/>허을진 대표는 "가장 사람이 많은 단체도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200여 명 모이는데 그친다"고 말했다. 허 대표 말처럼, 국내 조선족 인구가 50만 명에 달하지만 조선족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없다. 대다수가 간병인, 보모, 단순노무 등 불안정한 일을 하고 거주지도 자주 옮겨 다닌다. 많은 이들이 사업장 임금 체불과 인권유린에 시달리지만 하소연 할 곳도 거의 없다.<br/>그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자리를 내준 게 교회다. 가리봉동 주변에만 한중사랑교회, 중국동포교회, 서울조선족교회 등 조선족 대형 교회가 있어, 종교를 넘어 사회적 법률적 '지원센터' 역할을 한다. 중국동포교회는 노동자 운동에 투신한 김해성(52) 목사가 1996년 설립했고, 지구촌사랑나눔센터를 만들어 다문화 주민 법률 상담, 쉼터 제공, 의료 지원과 보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br/>"환잉, 콰이 진 라이 바.(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2003년부터 교회에 다녔다는 조선족 권모(61) 집사는 예배실 앞에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권씨는 "임금 체불 문제로 고민하다 교회에서 도움을 받은 뒤 '나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계속 다니게 됐다"고 말했다. <br/>"세 살짜리 막내를 중국에 두고 2005년 한국에 왔어요. 전화하면 '아빠 언제 옵니까?'하고 매번 울던 그 아이가 벌써 저렇게 컸네요."이용해(48)씨가 아이들의 공연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말했다. 재작년 한국에 데려올 때만 해도 낯 가리는 울보였던 희동(13) 군은 이날 무대 위에 서서 씩씩하게 예배찬양공연을 펼쳤다. 이씨는 건설 현장 외벽에 매달려 창문 새시를 설치하는 일을 한다. 매달려본 가장 높은 곳은 33층이라고 했다. "줄 하나에 매달려 있으면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 휘청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정말 아찔하죠. 위험하지 않냐구요? 안 위험한 게 어디 있나요? 그런 거 가리면 일 못합니다."부모님과 여동생, 아내와 막내아들 모두 한국에 와 있다는 그는 "큰 아들도 1월 19일 입국해요. 10년 만에 전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거죠. 방 3개짜리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게 꿈입니다."어느덧 공연을 끝내고 온 희동군이 쪼르르 달려와 그에게 안겼다. <br/>"가족이 누군지 모른다" <br/>김해성 목사는 "한국 사람들은 중국 동포들이 처한 현실에 잔인할 정도로 무관심하다"고, "조선족이 일으킨 범죄는 선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조선족이 처한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한동포연합총회 김숙자(58) 회장도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착금과 세금 혜택, 문화센터 건립하면서 조선족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정책도 없다"고 말했다. <br/>차남진(가명ㆍ61)씨는 연길(延吉) 에서 한국 방송을 보며 한국에 오는 꿈을 키웠다. 차씨의 부모는 일제때 연길로 강제 이주됐다. 차씨는 "중국에서 남한 방송은 금지됐지만 마을 주민들은 수상기를 개조해 남한 방송을 들었다"고 웃었다. 29일 일요일 가리봉동 한 교회 쉼터에서 만난 차씨는 쉼터의 '최장기' 주민. 11명이 함께 사는 18평 쉼터를 그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떠나는 적이 없다. 그의 짐은 트렁크 속 옷가지 몇 벌이 전부. 주민등록증도 외국인등록증도 없는 그는 불법 체류자다. "한국인 브로커는 취업 비자와 체류 자격을 조건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어요. 돈을 빌려 비용을 지불하고 받은 비자는,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15일짜리 단기 비자였죠." 설상가상 그는 천안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리어카에 깔려 왼쪽 고관절이 산산조각 났다. 의료보험도, 산재혜택도 없는 그에게 함께 일하던 한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빌려줬고, 그 덕에 치료를 받고 인공 고관절을 삽입했다. 회사의 보상은 병원비 650만원이 다였다.<br/>조선족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차씨 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측은 합의를 종용할 때가 많고, 특히 당장 치료비가 아쉬운 조선족 노동자에게 장시간 걸리는 산재 혜택은 그림의 떡이다. <br/>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평균 8만1,120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월 200만원 소득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5만8,900원보다 비싸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윤혜숙씨의 2010년 논문에 따르면 실제 지역의보에 가입한 조선족은 30% 남짓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조기치료를 못 받아 병을 키우는 예가 흔하지만 실태조차 조사된 게 없다.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는 "조선족 노동자는 대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암이나 당뇨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br/>덤덤히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던 차씨는 가족얘기가 나오자 눈물을 보였다. <br/>-언제 가족 생각하세요? <br/>"매일. 어머니 장례식도, 아들 결혼식도, 손녀 얼굴도 못 봤다. 심지어 내 가족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바보가 됐다. 지난달 교회에서 쉼터민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했다. '식구'가 어떻게 되냐기에 아내와 아들을 말했다. '아들은 미혼인가요?'라는 질문을 듣고 그제서야 며느리와 손녀가 있다는 생각이 났다. 내 가족이 누군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다." <br/>-새해 소망은 무엇입니까? <br/>"한국 와서 폐인이 됐다. 아들이 빚은 대부분 갚아줬지만 돌아갈 면목이 없다. 산재 보상도 필요 없고 사기 구제도 괜찮다. 동포라고 지원해 달라고 손 벌리지도 않는다. 그냥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내 나이 60이지만 아직 건장하다. 돈 벌면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br/>"새해에 봅시다" <br/>31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조선족 시장 '중국식품점' 앞. 사람들의 "와"하는 탄성이터져 나왔다. 최동훈(37)씨와 이창식(62)씨의 장기 대결이 한창이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을 못 구한 조선족 노동자들은 더러 중국식품 앞에 모여 장기를 둔다. 이 씨는 "중국식품점에 장기판을 맡기고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인다"며 "구로구청 앞 구로어린이공원이나 남부순환도로 시흥나들목 녹지에서도 장기를 둔다. 젊은 조선족들은 PC방, 장년들은 노래방 마작 장기가 주요 흥취(취미)다"라고 말했다. <br/>2005년 한국으로 건너온 이씨는 12살 때 문화대혁명을 겪어 학업을 중단했다. 그는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일은 열심히 해서 한국에서 제법 돈 모았다. 안 해 본 일이 없다. 인천 대구 안산 등지에서 마사지사, 배즙 회사 직원, 버스 운전사도 했다."새해 소원을 묻자 그는 "그런 거 없다. 그냥 손녀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손녀 이름은 뭔가요?<br/>"뜻지(旨), 돈원(元). 지원이다. 내가 지은 이름이다. 나는 돈에 쪼들리며 살았지만 손녀는 양껏 벌고 태양 아래 당당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라면 소원이다." 이 씨는 1월 2일에도 새벽 인력시장에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돈 벌러. 가족을 위해서.<br/>정지용 기자 cdragon25@hk.co.kr<br/> <br/>▶▶▶ 관련기사 ◀◀◀<br/>▶ "경찰이 시도 때도 없이…" 탈북녀의 토로<br/>▶ 탈북 여배우 주순영 "누드 화보 찍은 이유는…"<br/>▶ 모텔서 성매매하다가… 탈북女의 비극<br/>▶ 탈북녀 "北에서 성형하고 南에 와보니…"<br/>▶ 미혼 男, '결혼 상대'외국인보다는 탈북녀?<br/>▶ 탈북女 김아라, 출중한 미모와 몸매에 네티즌 ‘와’<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57.txt

제목: 숨이 가쁘다… 낮고 응달진 곳, 가족이라는 끈  
날짜: 20140103  
기자: 박선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03100000133  
본문: 소설가 김숨(40)의 행보는 숨가쁘다. 가장 부지런히 소설을 쓰는 젊은 작가들의 명단을 작성한다면 그의 이름은 가나다 순이 아니어도 가장 앞머리에 올라야 응당하다.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후 첫 소설집 이 나온 게 7년 만인 2005년. 그 후 8년간 맹렬한 기세로 그는 무려 여섯 편의 장편소설과 세 권의 소설집을 세상에 내놨다. 도식적으로 계산하자면, 1년에 1.25권을 내는-그것도 소설만-왕성한 생산력이다. 문학상이 성취의 유일한 잣대는 아니지만, 지난해에는 단편 '그 밤의 경숙'으로 현대문학상을, 장편 로 대산문학상을 받으며 결실도 맺고 있다. 그 또한 숨가쁘게. <br/>는 2010년과 2011년 쓴 아홉 편의 단편을 묶은 그의 네 번째 소설집이다. 이 사회의 가장 외지고 추운 곳, 늙고 외로운 이들로 향하는 시선은 여전하다. 강직한 리얼리즘. 서기 2014년의 리얼리스트에게 요는 리얼리즘이라기보다 강직함일 것이다. 차분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넌더리 나는 이곳의 응달을 집요하게 들춰내는 강직함이야말로 김숨 스타일의 '시그니처'다. <br/>이번 소설집에 실린 단편들은 한 편을 빼고는 모두 가족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가족들은 대개 도시 중산층 가정의 구성원이 아니다. 실업과 실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도 아니다.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자식으로부터 버림 받은 독거노인이거나 자식들에게 피를 빨리느라 죽음의 날까지 노동을 멈출 수 없는 계급 사다리 가장 밑바닥의 노인들이다. 가혹한 독서의 과정을 통해 독자는 가족이란 착취의 제도일 뿐이라는 절망과 맞닥뜨리게 되지만, 다행한 건 삶이란 게 퍽이나 길어서 착취와 피착취의 구도는 어쩔 수 없이 재편성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br/>작품 대부분은 자동차 안에서 서사가 진행된다. 그 자체로는 고립되고 밀폐된 공간이지만 이동수단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파편화한 가족들을 이어주는 일종의 끈 같은 서사장치인 셈이다. '막차'의 주인공은 시골마을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근근이 먹고 사는 노부부. 암 투병 중인 며느리가 오늘밤을 넘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고속버스 막차에 올라탔다. 시어머니는 뻣뻣한 성격의 며느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내내 흉만 보면서도 어쩐지 그 병이 '내 탓'인 것만 같아 막연한 죄책감이 든다. <br/>응급차에 구순 노모의 시신을 모시고 선산이 있는 옥천으로 내려가는 늙은 딸은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켰던 일이 끝내 사무치고('옥천 가는 날'), 40년 가까이 처자식을 버리고 외지 생활을 해온 굴삭기 기사는 구제역으로 살처분할 돼지 구덩이를 파면서 아버지를 증오하는 아들의 끈질긴 요구에 마침내 굴복하고자 한다('구덩이'). <br/>운전 중 난폭한 퀵서비스 기사와 시비가 붙어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고의적 인명사고를 내고 한밤의 도로를 질주하게 된 자동차 영업사원 남편과 휴대전화 콜센터 직원 아내의 이야기('그 밤의 경숙')와 전원주택 자리를 찾기 위해 강화도의 한 부동산에 들렀다가 위협적인 중개사에게 끌려 석모도 산 속에 버려지는 도시의 늙은 부부 이야기('명당을 찾아서')는 신경줄이 팽팽해지다 못해 끊어져버릴 것만 같은 김숨 특유의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하다. 돈과 숫자로 명쾌하게 환원되는 인간들은 가족이라는 친밀성의 제도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그침을 당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을 뿐이다. <br/>표제작 '국수'는 탈진한 독자를 위로하기 위해 작가가 차려낸 한 끼 식사 같은 소설이다. 말기암을 앓는 의붓어머니와 애증으로 심사가 복잡한 의붓딸 사이의 감정을 국수의 조리과정을 통해 풀어놓은 작품이다. "자식이 끈이더라는 말을 친구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혹 당신이 뽑아낸 국숫발들은 끈이 아니었을까요. 당신은 자식이란 끈 대신 밀가루로 반죽을 개어 끈들을 만들어냈던 게 아닐까요." 친모에게 버림받은 딸의 응어리와 불모의 몸으로 남의 자식 넷을 키워내며 한 많은 일생을 산 의붓어머니의 응어리가 끝내 뜨거운 국숫발로 풀어질 때, 국수는 다른 누구도 아닌 엄마(만)의 음식이 된다. <br/><br/>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br/> <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58.txt

제목: [문화산책/1월 4일] 노닐다 던지다 받아들이다  
날짜: 20140103  
기자: 김탁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03100000141  
본문: 삶이 힘들 때 주문처럼 외우는 문장이 혹시 있는가. 올해부터 나는 세 가지 동사에 기대어 삶이란 여행을 이어가려 한다. <br/>이란 책이 있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12권 12책의 기행 시문집이다. 산과 강과 바다와 섬을, 문장을 따라 어루만지는 재미가 각별하다. 고려의 도읍지 개성을 배경으로 장편소설을 지을 때 이 책을 만났다. 옛길과 마을 풍경을 확인하는 것은 뒷전이었고 곧 새로운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다채로운 문장을 때론 말처럼 때론 배처럼 타고, 가보지 않은 곳을 상상하며 노닐었다. 내 소설의 독자들에게도 누워서 노니는 기쁨을 선물하고 싶었다.<br/>이 추억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자신도 '와유록'을 쓰겠다고 나선 이가 있었다.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고 이성규 감독이다. 그때 벌써 암 투병 중인 이 감독은 바깥출입이 어려워 병상에서 책을 읽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2013년 11월 5일, 그는 이렇게 적었다.<br/>"간암 4기인 다큐멘터리스트는 삶의 끝자락 즈음 죽음과 마주한 채, 지금까지 세상과 사람에게로 여행한 것들의 시선과 느낌을 정리한다. 누워 있음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낳지만, 사실적 상상력을 무한대로 펼칠 수 있기도 하다. SNS를 통한 소통은 그걸 가능케 한다."<br/>그리고 그는 12월 13일 임종할 때까지 와유의 기록을 띄엄띄엄 적어나갔다. 나는 그가 글을 올릴 때마다 거듭 읽고 밑줄을 그었다. 뜨겁고 짙은 문장이 많았다. 오래 길 위를 떠돈 영혼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인도 바라나시 갠지스 강 위의 꽃잎처럼 유유히 흐른다. 구체적인 시공간의 경험을 정확히 짚어 설명하면서, 또한 그 풍경을 지나온 지금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본다. 문득 묻고 스스로 답한다. "그런데 그걸 아는가, 여행과 와병의 공통점을? 여행과 와병 모두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한다는 것."<br/>늦가을에 이성규 감독의 극영화 를 보았다. 내겐 이 작품이 한 예술가의 고요하면서도 치열한 중간 결산으로 느껴졌다. 질주하다가 잠깐 걸음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가를 되살피는 이야기.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해 무게중심을 뒷다리로 옮긴 벵골호랑이를 닮은 영화였다. 인생을 던진다는 것, 최대한 밀착하여 인도의 모든 것을 꼼꼼히 담으려는 바람으로 들끓던 시절들. 영화는 열망으로 가득 찬 다큐멘터리 피디 병태를 따라간다. 이성규 감독은 카메라 뒤에 서서 젊은 날의 초상을 만들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br/>"가까이서 본다고 더 잘 보이는 건 아니더라."는 마지막 대사는 의미심장하다. 여전히 이 일에 인생을 던지겠지만, 방식의 변화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논픽션에서 픽션까지, 여행자이자 예술가이자 구도자의 안과 밖을 아우르는 영화가 싹을 틔우고 있었다.<br/>그 날 나는 제안했다. 이성규 감독이 자신만의 '와유록'을 완성한다면, 내가 감히 발문을 쓰겠노라고. 그는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약속은 지켜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한다. 인생에선 흔한 일이다. 그러나 어떤 약속을 미완의 형태로 미루고 싶을 때는 이유를 밝혀둘 법도 하다. <br/>노닐며 던지고 받아들이려 한 삶의 순간들은 이제 이성규 감독에게서 우리의 나날로 옮겨왔다. 한 달 남짓 그가 적은 문장으론 책을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작업해온 이들과 또 그의 삶에 감동한 이들이, 와유의 기록을 좋아하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며 각자의 삶으로 잇는다면 언젠가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지 않을까. 그때도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감독이 '와유록'을 쓰고자 했던 숫눈 같은 첫 마음을 인용하며, 서툰 고마움을 보태고 싶다.<br/>"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프리모 레비는 이렇게 썼다. '인생에서 목적을 가지는 것은, 죽음에 대한 최선의 방어이다.' 지금의 내게 목적을 가지는 건, 내 상황을 팔아서라도 나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앞에 직면한 죽음과의 투쟁이다. 공격적이지 않은 최선의 방어로서 말이다."<br/><br/>김탁환 소설가 <br/> <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59.txt

제목: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로 고액 암 치료비 보장 확인  
날짜: 20140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0210013122284  
본문: 의학기술이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암 환자의 발병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연령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걸리는 암이라 생각했지만 현대인들의 불규칙적인 생활 식습관과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음주와 흡연, 환경오염 등에 의해 발병 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요즘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암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br/><br/><br/><br/>발병률 증가와 사망률이 크게 다가오는 만큼 경제적 위협을 주는 치료 비용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암 보험 상품은 치료비용과 더불어 생활비용까지 도움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 큰 부담을 덜어 주기 때문에 남성·여성 구분 없이 가입자가 늘고 있다.<br/><br/><br/><br/>젊은 층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가입 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스마트한 금융소비자들이 인터넷 암 보험 비교사이트를 통해 상품 추천 정보와 암 보험 가입요령과 비교를 쉽게 얻을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암 보험 상품 가입 시 알아둘만한 주의사항을 알아보자.<br/><br/><br/><br/>저럼한 보험료를 원한다면 비갱신형으로<br/><br/><br/><br/>보험료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40~50대 라면 갱신형이 보다 저렴하고, 젊은 연령이라면 가입 시 적용된 보험료가 그대로 만기까지 이어지는 비갱신형이 유리하다. 누적보험료를 계산하면 장기적인 면에서 저렴하다.<br/><br/><br/><br/>암 진단금과 보장기간 반드시 확인<br/><br/><br/><br/>진단금은 암 확정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수술과 치료비, 당시의 경제적인 부분을 대신해준다. 진단금은 암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고액 암 일수록 높은 진단금이 유리하다. 일반암은 대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진단금 비교는 반드시 필요하다<br/><br/><br/><br/>보장기간도 80세부터 110세까지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긴 상품이 좋다<br/><br/><br/><br/>판매율이 아무리 높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가입조건에 따라 설계가 달라진다. 순수보장형, 일부만기환급형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진다. 발병률이 높아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 유방암이나 자궁암, 전립샘 암 등은 소액 또는 지급이 없는 상품도 있다.<br/><br/><br/><br/>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상품 비교는 필수다. 가입자의 나이, 병력, 가족력 등의 조건에 따라 보장금액,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가입 순위 및 가격 비교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br/><br/><br/><br/>최근 암 보험 비교추천사이트(http://cancer-bohum114.com)에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실시간 보험료 계산도 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AIA생명,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등 암 보험 상품 가입순위에 따른 비교분석도 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포춘코리아 온라인뉴스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60.txt

제목: 새해에 갖고 싶은 10가지 좋은 습관 1위  
날짜: 20140102  
기자: 한국아이닷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02100000040  
본문: 눈동자를 5분 동안 상하좌우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눈운동.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는 대단하다. 이 때문에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눈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한다. 실제 눈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꼭 갖고 싶은 10가지 좋은 습관 중 하나로 꼽힌다. <br/> <br/>눈운동을 하면 눈의 피로가 풀리고, 원근조절 능력이 좋아진다. 우리 눈은 수정체 주위의 섬모체근과 진대라는 근육이 수정체의 움직임에 맞춰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br/><br/>따라서 섬모체근을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눈의 피로가 풀리고 시력이 좋아진다. 매일 눈운동을 한 아이들이 시력이 좋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초중고 교사들이 실험 후 쓴 논문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br/><br/>눈운동이 창의력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미국 리처드스톡턴대학 연구팀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30초간 눈운동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훨씬 많이 냈다. 이 실험결과는 미국 뉴스위크에 자세히 보도된 바 있다. <br/><br/>암기력을 높이는 데도 눈운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1년 MBC가 방영한 ‘뇌를 깨우는 101가지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눈운동을 한후 암기력을 테스트한 결과 대학생은 24%, 초등학생은 21.4%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br/><br/>또한 눈운동은 정신 장애를 치료하는 EMDR이라는 요법에 활용된다. 의료기관의 실험결과 EMDR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줄여준다. EMDR은 2004년에 식약처에서 정식 치료법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br/><br/>눈운동이 눈 뿐만 아니라 두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눈과 뇌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눈운동하면 눈의 시신경이 전두엽을 활성화해 소뇌를 자극한다. <br/><br/>이에 전문가들은 자녀가 창의력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평소 눈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br/><br/>눈운동의 효과는 대단하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확한 운동법을 모르고 운동과정이 몹시 지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눈운동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운동 보조기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br/><br/>대표적인 제품이 ‘아이비케어’다. 응용광학 전문가, IT 설계전문가, 한의사가 3년 동안 공동으로 개발한 이 제품은 눈운동을 비롯해 눈 주위 마사지, 사운드테라피, 힐링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헬스케어 제품이다.<br/><br/>단순한 운동기가 아니라 로봇에 가까운 제품으로서 특히 버튼만 누르면 기기가 알아서 작동하고, 무게가 가볍고 운동 프로그램이 다양해 아이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기술과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발명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획득했다. <br/> <br/>아이비케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자녀의 시력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와 눈 피로가 심한 직장인, 집중력o암기력이 필요한 수험생, 노안으로 고민하는 중장년과 노인들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span>”고 전했다.<br/> <br/>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ib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br/><br/>한국아이닷컴 이슬 기자 dew0514@hankooki.com<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2-1261.txt

제목: [건강] 자주 넘어지고 비틀거리면 ‘치매 초기’ 의심  
날짜: 20140101  
기자: 정용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101100000061  
본문: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옷차림이 두터워지고 몸 움직임도 위축돼 평상시보다 낙상 사고가 잦은 편이다. 특히 다리 힘과 관절 기능이 약해 균형감각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더욱 조심해야 된다. 낙상으로 인한 부상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br/>또한 예전보다 자주 넘어진다면 치매를 의심해봐야 한다. 잘 넘어지며 비틀거리는 증세를 단순히 근육의 힘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방치하기 쉽지만, 노인들의 잦은 낙상은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증상으로도 볼 수 있다. 뇌의 퇴화로 몸의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잘 넘어지며 비틀거리는 경우가 많다.<br/><br/>치매는 암, 뇌졸중, 심장병에 이어 4대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기질성 장애다. 주로 65세 이상 노년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구화된 생활습관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혈관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치매가 생기는 연령도 40~50대의 중년층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br/><br/>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가장 널리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이 50%를 차지하고,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등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가 20~30%를 차지한다.<br/><br/>치매는 기억력 감퇴는 물론 언어 능력, 이해력, 판단력, 사고력 같은 인지 기능에 다발성 장애가 생겨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특히 치매는 퇴행성 질환으로 점점 증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에 병원을 찾아 MRA나 MRI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br/><br/>구로튼튼병원 뇌신경센터 한도훈 원장은 “60세 이상 환자들은 나이가 들어 그렇겠지 무시하다가 더 큰 질환으로 악화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치매의 초기 증상이 기억력 감퇴뿐만 아니라 잘 넘어지고 균형을 잡지 못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주기적으로 뇌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br/><br/>정용운기자<br/><br/><br/><br/>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br/> <br/><br/><br/><b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